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발 간 사 _ 실수요자 시각의 인프라 연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18.6%를 차지하고 2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물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환경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예산 축소 때문입니다. 정부의 인프라 예산 축소는 인프라가 적정 스톡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낮다는 근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인프라 스톡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각, 양적·질적 인프라 현황, 투자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진단되어야 하지만, 중앙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인프라 관련 예산 등 정책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들이 현재의 인프라에 대해 정말 만족하는지, 얼마나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담았습니다. 또한, 인프라 재고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성능과 안전이라는 질적 측면의 분석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투자 상황이나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과연 적절한지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종합적인 관점의 인프라 진단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실수요자인 지역민의 시각으로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은 인프라를 삶의 질과 보다 맞닿아 있고 지역에 보다 밀착되어 있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해 온 과거 방식의 시각이 변화해야 하며, 중앙 주도의 획일적 투자 방식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top-down 방식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역에서부터 프로젝트의 논의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실현되면 지역민들이 느끼는 인프라 개선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발간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치적 시각이 아닌 지역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인프라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인프라 관련 예산 등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

발 간 사 _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높이는 연구 성과 기대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 주신 이상호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연구는 지역별 인프라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와 인프라 재원 확보 방안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전국 모든 지역의 각종 인프라 시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연구자문단 운영, 인프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정책화를 위한 활동 등으로 연구 결과가 한층 내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인프라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기여한 바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SOC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나듯, 최근 정부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인프라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시의 적절하고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예산의 축소는 그 영향이 비단 건설업계의 일감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 감소와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인식, 인프라의 노후화, 지역별 인프라 편차, 인프라 부족의 장기적인 영향 등을 세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이 연구 결과가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 예산과 관련되고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관심과 여력이 미치지 못하여 건설업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가 건설업계만의 사업으로 오해되거나 가치가 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운용에 연구 성과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건설업계는 풍부한 근거 자료와 정치한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당국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지역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일진월보(日進月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승준

소 개 글 _ 지역 인프라 실태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투자 필요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급감하는 SOC 예산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오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과 줄어드는 인프라 예산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 시각은 인프라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건설업계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복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이 아니라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프라에 대한 허상을 다양한 경로로 밝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복잡한 수치에 기반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실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절실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그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반 국민들이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와 눈높이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 연구는 바로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인프라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할 기회를 주신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님과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16개 시도별로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몇 차례에 걸쳐 연구진과 지역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완공위주 집중투자' 정책의 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의 인프라는 부족하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는 인프라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완공위주' 투자정책을 바꾸는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많은 참여자들과 협업을 통해 수행했다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이고, 건설협회 시도회, 지역 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지역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온 경험과 네트워크는 향후의 연구와 정책 활동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8,500명이 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보고서에 담은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 인프라의 성능과 안전도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인프라 정책과 투자 수준은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프라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인프라 정책과 투자는 삶의 질을 위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 연구는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프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원이 많더라도 인프라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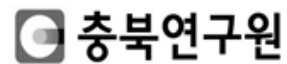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상호

발주기관 /



연구참여기관 /



후원기관 /





자 문 단 /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회장

조천희 (주)한양종합건설 대표

이동윤 (주)유광건설 대표

김연준 충청북도청 균형발전과과장

강종근 충청북도청 도로과 팀장

이 호 충청북도청 유기농산과 팀장

최광성 충청북도청 치수방재과 팀장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권태호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장경장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사무처장

참여연구진 /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

손태홍 연구위원

유위성 연구위원

박희대 부연구위원

이광표 부연구위원

최수영 부연구위원

충북연구원

원광희 수석연구위원

김덕준 연구위원

설영훈 연구위원

전가영 남부분원 전문연구원

홍세기 위촉연구원

※ 자문단의 직위는 자문회의 개최 시점의 직위임.

차 례

요 약(Executive Summary)	i
제1장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지역발전과 인프라	9
1. 충청북도 사회 및 경제 동향	9
(1) 인구	9
(2)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11
(3) 산업구조	12
(4) 고용	13
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14
(1) 경제 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14
(2)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필요성 [설문조사]	16
3. 삶의 질과 인프라	18
(1)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18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설문조사]	20
제3장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23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23
(1)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	23
(2) 국가별 장기 인프라 계획상의 질적 제고 방향	29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41
(1) 미국	41
(2) 프랑스	55
(3) 독일	62



(4) 영국	64
(5) 아일랜드 더블린	67
(6) 벨기에	69
(7) 일본	74
(8) 싱가포르	79
3. 요약 및 시사점	82
(1) 요약	82
(2) 시사점	83
제4장 충청북도 인프라 실태 분석	85
1. 일반 현황	85
2. 교통시설	92
(1) 도로	92
(2) 도로교량	98
(3) 철도	102
(4) 공항	104
3. 물관리시설	105
(1) 상수도	105
(2) 하수도	113
(3) 침수저감시설	118
(4) 하천	121
(5) 댐	123
(6) 수리시설(저수지 등)	125
4. 주거 및 교육시설	127
(1) 주거시설	127
(2) 도시재생	132
(3) 교육시설	135
5. 산업 및 경제시설	137
(1) 산업단지	137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140

6. 기타시설	142
(1) 문화시설	142
(2) 체육시설	145
7. 시사점	149
(1) 교통시설	149
(2) 물관리시설	150
(3) 주거 및 교육시설	153
(4) 산업 및 경제시설	154
(5) 기타시설	155
제5장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57
1. 일반 현황	157
2. 교통시설	163
(1) 도로	163
(2) 도로교량	169
(3) 철도	172
(4) 공항	175
3. 물관리시설	176
(1) 상수도	176
(2) 하수도	179
(3) 침수저감시설	182
(4) 하천	184
(5) 댐	188
(6) 수리시설(저수지 등)	190
4. 주거 및 교육시설	193
(1) 주거시설	193
(2) 도시재생	196
(3) 교육시설	199
5. 산업 및 경제시설	203
(1) 산업단지	203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7
6. 기타시설	212
(1) 문화시설	212
(2) 체육시설	215
 제6장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설문 분석]	219
1. 설문조사 개요	219
2. 설문 결과 분석	221
(1) 교통시설	221
(2) 물관리시설	224
(3) 주거 및 교육시설	228
(4) 산업 및 경제시설	231
(5) 기타시설	234
(6) 기타설문 결과	236
3. 시사점	239
 제7장 충청북도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와 정책과제	243
1. 충북 인프라 투자방향	243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46
(1) 신규 인프라 투자 사업	246
(2) 노후 인프라 투자 사업	258
3. 총괄 집계	267
 제8장 정책제언 및 시사점	269
1. 자원조달	269
(1) 국가 재정 지원 확대	269
(2) 특별회계 기금 설치	270
2. 제도개선	273
(1) 지역업체 참여 확대	273
(2) 인프라 관리체계 도입	275

참고문헌	281
부록 1. 설문지	285
부록 2. 충청북도 주요 인프라 사업 요약[신규/노후]	295
부록 3. 세미나 발표자료	305



표 차례

표 1-1	충북지역 조사 대상 시설물 분류	6
표 1-2	보고서 구성 및 주요내용	8
표 2-1	2015 전국 및 충북 산업별 생산 비중 비교	12
표 2-2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9
표 3-1	독일의 SOC 예산 규모	26
표 3-2	독일의 부문별 SOC 예산	26
표 3-3	호주의 인프라 투자 규모	27
표 3-4	호주의 교통 부문별 투자 규모	28
표 3-5	일본의 SOC 예산 규모	29
표 3-6	일본의 부문별 SOC 예산	29
표 3-7	미국 부문별 정부 예산 계획	30
표 3-8	영국 2016~17년 분야별 인프라 프로그램과 규모	34
표 3-9	FTIP 2030의 목표 및 세부 전략	36
표 3-10	FTIP 2030의 교통 분야별 투자 계획	37
표 3-11	호주의 인프라 투자 계획	40
표 3-12	토크랜드 지구별 특징	65
표 3-13	브뤼셀 도시 재생 관련 기관	71
표 3-14	Remourban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	72
표 3-15	동경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75
표 3-16	싱가포르 건설산업 예측 (2017~22)	80
표 4-1	충북지역 권역별 시군별 일반 현황	86
표 4-2	충북지역 생활 인프라 현황	88
표 4-3	충북 시특법 1·2종 시설물 현황	89
표 4-4	충북 재난안전법 시설물 현황	91
표 4-5	전국 시도별 도로현황	92
표 4-6	전국 시도별 도로포장 현황	93
표 4-7	충북 도로등급별 현황	95
표 4-8	전국 노후 국도 현황	96
표 4-9	충북 노후 국도 현황	96

표 4-10 충북 11개 시·군 도로현황	97
표 4-11 전국 시·도별 도로교량 현황	98
표 4-12 충북 시·도별 도로교량 현황	99
표 4-13 충북 도로교량 노후도 현황	99
표 4-14 충북 지역별 도로교량 노후도 현황	100
표 4-15 충북 내 시·특·법 1·2종 대상 도로교량 현황	101
표 4-16 충북 내 재난관리법 대상 도로교량 현황	101
표 4-17 충북 내 고속 및 일반철도 현황	102
표 4-18 충북 내 철도교량 노후 현황	103
표 4-19 충북 내 철도교량 안전진단 현황	103
표 4-20 청주국제공항 기본정보	104
표 4-21 청주국제공항 처리능력 및 현황	104
표 4-22 전국 상수도 현황	105
표 4-23 충북 지역별 상수도 현황	106
표 4-24 충북 상수관로 관·별·지역별 현황	106
표 4-25 충북 상수관로 재질별 현황	107
표 4-26 충북 상수관로 노후 현황	108
표 4-27 충북 지역별 상수관로 노후 현황	108
표 4-28 충북 관·재질별 상수관로 노후 현황	109
표 4-29 충북 지역별 경년관 현황	110
표 4-30 충북 관·재질별 경년관 현황	110
표 4-31 전국 누수건수 및 누수추정비율 현황	111
표 4-32 충북 11개 시·군별 누수건수	112
표 4-33 충북 관·재질별 누수건수 및 추정량	112
표 4-34 충북 관·별 유지관리 현황	113
표 4-35 충북 11개 시·군별 유지관리 현황	113
표 4-36 전국 하수관로 보급률 현황	114
표 4-37 충북 11개 시·군 하수관로 보급률	115
표 4-38 충북 하수관 재질별 현황	115
표 4-39 충북 11개 시·군별 하수관로 노후 현황	116



표 4-40 충북 관 재질별 하수관로 노후 현황	117
표 4-41 충북 1·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현황	117
표 4-42 충북 1·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117
표 4-43 충북 우수관리시설 현황	118
표 4-44 충북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현황	119
표 4-45 충북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121
표 4-46 충북 소하천 현황	122
표 4-47 충북 하천관련 2종 시설 현황	122
표 4-48 충북 하천시설 노후도 현황	123
표 4-49 충북 하천시설 안전수준 현황	123
표 4-50 충북 댐 현황	124
표 4-51 충북 다목적댐 및 발전용댐 노후도 및 안전 수준	124
표 4-52 충북 용수전용댐 노후도	124
표 4-53 충북 댐 시설 안전 수준	125
표 4-54 충북 수리시설 현황	125
표 4-55 충북 수리시설 노후도	126
표 4-56 전국 주택보급 현황	127
표 4-57 충북 11개 시·군 주택보급 현황	128
표 4-58 전국 주택보급률 현황	129
표 4-59 충북 11개 시·군 주택보급률 현황	129
표 4-60 전국 및 충북 주택 소유 및 무주택가구 현황	130
표 4-61 충북 주거시설별 노후 현황	131
표 4-62 충북 11개 시·군별 노후 현황	131
표 4-63 충북 도새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현황	133
표 4-64 충북 도새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134
표 4-65 충북 교육시설 현황	135
표 4-66 충북 11개 시·군별 교육시설 현황	135
표 4-67 충북 교육시설 노후 현황	136
표 4-68 충북 폐교 현황	136
표 4-69 충북 산업단지 현황	137

표 4-70 충북 11개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	137
표 4-71 충북 산업단지 노후 현황	138
표 4-72 충북 11개 시·군별 노후 산업단지 현황	139
표 4-73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140
표 4-74 충북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141
표 4-75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 현황	141
표 4-76 충북 문화시설 현황	142
표 4-77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현황	143
표 4-78 충북 11개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143
표 4-79 충북 문화시설 노후 현황	144
표 4-80 충북 주요 노후 문화시설	144
표 4-81 충북 공공체육시설 현황	145
표 4-82 충북 11개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및 노후 현황	146
표 4-83 충북 주요 노후 체육시설	147
표 4-84 충북 시·특·법·해당 체육시설 안전진단 결과	148
표 5-1 충북 주요 도정운영계획 및 방향	158
표 5-2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충북지역 세출 예산 현황	159
표 5-3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현황	160
표 5-4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및 결산 비교	161
표 5-5 도로 등급별 설계기준	163
표 5-6 도로등급별 계획 및 관리 주체와 자원	164
표 5-7 충북 도로보수 예산투입 현황	165
표 5-8 충북 국지도 사업 및 투자 계획	166
표 5-9 충북 지방도 사업 및 투자 계획	166
표 5-10 충북 시·군도 사업 및 투자 계획	167
표 5-11 충북 농어촌도로 사업 및 투자 계획	167
표 5-12 충북 재난안전법 해당 도로교량 현황	170
표 5-13 충북 교량 사업 및 투자 현황	170
표 5-14 철도 건설 및 비용부담 방식	172
표 5-15 충북 철도 구축 현황	173



표 5-16 충북 향후 계획 중인 철도 사업 현황	174
표 5-17 충북 상수도 사업 예산 계획	177
표 5-18 충북 수행 중 상수도 사업 예산 계획	178
표 5-19 충북 신규 상수도 사업 예산 계획	178
표 5-20 충북 하수도 사업 예산 계획	180
표 5-21 충북 수행 중 하수도 사업 예산 계획	181
표 5-22 충북 신규 하수도 사업 예산 계획	181
표 5-23 침수저감시설 관련 주요 사업 내용	182
표 5-24 충북 침수저감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83
표 5-25 충북 수행 중 침수저감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83
표 5-26 충북 신규 침수저감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84
표 5-27 충북 하천기본계획 주요 내용	185
표 5-28 충북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	186
표 5-29 충북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현황	186
표 5-30 충북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현황	186
표 5-31 충북 하천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87
표 5-32 충북 수행 중 하천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88
표 5-33 충북 신규 하천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88
표 5-34 충북 신규 댐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89
표 5-35 충북 수리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91
표 5-36 충북 수행 중 수리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92
표 5-37 충북 신규 수리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92
표 5-38 주거시설 정비사업 유형	193
표 5-39 충북 주거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94
표 5-40 충북 주택 건설 및 지원사업 예산 계획	195
표 5-41 충북 행복주택 건설사업 예산 계획	195
표 5-42 충북 마을 및 도시개발사업 예산 계획	195
표 5-43 충북 단지조성사업 예산 계획	195
표 5-44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요 내용	196
표 5-45 도시재생 일반지역 주요 내용	196

표 5-46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내용	197
표 5-47 충북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198
표 5-48 충북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98
표 5-49 충북 수행 중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99
표 5-50 충북 신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 계획	199
표 5-51 충북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200
표 5-52 충북 신규 교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00
표 5-53 충북 학교 신증설사업 예산 계획	201
표 5-54 충북 준비 중 산업단지 현황	203
표 5-55 충북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	204
표 5-56 충북 보상 중 산업단지 현황	205
표 5-57 충북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05
표 5-58 충북 수행 중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06
표 5-59 충북 신규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06
표 5-60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주요 내용	207
표 5-61 충북 전통시장 현대화 현황	208
표 5-62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09
표 5-63 충북 수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09
표 5-64 충북 신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10
표 5-65 충북 문화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13
표 5-66 충북 수행 중 문화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13
표 5-67 충북 신규 문화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14
표 5-68 도시재생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	215
표 5-69 정부예산 대비 체육예산(국고) 추이	215
표 5-70 체육예산(국고, 체육기금) 현황	215
표 5-71 공공체육시설 지원대상 및 기준	216
표 5-72 충북 체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17
표 5-73 충북 수행 중 체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17
표 5-74 충북 신규 체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218
표 6-1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정보	220



표 6-2	설문항목 평가기준	220
표 6-3	교통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221
표 6-4	교통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222
표 6-5	교통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223
표 6-6	교통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224
표 6-7	물관리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224
표 6-8	물관리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225
표 6-9	물관리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226
표 6-10	물관리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227
표 6-11	주거 및 교육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228
표 6-12	주거 및 교육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229
표 6-13	주거 및 교육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230
표 6-14	주거 및 교육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230
표 6-15	산업 및 경제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231
표 6-16	산업 및 경제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232
표 6-17	산업 및 경제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233
표 6-18	산업 및 경제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233
표 6-19	문화/복지/체육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234
표 6-20	충북 주요 시설물 설문결과 비교	239
표 7-1	충북 고속도로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47
표 7-2	충북 고속도로 사업 발굴(안)	247
표 7-3	충북 국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48
표 7-4	충북 국지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48
표 7-5	충북 지방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49
표 7-6	충북 시군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49
표 7-7	충북 교량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0
표 7-8	충북 철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0
표 7-9	충북 철도 신규 사업 발굴(안)	251
표 7-10	충북 상수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2
표 7-11	충북 하수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2

표 7-12 충북 침수저감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3
표 7-13 충북 댐·저수지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3
표 7-14 충북 교육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4
표 7-15 충북 산업단지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5
표 7-16 충북 문화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6
표 7-17 충북 체육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7
표 7-18 충북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집계	257
표 7-19 충북 국도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8
표 7-20 충북 노후도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8
표 7-21 충북 교량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59
표 7-22 충북 상수도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0
표 7-23 충북 하수도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1
표 7-24 충북 침수저감시설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1
표 7-25 충북 국가하천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2
표 7-26 충북 지방하천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3
표 7-27 충북 소하천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4
표 7-28 충북 댐·수리시설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5
표 7-29 충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 계획	265
표 7-30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66
표 7-31 충북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집계	266
표 7-32 충북 신규 및 노후 인프라 사업 총괄 집계	268
표 8-1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주요 내용	274
표 8-2 5개 지역 인프라 관리 관련 조례 비교	275



그림차례

그림 1-1	기존 SOC 예산 추이	2
그림 1-2	SOC 예산 추이와 전망	2
그림 1-3	우리나라 1시간 이상 통근 및 통학 인구 비율	3
그림 1-4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충북 추계인구 및 인구성장률	10
그림 2-2	충북 추계인구 및 노령화 지수	10
그림 2-3	전국 및 충북 GRDP 성장률 변화	11
그림 2-4	전국 및 충북 1인당 GRDP 변화	12
그림 2-5	충북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13
그림 2-6	WEF 국가 경쟁력 상위 50개국 분포	14
그림 2-7	지역 경제 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15
그림 2-8	충북 경제 성장과 인프라 설문 결과	16
그림 2-9	충북 경제성장과 시설물 설문 결과	17
그림 2-10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20
그림 2-11	충북 삶의 질과 인프라 설문 결과	20
그림 2-12	충북 시설물별 삶의 질과 인프라 설문 결과	21
그림 3-1	미국의 총지출 대비 SOC 투자 규모	24
그림 3-2	미국의 부문별 SOC 자원 배분	24
그림 3-3	영국의 부문별 SOC 자원 배분	25
그림 3-4	호주의 인프라 분야별 기성 추이	28
그림 3-5	영국 2016~21년까지의 부문별 인프라 투자 계획	33
그림 3-6	영국 2020~21년까지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	35
그림 3-7	FTIP의 예산 배분	37
그림 3-8	Sound Transit(시애틀 전철 시스템)의 미래 계획	47
그림 3-9	벨트라인 프로젝트	51
그림 3-10	실리콘밸리 고용, 인구 및 주택공급 증가율	52
그림 3-11	실리콘밸리 교통 정체 상승분	53
그림 3-12	LA의 향후 40년간 지하철 및 고속도로 건설과 투자 계획	54
그림 3-13	'Measure M'의 인프라	54

그림 3-14 마세나 남부 재개발 지역	56
그림 3-15 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지역	58
그림 3-16 BAT	60
그림 3-17 개발 완료 후 그랑모또 휴양지 풍경	61
그림 3-18 독일 철도 프로젝트 사업별 예산 조달 현황	62
그림 3-19 Stuttgart 21 도심지 개발 계획	63
그림 3-20 개발 전후의 워핑지구 광경	65
그림 3-21 영국 세인트오스텔시의 에덴 프로젝트	66
그림 3-22 더블린 디지털 허브 내 집적한 글로벌 기업	68
그림 3-23 브뤼셀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EDRLR) 현황도	70
그림 3-24 오테마치지구 재생 1-1개발사업 구역	76
그림 3-25 도쿄 미드타운 전경	77
그림 3-26 토라노몬 힐즈 전체 구역 개념도 및 재생 개념	78
그림 3-27 오모테산도힐즈 전경	78
그림 3-28 싱가포르 건설산업 가치와 성장률 예측	81
그림 4-1 전국 시도별 도로포장률	94
그림 4-2 충북 향후 주요 철도망 계획	102
그림 4-3 충북 홍수 피해 및 복구 현황	120
그림 5-1 전국 1인당 SOC 예산 현황	159
그림 5-2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증감 추이	161
그림 5-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절차	191
그림 6-1 교통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221
그림 6-2 교통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222
그림 6-3 교통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223
그림 6-4 교통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224
그림 6-5 물관리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225
그림 6-6 물관리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226
그림 6-7 물관리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227
그림 6-8 물관리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228
그림 6-9 주거 및 교육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228



그림 6-10 주거 및 교육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229
그림 6-11 주거 및 교육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230
그림 6-12 주거 및 교육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231
그림 6-13 산업 및 경제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231
그림 6-14 산업 및 경제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232
그림 6-15 산업 및 경제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233
그림 6-16 산업 및 경제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233
그림 6-17 문화/복지/체육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234
그림 6-18 문화/복지/체육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235
그림 6-19 문화/복지/체육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235
그림 6-20 문화/복지/체육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236
그림 6-21 인프라 정책 및 제반 활동 설문 응답 비율	237
그림 6-22 재원확보방안 설문 응답 비율	237
그림 6-23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 설문 응답 비율	238
그림 6-24 주요 시설물 '중요도-성능수준' 분석 결과	241
그림 6-25 주요 시설물 '중요도-노후도 및 안전도' 분석 결과	242
그림 7-1 인프라와 지역경쟁력 강화 및 개인 삶의 질 향상 간의 관계	244
그림 7-2 충북 인프라 투자 방향 도출 과정	245
그림 7-3 충북 시설물별 투자규모 비율	267
그림 8-1 2016년 지역별 역내 공사 중 충북 소재 업체 수주 비중	273
그림 8-2 2016년 지역별 역내 공사 중 충북 소재 업체 기성 비중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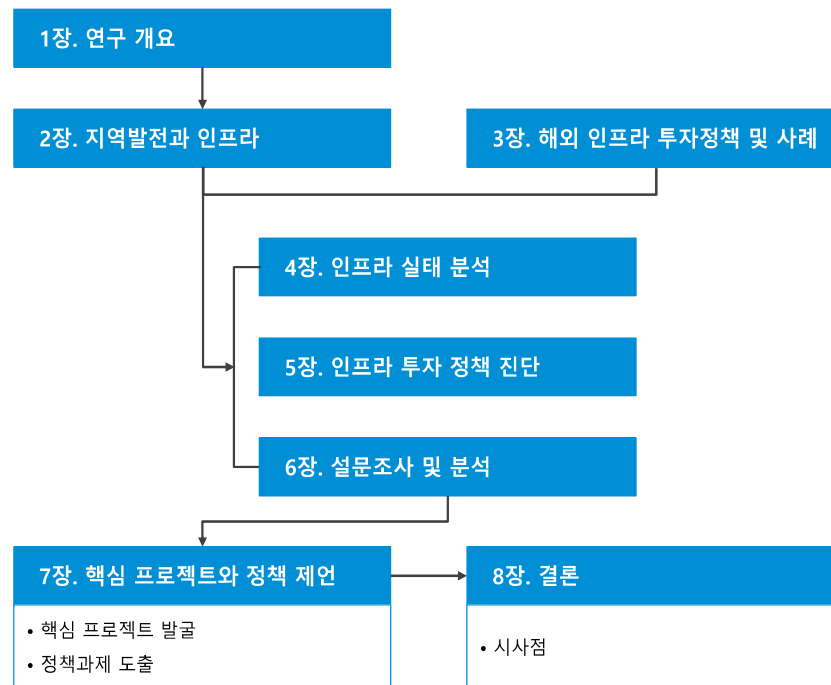
요 약(Executive Summary)

Part 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2018년 SOC 예산은 2017년의 22.1조원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 계획
 - 201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25조원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SOC 투자 축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SOC 투자의 과도한 축소는 경제성장 기반 약화,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안전 위협, 복지 수준 하락,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칠 수 있음.
 - SOC 예산 축소와 인프라 노후화 가속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충청북도 지역도 예외일 수 없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의 인프라 실태 조사와 관련 정책 진단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 지역 내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충청북도 도민의 인프라 수요 반응을 위한 설문조사와 충북 지역의 주요 인프라 사업 분석
 - 충청북도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전략과 정책 방향 제시
-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공동으로 충북지역의 인프라 실태조사, 투자 수요에 대한 이해, 충북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
 - 본 연구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및 방향(2장),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3장), 지역 인프라 실태(4장),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5장), 지역민 설문조사(6장), 지역 인프라 투자방향과 주요사업(7장), 정책제언 및 시사점(8장)으로 구성함.

- 지역 경제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 인프라 성장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준비, 충북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의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연구보고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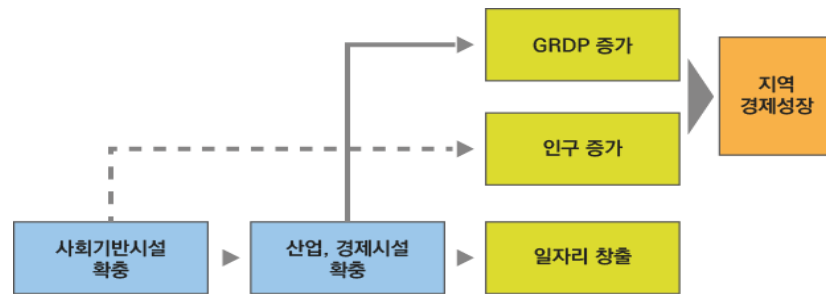


Part 2 :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 충북의 인구성장률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0.65%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 2040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충북의 노령화지수는 2017년 기준 116.1로 전국 평균 104.8을 상회하며, 전국 9개 도 중 6번째 수준
- 2016년 기준 충청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6조 1,217억원이며, 기초가격 기준으로 건설업은 약 6.2%(3조 2,025억원)의 비중을 차지
 - 건설업은 충북 내 세 번째로 GRDP 기여도가 높은 경제활동임(제조업 4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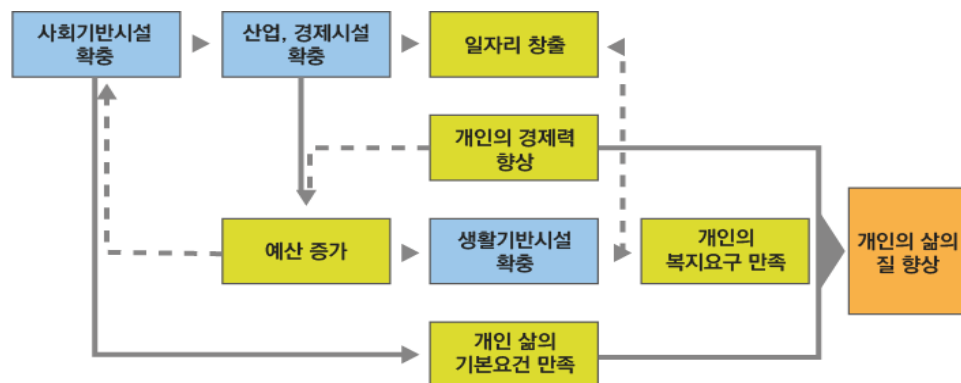
-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기반시설과 산업 및 경제시설 등이 있으며,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산업 및 경제시설 유치의 근간이 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유인함.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증가를 촉진하며,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유도할 수 있음.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 개인의 삶의 질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 요구 만족 등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인프라 시설 확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개인의 삶을 보편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건과 관련한 시설물로는 교통, 상·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이 존재함.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증가를 유도하며, 이는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함.
 - 문화 및 체육 등의 시설은 개인의 복지 요구를 만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함.

<인프라와 삶의 질과의 관계>



Part 3 : 충청북도 인프라 실태 진단

1) 교통시설

[도로 및 도로교량]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지역 내 총 도로 연장은 6,870km(미포장도 558km, 미개통도 519km)이며,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0.93km/km²으로 전국 1.08보다 낮음. ·포장률은 91.2%로 전국 92.4%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시·군도의 포장률은 낮고 미개통률은 높음(시도 미개통률 11.5%, 군도 포장률 67.6%, 미개통률 12.0%). ·충북 내 총 도로교량 수는 2,567개소가 존재함(고속국도 748개소, 일반국도 661개소, 지방도 428개소, 시도 376개소, 군도 354개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지역 일반도로 총 연장 988km 중 63.8%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강원, 경북 다음으로 노후도 높음(내구연한 : 아스팔트 도로 10년, 콘크리트 도로 20년). ·도로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균열이나 포트홀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며, 도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 ·20년 이상 노후 교량은 1,037개소(충북 전체 교량의 40.4%), 40년 이상 노후된 교량 126개소(4.9%)가 존재하며, 10년 경과 시 충북 내 노후 도로교량은 2,068개소(약 81%)로 급증할 것임. ·(시설물안전법) 1·2종 도로 교량 810개소 중 보수(B등급) 및 보강(C등급)이 필요한 B등급이하 교량은 668개소(B등급 594개소, C등급 74개소) 존재함. ·(재난안전법)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749개소 중 재난위험시설(D, E등급) 교량은 6개소로 파악됨.

[철도 및 철도교량]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철도는 총 5개 노선(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4개)이 통과함. 2011년 오송역이 개통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충북지역 철도 성능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0.1%('만족한다' 이상)로 낮게 나타남. ·수도권 연계, 충남 지역 연계(천안 등), 철도 고속화, 공항연계 노선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안전법) 해당 1·2종 철도 교량 94개소 중 20년 경과 노후 교량이 28개소(29.8%) 있으며, 40년 경과 노후 교량이 13개소(13.8%) 차지하고 있음. ·1·2종 철도 교량 중 보수(B등급) 및 보강(C등급)이 필요한 B등급 이하 교량이 89개소(94.7%) 존재함. ·B등급 교량 74개소(1종 48개소, 2종 26개소), C등급 교량 15개소(1종 2개소, 2종 13개소)

[공항]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공항은 청주국제공항이 있으며, 2015년 연간 이용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아직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다소 미약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사업으로는 천안~청주공항역 복선전철 사업, 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계류장 건설 등이 있음. ·현 정부는 국제공항으로의 육성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2744m에서 3200m로 확장하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공약을 제시하였음.

2) 물관리시설

[상수도]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p>·충북 일반상수도 보급률(충북 92.6%<전국 97.3%),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충북 90.2%<전국 96.5%), 급수 보급률 (충북 97.9%<전국 98.8%)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p> <p>·충북 유수율은 83.8%로서 전국 84.3%보다 낮고, 누수율은 11.8%로 전국 10.9%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p> <p>·지역별 유수율은 보은군(56.2%), 영동군(57.4%), 괴산군(58%), 옥천군(62.5%)이 낮았으며, 누수율은 괴산군(39.2%), 보은군(39.1%), 영동군(38.1%), 옥천군(28.7%), 증평군(20.9%), 음성군(19.6%), 충주시(19.5%) 등의 순이었음.</p>
노후도 및 안전 수준	<p>·충북 내 상수관로 총연장은 8,766km이며, 사용연수 20년이 경과된 관로는 2,301km(도수관 56km, 송수관 111km, 배수관 965km, 급수관 1,170km)로 26.2%를 차지하고 있음. 10년 후 5,140km(총연장의 58.6%)로 급증할 예정임.</p> <p>·지역별 노후 연장은 청주시(888km), 충주시(520km), 제천시(208km)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p> <p>·충북 경년관 연장은 약 1,546km로 총연장의 약 17.6%를 차지함(청주시 562km, 충주시 341km, 단양군 163km, 영동군 155km 등).</p> <p>·(시설물안전법) 1·2종에 해당하는 시설물 53개소 중 보수가 필요한 B등급 상수도 시설물은 39개소(73.6%, 1종 7개소, 2종 32개소) 존재함.</p>

[하수도]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p>·충북 공공하수처리인구 보급률은 86.2%로 전국 92.9%보다 낮고, 하수관로 보급률은 83.6%로 전국 79.9%보다 높음. 하수도 설치율은 72%로 전국 74.2%보다 낮음.</p> <p>*하수도설치율=공공하수처리인구보급률(%)×하수관로보급률(%)÷100</p> <p>·지역별 공공하수처리인구 보급률은 괴산군(47.9%), 음성군(51.9%), 영동군(67.1%), 보은군(70.9%) 순으로 낮았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진천군(66.8%), 단양군(72.9%), 제천시(75.1%) 순으로 낮게 집계됨.</p> <p>·하수도 설치율은 괴산군(21.8%), 음성군(26.9%), 보은군(36.2%), 진천군(44.8%), 영동군(45.0%), 단양군(51%) 순으로 낮음.</p>
노후도 및 안전 수준	<p>·충북 하수관로 총연장은 5,868km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연장은 1,582km로 27%를 차지함. 10년 후 3,232km(총연장의 55.1%)로 급증할 예정임.</p> <p>·지역별 노후 연장은 청주시(821km, 청주시 연장의 46.8%), 제천시(331km, 53.0%), 영동군(183km, 48.8%) 순으로 높게 나타남.</p> <p>·(시설물안전법) 1·2종으로 분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7개소 존재하며, 9개소(24.3%)가 20년 이상 노후화됨.</p> <p>·공공하수처리시설은 37개소(2종) 중 보수가 필요한 B등급 시설물은 27개소(73.0%) 존재함.</p>

[하천]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충북은 5개 국가하천, 169개 지방하천, 그 외 소하천이 존재하며, 국가 및 지방하천 총 연장 2339.8km에 대한 개수율은 60.3%로 미개수 구간이 814.4km(국가하천 40.9km, 지방하천 773.5km) 존재함. ·지역별 개수율은 진천군(미개수 301.3km, 49.5%), 충주시(미개수 427.9km, 58.8%)가 낮게 집계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시설물안전법) 1·2종에 해당하는 충북 하천 관련 시설물은 2종 배수펌프장 30개소, 수문 및 통문 113개소, 제방 48개소로 총 191개소임.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68개소(배수펌프장 15개소, 수문 및 통문 46개소, 제방 7개소)로 35.6%를 차지함. ·시설물안전법 해당 시설물 중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B등급 이하 시설물은 135개소(B등급 118개소, C등급 17개소) 존재함.

[댐]

구분	주요 내용
현황	·충북 내 댐은 다목적댐 2개소(충주댐, 대청댐), 발전용댐 1개소(괴산댐), 용수전용댐 34개소가 존재함(시설물안전법상 1종 6개소, 2종 31개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다목적댐 및 발전용댐) 충주댐(1985년 준공 33년 경과, C등급 보강 필요), 대청댐(1980년 준공 38년 경과, B등급 보수 필요), 괴산댐(1957 준공 61년 경과, B등급 보수 필요) ·1·2종 용수전용댐 34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댐이 28개소(82.4%) 있으며, 40년 이상 경과한 댐도 12개소(35.3%) 존재함.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B등급 이하 시설물은 35개소(94.6%) 존재함(B등급 20개소-1종 5개소, 2종 15개소/C등급 15개소-1종 1개소, 2종 14개소).

[수리시설(저수지 등)]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2015년 기준 충북 수리시설은 저수지 771개소, 양배수장 454개소, 집수암거 154개소, 취입보 1,891개소로 조사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수리시설 중 20년 이상된 저수지는 167개소(90.8%), 양배수장 153개소(63.8%), 집수암거 27개소(96.4%), 취입보 518개소(97.2%)로서 노후도가 높음. ·건설한 지 40년 이상된 수리시설도 저수지 129개소(70.1%), 양배수장 52개소(21.7%), 집수암거 19개소(67.9%), 취입보 385개소(7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2017.7.16. 홍수 피해 현황) 국가재난정보 관리시스템(NDMS) 기준 총 공공시설 415억원, 사유시설 131억 6천만 원 등 모두 546억 6천만원으로 집계됨(도로 106개소·하천 257개소·상하수도 73개소·철도 13개소 등 피해 발생). ·시·군별 복구액 현황은 1,754억 4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됨(청주 1,051억원, 괴산 354억원, 보은 118억원 등). 시설별 복구액은 2,004억 9천여만원에 달함. ·홍수로 인한 복구금액은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임.

3) 주거 및 교육시설

[주거시설]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충북 내 주거시설은 568,567호로 단독주택 206,993호(36.4%), 아파트 316,851호(55.7%), 연립주택 16,004호(2.8%), 다세대주택 19,329호(3.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9,390호(1.7%)로 구성됨. ·충북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나(2016 국토부 기준 110.7%), 주택 소유율은 56.9%에 불과함(옥천군 주택 소유율이 65.6%로 가장 높으며, 음성군은 49.0%로 가장 낮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은 116,847호로 약 20.5%(2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 50.7%)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노후 주거시설 비율 약 16.8%를 상회함. ·주거시설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45.3%(93,797호), 연립주택 40.7%(6,512호)로 노후 비율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보은군(48.0%), 옥천군(39.4%), 단양군(38.8%), 괴산군(38.3%), 영동군(36.6%)이 높게 나타남.

[도시재생]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주요 도시재생사업은 선도지역 1곳(청주시, 도시경제기반형), 일반지역 2곳(충주시, 제천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뉴딜사업 4곳(청주시_중심시가지형, 제천시_우리동네 살리기, 충주시_주거지 지원형, 청주시_일반근린형)이 선정됨. ·지난 2017년 12월 선정된 뉴딜사업 4곳은 2018부터 2020~22년 사이 수행 계획임.

[교육시설]

구분	주요 내용
주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총 837개(유치원 345개소, 초등학교 272개소, 중학교 127개소, 고등학교 84개소, 특수학교 9개소) 존재함. ·지역별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청주시(322개소, 38.5%), 충주시(115개소, 13.7%), 제천시(80개소, 9.6%) 순으로 나타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2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물은 674개소(81%)를 차지하며, 4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은 390개소(46.6%)로 높은 수준임. ·충북 내 폐교는 총 238개소(2017년 235개소)있으며, 미활용 상태로서 향후 활용 방안이 필요한 폐교는 37개소 존재함.

4) 산업 및 경제시설

[산업단지]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산업단지는 총 122개소(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75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 농공산업단지 43개소)로 완료 산업단지 87개소, 조성중 23개소, 미개발(보상 중 또는 준비 중) 12개로 구성됨. ·지역별로는 음성군(22개소), 진천군(20개소), 청주시(18개소), 충주시(18개소) 순으로 나타남. ·완료 산업단지 87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는 37개소(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산업단지 33개소)로 약 42.5% 차지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분	주요 내용
주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총 78개소(인정 62개소, 미인정 16개소)이며, 청주시(19개), 충주시(16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증평군 1개소로 가장 적음). ·시장경영진흥원(2012)의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56.3)이나, D등급(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수준) 시장이 10개소 존재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이상 노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74개소(94.9%)이며, 충주시 내 1개소, 제천시 내 2개소, 진천군 내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노후화되어 있음.

[문화시설]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문화시설은 총 126개소이며, 인구 백만 명당은 78.58개소로 9개 도 중 제주, 강원, 전남, 전북 다음으로 낮음. ·미술관은 충북 내 총 8개소 중 청주시에 7개소가 위치하여 타 시·군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6개 문화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은 56개소(44.4%)이며, 10년 경과 시 노후 문화시설은 98개소(77.8%)로 급증함. ·40년 이상 노후 문화시설도 18개소(지방문화원 10개소, 도서관 4개소, 박물관 4개)로 약 14.3%를 차지함.

[체육시설]

구분	주요 내용
주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684개소 있으며, 인구 백만 명당은 1050.3개소로 9개 도 중 강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간이체육시설(마을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288개소이며, 청주시(40개소, 13.9%), 충주시 및 제천시(각각 33개소, 11.5%), 옥천군 30개소(10.4%)로 분포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 중 20년 이상된 체육시설은 총 38개소(13.2%)가 존재함.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제천시와 증평군 각각 5개소, 음성군 4개소 등이 있음. 30년 이상 노후화된 체육시설도 8개소 존재함.

Part 4 :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정책 진단

1) 충북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충북의 최근 5년 간(2013~17년) 세출은 전국 지방재정의 약 3.9~4.1% 수준으로 파악
 - 지난 5년 간 전국 지방재정 평균 증가율은 약 5.48% 수준이며, 충북은 5.08%로 다소 낮은 수준임. 특히, 2015~17년 충북의 평균 지방재정 증가율은 3.50%로 전국 5.63%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17년 충북의 1인당 SOC 예산은 71.8만원으로 16개 시·도 평균 72.5만원을 하회함.

<지방자체단체 및 충북지역 세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국 세출	전국 증가율	충북 세출	충북 비율	충북 증가율
2017	259,432,432	3.8%	10,030,985	3.9%	2.3%
2016	250,014,905	6.9%	9,808,174	3.9%	3.3%
2015	233,951,652	6.2%	9,496,813	4.1%	4.9%
2014	220,335,925	5.5%	9,051,661	4.1%	8.0%
2013	208,888,572	5.0%	8,383,027	4.0%	6.9%

- 충북 SOC 관련 세출과 사회복지 세출을 비교해보면, SOC 관련 세출의 경우 2008년 16.7%에서 2017년 11.5%로 지속적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사회복지 세출은 2008년 21.1%에서 2017년 28.7%로 지속적 증가세
 - 충북의 SOC 관련(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적으로는 2008년 약 1조 239억원에서 2017년 1조 1,518억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함.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충북 세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SOC		사회복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7	10,030,985	504,284	647,515	1,151,799	11.5%	2,879,698	28.7%
2016	9,808,174	505,920	614,650	1,120,570	11.4%	2,690,141	27.4%
2015	9,496,813	520,745	587,985	1,108,730	11.7%	2,635,635	27.8%
2014	9,051,661	539,399	513,740	1,053,139	11.6%	2,449,680	27.1%
2013	8,383,027	618,687	545,060	1,163,747	13.9%	2,075,943	24.8%
2012	7,840,029	639,207	587,666	1,226,873	15.6%	1,874,760	23.9%
2011	7,604,636	618,472	519,488	1,137,960	15.0%	1,713,386	22.5%
2010	7,254,585	596,931	572,175	1,169,106	16.1%	1,621,718	22.4%
2009	6,726,664	608,670	519,356	1,128,026	16.8%	1,496,944	22.3%
2008	6,141,093	538,584	485,311	1,023,895	16.7%	1,292,994	21.1%

- 그러나 전체 세출 대비 SOC 관련 세출 비율은 2008년 약 16.7%에서 2017년 11.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함(연평균 약 0.6% 감소).

- 수송 및 교통 : 2008년 5,386억원(8.8%) -> 2017년 5,043억원(5.0%)

- 국토 및 지역개발 : 2008년 4,853억원(7.9%) -> 2017년 6,475억원(6.5%)

- 한편, 사회복지 세출은 금액적으로 2008년 1조 2,930억원에서 2017년 2조 8,797억원으로 연평균 약 9.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전체 세출 대비 사회복지 세출 비율은 2008년 21.1%에서 2017년 2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연평균 약 0.8% 증가).

- 충북의 2013~16년 사이 SOC 관련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결산) 현황을 보면, 2013~15년 SOC 집행률은 연평균 약 9.2% 감소

-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률은 2013~15년 연평균 약 7.4% 증가함.

- 2016년의 경우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최근 SOC 감소 기조를 고려할 때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음.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및 결산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계획	사회복지		1,030,717	1,081,030	1,122,452	1,153,667
	SOC	합계	347,616	337,262	342,308	355,005
		수송 및 교통	238,148	229,726	231,528	240,637
		국토 및 지역개발	109,468	107,536	110,780	114,368
결산	사회복지		852,916	964,472	1,095,746	1,156,619
	SOC	합계	343,863	290,636	275,640	355,133
		수송 및 교통	234,657	209,341	175,476	208,368
		국토 및 지역개발	109,206	81,295	100,164	146,765
집행률	사회복지		82.7%	89.2%	97.6%	100.3%
	SOC		98.9%	86.2%	80.5%	100.0%

- 충북(본청 기준)은 향후 5년 간 25조 6,288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으로 8조 7,839억원(34.3%)을 계획하고 있으며, SOC 예산으로는 1조 9,711억원(7.7%)을 계획함(2018~22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2)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 현 정부는 충북의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

<충북 인프라 관련 정부 공약>

구분	주요 내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 - 4차선 미확장으로 지정체가 상존하고 있는 호법~남이 구간을 확장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조기 추진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연계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 활주로 길이를 현재 2,744m에서 3,200m로 확장, 계류장 건설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충북의 향후 주요 업무 계획 중 인프라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정부의 공약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

구분	세부 내용
신성장 교통축 도로망 확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4축(세종~청주), 동서5축(옥산~오창), 동서6축(제천~영월),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경부(동이~옥천) 확장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 및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내수~미원~보은~옥천~영동) 추진 * 미계획 구간 미원우회도로(미원리~쌍이리) 본격 추진 • 세종시 연결도로 건설 :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오송~조치원, 오송역~ 청주공항 BRT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중북부 수계 광역화 사업(청주,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충주, 영동, 단양)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5) 반영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 및 중앙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 - 충북선 고속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대전~옥천간 광역철도연장
고부가가치 충북 힐링 관광 조성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부권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경제권 선도공항 지정, 글로벌 항공전문인력양성센터 설립(국토부 협의) - 주기장 확장(14개소), 계류장 신설(1개소), 청주공항~세종간 간선도로망 확충
스포츠 기반 조성 및 체육행사 성공개최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센터 건립(3개소), 청주 실내빙상장 및 인공암벽장 •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 조성(청주, 증평, 진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난 예방	
재난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6재해복구사업 추진(1,306개소) • 라이프라인(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최우선 응급복구 •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5지구,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Part 5 :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설문조사)

- 충북도민 509명을 대상으로 13개 주요 시설물의 지역 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 수준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
-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충북 내 인프라 시설물은 중요도에 비해 성능 수준이 낮으며, 노후도가 높고, 안전 수준은 낮게 평가됨.

- (지역 경쟁력) 중요도 : 13개 주요 시설물 중 교육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복지/체육시설(3.98), 도로(3.94), 주거시설(3.91), 재해방지시설(3.82), 상수도(3.81), 하수도시설(3.78) 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됨. 댐 및 저수지에 대한 중요도는 3.33으로 가장 낮았음.
- 성능 수준 : 상수도 성능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3.31로 가장 높았으며, 재해방지시설이 2.68로 가장 낮게 평가됨. 철도(2.79), 문화/복지/체육시설(2.79), 산업시설(2.96)은 성능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조사됨.
- 노후도 및 안전도 : 교육시설(3.29), 공항(3.26), 상수도(3.26) 등에 대한 노후도 및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재해방지시설의 경우 2.96으로 주요 시설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투자 수준 : 시설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문화/복지/체육시설(3.90), 재해방지시설(3.88), 도로(3.72) 등이 높았으며, 댐 및 저수지에 대한 투자(3.29)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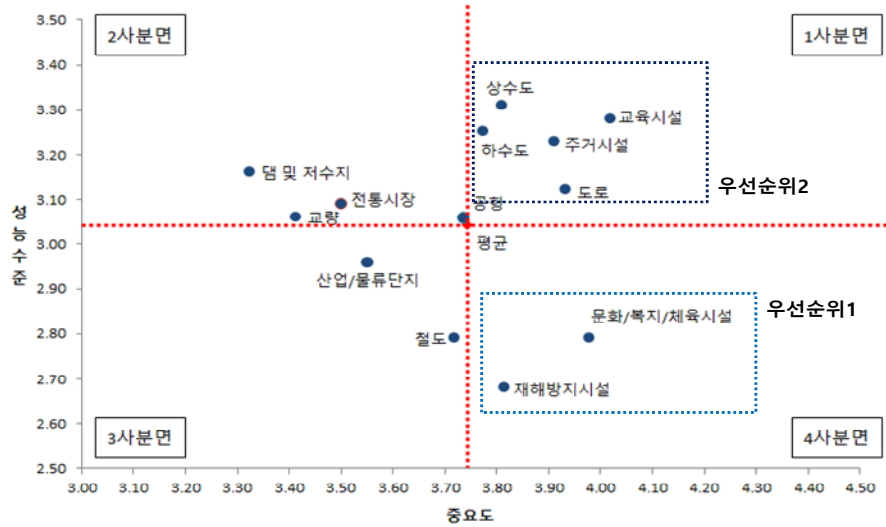
〈충북 주요 시설물 설문결과 비교〉

구분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투자 수준
도로	3.94	3.12	3.16	3.72
교량	3.42	3.06	3.12	3.44
철도	3.72	2.79	3.20	3.64
공항	3.74	3.06	3.26	3.43
상수도	3.81	3.31	3.26	3.67
하수도	3.78	3.25	3.21	3.64
재해방지시설	3.82	2.68	2.96	3.88
댐 및 저수지	3.33	3.16	3.08	3.29
주거시설	3.91	3.23	3.20	3.65
교육시설	4.02	3.28	3.29	3.75
산업시설	3.55	2.96	3.11	3.46
전통시장	3.50	3.09	3.10	3.50
문화/복지/체육시설	3.98	2.79	3.22	3.90

- 인프라 시설물 투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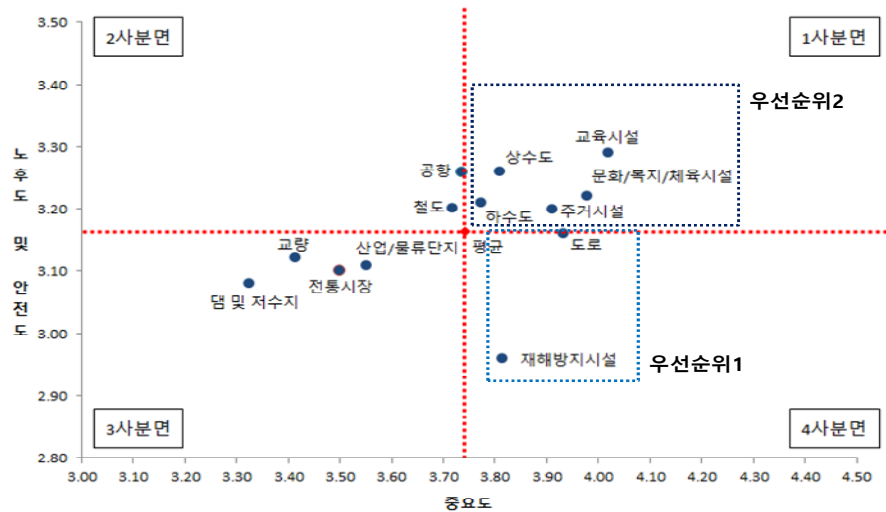
- (신규 인프라) 수요가 가장 높은 그룹은 문화/복지/체육시설, 재해방지시설(4사분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수도, 하수도, 교육시설, 주거시설, 도로, 그룹(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주요 시설물의 성능수준-중요도>



- (노후 인프라) 수요가 가장 높은 그룹은 재해방지시설, 도로(4사분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수도, 하수도, 교육시설, 주거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그룹(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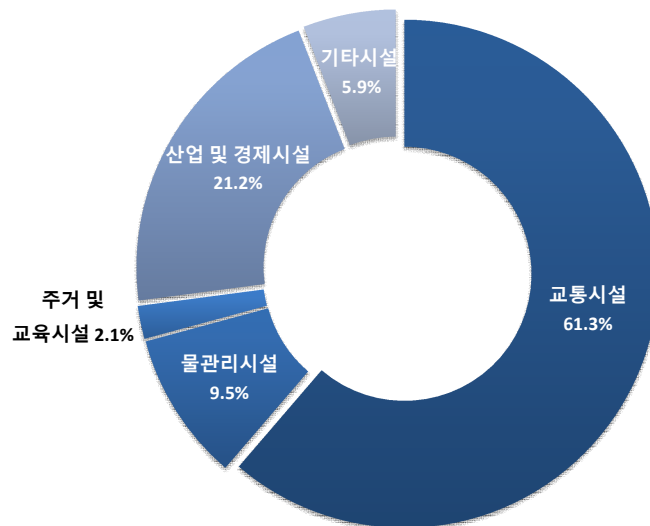
<주요 시설물의 노후도 및 안전도-중요도>



Part 6 : 인프라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

- 충북 인프라 실태조사, 투자 정책 진단,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등을 종합해 향후 충북 지역의 인프라 투자 기본 방향을 도출
 - 충북 인프라 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신규 공급
 - 충북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비, 개선, 활성화 사업 추진
 -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시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
 -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
- 인프라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도출한 충청북도 주요 프로젝트는 총 263개 사업, 22조 6,624억원 규모
 - 사업 유형별로는 신규 사업 121개, 20조 1,911억원이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142개 사업, 2조 4,713억원 규모임.
 - 시설물별로는 교통시설 13조 8,982억원(61.3%),물관리시설 2조 1,459억원(9.5%), 주거 및 교육시설 4,643억원(2.1%), 산업 및 경제시설 4조 8,162억원(21.2%), (문화 및 체육 관련) 기타시설 1조 3,378억원(5.9%)으로 집계됨.

<충북 시설물별 투자규모 비율>



<충북 신규 및 노후 인프라 사업 총괄 집계>

(단위 : 백만원, %)

시설 유형			사업 개수		총 소요 예산 (억원) (비율 %)		
			시설별	소계	시설별	소계	
합계			263		226,624		
신규			121		201,911		
노후			142		24,713		
교통시설	도로	신규	38	46	63,879	67,931	30.0%
		노후	8		4,052		
	교량	신규	1	3	257	309	0.1%
		노후	2		52		
	철도	신규	7	7	70,652	70,652	31.2%
	공항	신규	1	1	90	90	0.04%
	소계		57		138,982		61.3%
	물관리시설	상수도	신규	12	33	2,470	7,413
노후			21	4,943			
하수도		신규	13	30	632	3,780	1.7%
		노후	17		3,148		
침수저감		신규	2	13	219	1,446	0.6%
		노후	11		1,227		
하천		노후	58	58	7,742	7,742	3.4%
댐·수리시설		신규	1	12	81	1,078	0.5%
		노후	11		997		
소계		146		21,459		9.5%	
주거 및 교육시설	도시재생	노후	4	4	1,762	1,762	0.8%
	교육시설	신규	10	10	2,881	2,881	1.3%
	소계		14		4,643		2.1%
산업 및 경제시설	산업단지	신규	6	6	47,372	47,372	20.9%
	전통시장	노후	10	10	790	790	0.3%
	소계		16		48,162		21.2%
기타시설	문화시설	신규	17	17	5,318	5,318	2.3%
	체육시설	신규	13	13	8,060	8,060	3.6%
	소계		30		13,378		5.9%

Part 7 :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함.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 노력 필요(충북 재정 자립도 31.8%로 9개 도 가운데 5번째)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및 주민요구 대응 능력 제고도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 발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간투자 추진대상 사업을 현행 특정 사업 기반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대단위 프로그램 사업 위주의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꾸준한 규모로 적정 수준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 대상 발굴과 추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리 조직 확보
 -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인프라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주무부처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함(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과 같은 맞춤 지원 프로그램)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보호 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Part 8 : 시설물별 주요 사업[신규/노후]

- 신규 주요 사업 : 121개, 20조 1,911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교통시설 (47건, 134,878억원)			
	도로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남이~호법) 확장(10,002) • 동서 4축(공주~청주) 신설(8,262) • 동서 5축(오창~증평) 신설(3,934) • 동서 6축(제천~영월) 신설(11,649) • (추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여주~충주) 확장(2,335) • (추가) 괴산~제천 고속도로 신설(15,140) • (추가) 세종~청주권 BRT 도로건설(4,166)
		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충청내륙고속화도로(4공구 잔여 633) •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6, 7공구 잔여 704)
		국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706) •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419)
		지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가흥 지방도확포장공사(760) • 소매~길선 지방도확포장공사(360) • 무성~이목 지방도확포장공사(490) • 음성~신니IC 지방도확포장공사(840) • 맹동~대소 지방도확포장공사(620) • 내송~내곡 지방도확포장공사(181) • 대사~내송 지방도확포장공사(994) • 하시~상괴간 지방도확포장공사(177) • 평산~세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115) • 지동~부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197) • 초정~증평 지방도확포장공사(190) •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공사(50)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시군도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양군 군도건설사업(163)• 하이패스IC~갈동교차로간 도로개설(80)•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25)•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148)• 삼산~덕암간 도로확포장공사(97)• 석화~대길간 도로확포장공사(62)• 시목~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54)• 중앙탑가흥(군도11호선) 도로확포장(23)• 살미향산(군도5호선) 도로확포장(30)• 수정~금굴간 군도확포장사업(60)• 월전리 군도확포장공사(40)• 영동군 군도확포장(90)• 공골~논실간 군도확포장(35)• 영춘면 의풍리 군도확포장사업(28)• 의풍리(군도14호선) 도로확포장사업(20)</div>
	교량		
		가설사업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현천대교가설사업(257)</div>
	철도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7,102)•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8,216)• 충청권 광역철도(4,107, 전체 13,708)• (추가)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복선전철(39,000)• (추가) 대전~옥천 복선전철(227)• (추가) 옥천~영동 광역철도(2,000)• (추가)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10,000)</div>
물관리시설 (28건, 3,402억원)			
	상수도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본청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615)• 충주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공급사업(50)• 충주시 지방상수도(급·배수관) 시설 확충(53)• 충주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66)• 제천시 급수 신설공사(77)• 보은군 지방상수도 공급사업(33)• 옥천군 상수도보급(59)• 옥천군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142)• 옥천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134)• 음성군 상수도 신규급수공사(51)• 단양군 마을상수도 시설확충(81)• 단양군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109)</div>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시내일원 하수도 긴급공사(22) • 청주시 산성동 성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25) • 청주시 하수처리장확충(강내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64)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중앙탑하가흥하수처리시설 증설(6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가정하수처리장증설(2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별묘하수처리장증설(20) • 옥천군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설치사업(54) • 옥천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차)(71) • 옥천군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7) • 옥천군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2) • 옥천군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45) • 옥천군 음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142) • 영동군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궁촌, 매금)(60)
	침수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150) • 청주시 율량 배수지 신설공사(2단계)(69)
	댐 및 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잔여 130)
주거 및 교육시설 (10건, 2,881억원)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22) • 두촌유치원신설(76) • 동남1초등학교 신설(262) • 호암초등학교 신설(272) • 대소원2초등학교 신설(302) • 솔밭2초등학교 신설(600) • 청원2초등학교 신설(381) • 오송2초등학교 신설(303) •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407) • 부윤2초등학교 신설(256)
산업 및 경제시설 (6건, 47,372억원)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1,840) •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대통령 공약사업)(37,704) • 청주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2,321) •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2,690) •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1,700)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1,117)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기타시설 (30건, 13,378억원)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82) • 가경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126) •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1,203) •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1,905) • 가경지구 도서관건립(133) • 서충주 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131) •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450) • 충주 시립미술관 건립(20) •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 (보조)(56) • 법주사성보박물관 건립 사업(180) • 군립공공도서관 건립(160) • 어린이 생태문학체험관 조성사업(96) • 생태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256) • 문예회관 건립(400) • 복합문화시설 조성(18) • 우탁생가재현 및 우탁시조 문학관 건립(44) • 감성메모리얼 뮤지엄 조성사업(58)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스포츠클럽스 조성(6,900) • 영운정수장 내 수영장 건립(200) • 가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110) • 내수야구장 조성사업(91) • 오창야구장 조성사업(70) •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55) •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53) •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150) • 증평종합운동장 건립(300) • 단양골프연습장조성사업(이전)(40) • 단양국궁장조성사업(이전)(60) • 상진배드민턴장건립사업(19) • 단양 생태체육공원 내 축구장 건립사업(12)

- 노후 주요 사업 : 142개, 2조 4,713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교통시설 (10건, 4,104억원)			
	도로	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1호선 신대리~진암리(700)• 509호선 탐평리~가흥리(176)• 329호선 대사리~내송리(995)• 532호선 하시리~상괴리(177)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45)• 노후 포장도 보수(1,327)• 지방도 유지보수(274)• 비포장도 정비사업(158)
	교량	가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현교 재가설공사(32)• 범암교 재가설공사(22)
물관리시설 (118건, 18,057억원)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분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004)• 도분청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49)• 청주시 수도시설 정비사업(70)•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보조사업)(55)• 충주시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42)• 제천시 상수도 시설공사 및 개량사업(462)• 제천시 마을상수도 개량(65)• 제천시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교체)(보조)(26)• 보은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보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354)•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보조)(236)• 옥천군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86)• 옥천군 유수율 제고사업(보조)(24)• 영동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121)• 진천군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50)• 괴산군 마을상수도 정비(216)• 괴산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28)• 괴산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309)• 음성군 소규모시설 개선사업(28)• 음성군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27)• 단양군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426)• 단양군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265)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하수관로 개선공사(25) • 청주시 구도심 도심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사업(260) •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575) •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사업(329) • 청주시 하수관로 정비(내수읍 구성리 하수관로정비사업)(5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가덕면 상대리 하수관로정비사업)(6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정봉동~평동 하수관로정비사업)(230) • 청주시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1,029)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금가하수관로정비(25)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엄정하수관로정비(24) • 제천시 하수도 정비사업(185) • 보은군 공공하수도 유지보수(31) • 보은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은하수관거정비)(40) • 보은군 하수관로 정비(9) • 옥천군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조)(76) • 옥천군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154) • 영동군 영동읍(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정비사업(34)
	침수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배수개선사업(325)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27)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25) • 충주시 양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02) • 옥천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조)(260) • 보은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오덕지구)(150) • 영동군 재해위험지역 정비(각계지구)(보조)(60) • 음성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신천)(160) • 단양군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12) • 단양군 재해위험지구 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84) • 단양군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도비)(22)
	하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109) • 충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30) • 영동군 국가하천 유지보수(56) • 단양군 국가하천 유지관리(8)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정비사업(25건)(3,965) • 청주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77) • 증평군 지방하천 유지관리(4) • 제천시 지방하천유지관리(55) • 단양군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11) • 보은군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52)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소하천 정비사업(1,138) •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128) •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64) • 제천시 소하천 정비사업(20) • 보은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27) • 옥천군 소하천 자체정비사업(89) • 옥천군 소하천 정비사업(191) • 영동군 소하천 정비(111) • 영동군 소하천 정비(60)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오정천)(8)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수리남이천)(30)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어서실천)(24)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소계천)(26) • 영동군 소하천 유지관리(25) • 제천시 소하천 유지관리(55) • 제천시 소하천 보수사업(32) • 음성군 소하천 정비사업(285) • 진천군 소하천 정비사업(자체)(92) • 단양군 소하천 관리(17) •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35) •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3) • 보은군 소하천 정비사업(131) • 괴산군 소하천 정비(자체)(106) • 괴산군 밀재 소하천 정비(68)
		댐 및 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댐주변 정비사업(27) • 도본청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386) • 도본청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192) • 청주시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67) • 청주시 소규모수리시설 정비(30) • 옥천군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보조)(111) • 옥천군 봉황보 개보수사업(보조)(36) • 영동군 수리시설 정비사업(107) • 증평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18) • 단양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도비)(13) • 단양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특)(10)
	주거 및 교육시설 (4건, 1,762억원)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849) • 청주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윤천·신봉동(661) •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168) •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84)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산업 및 경제시설 (10건, 790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208) • 청주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23) • 제천시 전통시장시설현대화(보조)(54) • 보은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27) • 옥천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95) • 영동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40) • 단양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6) • 도본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269) • 제천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28) • 보은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인프라에 대한 적정 투자는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성장 동인의 하나임.
 - 하지만 최근 각 지역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및 보급현황, 사회적 수요 등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해 없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각종 재난 안전 문제 증가에 따른 인프라의 재난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임.
 - 또한 저성장·고령화 사회의 도래, 삶의 질 중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추구 등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사회적으로 인프라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및 인프라 현황 진단이 필요함.
- 정부는 2018년도 SOC예산을 2017년도 22.1조 원보다 20% 감소한 17.7조 원¹⁾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회에서 19.0조 원(전년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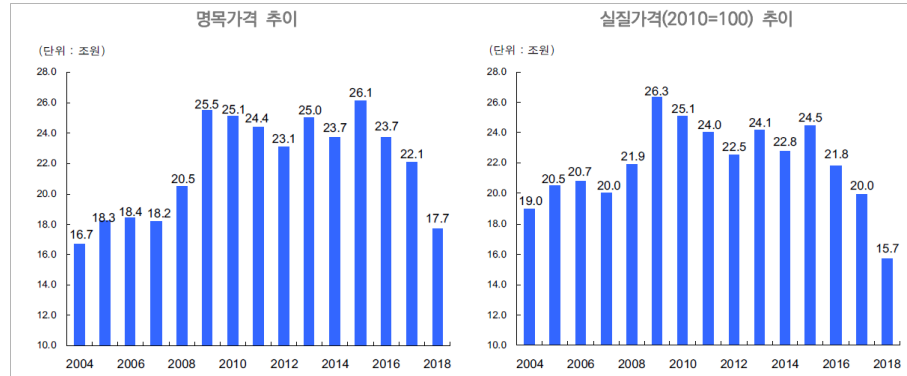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림 1-1

기존 SOC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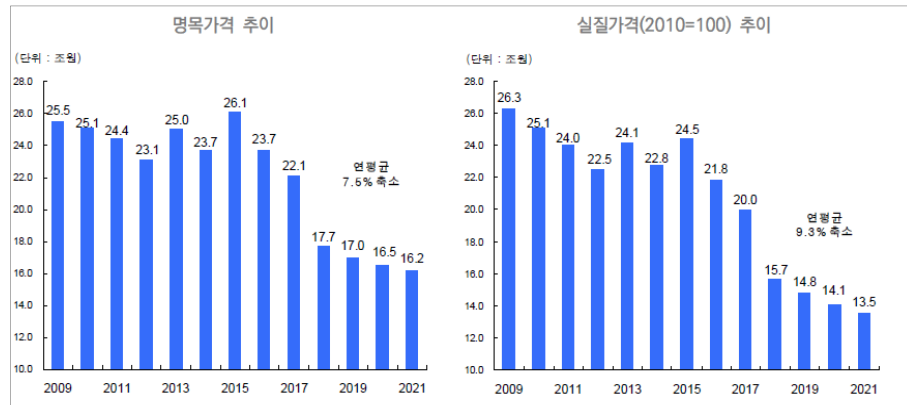
- 과거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까지 연간 약 25조원 수준의 SOC 예산 규모를 유지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



주: 추경이 포함된 예산 추이이며, 실질가격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사용
자료: 박용석 외 (2017)

그림 1-2

SOC 예산 추이와
전망



주: 추경이 포함된 예산 추이, 실질가격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사용, 2017~2018년 물가성장률 1.9% 가정 (2017년 7월 한국은행 전망치), 2019년 이후는 2%의 물가성장률 가정
자료: 박용석 외(2017)

- SOC 예산의 감축 기조는 SOC 스톡 규모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시각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SOC 관련 지표는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SOC 연장'은 G20 소속국가 중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이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정부는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OC 예산을 감소시키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함.

1) 이는 과거 14년(2004년~2018년)간 최저 수준임.

- 한편 국내 SOC 스톡은 과거 우리나라의 SOC 양적 투자성고가 과대평가된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일부는 정부의 현 인프라 투자 감축 기조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 ‘국토계수당 도로밀도²⁾’ 순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 2016년 기준 세계은행이 평가한 ‘Global Rankings 2016’에서 우리나라의 인프라 수준 평점은 3.79로 20위로 평가됨³⁾. 동 순위 국가 중 물류 경쟁력은 3.69점으로 25위 수준이며, 이는 아시아 선진국인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33.4조원으로 GDP 대비 약 2.13%를 차지함.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주요국 출근소요시간 중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특히, 통근 및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인 인구 비율이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우리나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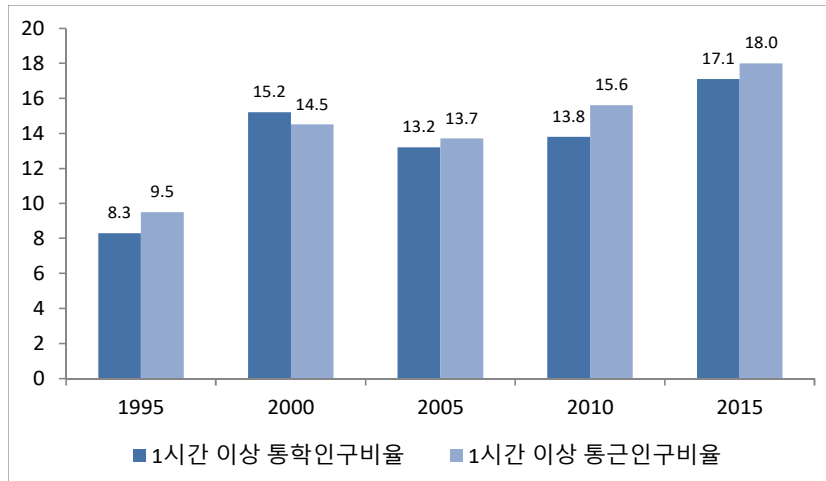


그림 1-3

우리나라 1시간
이상 통근 및 통학
인구 비율

- 인프라 예산이 정부의 현 계획과 같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충분한 투자재원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도로 연장(km)을 $\sqrt{\text{인구수} \times \text{국토면적}}$ 으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임.

3) 싱가포르(4.2), 홍콩(4.1), 일본(4.1) 등과 비교하여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며, 이태리, 중국, 아일랜드 등과 유사한 수준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과거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의 고령화 또한 급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재투자과 개량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물은 1970~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단기간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40여년이 지난 현재 '시설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임.
 -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재령 30년 이상 시설물은 전체의 9.6%수준이었으며, 2024년에는 21.5%로 급속히 증가할 것을 예견함.
 - 서울시의 경우 하수관로 총 10,392km 중 사용년수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는 약 5,000km로 하수관로 총 연장의 48.3%에 해당하며, 향후 연평균 260km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의 1·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들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미흡한 상황임. 전국적으로 7만 6천여 개의 소규모 취약시설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설 점검을 받은 시설물은 1만 4천여 개에 불과함.
- 이에 현 인프라 실태,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프라 수준 및 투자수요 등을 조사함으로써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충청북도(이하 충북)의 주요 인프라 시설 실태 분석, 관련 정책 진단, 지역도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 핵심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고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함.
 - 예산배분 결과에 따라 인프라 투자수요를 파악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시설물의 실태 및 현안 분석 기반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투자수요를 산정함.
 - 연구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실태 분석 결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함. 또한, 핵심 의사결정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목

4)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도로 및 교량, 육교, 지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함.

- 본 연구 결과는 충북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환경, 삶의 질 수준 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우선 순위 및 투자정책 방향을 제공함.
 -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연고를 배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와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인프라 투자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
 - 지역 내 인프라 환경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 방향과 우선적 투자가 필요한 주요사업들을 제시함.
- 인프라 시설물들의 노후도 실태를 진단하여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설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인 투자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시민의 안전 향상 및 재정 절감에 기여함.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은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향후 도시의 기능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인프라 기능을 주기적으로 복원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
 - 인프라 시설물별 노후도 및 안전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설물의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총 예산(생애주기 비용 등)에 대한 절감을 기대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충북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별 신규 건설 또는 성능개선 소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함.
- 첫째, 충북 지역의 일반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경제 성장과 주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통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함.
- 둘째, 해외 주요 인프라 투자정책과 프로젝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충북 내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조사함. 조사 대상 인프라 시설은 크게 교통시설,물관리시설, 주거 및 교육시설, 산업 및 경제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며, 세부 시설물 유형으로 구성됨.

표 1-1

충북지역
조사대상 시설물
분류

시설물 분류	세부 시설물
교통시설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물관리시설	상수도, 하수도, 침수저감시설, 하천, 댐, 수리시설
주거 및 교육 시설	주거시설, 도심재생사업, 교육시설
산업 및 경제시설	산업단지, 전통시장
기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넷째, 충북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주요 정책적 동향 및 사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인프라 정책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다섯째, 충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인프라 시설물의 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 등에 대해 설문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인프라 수요 우선순위를 도출함.
- 여섯째, 인프라 시설물별 실태조사 결과, 인프라 투자 및 정책 진단 결과, 설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인프라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함.
- 일곱째, 충북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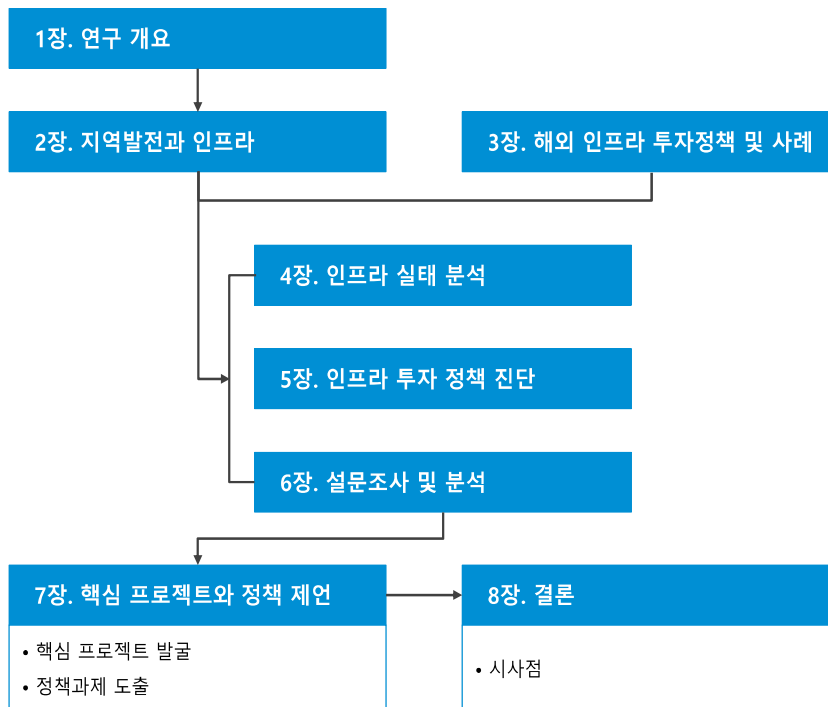


그림 1-4
연구 흐름도

- ‘충북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표 1-2

보고서 구성 및
주요내용

장(Chapter)	주요내용
I.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II. 지역발전과 인프라	1. 충청북도 사회 및 경제 동향 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3. 삶의 질과 인프라
III.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IV. 지역 인프라 실태 분석	1. 교통시설 2. 물관리시설 3. 주거 및 교육시설 4. 산업 및 경제시설 5. 기타시설
V.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교통시설 2. 물관리시설 3. 주거 및 교육시설 4. 산업 및 경제시설 5. 기타시설
VI.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 결과 분석 3. 시사점
VII. 지역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와 정책과제	1. 충북 인프라 투자 방향 2. 충북 지역 핵심 프로젝트 3. 핵심 프로젝트 총괄집계
VIII.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제2장 지역발전과 인프라

1. 충청북도 사회 및 경제 동향

(1) 인구

- 2015년 기준 충북 총 인구는 약 159만 명으로 행정구역 기준 강원도 다음으로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충북 인구는 2000년 기준 149만 명에서 2015년 159만 명으로 약 6.3%가 증가함.
- 2015년 충북 인구성장률은 0.69%로 전국 인구성장률 0.53%을 상회하며, 충북 인구는 203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은 충북 인구성장률이 2039년에 0.01%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39년 충북의 총 인구수는 약 174만 명 수준으로 예측함.
 - 지역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수요가 예견되며 관련 정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경제적 일자리 및 사업 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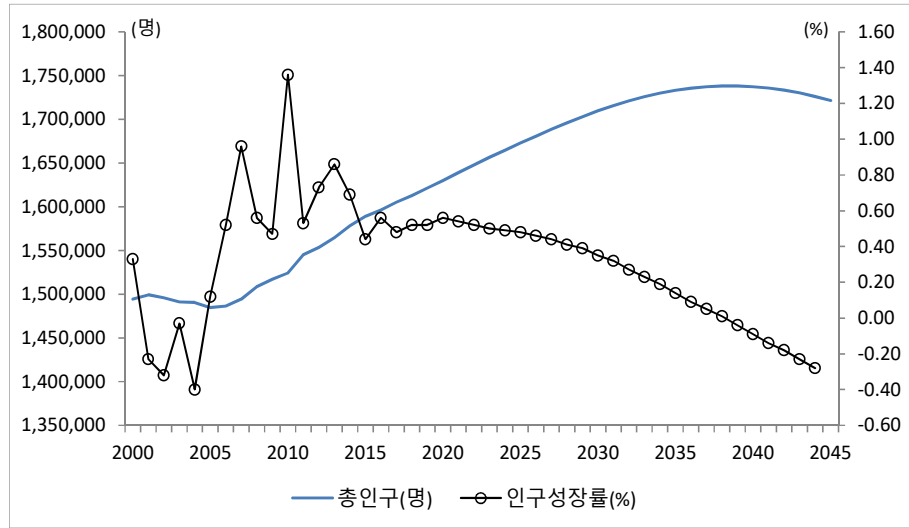
1. 충청북도 사회·경제 동향

1.

충청북도 사회·경제 동향

그림 2-1

충북 추계인구
및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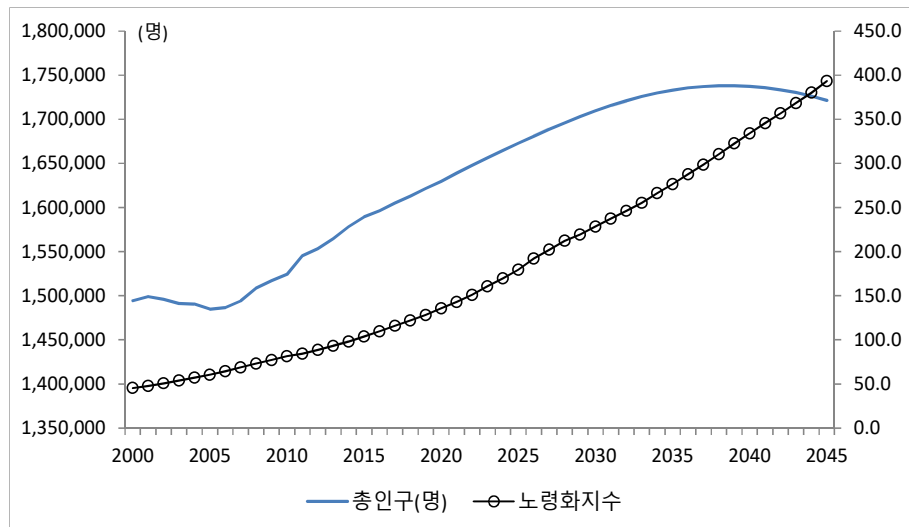


주 : 미래 인구수 및 성장률은 중위추계(기본추계)값 사용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 2015년 충북의 노령화 지수는 103.8로 전국 93.0을 상회하며,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전망됨.
- 통계청은 충북 내 노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5년에는 전국 평균 노령화 지수(352.7) 보다 약 40.0% 높을 것으로 예상함.
- 향후 충북의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 및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가 예상됨.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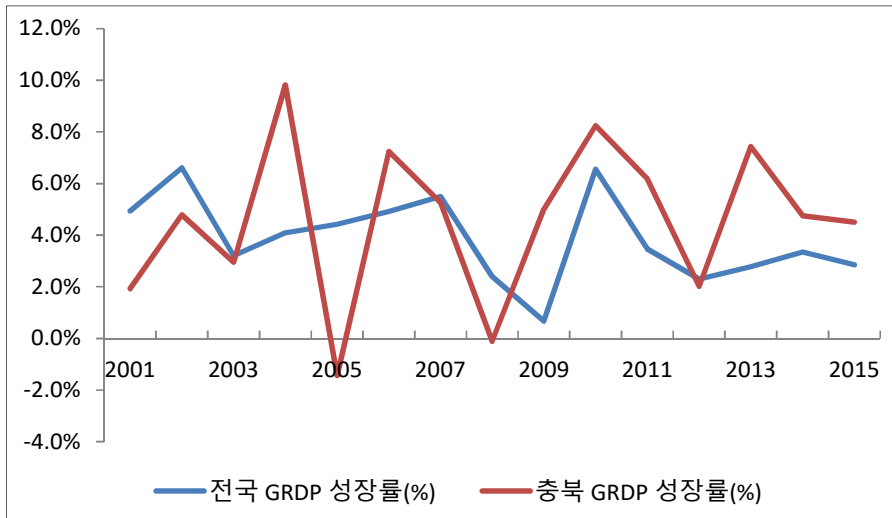
충북 추계인구
및 노령화 지수



주 : 미래 인구수 및 노령화지수 중위추계(기본추계)값 사용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2)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2010년 가격 기준 충북 GRDP 성장률은 4.5%로 전국 평균 2.8%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충북 GRDP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53조원으로 도 단위 행정구역 기준 강원, 전북, 제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주 : 2010년 가격 기준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내총생산(GRDP)

- 2015년 충북 1인당 GRDP 규모는 약 3,300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3,070만 원보다 높은 수준임.
 - 충북의 1인당 GRDP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로 충북 1인당 GRDP는 2009년까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부터 전국 평균을 상회함. 이후 충북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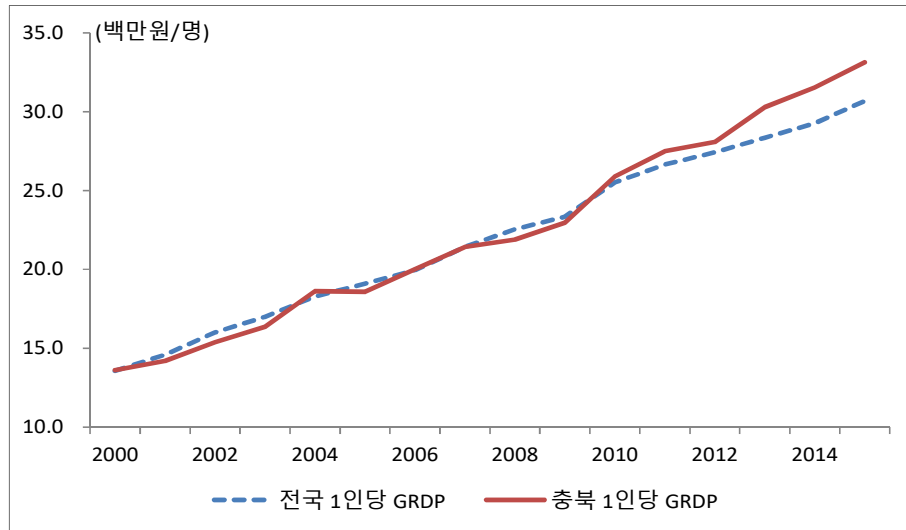
전국 및 충북
GRDP 성장률
변화

1.

충청북도
사회·경제
동향

1. 충청북도 사회·경제 동향

그림 2-4
전국 및 충북
1인당 GRDP 변화



주 : 2010년 가격 기준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지역내총생산(GRDP)

(3) 산업구조

- 2015년 충북 주요 산업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3.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
2015년
전국 및 충북
산업별 생산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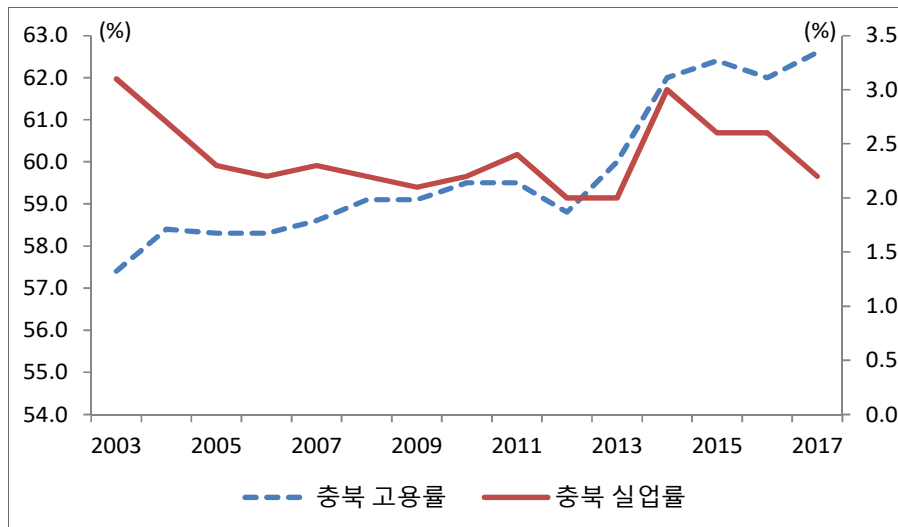
구분	전국	충북	차이
농림어업	2.3%	4.1%	1.8%
광업	0.2%	0.5%	0.3%
제조업	29.7%	43.5%	13.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1.2%	-1.4%
건설업	5.4%	5.6%	0.2%
도매 및 소매업	8.4%	4.2%	-4.2%
운수업	3.9%	3.1%	-0.8%
숙박 및 음식점업	2.7%	2.1%	-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	1.1%	-2.7%
금융 및 보험업	5.5%	3.0%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	5.0%	-3.0%
사업서비스업	7.5%	5.2%	-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2%	9.6%	2.4%
교육서비스업	5.3%	5.4%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4%	3.5%	-0.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0%	2.9%	-0.1%

주 : 생산물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기초가격)내 비중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충청북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6%), 건설업(5.6%), 교육서비스업(5.4%), 사업서비스업(5.2%), 부동산업 및 임대업(5.0%) 순으로 나타남.

(4) 고용

- 2017년 충북 고용률은 62.6%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실업률은 2.2%로 전국 평균 3.7%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남.
- 충북 연도별 고용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잠시 하락하였으나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충북 연도별 실업률은 2003년 이후 2012~13년에 2.0%로 가장 낮았으며, 상승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률; 실업률

그림 2-5

충북 고용률 및
실업률 변화

1.

충청북도
사회·경제
동향

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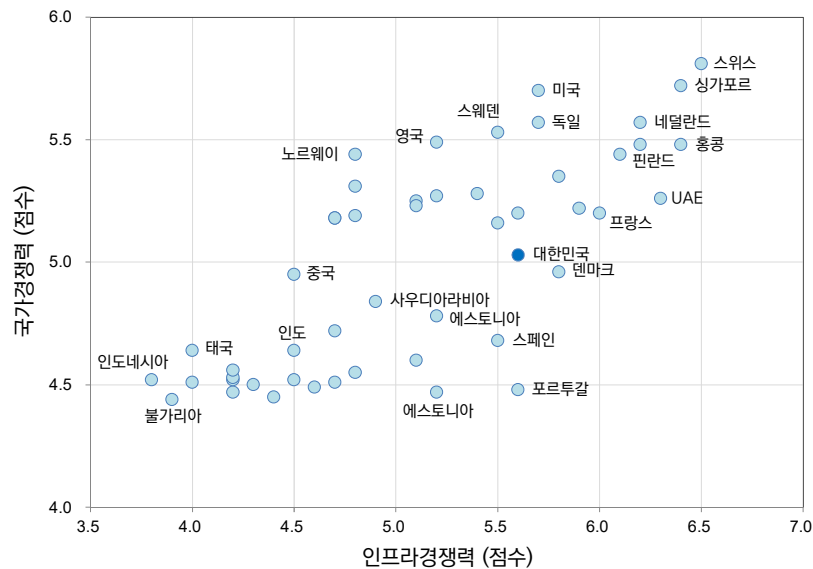
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1) 경제 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 WEF(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한 보고서⁵⁾에 의하면 국가의 인프라 수준⁶⁾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과 높은 관련성을 보임.
- 국가 경쟁력 상위 50개국의 인프라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인프라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예를 들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인프라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도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글로벌 국가 경쟁력은 평가 대상 총 138개국 중 26위, 상세 부문별 경쟁력 중 인프라 경쟁력은 14위로 평가됨.

그림 2-6

WEF 국가 경쟁력
상위 50개국 분포



주: 인프라 경쟁력은 인프라 전반의 품질 점수(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를 적용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6)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를 분석한 최석인 외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 스마트 인프라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인용

5) Schwab K.(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World Economic Forum.

6) WEF의 인프라 경쟁력은 1) 인프라 전반(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 2) 도로 (quality of roads), 3) 철도 인프라 (quality of railroad infrastructure), 4) 항구 인프라(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5) 항공 인프라(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6) 여객기 운송능력(available airline seat kilometers), 7) 전력 공급(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8) 무선전화 등록 수(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9) 유선전화(fixed-telephone lines) 등 9개 부문의 평가를 종합해 인프라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음.

- 국내 인프라 투자는 산업화 시기 이후 교통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투입되었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함.
 - 지난 40년간 국내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입된 교통 인프라는 생산 고용 유발 등 경제 활성화, 고용 안전화,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
- 국가의 경제성장은 국가를 구성하는 도시 및 지역 경제 성장의 총합으로 산출되며, 지역 경제 성장 또한 인프라 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 나경연, 박철한(2017)은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모형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인당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인구 1인당 인프라 자본과 1인당 GRDP를 16개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충북의 경우 1인당 인프라 자본 투자를 증가하면 1인당 GRDP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지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 및 경제시설 등이 있으며, 인프라 시설과 지역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지니고 있음.
 -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은 산업 및 경제시설의 유치를 지원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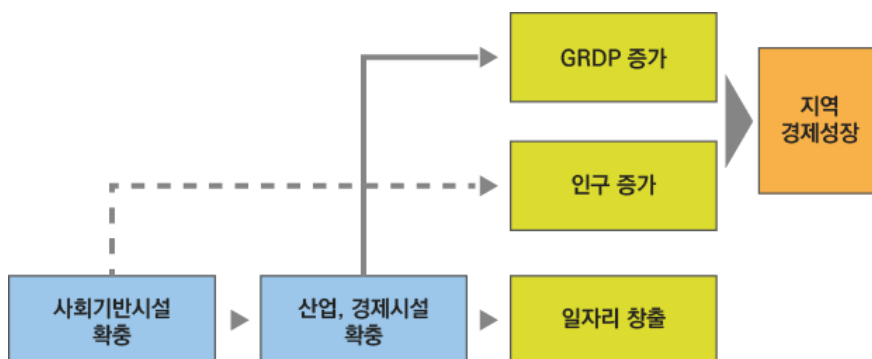


그림 2-7

지역 경제 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 전통적으로 국내 인프라 투자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를 위해 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지역적 특색에 맞는 산업 및 경제시설에 투자됨.
- 이러한 경제성장 중심의 인프라 투자는 단기간에 국가 및 지역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자살 및 이혼율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함께 발생함에 따라 지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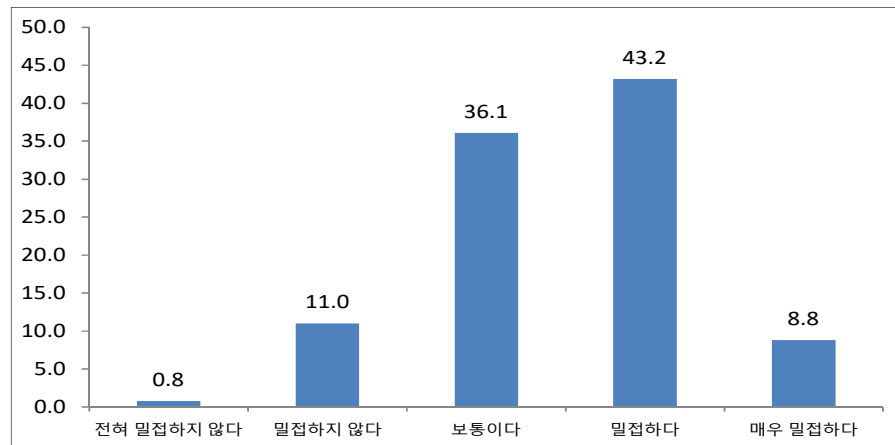
(2)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필요성 [설문조사]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충북 도민이 생각하는 경제 성장과 인프라 시설의 연관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밀접하다’, ‘매우 밀접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2.0%로 조사됨.
- 충북 도민 대상 설문 결과 ‘밀접하지 않다’, ‘전혀 밀접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8%에 불과하며, 이는 지역민들에게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에 중요하게 인식됨을 알 수 있음.

(단위 : %)

그림 2-8

충북 경제 성장과
인프라 설문 결과



-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도로시설, 주거시설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조사됨.
- 경제 성장과 인프라 시설의 연관성은 평균 3.48점(5점 척도 기준)이며, 충북 내 13개 주요 시설물 전체에 대해 ‘보통이다(3.00)’ 이상의 평가 결과도 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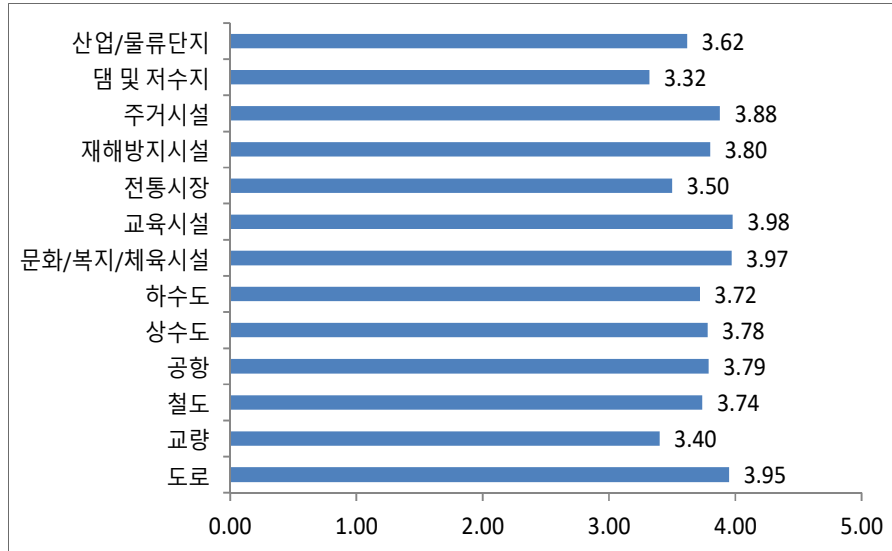


그림 2-9

충북 경제성장과
시설물 설문 결과

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3. 삶의 질과 인프라

(1)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 지역의 발전 수준은 지역 경제 성장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의 질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경제 성장은 지역의 양적 발전을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질적 발전을 의미함.
- 지역 경제 성장은 특정 지역 안에서 발생한 생산 활동의 총합을 의미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내총생산(GRDP)은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생산을 강조하던 1930~40년대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함.
-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지표만을 적용한 방식의 한계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 또는 구성원의 행복과 같은 사회적 지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각 국가의 교육수준, 1인당 소득,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삶의 질을 계량화한 지수로 1990년부터 매년 발표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는 각국의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환경, 안전 등 11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웰빙(well-being)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2011년부터 사용됨.
 - 이 외에도 영국의 ‘지구 행복 지수’(Happy Planet Index, HPI), 미국의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 GPI), 일본의 ‘GDP 플러스’ 등이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에도 국가 경제 규모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발표함⁷⁾.
 - 2006년 대비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8.6%로 증가하였지만 동

7)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일한 기간 동안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8% 향상됨.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분석함.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교육, 안전, 소득·소비, 사회 복지, 환경 등 12개 영역에 해당하는 80개 평가항목을 통해 측정됨.
- 영역별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이 낮았으며, 교육과 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선수준이 높게 조사됨.

-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됨. 주요 결정요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삶의 질 결정요인
Andrews(1976)	소득수준, 소음정도, 주거환경, 교통사정
Marans&Dillman (1980)	대중교통, 공공안전과 경찰활동, 소방 및 쓰레기처리, 공원과 여가, 건강, 생활 편의, 공해
김병국(1989)	자연·인구환경, 주거환경, 보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 안전
정규현(1994)	소득, 환경, 복지
중앙일보(1995)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교육·복지, 경제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
이현송(1997)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정보, 형평
강성도(2002)	경제상태, 교통, 문화, 정보화, 사회복지, 범죄율,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의료 서비스, 주거 등
김구(2003)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송인성(2004)	인구, 주거, 소득 및 고용, 교육, 건강, 교통안전, 주민참여, 자연환경 및 여가 활용, 인공 환경, 토지시장 등
이재하(2007)	교육, 의료, 복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자료 : 조성호 외 (2009)

- 개인 삶의 질은 삶의 기본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요구 만족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프라 시설 확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개인의 생존과 관련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만족시켜주는 인프라 시설물(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재해방지시설 등)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
- 지역의 산업 및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의 확충은 고용 창출 및 증대 효과를 통해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생활 기반 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개인의 복지요구를 만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표 2-2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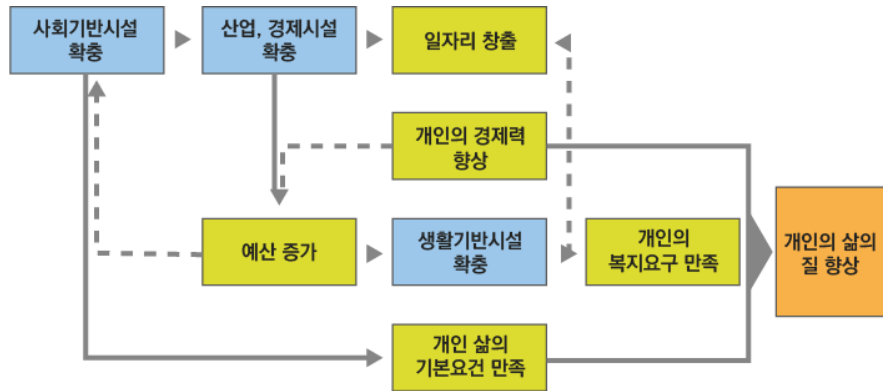
3. 삶의 질과 인프라

3.

삶의 질과 인프라

그림 2-10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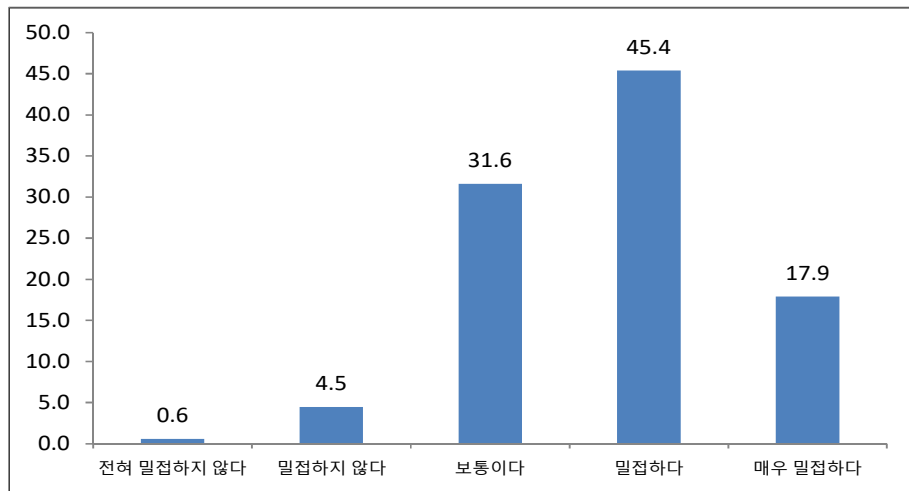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설문조사]

- 지역 인프라와 주민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문 결과, ‘밀접하다’, ‘매우 밀접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3%로 조사됨.

(단위 : %)

그림 2-11

충북 삶의 질과
인프라 설문 결과



- 이는 인프라와 경제 성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문 결과(52%)보다 높은 수치로 인프라 시설물 확충은 경제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509명의 설문대상자 중 ‘밀접하지 않다’, ‘전혀 밀접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그침. 설문 결과를 통해 인프라 투자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주거시설, 도로시설, 재해방지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조사됨.
- 삶의 질과 인프라 시설의 연관성은 평균 3.75점(5점 척도 기준)이며, 충북 내 13개 주요 시설물 전체에 대해 ‘보통이다(3.00)’ 이상의 평가 결과가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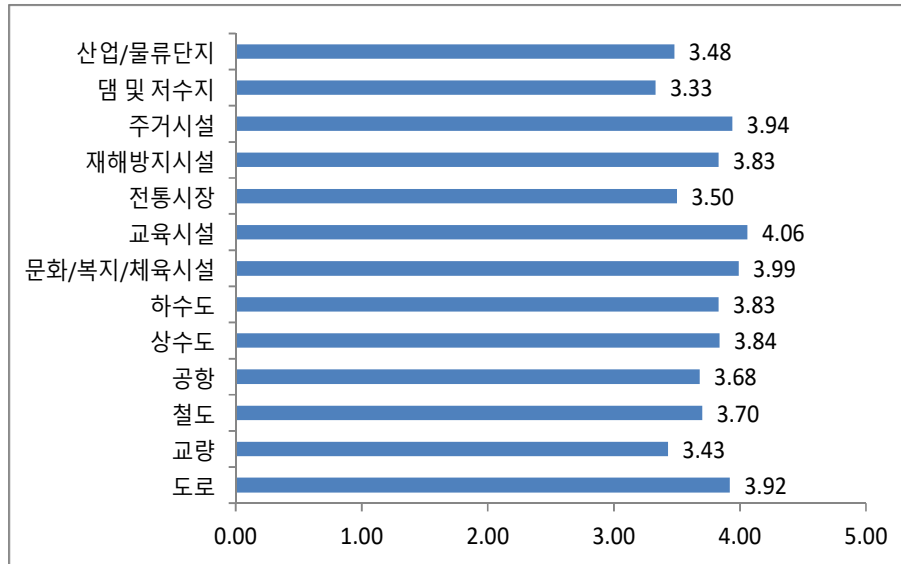


그림 2-12

충북 시설물별
삶의 질과 인프라
설문 결과

3.

삶의 질과
인프라

제3장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⁸⁾

(1)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

1) 미국

- 미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왔음.
 -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2009년부터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나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SOC 투자는 다시 감소하였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그림 3-1> 참조).
 - 분야별 SOC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9년에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해 교통 및 물류 부문에 중점 투자하기 시작하였음.
 - 이로 인해 2006년에는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52.8%, 47.2%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2015년 교통 및 물류 부문의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에서 발췌 및 정리함.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그림 3-1

미국의 총지출
대비 SOC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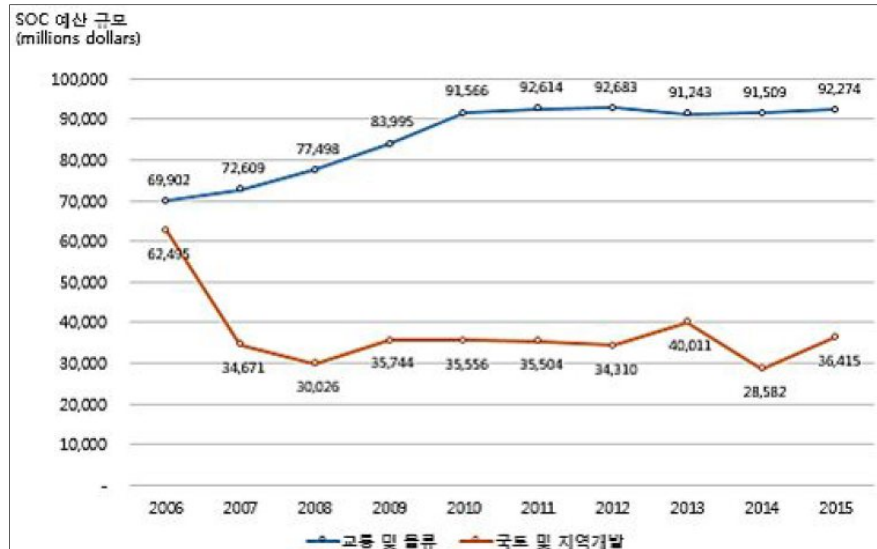
투자는 71.7%까지 증가하였음(<그림 3-2> 참조).



자료: 미국 예산관리국(2015), 국토연구원(2016)에서 재인용

그림 3-2

미국의 부문별
SOC 자원 배분



자료: 미국 예산관리국(2015), 국토연구원(2016)에서 재인용

2) 영국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 비중을 2010년 3.4%에서 2012년 2.9%로 감소시킴.
 -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SOC 투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체 예산의 3.1%까지 회복됨.
- 부문별 SOC 자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 예산의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그림 3-3> 참조).
 - 특히, 교통 부문에서 철도가 전체 예산의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도로가 약 24%, 국가 도로가 약 16%, 대중교통이 약 1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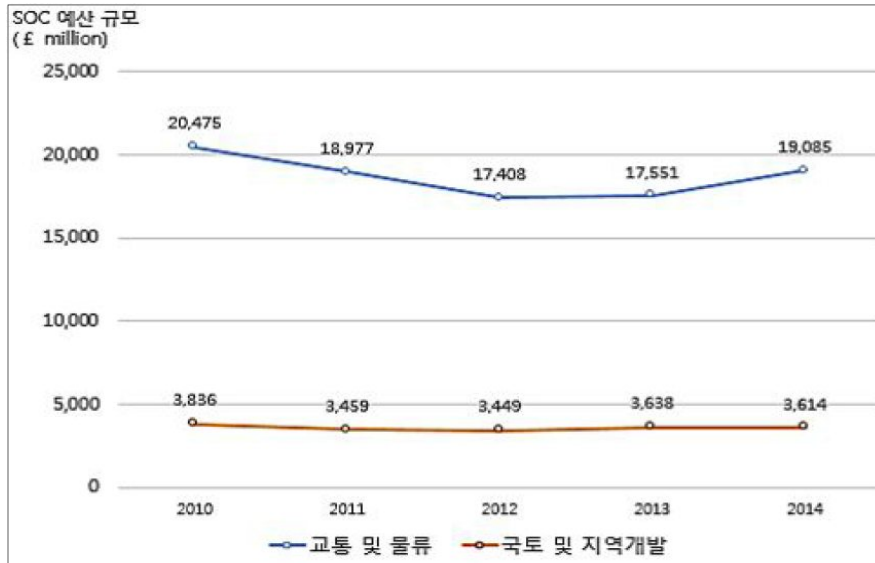


그림 3-3

영국의 부문별
SOC 자원배분

3) 독일

- 독일은 전체 예산에서 SOC 투자 비중이 2013년 6.2%, 2014년 5.9%, 2015년 6.3%로 평균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1

독일의 SOC 예산
규모

-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독일의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표 3-1> 참조).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SOC 예산	18,200	18,212	18,972	22,607
총지출 대비 비중	6.2	5.9	6.3	7.1
SOC 예산 증감률	-	0.1	4.2	19.2

주 : 2016년은 추정 값을 사용
자료 : 조정식 (2016. 9)

- SOC 예산의 부문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에 대한 투자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도로가 SOC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철도 및 대중교통이 20% 정도임.
 - 반면, 주거, 지역 계획, 지역 공동체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는 10%대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서비스 관련한 투자는 2013년 21.4%에서 2016년 26.4%로 증가하는 양상임(<표 3-2> 참조).

(단위 : 백만 유로(€), %)

표 3-2

독일의 부문별
SOC 예산

구분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SOC 예산		18,200	100.0	18,212	100.0	18,972	100.0	22,607	100.0
교통	도로	7,399	40.7	7,852	43.1	7,859	41.4	8,786	38.9
	철도 및 대중교통	4,597	25.3	4,274	23.5	4,953	26.1	5,349	23.7
	소계	11,996	65.9	12,126	66.6	12,812	67.5	14,135	62.5
주거, 지역 계획, 지역 공동체서비스		2,304	12.7	2,010	11.0	2,004	10.6	2,502	11.1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거래, 서비스		3,900	21.4	4,076	22.4	4,156	21.9	5,970	26.4

주 : 2016년은 추정 값을 사용
자료 : 조정식 (2016. 9)

4) 호주

- 호주의 전체 GDP 예산에서 인프라 투자 금액은 최근 6년 간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는 전체 인프라 투자 금액의 50%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통신이 약 30%, 에너지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 호주달러, %)

분야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에너지	교통	73,044	75,538	75,105	74,323	74,811
	전기	25,771	25,576	24,973	25,141	25,463
	가스	1,681	1,831	1,805	2,019	2,227
전기통신		42,321	41,983	42,905	46,968	50,214
상하수도		16,454	16,912	16,460	16,674	17,068
GDP		1,509,109	1,545,932	1,584,578	1,621,350	1,668,711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		10.6	10.5	10.2	10.2	10.2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Key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표 3-3

호주의 인프라
투자 규모

- 교통 분야의 경우 도로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는데 2014-15년에는 전체 교통 투자 금액의 30.3%인 227억 호주달러(AUD)를 지출함.
- 다음으로, 운송 수단 및 철도 등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전체 GDP에서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10% 수준을 유지하여 왔는데, 이 중 교통 분야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대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최근 6년 간 추이를 살펴볼 때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발간한 'Engineering Construction Activity'에서 인프라 분야별 기성 추이를 분석하면, 2001년 이후 교통, 수자원,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 인프라의 경우 2009~10년부터 2011~12년까지 성장한 뒤 2012년 이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후 감소하였음.

- 수자원 부문의 기성 규모는 2007~08년에 급격히 증가한 후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South East Queensland Water Grid’ 등의 공사 완료 후 그 규모가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 호주달러, %)

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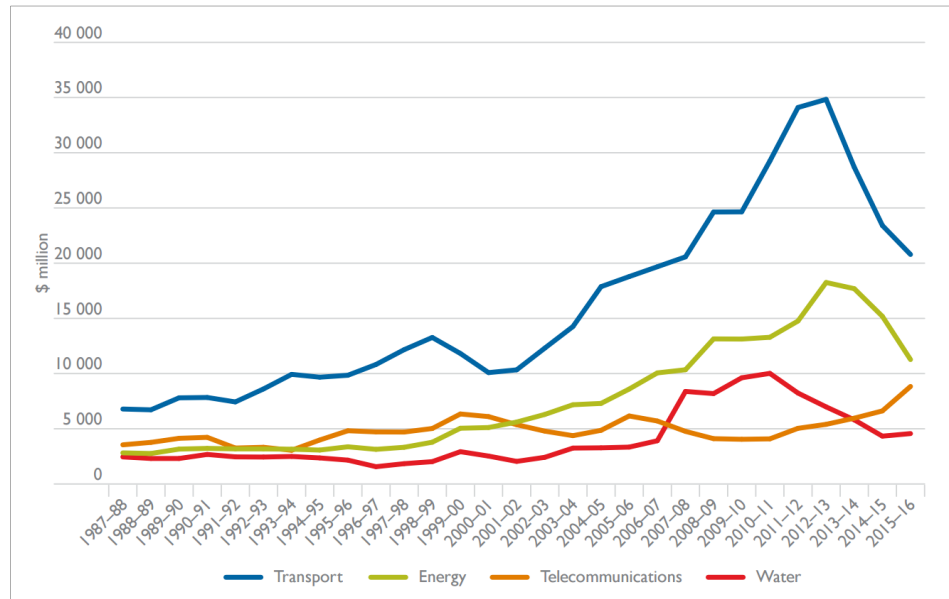
호주의 교통 부문별 투자 규모

분야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교통	73,044	75,538	75,105	74,323	74,811
도로	22,661	22,578	23,040	22,790	22,693
공항	6,818	6,854	6,758	6,746	7,230
철도 등 기타 교통수단	10,507	10,994	10,940	11,398	11,127
운송	33,085	35,151	34,367	33,389	33,760
GDP	1,509,109	1,545,932	1,584,578	1,621,350	1,668,711
GDP 대비 교통 투자 비중	4.8	4.9	4.7	4.6	4.5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그림 3-4

호주의 인프라 분야별 기성 추이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Key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5) 일본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음.
- 부문별 투자를 살펴보면, 교통 부문이 7조 7,500억엔으로 SOC 투자 금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커뮤니티 발전부문이 2조 1,500억엔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음.
- 교통 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는 일본의 노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OC 예산	10,054,300	9,273,500	9,125,200	9,067,400	10,118,200
총지출 대비 비중	5.1	4.7	4.6	4.5	5.0
SOC 예산 증감률	-	-0.077	-0.015	-0.006	0.115

자료 : 국토연구원(2016); 조정식 (2016. 9)

표 3-5

일본의 SOC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OC 예산	10,054,300	9,273,500	9,125,200	9,067,400	10,118,200
교통	7,371,000	6,657,400	6,895,800	6,906,700	7,756,500
수자원 공급	274,800	197,700	186,500	186,000	201,800
커뮤니티 발전	2,408,500	2,418,400	2,042,900	1,974,700	2,159,900

자료 : 국토연구원(2016); 조정식 (2016. 9)

표 3-6

일본의 부문별
SOC 예산

(2) 국가별 장기 인프라 계획상의 질적 제고 방향

1) 미국

-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미국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2006년 6.2점에서 2016년 5.9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 또한, 2016년 기준으로 교통 분야별 질적 수준 점수는 7점 만점을 기준으로 항공 6.2점, 항만 5.7점, 도로 5.7점, 철도 5.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9)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2016), 2016 Economic Report of President, p.259.; World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 미국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에서 발간한 인프라 평가 보고서에서도 2013년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준은 'D+' 등급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 이처럼 미국은 현재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와 품질 감소 등으로 이에 대한 재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¹¹⁾

(단위 : 백만 달러)

표 3-7

미국 부문별
정부 예산 계획

분야	2017 (추정)	2018 (추정)	2019 (추정)	2020 (추정)	2021 (추정)
교통					
육상	78,503	91,645	94,619	103,861	100,471
항공	19,779	19,701	20,058	20,313	21,195
수자원	10,045	10,247	10,484	10,731	10,991
기타	496	503	516	525	534
소계	108,823	122,096	125,677	135,430	133,191
도시 및 지역 개발					
도시 개발	4,492	4,268	4,351	4,438	4,526
지역 개발	13,040	3,058	3,128	3,218	3,251
재난 구조 및 사회보장	12,067	5,625	5,998	6,323	6,485
소계	29,599	12,951	13,477	13,979	14,262

자료 :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미국의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발표한 미 연방정부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표 3-7> 참조).
- 특히, 도로 등과 같은 육상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전체 교통부문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통 분야와 관련, 미국은 2015년 국가교통 예산법인 「육상교통정비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을 제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간 약 3,050억 달러를 도로, 안전, 대중교통, 철도,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음.¹²⁾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Survey.

10) 강상혁·이영환,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 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11)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2)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향후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21세기청정교통계획(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기조 하에 이뤄지고 있음.
 - 즉, 미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새롭고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7년 예산에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96억 달러가 증가한 총 730억 달러가 편성되었는데, 인상분의 대부분인 179억 달러가 ‘21세기청정교통계획’에 투자되었음.¹³⁾
 - 예산 투자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목표로 설정되었음.¹⁴⁾
 - ▶첫째, 일상생활에서 교통 체증을 감소하기 위해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도심, 시골 등에 교통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경제 회복을 위한 교통 투자(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TIGER)’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임.
 - ▶둘째, 이산화탄소 감소, 효율성 극대화, 공공투자에 대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하고, 더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셋째, 스마트하고 깨끗한 운송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동안 매년 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으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저탄소 운송 수단 등 현재의 교통 연료 수단의 대체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이 교통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매년 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등이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등을 만들 것임.
 - ▶그 외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현재 정유 회사에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음.
-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였고 향후 10년 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미국은 주요 인프라 시설 노후 연수가 평균 27년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13) ARTBA(American Road & Transportation Builders Association, 2016), Analysi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Y2017 Budget Proposal for Transportation : 1쪽.

14)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nvesting in American Infrastructure.

1.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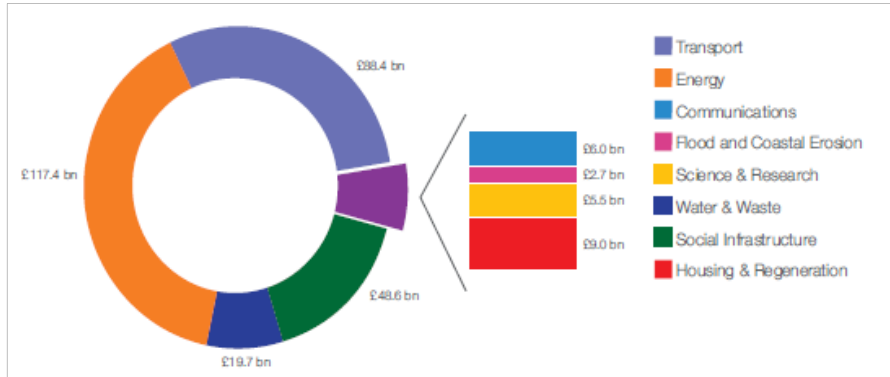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2015년 기준 도로 및 고속도로 28.4년, 상수도 25.6년, 하수도 26.5년) 트럼프 인수위는 이미 대통령 취임 이전 전국주지사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으로부터 해결이 시급한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을 받아 1,375억 달러 규모의 50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한 바 있음.

2) 영국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국가 인프라 투자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이하 NIP)’을 수립하였음.
- NIP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05~06년부터 2009~10년까지 420억 파운드를, 2010~11년부터 2014~15년까지는 약 17% 증가한 490억 파운드가 지출되었음.
- 영국은 2010년 이후부터 인프라에 총 2,50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왔음.
- 그 결과 주요 도로와 지역 교통, 수백 개의 전철 등 약 3,000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
- 이후 2016년에 영국 정부는 NIP를 NIDP(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2020~21년까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6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4,83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영국은 이 계획에 처음으로 사회적 인프라(학교, 병원, 교도소)와 함께 대규모 주택 재건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2020~21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예산에서 약 3,000억 파운드를 에너지, 교통, 사회적 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그림 3-5> 참조).
- 2016년부터 향후 5년 간 인프라 투자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1,174억 파운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교통(884억 파운드), 사회 인프라(486억 파운드), 수자원(197억 파운드) 부문임.



자료 :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Major Infrastructure Tracking Unit,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그림 3-5

영국
2016~21년까지
부문별 인프라
투자 계획

- 영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의 중기적(2020~2021년까지), 장기적(2050년까지)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에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IPA)’와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이라는 2개의 기관을 설립하였음.

- IPA는 2016년 1월 정부의 주요 인프라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감독, 자금 조달을 위해 Infrastructure UK(IUK)와 Major Project Authority(MPA) 두 기관을 합병하여 출범시킨 조직임.
- IPA는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1,630억 파운드 규모의 중장기적 관점의 건설 전략인 ‘UK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20’을 발표하였음.
- 이는 2011년 발표된 ‘건설전략 2011~2015’의 2차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영국 정부는 ‘건설전략 2011~2015’를 통해 발주자로서 산업 참여자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¹⁵⁾

-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NIC)는 2015년 10월 효과적인 장기 인프라 계획을 위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NIC는 미래에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 ① 스마트 전력(Smart Power), ② 세계적 도시를 위한 교통(Transport for a World City), ③ 장기 계획을 위한 북쪽의 도로와 철도의 연결(High Speed North)이라는 3대 도전 과제를 만들었음.
- 여기에는 6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있으며, 그 규모는 약 4,250억 파운드

15)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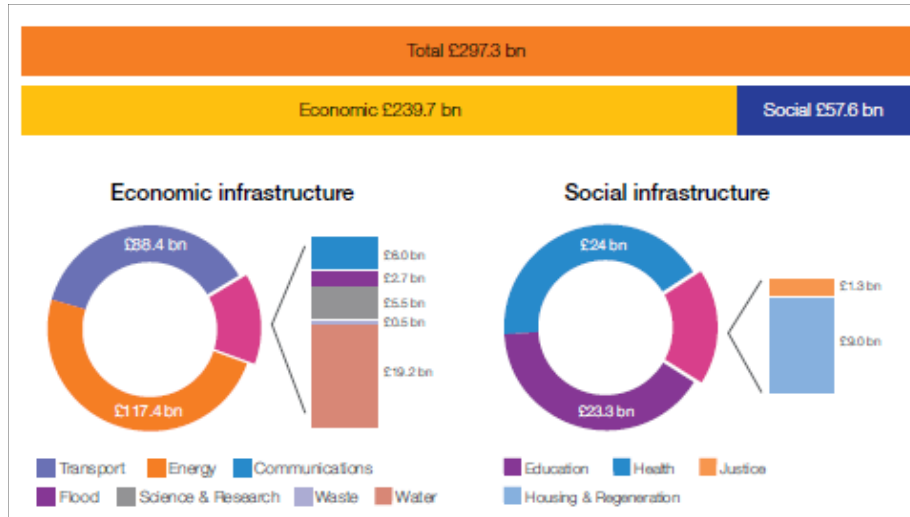
표 3-8

영국 2016~17년
분야별 인프라
프로그램과 규모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사회적 인프라는 제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8>과 같이 교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재난,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약 4,000억 파운드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웠음.

분야	프로젝트(개수)	프로그램(개수)	투자 규모 (십억 파운드)
커뮤니케이션	2	4	6.0
에너지	109	58	255.7
방재	6	23	4.1
과학 및 연구	25	7	5.5
교통	166	163	134.5
폐기물처리	10	0	0.5
수자원	1	28	19.3
전체	319	283	425.6

- NIDP에 따르면 영국은 연평균 590억 파운드씩 2020~21년까지 총 2,970억 파운드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임.
- 전체 투자 금액인 2,970억 파운드 중 2,397억 파운드(80.7%)가 경제적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인프라(주택 개조, 교육, 교도소 등)의 경우 약 580억 파운드가 지출될 예정임.
- 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상으로는 프로젝트의 50%가 2020~21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3-6>참조).



자료 :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Major Infrastructure Tracking Unit,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그림 3-6

영국
2020~21년까지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

3) 독일

- 독일은 2030년까지 교통부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이를 위해 2003년 'FTIP(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를 수립함.
 - 기존의 교통 전략이 1980년대에는 철도 네트워크 개발, 1990년대에는 도시 재건, 2000년대에는 주요 도시의 연결 등 부분적으로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FTIP는 독일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FTIP 2030은 '교통 이용자의 이동성 촉진', '재화 공급의 명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교통수단의 안정성 강화', '오염 배출 물질의 감소', '자연 보호', '소음 방지 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목표별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도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연방정부의 교통부문 인프라 투자를 살펴보면, 2011~2015년에 도로의 유지보수 관련 지출 비중은 증가한 반면, 도로의 새로운 건설 및 교체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음.
 - FTIP에서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약 100억 유로씩 총 1,500억 유로를 철도, 도로, 수로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음.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9

FTIP 2030의
목표 및 세부전략

목표	세부 전략
교통 이용자의 이동성 촉진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교통 흐름 개선 및 병목현상 해결 교통의 접근성 향상
재화 공급의 명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교통 인프라 구축 원가 감소 교통 흐름 개선 및 병목현상 해결 교통수단 운영의 신뢰성 향상 공항, 항구 등 각종 운송 수단을 통합한 허브 구축
교통수단의 안정성 강화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가진 교통수단으로 이동
오염 배출 물질의 감소	교통 흐름 개선 및 병목현상 해결 오염 물질 배출을 낮추는 교통수단으로 이동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자연 보호	토지 개발 제한
소음 방지 등 삶의 질 향상	소음 방지

- 즉,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유지·보수하고 대체하는 데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FTIP 2030에서도 인프라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기존 인프라 시설의 유지보수 및 대체를, 다음으로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을 꼽았음.

-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FTIP 2030에서는 첫째,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둘째, 지속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음
- FTIP 2030에서는 <표 3-10>에서와 같이 2,696억 유로의 자금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중 2,267억 유로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성능 향상 및 최우선 프로젝트로 선정된 신규 인프라에 투자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TIP에서는 2030년까지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교체를 위해 1,41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은 FTIP가 당초 세운 계획 대비 약 69% 정도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83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더 편성할 예정임.
-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교체는 도로(670억 유로)와 철도(584억 유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전체 예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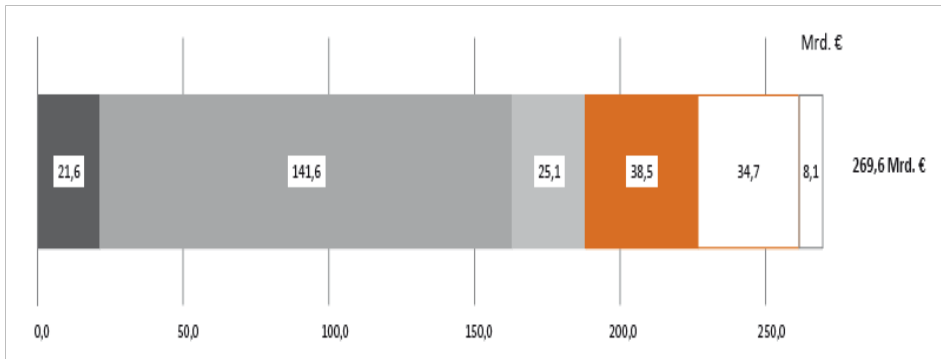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유로)

분야	총 투자	기타 투자 (2016 ~ 2030)	시설물 유지/교체 (2016 ~ 2030)	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2016 ~ 2030) (시설물 유지/교체 제외)		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 '준비' (2031년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체 투자	지속적이고 명확히 계획된 프로젝트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시설물 유지 및 교체가 포함된 새로운 프로젝트
간선 도로	132.8	12.0	67.0	15.8	18.3	19.6
철도 인프라	112.3	7.4	58.4	8.4	18.3	19.7
운하	24.5	2.2	16.2	0.9	1.8	3.5
전체 교통 수단	269.6	21.6	141.6	25.1	38.5	42.8

자료 :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표 3-10

FTIP 2030의
교통 분야별
투자 계획



주 : 왼쪽부터 2030년까지 기타 투자액, 2030년까지 지속적이고 명확히 계획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 2030년 이후 투자액(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 2030년까지 유지보수 투자액,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투자액, 2030년 이후 투자액(유지보수 투자액)

자료 :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그림 3-7

FTIP의 예산 배분

- 한편, 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 투자(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체 제외)에도 총 636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 이 중 251억 유로는 지속성이 있고 명확히 계획된 프로젝트에, 나머지 385억 유로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투자될 계획이다. 신규 투자 또한, 도로와 철도 인프라에 예산의 90% 이상이 배정되어 있음.
- 종합해보면, 전체 예산에서 49.4%가 도로에, 41.3%는 철도에, 9.3%는 운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하에 투자될 계획임.

- 2030년까지 인프라 중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예정임.
- 특히, 독일의 교통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신 현재의 인프라를 개선(예산의 약 70% 배정됨)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임.

4) 호주

- 호주 정부는 향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인프라의 자동화와 첨단화, 그리고 인프라의 재건과 투자를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호주는 'Infrastructure Australia Act 2008' 발표를 시작으로 후속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 특히, 인프라의 재건은 호주의 인프라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호주 정부는 1980~1990년대의 인프라 재건 정신을 강조하고 있음.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새로운 교통 체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호주 인프라의 재건 계획은 ① 생산적 도시와 지역(Productive Cities, Productive Regions), ② 효율적 인프라 시장(Efficient Infrastructure Markets), ③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인프라(Sustainable and Equitable Infrastructure), ④ 보다 나은 의사결정과 조달 (Better Decisions and Better Delivery) 등의 목표 하에 향후 15년 간 각종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호주 정부는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통해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¹⁶⁾
 - 호주 정부는 2015~16년부터 2019~20년까지 사회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인프라에 약 400억 달러(AUD)를 투자할 계획임.
 - 특히, 교통 및 기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도로의 경우 호주의 내국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16) Australian Government (2016. 2), Australian Infrastructure Plan.

- 향후에도 도시 내 이용객과 물류 운송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Trends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2030(2014)에 따르면, 트럭을 이용한 교통수단은 2030년에 현재보다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철도는 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인데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경제연구소인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는 현재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 9,200만 호주달러(AUD)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2030년에는 약 2.3억 달러까지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향후 2030년까지 항공 교통의 규모는 현재보다 1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해양 교통의 경우 지난 십수 년 간 급속히 증가해 왔는데 향후 2030년까지 현재까지 해 온 성장의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중교통은 2004년 이후부터 모든 수도권에서 급속히 성장해 왔는데 2030년까지 이용객이 현재보다 3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⁷⁾
- 이처럼 빠른 인구 성장 등으로 인해 교통수단은 향후 20년 내에 현재의 2배 이상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호주의 인프라 분야별 향후 투자 계획은 육상 교통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표 3-11> 참조).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17) Australian Government (2014), Trends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2030.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11

호주의 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 만 호주달러)

구분	2015 ~ 16년	2016 ~ 17년	2017 ~ 18년 (추정)	2018 ~ 19년 (추정)	2019 ~ 20년 (추정)
교통 보안 (Transport security)	70,489	71,357	70,945	69,516	70,834
육상 교통 (Surface transport)	454,759	499,336	512,569	518,832	524,125
도로 안전 (Road safety)	24,918	24,068	18,881	18,447	18,830
항공(Air transport)	289,935	329,847	290,455	234,635	231,744
소계	840,101	924,608	892,850	841,430	845,533

자료 :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Portfolio(2016),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16~17
Budget related paper No. 1. 13.

5) 일본

- 일본은 2012년 제3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12~16)을 수립하여 SOC 정책과 관련해 총 9개 과제 18개 시책을 제시해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은 제1차 계획(2003~07), 제2차 계획(2008~12), 제3차 계획(2012~16)이 추진되었으며, 2015년부터 국토형성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제4차 계획(2015~20)이 추진 중임.
 -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일정에 맞춘 것으로 일본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자본 정비의 기본 방침은 ‘사회자본 스톡효과 최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인프라 관리’임.
 -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노후화된 인프라의 보수, 기후재해,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발생,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추진되면서 경기 부양 및 자연 재해 대처를 위해 ‘국토강인화계획’을 수립해 향후 10년 간 200조엔을 도로 및 항만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이에 따라 2016년 8월, 28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 201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인프라 정비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이번 정책으로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를 잇는 차세대 고속철인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조기 개통 등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에 10조 7,000억엔이 투입될 예정임.¹⁸⁾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1) 미국

1) 버지니아 주

-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위하여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민간자본 유치가 활발히 진행됨.
 - 주정부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재원조달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도 배정되는 예산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 버지니아주는 유류세 부과방식을 종량제로 변경함.
 - 버지니아주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5~7%에 해당하는 부가세(Sales tax)를 0.5% 수준 증가시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사용함.
 - ‘SMART SCALE’ 프로그램 시행: B/C분석을 수행하여 타 부문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부문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기함¹⁹⁾.
 - 추가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P3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함.
 - ‘PUBLIC SECTOR OPTION ANALYSIS’를 통하여 민간투자대안(PFI)과 정부투자대안(PSC)간의 비교분석과, 시장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적 사업구조 및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를 결정함.
- 인프라에 대한 요금결정 정책은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용수단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의 비판의견(요금 저항)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임.
 - P3방식으로 건설되는 도로라도 무료로 이용되는 라인과 유료라인을 함께 적용하여, 요금을 내는 통행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급행료’ 개념으로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부과함.

18)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9) SMART SCALE은 Virginia DOT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교통사업의 평가와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만 사용됨.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요금의 결정방식은 이용차량의 속도 또는 시간대에 따른 가변요금제²⁰⁾를 적용하여, 속도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의 방식으로 부과함.
 - 그리고, 3인 이상이 함께 동승하면 무료로 통행시켜주는 옵션을 제공하여 버지니아 및 D.C 인근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함²¹⁾.
- 버지니아주의 P3는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방식인 DBFMO (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 형태의 계약을 추진함.
- 버지니아 도로국장의 의견으로는 “민간투자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지고 있던 수요(재무)위험을 민간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함²²⁾.
 - 추가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장점으로 향상된 운영(톨링 시스템 운영방식)방식의 효율성, 계획과 설계방식의 개선²³⁾ 등이 있다고 강조함.
-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P3 시장에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P3 사업자 선정방식을 먼저 잘 이해하고 이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미국 현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임.
- 2~3개월 전에 National Chamber와 한국 대사관 등이 주관하여 미국의 P3 정책 및 프로젝트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VDOT 및 US DOT 홈페이지에 ‘PPTA IMPLEMENTATION MANUAL’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매뉴얼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구상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가 공시되므로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를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좋은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제안을 통한 개발도 가능함.
 - 아직 미국에 많은 P3 프로젝트가 많지 않지만 심각한 인프라 상황에 비하

20) 빠른 속도를 제공하면 자동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21) 부과되는 요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카풀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두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함.

22) 반면, 메릴랜드 주의 정책은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건설비용 및 일정초과 위험과 운영비용 초과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 또한 비록 미래 정부부채가 확정되더라도 정부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

23) 버지니아 주는 제도적으로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함.

여 투자재정 부족이 심각하여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특히 재투자 분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버지니아 주의 경우 Hampton 지역과 Northern Virginia 지역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존재하여 이 지역의 신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는 초기에는 소수지분의 투자파트너로 참여하고, 실적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임.
- 주 정부의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재무적 수단 중 대표적인 사례가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와 PABs(Public Activity Bonds)임.
- 미국의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차입금 조달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초기의 개발자본 투자자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투자자본 뿐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능력을 갖춘 회사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시장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요구수익률이 높은 것을 문제라고 생각함.

2)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시와 포츠머스(Portsmouth)시 터널 프로젝트

-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시와 포츠머스(Portsmouth)시를 연결하고 있었던 미드타운 및 다운타운 터널이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노후화 된 터널을 개량 및 확장하고 연결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 버지니아 주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한꺼번에 감당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으므로 대규모의 복잡한 사업을 PPP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함.
-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위치 :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 및 포츠머스(Portsmouth) 시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주주(지분 출자 참여사) : 스칸스카 인프라 개발(Skansk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 맥쿼리 홀딩스(Macquarie Financial Holding Limited)
 - 시공사 : 스칸스카 미국법인(Skanska USA Civil Southeast, Inc.), 키윇(Kiewit Construction Company), 익스마린(Weeks Marine, Inc.)
 - 총사업비 : 20.89억불
 - 주요 사업 내용
 - ▶ 엘리자베스 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미드타운 터널(New Midtown Tunnel) 신설²⁴⁾
 - ▶ 노퍽(Norfolk)방향 진입구간 확장 및 인터체인지 개선
 - ▶ 포츠머스(Portsmouth) 방향 진입구간 확장 및 인터체인지 개선,
 - ▶ MLK 확장을 통한 런던블러버드(London Boulevard)로부터 I-264까지 고속도로 연결 및 개량,
 - ▶ 기존의 미드타운 터널 및 다운타운 터널 개량
 - 계약방식 : 민간투자사업(DBFOM/ Toll Concession)²⁵⁾
 - 계약기간
 - ▶ 건설기간 : 55개월(2012년 4월~2016년 12월)
 - ▶ 운영기간 : 개통 후 58년
- 요금은 시간별로 다른 수준을 징수하는 가변요금 체계이며, 최근 교통량은 예측치의 80%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매년 향후 5년간의 수선 및 유지비용을 예측하여 이익배당 전에 별도의 적립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예측 차년도 100%~4년 후 25% 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함.
-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의 사용 순서는 건설과 운용비용 사용 → PABs 원리금 지급 → TIFIA에 대한 원리금 지급 → 유지보수 예비비 적립 → 배당금과 투자금 지급 → 초과이익 배분(버지니아주 정부와 배분)임.
- ERC를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큰 불만 없이 본 노선을 사용하지만 약 20%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4) 기존에 존재하던 동일 루트의 터널은 개·보수 하여 확장된 2개 차로로 사용함.

25) 민간투자자가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임.

10%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요금 지불마저 거부하는 층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워싱턴 주

- 현재 국제공항과 워싱턴대학교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전철 시스템을 확대 건설할 예정임.
 - 도심지에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 중심 도시를 조성
 - 기후변화에 대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시 전체에 설치
 - 자동차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추진
- 시애틀의 교통 부담금(안)에 따른 “Move Seattle”는 총 9년 동안의 투자 계획으로 구성됨 : 총 4개의 부문별 목표 및 투자액 제시, ① “안전한 도시”, ② “살 만한 도시”, ③ “상호 연결된 도시”, ④ “활기찬 도시”
- 안전한 도시(9년 동안 3억5천만 달러) :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취약한 교량을 지진에 견디도록 보강하여 시애틀 주민과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
 - 시애틀의 도로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
 - ▶ 12-15개의 주요 수송 경로에 대한 안전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사고가 많은 도로 모두에 대해 이용자들의 안전 개선
 - ▶ 안전교육과 함께, 매년 9-12개의 안전한 통학로(Safe Routes to School)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시애틀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보행 안전 및 자전거 통학 안전 확보
 - ▶ 횡단보도 재도색 주기를 4년으로 축소하여, 모든 횡단보도가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함.
 - 가장 취약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
 - ▶ 약 50마일의 새로운 자전거 보호 도로, 60마일의 그린웨이를 건설하여, Bicycle Master Plan에 따른 시 전역 네트워크의 절반 이상을 완료
 - ▶ 도심과 마을의 손상된 보도에 대해 최대 225개 블록까지 수리
 - ▶ 시 전역의 교차로 최대 750개까지 연석 경사로와 횡단보도 개선
 - ▶ 발라드(Ballard) 지역 버크-길먼 트레일의 단절 구간 공사 완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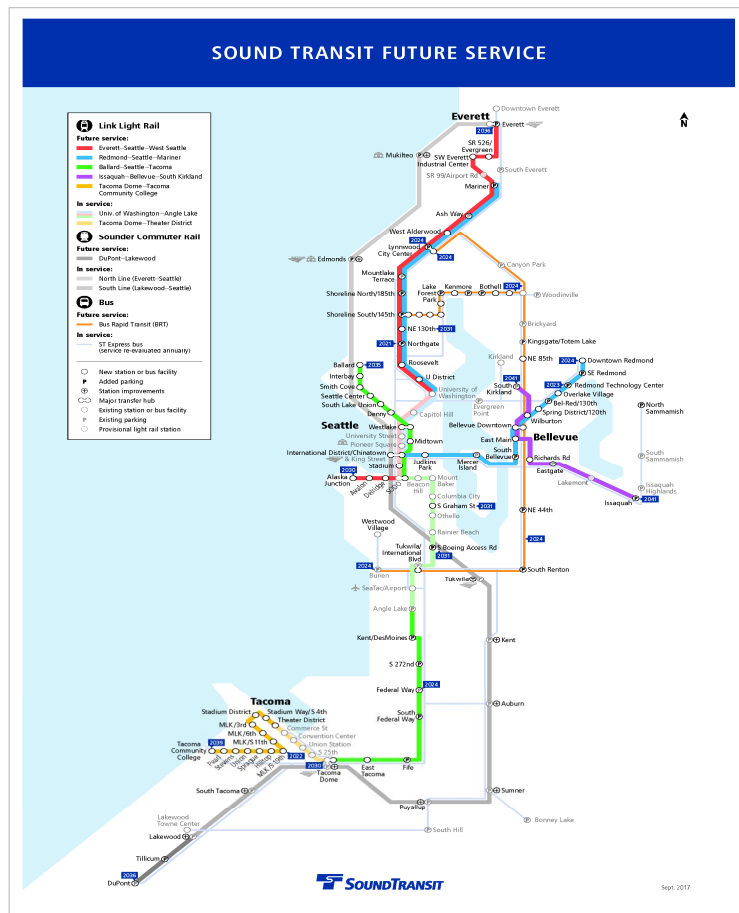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교량의 안전 강화
 - ▶ 교량에서 부분별 보수가 필요했지만 미뤄왔던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
 - ▶ 16개의 취약한 교량에 대해 내진 성능 보강
 - ▶ 시애틀의 마지막 남은 목재 교량(페어뷰 애비뉴 소재)을 교체하여, 시의 최대 직업 안내 센터 두 곳을 연결
 - ▶ 우선순위가 높은 교량 교체 공사를 2024년 이후에 개시하도록 계획 및 설계
- 살만한 도시(9년 동안 2억7천5백만 달러) : 지금 유지보수에 투자함으로써 훗날 시애틀 주민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비용의 교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소유에 대한 대안을 제시
 -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 250 lane-mile에 대해 유지보수 및 현대화 실시
 - ▶ 간선도로를 최대 180 lane-mile까지 재포장하여, 시애틀에서 여객과 물자 대부분을 수송하는 가장 붐비는 도로의 35%를 정비 및 현대화
 - ▶ 시 소속 팀에 의해 수행되는 수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목표 정한 65곳을 재포장. 연 평균 7-8 lane-mile의 간선 도로에 해당
 -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직원들의 대중교통용 패스, 바이크 세어 및 카 세어 멤버십 이용 기회 증진
 - ▶ 신축 건물의 주민, 건물주 및 개발업자가 협력하여 대중교통, 카 세어, 바이크 세어 및 기타 이동 수단에 대한 이용 기회 보장
- 상호 연결된 도시(9년 동안 1억7천만 달러) :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동 수단 옵션을 그들이 원할 때 제공
 - 구식 도로를 현대화하여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이 적고 편리한 이동 수단 옵션 제공
 - ▶ 7-10개의 다중 수송 경로(multimodal corridor) 프로젝트 완료. 주요 도로를 재설계하여 보행자, 자전거, 자가운전자 또는 대중교통 이용자 등 모든 이용자를 위한 연결성과 안전성 개선
 - ▶ 종합적인 대중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주요 위치에서의 병목 현상 제거

- ▶매년 시 전역의 주요 수송 경로 5곳에 대해 교통 신호 타이밍을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자가용, 트럭,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들에게 편의 제공
- ▶양질의 BRT 루트 7개 신설
- 경전철에 대한 연결성 개선
 - ▶시애틀 남동부 그레이엄 스트리트(Graham Street)에 새로운 연결(Link) 경전철역을 위한 재정 지원
 - ▶노스게이트(Northgate)에서 경전철로 연결하는 I-5에 대해 보행자 및 자전거용 교량을 위한 자금 지원
 - ▶보행자 및 자전거의 경전철역 연결부 구축



자료 : Sound Transit Future Service

- 더욱 편리해지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

그림 3-8

Sound Transit
(시애틀 시 전철
시스템)의 미래
계획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 100블록에 달하는 신규 보도를 구축함으로써, 시의 주요 대중교통 경로
중에서 보도가 단절된 부분의 50%를 매움
 - ▶ 보도가 없는 주택가 도로를 보행하기에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 지도록
조성
 - ▶ 시 전역에 1500개의 신규 자전거 보관소 설치
- 활기찬 도시(9년 동안 1억5백만 달러) : 경제 및 사회적 활동으로 활기가 넘
치도록 도로와 보도에 투자
- 화물 및 배달 차량을 위한 이동성 개선
 - ▶ 지역 자금을 지원하여 랜더 스트리트 고가도로(Lander Street Overpass) 설계 및 건설
 - ▶ 시애틀의 중량물 운송망의 주요 경로인 이스트 마지널 웨이(East Marginal Way) 수송 경로 구축
 - ▶ 지역 우선 프로젝트에 투자
 - ▶ 20-35개의 지역 우선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그들 지역에서의 안전, 이동성, 접근성 및 삶의 질 개선
 - 도심의 숲을 가꾸고 범람하기 쉬운 지역에 배수 시설을 확충
 - ▶ 질병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나무를 한 그루 뽑을 때마다 2그루를 새로 심음.
 - ▶ 신규 가로수 관리 직원 총원. 가지치기가 필요한 곳에 신속 대응하고(예: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중교통 정류장에서의 정돈 작업) 신호등과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 중점을 둠.
 - ▶ 시애틀 공공사업부(Seattle Public Utilities)와 협력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새로운 보행자용 인프라와 횡단보도를 제공하며, 범람하기 쉬운 사우스 파크(South Park) 및 브로드뷰(Broadview) 지역에서의 배수 시설 문제 처리
- 재원조달 방안
- 기존의 교통 부담금을 대신하여 기존보다 약 2배 인상하는 Move Seattle (Transportation Levy to Move Seattle) 교통 부담금 신규 조성
 - 제안된 부담금 징수는 9년간 지속될 것이며, 연간 9천5백만 달러로 총 약 9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
 - 부담금은 재산세를 통해 납부되며, 시애틀의 중위 가격(\$450,000) 주택 소

유주들은 연간 약 \$275의 추가 부담(세율 약 0.06%)²⁶⁾

4) 워싱턴 D.C. 퍼플 라인(Purple Line) 프로젝트

- Purple Line은 워싱턴 D.C의 북부 외곽을 순환하는 16mile(25.7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며, 워싱턴 D.C의 중심부로 들어가는(종축) 4개 메트로 노선을 동-서 축으로 연결함.
 - 건설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운영은 2022년 봄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됨.
 - 예상수요는 완공이후 2030년까지 64,500명/일, 2030년 이후 2040년까지 74,000명/일로 추정됨.
 -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하절기에는 7.5분에 1대가 운영되고, 적은 동절기에는 10~11분에 1대가 운영될 계획임.
 - 워싱턴 D.C의 북부 구간을 횡축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는 구간의 교통(도로)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는 약 20억불이 소요될 예정임.
 - 지분투자 회사는 Meridiam Infrastructure Purples(70%), Fluor Enterprises, Inc.(15%), Star America Purple Line, LLC (15%) 임.
 - 건설은 Fluor Enterprises, Inc.(50%), Lane Construction Corporation(30%), Traylor Bros, Inc.(30%)를 담당함.
- P3 계약방식은 AP(Availability Payment)이므로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계약기간은 총 36년(건설 6년+운영 30년)임.
 -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약 1억불 가량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건설비용 및 기간초과 위험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됨.
 - 특히, 운영 및 수선·유지경비를 포함하여 미래 소요될 정부의 비용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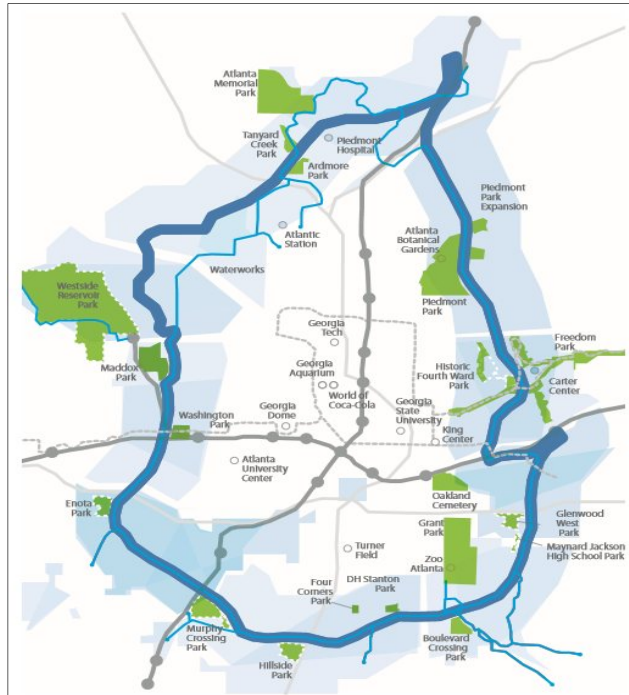
26) 기존 교통부담금은 Bridging the Gap이며 명명되었으며, 마찬가지로 9년간 3억6천5백만 달러의 교통 부담금을 조성함. 2015년 말에 종료됨. 당시 시애틀의 중간 가격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간 약 \$130이 부과됨(세율 약 0.03%).

지을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용이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민간투자자가 건설과 운영을 모두 담당하므로 전체 투자기간에 대한 운영과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시설물의 품질과 운영을 시공자가 30년간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
- 시설물의 운영이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조항에 따라 정부가 지급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수준을 높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5) 애틀란타 벨트라인(Atlanta BeltLine) 사업

- 애틀란타 벨트라인 사업은 애틀란타 중심 지역의 외곽을 둘러싼 22마일(약 35km)의 오래된 도시철도 선로와 다용도 전차, 현대식 노면전차 등을 활용해 인근 45개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 주변을 중심으로 공원, 주택, 공공 예술·문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애틀란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개발사업임.
- 동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9년 건축학 및 도시계획학을 전공하던 학생 Ryan Gravel이 처음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하였는데, 이후 동 아이디어가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2005년에 시 정부에서 「Atlanta BeltLine Redevelopment Plan」이 수립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자회사 Atlanta BeltLine Partnership이 처음 설립됨으로써 2006년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
- 특히 「Atlanta BeltLine Redevelopment Plan」의 수립과 더불어 2005년 11월에 제정된 「The City of Atlanta Ordinance 05-0-1733」으로 애틀란타 개발청(Atlanta Development Authority)가 사업추진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사업지구를 조세채권의 발행이 가능한 조세할당지구(Tax Allocation District)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2013년 7월 기준 총 2,400백만 달러)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자료 : 온라인 검색결과

- 동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인 미국 내 가장 큰 종합 도시개발(재생)사업이며, 최종 완료연도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2016년도까지 지역 내에서 총 7,200개의 정규일자리와 26,600개의 건설 일자리, 37억불의 외부 민간 투자자본 유입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²⁷⁾
 - 향후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역 내에서 3만개 이상의 정규 일자리와 최대 20억불의 투자유입, 5,600채의 안락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6) 캘리포니아 주

① 실리콘밸리 : 적시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장 위협 사례

- 미국 실리콘밸리는 일자리 창출의 선두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비용 상승 및 교통난 발생으로 인해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발생 우려가 제기됨.
 -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탈 투자의 용이함, 우수 대학의 집적 및 광범위한 인재풀, 혁신기업가 정신의 결합으로 여타의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임.

27) Atlanta BeltLine, Inc.(2017) 「Annual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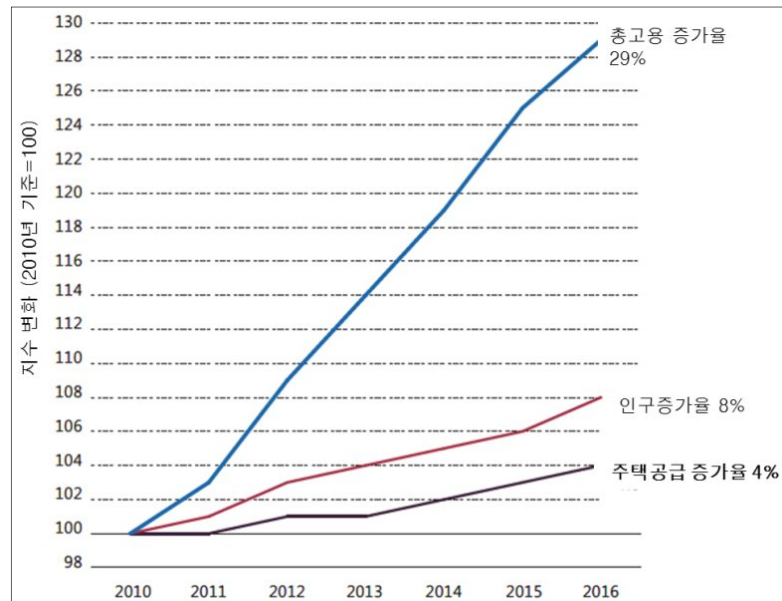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그러나 실리콘밸리 내 일자리 증가분에 비해 주택공급 증가가 저조하고 주택비용 또한 상승하여 실리콘밸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 2010~16년 기간 실리콘 밸리 내 고용 증가 및 인구 증가는 각각 29%, 8%를 기록하였으나 동 기간 주택 공급 증가는 4%에 불과
 - 특히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합한 실리콘밸리 내 중위 주거비용은 2017년 한 해에만 10%가 올랐으며, 시애틀(9%), 텍사스 오스틴(6%), 뉴욕(5%), 보스턴(4%) 및 남부 캘리포니아 (3%)등과 비교해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
 - 2010~14년 사이 고용증가율과 주택공급 증가율 격차는 17%포인트에 불과하였으나 2010-2016년 사이 격차는 25%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인구증가율과 주택증가율 격차는 같은 기간 3%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확대
 - 한편, 2010~16년 내 실리콘밸리의 평균 통근시간은 1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통근 시간에 매일 72분이 소요(뉴욕시 근로자 평균 통근시간은 74분)

그림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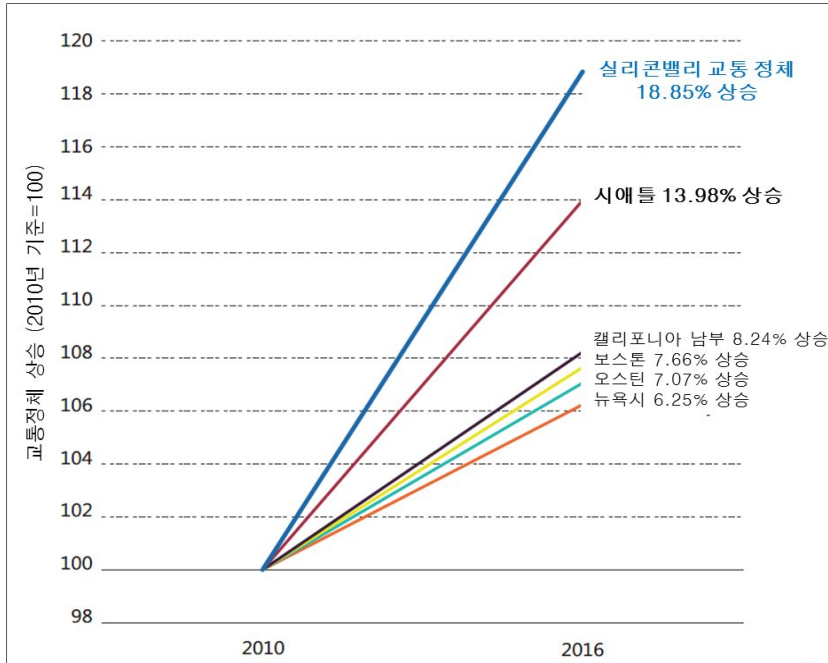
실리콘밸리
고용, 인구 및
주택공급 증가율



자료 :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2018), Silicon Valley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ject

- 이로 인해 실리콘밸리 거주자 2천548명이 2016년,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로 이주했고 새로 유입된 인구는 2천506명에 불과하여 순 감소를 기록²⁸⁾

28) 미국 인구 통계국(US Census Bureau).



자료 :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2018), Silicon Valley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ject

그림 3-11

실리콘밸리
교통 정체 상승분

② LA의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재원조달 사례

-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엔젤레스(이하, 'LA')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으며, 연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이 1인당 약 8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LA 카운티의 인구는 현재 1천 20만 명 규모에서 향후 40년간 23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체증 및 공기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교통 체증 완화와 공기 오염 저감을 위한 고속도로 정비 및 확대, 대중교통망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검토됨.
- 2016년 11월, 미국 LA 카운티는 교통인프라 확장 예산 확보를 위한 소비세 증세 주민투표 결과, 71.15%의 찬성으로 새로운 증세제도 'Measure M(매저 엠)' 통과를 발표함.
 - 이에 따라 도입된 증세 규모는 소비세 1달러 당 0.5센트, 비율로는 0.5% 인상에 해당되며, LA카운티는 연간 8억 6,000만 달러(약 9,6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됨.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그림 3-12

LA의 향후
40년간 지하철 및
고속도로 건설과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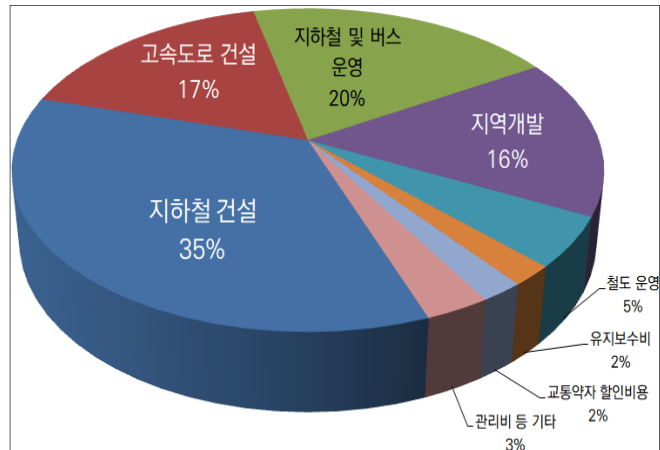
- ‘Measure M²⁹⁾’은 표면적으로는 교통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하는 장기교통정비계획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주 : 실선은 운영노선, 점선은 건설 예정인 노선을 표시

그림 3-13

‘Measure M’의
인프라



자료 : <http://theplan.metro.net/#measurem>.

- LA 카운티에서 수립한 장기교통정비계획 및 ‘Measure M’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이 35%로 가장 크고,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이 20%, 고속도로 건설에 17%를 투자하고, 16%는 지역개발에 투자할 예정임.
- ‘Measure M’은 앞으로 40년간 고속도로 정비 및 확장 건설사업 18개, 지하철 연장 및 신규 역사 건설사업 19개 등 37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29) 향후 40년간의 지하철 노선과 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담고 있음.

- LA 카운티의 대중교통 기획, 건설, 운영 주체인 LA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LACMTA)가 동 사업의 총괄 집행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소비세 인상안의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인프라 정비 측면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대기오염 저감 등) 확보를 강조하고 홍보하였으며,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함.
- ‘Measure M’ 정책은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흐름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 개선, 도로 포장 정비, 일자리 창출, 오염 저감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는 점이 71.15%라는 높은 주민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함.
- 참고로 본 정비계획을 통해 향후 40년간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4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93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2) 프랑스

1) 마세나(Zac Massena) 재개발 사업

- 파리는 파리 내부와 외곽의 개발 불균형이 심함.
- 파리는 서울의 두 개구 정도의 크기(105km²)에 200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임.
- 파리의 경계는 외곽순환도로에 의해 파리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 내외부의 불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약 15년전 계획된 ‘그랑파리 계획’의 경우 파리시 인근 외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세워진 계획이나, 최근 들어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파리 시내 교통 체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나 건축물 보존과 관련한 법이 매우 강하여 도로 확장은 힘든 상황임.
- 파리 시내 차량의 평균속도는 약 14km/h정도로 서울보다 훨씬 더 심각한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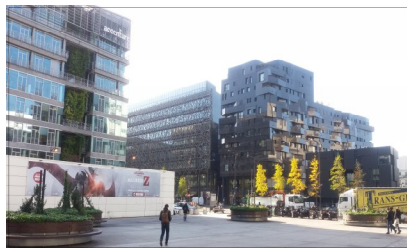
- 특히 에펠탑이 위치한 7지구와 개선문이 위치한 8지구는 파리시의 중심부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축물들로 인해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파리시는 인프라 확충보다는 주차요금 인상, 자전거 사용 독려 등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지하철 노선은 매우 잘 되어 있으나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함.

- 마세나 재개발 지역(Zac³⁰⁾ Massena)는 파리시 남동쪽에 위치한 13지구에 최근에 완성된 재개발 지역임.

- 마세나 재개발 지역은 약 200년 된 철도 역사 주변을 재개발한 사례로, 기존 철로 및 지원시설 위에 슬라브를 만들어 상판에 새로운 땅을 만들고 개발한 사업임.
- 파리시는 오랜 개발로 인해 큰 규모의 새로운 부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도시임.
- 마세나 재개발 지역의 북쪽은 Christian de Portzamparc에 의해 마스터 플랜이 계획되고 완공되었으며, 남쪽 지역은 Yves Lion에 의해 계획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완공된 북쪽 지역은 대학,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의 경우 설계 미적 기준이 매우 높아 모든 건물들이 개성이 있음. 또한, 파리 시민들은 고층건물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 건물들의 층수가 20층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뭄.

그림 3-14

마세나 남부
재개발 지역



30) Zac은 불어로 재개발 지역을 뜻함.

- 마세나 북부 재개발지역은 파리시가 15년 전에 낸 공모전을 통해 계획된 재개발지역임.³¹⁾
 - 기존 파리시는 이 지역을 녹지화하려는 공모전을 냈으나, Yves Lion은 파리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연결하는 제안을 해서 당선되었음.
 - 외곽순환도로 내부에는 약 200만명이 거주하나, 순환도로 인근지역을 합치면 약 1,200만명이 거주함. 하지만 외곽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내외부 지역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
 - 파리시는 Yves Lion의 제안이 있기 전 파리시 외부로 내부로 끌어드리려는 노력이 없었음.
- 파리시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그리고 외곽지역은 사회주의당이 집권하여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었음.
 - 15년 전에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나, 두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사업의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 시민들은 대부분 고층 빌딩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개발지역에는 몇 개의 고층빌딩을 계획하고 있음.
 - Yves Lion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길을 내고 상권을 만들고 순환도로 외부에 고층빌딩을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외곽순환도로는 파리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로 도로를 막을 수 없는 환경이었음.
 - 이에 파리시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임시용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작업을 진행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외곽순환도로 부지가 완성되고 투자자들이 부지를 매입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예측하고 있음.
- 현재까지 캐나다의 여러 투자자들로 구성된 단체와 파리 시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부지조성과 주변 인프라가 완성되면 소규모 부지단위의 공모전이 이루어질 계획임.

31) 마세나 북부 재개발지역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자료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파리시의 승인이 있어야 공유될 수 있음. 파리시와 연락 후 자료 공유 가능여부를 알려주기로 함.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이 사업은 그랑프랑 계획의 큰 목적과 일관성을 가지며 파리 내외곽 지역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부의 강한 의지와 참여하는 주체(개발업자 등)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2) 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사업

- Zac Clichy-Batignolles은 파리지 17구의 철도역사 주변을 재개발하고 있는 사업임.
 - 13구역에 기 개발된 Massena 재개발 지역과 유사하게 철도역사 주변에 슬라브를 덮어 개발업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임.
 - 이 지역의 경우 철도를 중심으로 두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행자 전용 다리를 설치하는 등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음.
 - 이 개발지역은 중앙 공원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기 완공된 파리 중앙법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오피스 시설이 공사 중에 있음.
 - 현재 파리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3-15

Zac Clichy-
Batignolles
재개발 지역



- 파리의 경우 주택매매에 있어 매매가의 약 10%가 수수료로 소요되어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지 않음.
 - 파리지내의 부동산 매매가는 매우 비쌌 뿐만 아니라 높은 수수료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매우 낮음.
- 프랑스는 감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건축가가 해당 공사과정을 감독하고 준공 후 10년까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는 현장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어, 설계도서와 시공과정을 점검함.
 - 준공 후 10년 책임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보험제도(Inherent Defects Insurance 등)가 발달되어 있음.
 - 설계비의 약 10%가 보험비로 지급되며, 하자과 관련한 법적 소송 또한 빈번함.
- 프랑스의 경우 기부체납은 존재하지 않음.
- 국내와 달리 프랑스 건물 외부가 보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대부분의 녹지 공간은 내부에 중정 형태로 만들어짐.
 - 이로 인해 외부형태는 단순하게 보일수 있으나 내부에는 휴식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가능케 함.
- 프랑스 설계사무소에서는 대부분 CAD대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진행함.
- 국내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 공공사업에 BIM사용 의무조항은 없으나 업계의 필요에 의해 BIM이 활용되고 있음.
 - BIM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지만 3D 모델 납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납품은 2D로 이루어짐.
 - 발주자가 BIM 모델을 요구할 시 설계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함.
 - 즉, 프랑스의 BIM을 활용한 설계는 강제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와의 차이가 있음.
 - 비록 설계사무소에서 CAD대신 BIM을 사용하고 있으나, MEP와 같은 협력업체의 수준은 아직 2D를 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국내 설계업계에 BIM사용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사례를 보다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BAT는 Zac Clichy-Batignolles내 Chartier-Dalix에서 설계한 준공을 앞둔 오피스 건물임.
- Zac Clichy-Batignolles에서는 모든 오피스 건물에 에어컨 설치를 금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음.
 - 이에 건축가들을 식물과 환기를 이용하여 에어컨 없이 항상 26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계를 하였음.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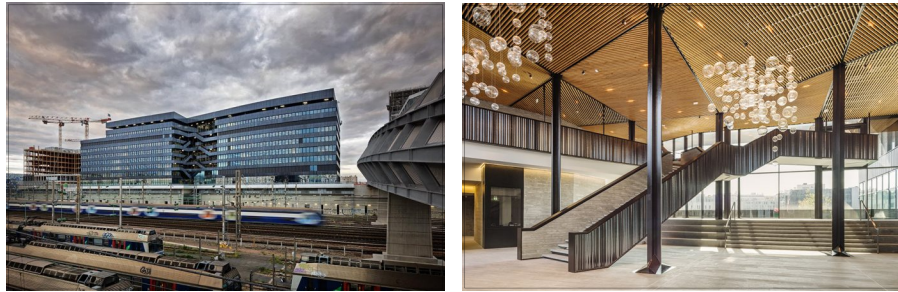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그림 3-16

BAT

- 또한 모든 오피스 건물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에너지를 생산하여야 하며, 빗물처리에 대한 특수조향도 있음.
- 이러한 조건들은 파리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Zac Clichy-Batignolles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임.



자료: Chartier-Dalix 홈페이지(<http://chartier-dalix.com>)

3) 그랑모토 재개발

- 프랑스 남부지방 그랑모토는 ‘가치없는 땅’으로 인식되었으나, 관광도시로 개발됨.
- 1960년대 자국민이 대부분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드골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계획을 세워 당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프랑스 남부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이후 5,200ha(약 1,560만 평)에 이르는 ‘랑독·루시옹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지역 6개 중에서 첫 번째로 그랑모토 개발에 착수하여 프랑스 남부지방 그랑모토에서부터 스페인 국경지역에 이르는 180km 해안 지역을 개발
- 1963년 개발 계획 공개 후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하였으나,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조지 폼피두 수상이 직접 피에르 라신(Pierre Racine)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건축가 장 발라드가 건축공사의 책임을 맡아 통일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개발을 진척
- 1974년 랑독·루시옹지역에서 처음 그랑모트라는 관광도시를 선보임.
- 프로젝트 시행 결과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과 49억 유로(약 6조 원, 2007년 기준)의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관광벨트지역으로 변화에 성공함.

-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랑모토로의 용이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로망과 항구·국제공항·몽펠리에 철도역을 건설
 - 1960년까지만 해도 ‘늪지대이고 모기가 많아 가치 없는 땅’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을 녹지를 확보한 쾌적한 도시(도심 내 녹지공간 비율 20% 차지)로 조성
 - 정주여건을 갖추어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비수기 기간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 (2004년 기준, 그랑모트 거주 인구는 8,500여 명에 이름)
- 그랑모토 개발은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 접근성을 향상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프랑스는 국토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도시개발을 전폭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원을 단행
 - 자국민의 관광 수요 흡수 및 북유럽 관광객까지 유인에 성공



자료 : 정영수 (2010)

그림 3-17

개발 완료 후
그랑모토 휴양지
풍경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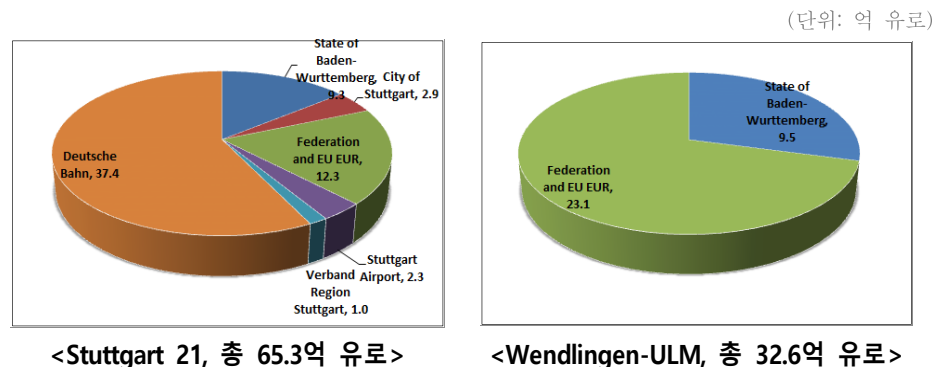
(3) 독일

1)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

-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는 크게 슈투트가르트 21(Stuttgart 21)과 벤들링엔-울름(Wendlingen-ULM) 구간의 선로 사업으로 구성된 독일 남서부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주와 슈투트가르트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임.
 - 슈투트가르트 21은 총 57km의 철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프로젝트임. 총 철로 구간 중 20km는 고속철도로 건설되며, 18개의 교량과 16개의 터널이 신설됨.
 - 벤들링엔-울름 구간 사업은 31km의 고속철로를 포함한 총 60km 철도공사 사업임. 이 사업에는 37개의 교량과 9개의 터널이 신설됨.
- 슈투트가르트 21의 총 사업비는 약 65.3억 유로이며, Wendlingen-ULM 구간은 32.6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로 두 사업 모두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임.

그림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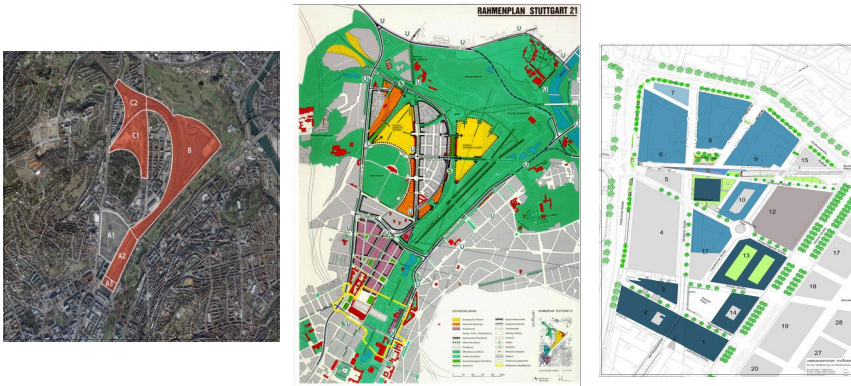
독일 철도
프로젝트 사업별
예산 조달 현황



자료 : <http://www.bahnprojekt-stuttgart-ulm.de/>

- 슈투트가르트 21은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지상 철로를 지하화 함으로써 기존 철로 부지에서 재개발 부지를 확보함.
 - 철로 지하화를 통해 슈투트가르트 중심지에 약 100헥타르의 재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의 약 20%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음.
 - 부지의 약 80%는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은 공공에서, 그리고 상업·오피스·주거지역은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중에 있음.

- 도심지 개발 부지는 크게 6개 구역으로 구분되며, 현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
- 개발사업의 전체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Rahmenplan Stuttgart 21’은 1997년 수립되었으며, 인프라, 각 구역의 용도 및 녹지공간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Europa District’으로 명칭 되는 A1지역은 중앙역 부근에 위치하는 재개발 사업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완공된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재개발 부지>

<기본계획>

<A1 지역개발계획>

자료 : <http://www.bahnprojekt-stuttgart-ulm.de/>

- 슈투트가르트-울름 철도 프로젝트는 최고 250km/h의 고속기차를 운행하여 인근 주민의 이동성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 등에 큰 효과가 있음.
-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공항 구간 이동시간이 기존 27분에서 8분으로 단축되는 등 이동성이 향상됨.
-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는 약 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고속기차 운행으로 인해 약 1,800만 명의 이동수단이 자동차에서 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약 7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음.
- 슈투트가르트 21의 도심지 개발 사업은 대지가 부족한 복잡한 도심지에 기존 인프라의 재배치를 통해 대규모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그림 3-19

Stuttgart 21
도심지 개발 계획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4) 영국

1) 도크랜드(Dockland) 개발 사례

- 도크랜드는 런던 도심의 동쪽 템즈 강가와 워터프론트 일대로, 대영제국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 제일의 항구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쇠퇴가 지속됨.
 - 20세기 이후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 산업의 발달로 인해 얕은 수심을 가진 도크랜드 항구는 경쟁력을 상실
 - 이후 시설 노후, 수송형태의 변화,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도크랜드는 점점 쇠퇴하여 1981년에는 부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후 10년간 일자리가 15만 개 감소하여 지역 실업률이 15%에 육박
 - 인구 감소 이후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또한 낙후화
- 영국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1976년 이후 도크랜드 재개발 계획을 추진함.
 - 당시 실업문제 해결이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으며, 도크랜드 건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쇠퇴한 지역 경제 활성화 요구로 컸음.
 - 낙후된 도크랜드 지역 개발과 관련해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 기구인 LDDC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가 「중심시가지 재개발법」(1978년 제정)에 근거해 1981년도에 설립
 - 조달된 재원 규모는 총 126억 파운드로, 공공분야에서 39억 파운드, 민간분야에서 87억 파운드 조성되었으며, 공공분야의 재원은 LDDC 48%, London Transport 25%, the Isle of Dogs Enterprise Zone 27%로 구성
 - 총면적 약 2200ha(665만 평), 시설면적 230ha(70만 평)의 도크랜드 지역을 5개 지구로 조성하였으며, 주요 인프라 중심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규모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1988년 3월까지 민간투자 44억 파운드 유도

지구	특징
카나리워프 (Canary Wharf)	• 50층 규모 금융센터 빌딩 및 92.9만㎡ 규모의 업무 시설, 400실 규모의 호텔과 상가, 레스토랑, 주점, 기타 위락 시설이 입주
아일오브 도크(Isle of Docks)	• 1만2500석 규모의 대규모 실내 스포츠 센터인 London Arena와 해양레포츠 센터 등이 입주
로알 도크 (Royal Docks)	• 런던시티공항, 3000세대 이상의 주택 등을 건설하여 21세기 형 신 도시를 조성 • 8만4000㎡ 규모의 쇼핑센터 및 요트장, 23만2064㎡ 규모의 과학 및 상업 단지, 2만3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스타디움, 2만㎡ 규모의 전시관, 500실 규모 호텔 등이 입주
워핑 (Wapping)	• 18세기에 건립된 창고를 이용한 대규모 복합 쇼핑·레스토랑 센터를 입주시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
설리 도크 (Surrey Docks)	•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창고를 개축해 주택 3500가구를 건설 • 2만 명의 상주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런던 브리지 시티' 오피스가 와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여 상업·주거시설을 일체화한 형태로 개발

표 3-12

도크랜드
지구별 특징

- 1,400여 개의 국내외 기업이 신규 진입하여 일자리의 숫자도 1981년 2만 7,200명에서 1998년까지 7만여 명으로 증가함,
- 런던 도크랜드 개발 사례는 지속적인 쇠퇴 경험 이후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경로가 급격히 바뀌어,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집단재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기능을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해내는 것은 물론 도시생산성 극대화에 성공한 사례로 개발의 함의가 큼.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http://innocity.molit.go.kr>)

그림 3-20

개발 전후의
워핑지구 광경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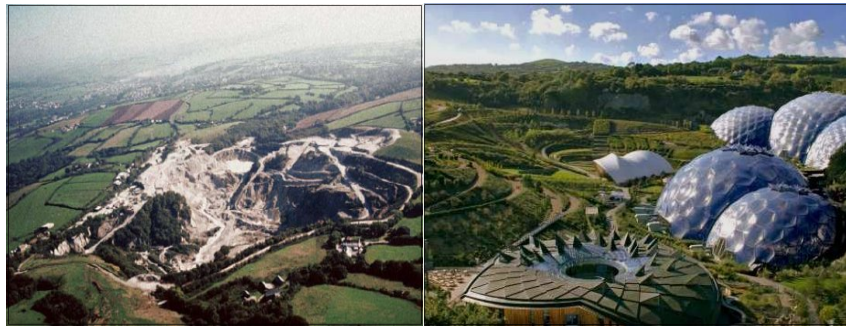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세인트오스텔시 사례

- 세인트오스텔시는 영국 남서쪽 콘월반도의 끝 부근(런던에서 열차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한 舊 탄광도시로, 19세기를 거치면서 탄광산업의 몰락과 더불어 영국 내 주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빈곤지역으로 전락함.
 - 영국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이고,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이 많으며, 해안에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탄광 폐기물의 처리 곤란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경험
- 1987년에 세인트오스텔시로 이사한 성공한 사업가 팀 스미트가 1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Heligan 공원’(18세기 건축)을 복원, 1992년에 일반에 공개하면서 동 공원이 관광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함.
- 이에 고무된 Tim Smit는 지역 건축가인 조나단 볼과 함께 1994년부터 세인트오스텔시 내 버려진 고령토 폐광을 온실식물원으로 바꾸는 사업(일명 ‘에덴 프로젝트’)을 구상, 1998년부터 영국 복권기금과 남서부 지역개발공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2001년에 처음으로 식물원을 개관함(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투자 금액은 한화로 약 2천 7 백억원).

그림 3-21

영국
세인트오스텔시의
에덴 프로젝트



자료 : 온라인 검색 결과

- 동 프로젝트로 인해 2013년까지 전세계에서 1,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동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창출되었으며, 획기적인 환경 개선 또한 이루어짐.

- 동 사례는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이 가진 위치 그리고 역사적 장점과 결합되어 지역의 성장경로를 바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5) 아일랜드 더블린

- 아일랜드는 1980년대 이전까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취업 이민을 택하는 국민이 다수를 이룸.
 -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
 - 1980~90년대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자국에서 직업을 갖지 못해 아일랜드인은 해외로 이민을 선택
- 이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개발청(IDA)을 설립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음.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업 활동에 근간이 되는 인프라 확충 시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을 시행
 - 아일랜드가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일랜드 정부는 IT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핵심적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전략을 수립
-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디지털 허브(Digital Hub) 구축 전략 수립과 성공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또한 쉽게 극복함.
 - 아일랜드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약 33억 유로를 투자하여 당시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값싼 통신망이라 평가되는 'feature rich'를 구축하였으며, 디지털 허브 개발청(Digital Hub Development Agency, 연간 약 65억원 운영비 소요)을 2003년 설립하여 디지털 허브 개발에 박차를 가함.
 - 디지털 허브 내 입주 업체는 유럽 최고 통신 인프라인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연결 광섬유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통신 음성 및 광역 데이터 활용이 가능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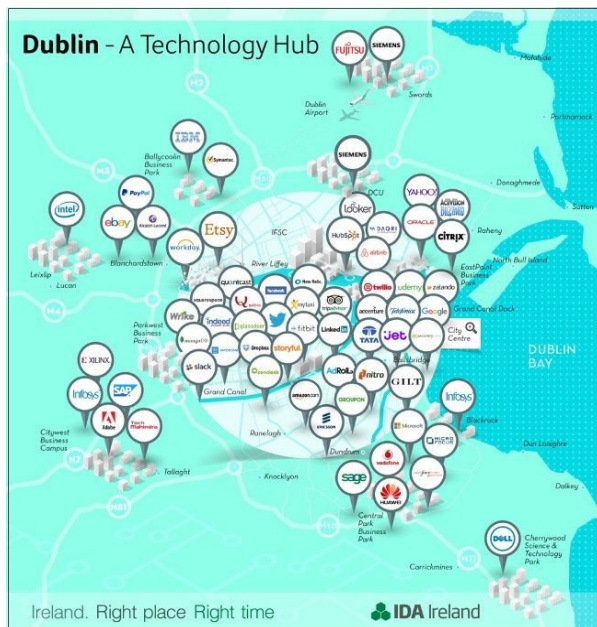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이에 미국 Microsoft, Oracle, Google, Facebook 社, 독일 SAP社 등 등 다수 글로벌 기업이 아일랜드 디지털 허브 내에 몰려들었으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40%,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60%를 생산
- 1990년대 말 소프트웨어 산업 고용자 수와 수출액 모두 1990년대 초 대비 3배 이상 증가 (고용자 수 및 수출액: '91년 7,793명/2,044백만 유로, '99년 24,891명, 6,520백만 유로)³²⁾
- 또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 이민을 택한 아일랜드인이 모국의 경제성장 이후 역이민하는 사례가 증가

그림 3-22

더블린 디지털
허브 내 집적한
글로벌 기업



자료 : 아일랜드 개발청 (<https://www.idaireland.com/>)

- 더블린의 디지털 허브 구축 사례는 지역에 적합한 인프라 투자 전략 수립과 확대를 통해 해당 지역에 기업 집적을 유도하고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3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6) 벨기에

- 벨기에의 도시 재생은 지방 정부 주도로 추진하며 다양한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
- 지역개발 계획을 통해 도시 재생의 방향과 목적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더하여 여러 조직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 특히,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도 함께 포함하여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1) 브뤼셀 도시정책 및 프로그램³³⁾

① 지역개발계획(The Regional Development Plan(PRD))

- 브뤼셀 지방정부는 1992년부터 지역개발계획(The Regional Development Plan(RDP)) 수립을 시작으로, 1995년 제도화를 이끌어 냄.
 - 지역개발계획(PRD)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도시 계획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계획까지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개발계획임.
 - 도시 외곽화, 실업률, 교육시설 부족, 소득 불균형, 지역 계층화 등 브뤼셀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 문제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구 구성원들의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통한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
 - 재정기반은 세금 수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과 공공 공간의 개선, 사회 보장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외곽으로 떠나지 않고 브뤼셀 도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주택 개발 및 재생 관련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을 주택 개발 및 재생강화기구(Reinforced Housing and Renovation Development Area(EDRLR)로 별도 지정하여 추가 지원함.
 -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EDRLR 지역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사회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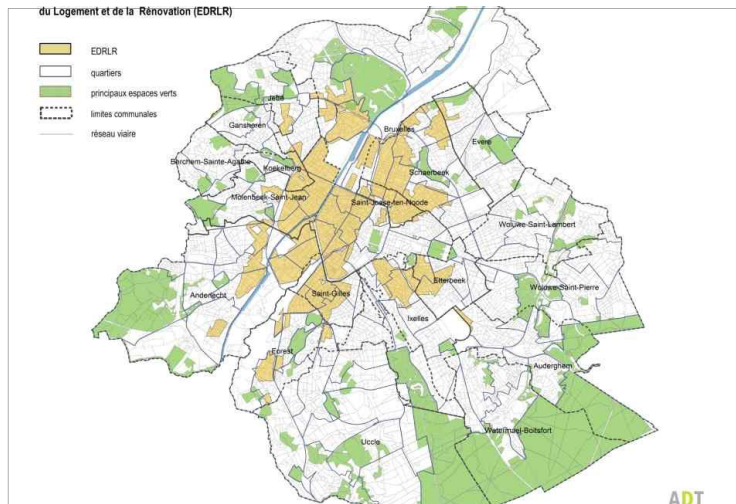
33) 김준우(2015), 벨기에 브뤼셀 도시재생정책, 한국도시설계학회 Urban Review 및 Brussels-Capital Region, Regional Secretariat for Urban Development(2007), Brussels is changing : 10 years of urban policy in the Brussels-Capital Region, Brussels-Capital Region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그림 3-23

브뤼셀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
(EDRLR) 현황도



- 2002년 기준으로 EDRLR 지역은 약 33.4만명 인구로 브뤼셀 전체 인구의 34.2%에 해당하며, 브뤼셀 전체 면적에 13.8%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함.
- 해당 지역은 남부 유럽 및 터키, 모로코 이민자들의 집단 주거지로 노동 가능 계층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실업률 또한 높은 지역을 지정함.
- 또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공장시설이 떠나거나 문을 닫아 일자리가 적은 지역이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고, 주택의 상태 또한 노후화된 지역임.
- EDRLR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자체 차원, 연방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및 지자체는 주택 리노베이션과 건축입면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리노베이션 작업에 세금축소, 6년간 토지로 인한 부동산 수입을 동결하였음.
-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EDRLR)의 계획은 지구 협약(District Contracts)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구 협약은 지역 재생, 경제 환경 개선, 공공 공간을

및 사회 통합 증대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4년 단위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됨.

② 지구 협약(District Contracts)

- 지구 협약은 지방 정부가 주도했던 지역 개선 작업이 지역 구청의 협조 없이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한 방식임.
- 1991년 도심에서 일어난 폭동 이후에 지방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 재생을 찾고자 하였고, 지구 협약방식을 대안으로 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기관	주요업무
지역 개발 및 주택관리청 (AATL)	지역 및 주택 개발에서 정부의 정책 실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재정 및 개발행정, 도시 재생 사업 및 건축 보존을 담당
지역 관리 기관 (APL)	지방정부 재정을 지자체로 배분하는 역할과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를 기초로 3년 단위로 진행(지역단위 조직의 관리도 병행)
브뤼셀 지방 주택협회 (SLRB)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도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 SLRB는 임대 주택 촉진뿐만 아니라 SISP의 운영 지원
공공 서비스 협회 (SISP)	브뤼셀 내 39,000호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예산 범위 내 공공 서비스 지원,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저리 대출 진행
주택 기금(FDL)	일반 소득수준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임대 지원. 지방 정부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도 진행. 저금리의 주택 구입 모기지 및 임대 지원 방안에 따른 임대 주택 공급으로도 활용
브뤼셀 지방정부개발 협회 (SDRB)	지역 경제 성장 및 도시 재생을 위한 개발 진행. 주택 공급과 지역 상권을 위해 건물의 활용과 거래를 유도. 낙후 지역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 개발 및 관리 담당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 관리청(AED)	지방정부의 도시 재생 정책을 실현 지원. 대중교통, 공공 관리, 교통, 공공 공간의 재개발, 상하수도 관리, 건축물 보존 등의 업무 담당,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건설 및 관리 보수, 자전거 도로 등의 관리를 통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 지원
브뤼셀 환경 협회(Brussels Environment-BGE)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도심 낙후 공간에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의 도시 재생의 역할 수행. 친환경 건물 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 운영 담당. 에너지 보너스 제도, 환경 라이선스 제도, 토지 오염 관리 담당.
연방 교통 공공 서비스부 산하 교통 시설국(DIT/SPFMT)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 터널 등의 주요 기반시설 건설 담당.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 사업 진행하며 낙후된 지구에 대한 투자 및 지구 협약(District Contracts)와 연계하여 지구 개선 사업에도 참여
사회복지센터 (CPAS)	지역 기반의 복지 지원 기능 및 도시 재생을 위해 부적합 주택의 리노베이션, 철거, 재건축 지원
사회 재산권 에이전시(AISs)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세입자 선택, 임대료 수급, 리노베이션 지원 처리 등의 운영 지원. 주택 소유자들은 AISs에 자신의 소유 재산 정보를 알려주고, AISs는 임대 관리 지원 및 정부 보조금 지원

표 3-13

브뤼셀 도시 재생
관련 기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규정을 통해 지역 구청이 구체적인 재생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함.
-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역 통합 개발 위원회(Local Integrated Development Committee(CLDI))를 만들고, 이들과 함께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EDRLR)별 재생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함.

2) 세렝(Seraing)시의 Remorban 프로젝트

- 에너지, 교통, ICT를 도시재생에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을 이루고자 Remorban³⁴⁾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2015년 시작됨. 세 개의 “lighthouse” 도시 및 두 개의 “follower” 도시가 지정되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 1단계 사업인 lighthouse 도시재생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인follower 도시 사업은 lighthouse 모델의 경험을 복제(replication)하는 작업임.
-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표준화하여 많은 다른 도시들에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단계 사업에 벨기에 세렝시가 포함되어 있음.

표 3-14

Remorban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

Lighthouse 도시			
	Valladolid	Nottingham	Tepebasi
Follower 도시			
	Seraing	Wrocław	

34) 스마트 도시 변화를 가속화 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의미하는 REgeneration MOdel for accelerating the smart URBAN transformation의 약어임.

- 세렌시의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master plan)
 - 세렌은 산업혁명 시기 유럽 전역에 철강을 수출하던 철강 산업의 기지였음. 그러나 과거 산업이 쇠퇴하고 도시의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게 되자 경제적, 사회적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이름.
 - 마스터플랜 대상이 되는 지역의 면적은 800헥타르 정도이며 공개 공지, 산업, 상업 및 업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개발전략을 수립함. 계획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개발, 민간 투자 유치, 고용 창출임.
 - 도시재생을 위한 첫번째 작업은 도시 내 도로 구축으로, 도시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망인 'urban Boulevard'임.
 -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물자 및 인력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도로 체계가 공간 계획을 통해 도시 요소(urban element)들을 계획·배치함.
 - ▶다른 계획에 선행하여 물리적 기반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것은 도시재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함.
 - 중앙도로 건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될 예정임.
 - ▶Transenster 지역으로부터 Ougrée, Saint-Lambert로 연결됨.
 - ▶Cockerill Street 와 같이 통합적 녹지 시설,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가 조성될 예정임.
 - 마스터플랜 상 도로망 구축 다음 순서는 시청에 인접한 Cockerill Street 재개발임.
 - ▶보행로, 자전거 도로, 대중 교통망, 주차 시설을 확충·정비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16년에 착공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7) 일본

- 아베 정권의 도시 관련 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강화, 도시재생, 규제완화임.

1)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 일본의 정책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 하에서 도시재생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을 의미함.
 -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와 업무의 근접성을 높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도시재생과 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에서 도시재생이 절대적인 정책은 아님. 고이즈미 시절부터 도시재생은 중요했고 연속선상에 있음. 다만, ‘특구 정책’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용적률 800%지역을 1500%까지 상향시켜 줌에 따라 일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도를 형성해 줌.
 - 용적률 인센티브는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면, 대부분 특구지역에 한정됨. 또한, 역사성, 지역포용성 등 다양한 기여를 바탕으로 하여 부여하고 있음.
 - 다만, 특구는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아베노믹스 이후 PPP시장 급성장
 - 아베정권 이전에는 급식소 등 건축물 중심의 제한적 PPP시장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누적 PPP시장 4조엔 수준으로 급성장함.
 - 아베 정부 인프라의 신설, 갱신 등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PPP 혹은 PFI 방식 검토를 의무화
-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 전략
 - ‘인프라 메인터넌스 국민 회의’라는 민·관 공동 거버넌스를 창설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음.

- 국민회의 형식의 포럼 만들어 공공과 민간의 교류·협력 도모
- 국민회의가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여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교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인포럼제도 등의 도입으로 해외 진출 극대화 도모
- 해외 진출을 통해 일본 건설 인력의 활용 도모 목적도 존재함.
- ODA 사업이 아닌 경우 고급 기술을 함께 원하는 중견국가 많아지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중견국가로 승격됨에 따라 유상국가로 전환됨. 이에 따라 고급 기술 전수할 때 수주가 가능한 국가로 변화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4~5년 전부터 “고급 기술을 통한 해외 인프라 진출”이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2) 동경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 동경의 도시재생은 버블붕괴 이후 동경 지가 급락, 불량 채권 증가 이후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치즈쿠리’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작
 - 당시장기 저성장에 따라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던 시기로, 특히, 2003년 록본기힐스가 성공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영향이 상당함.
 - 2001년 도시재생 관련 법률이 크게 바뀌었는데 록본기힐스는 이전 법 체계하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성공함.
 - 록본기힐스 사업 중 법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사업에서는 상당한 시간 단축 등 지원 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

내용	비고
오오테마치	중심업무지구 연쇄형 재개발
니혼바시 무로마치	민간주도 도시재생특구
마루노우치, 유라쿠초	도쿄역 인근 도시재생 지구
긴자6	최근 복합쇼핑몰 도시재생 사례
미드타운	최대규모의 도심재개발
토라노몬 힐즈	민관합동 입체도로제도 활용 프로젝트
다이칸야마 (Log Road, T-Site)	도심주거지 재생 및 소규모 특색있는 상업시설 개발
오모테산도힐즈,히카리에	복합 시설 프로젝트 성공 사례

표 3-15

동경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오오테마치: 동경 지요다구 오테마치지구 재생 개발 사업
 - 1590년, 에도시대(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 현재의 마루노우치와 중심지역
 - 사업추진방식은 기존 정부 청사부지를 개발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주변 노후 건물 소유주들이 새 건물에 입주, 매입한 노후 건물을 다시 재건축 하는 ‘연쇄형 재개발방식’ 임
 - 사업의 성공요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민간지주, 도쿄도와 지요다구,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기구가 추진체를 구성 협의를 통해 문제점 최소화
 - 2006년 도시재생 특별지구로 지정
 - ▶ 오테마치지구전체 개발지역의 평균 용적률 1,200%, 1·2차 재개발지역은 각각 1,590%와 1,470%의 인센티브 용적률이 적용 민간 자본이 관심을 끌 만한 지역으로 변모
 - ▶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었던 배경
 - ▶ 순환(연쇄)형 개발방식을 채택해 아직도 개발 중인 상태
 - ▶ 오테마치지구는 닛케이빌딩과 JA본사 빌딩, 게이단렌 빌딩 등이 들어서면서 대도시 도쿄에서도 가장 세련된 지역으로 자리매김

그림 3-24

오테마치지구
재생 1·2차 개발사업
구역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제공

- 도쿄 미드타운
 - 옛 방위성 부지를 6개의 SPC가 개발, 넓은 녹지 공간과 5개의 건물(미드타운 타워, 미드타운 이스트, 미드타운 웨스트, 가든테라스, 파크레지던스)로 구성된 복합도시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제공

그림 3-25

도쿄 미드타운
전경

- 총사업비 3,700억엔, 전체 면적 102,000m² 으로 2007년 3월 준공됨.
 - 민간에 의한 국유지(방위청 용지) 최대규모의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토지취득에서 착공까지 2년 3개월이 소요
 - 부지의 약 5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본 전통적인 정원을 이미지화함.
 - 좁은 도심부지와 높은 땅값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쇼핑의 완벽한 조화로 도심지 휴양지로서의 기능 부여
- 토라노몬 힐즈
- 도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일체형 프로젝트: 입체도로제도에 의거, 수도환상2호선 상부와 인접부지를 통합하여 재개발을 추진한 도시재생프로젝트
 - 사업비 2,300억엔(약 2조3천억원), 전체면적 17.069m² 로 2014년 5월에 준공됨.
 - 민관합동 개발 방식³⁵⁾ 적용: 도쿄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모리빌딩은 설계/건설후 지분 87%를 받음.
 - 도시재생특별지구 지정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심공동화 지역에 활기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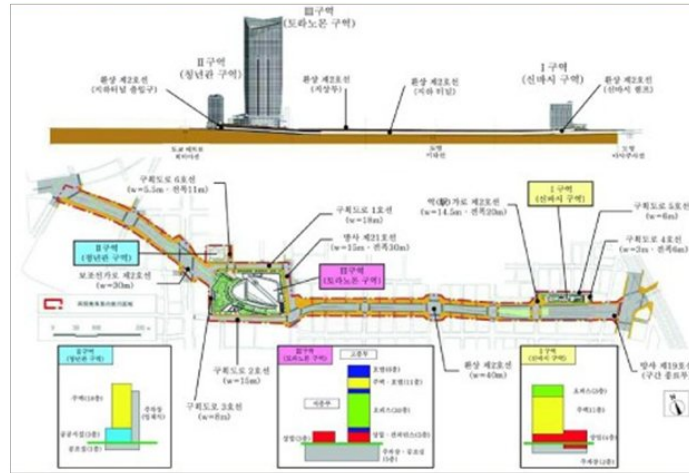
35) 건축물의 기획, 건설, 운영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시행자와 권리자와의 파트너(코디네이터)로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재개발 계획에 대해 조언, 제안,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그림 3-26

토라노몬 힐즈
전체 구역 개념도
및 재생 개념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 오모테산도 힐즈

- 일본 최초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181억엔, 6,051m² 규모로 2006년 1월에 준공됨.
- 설계당시부터 '재건'에 초점을 맞춰 주변지구의 도시적 컨텍스트에 맞춰 재생한 대표적인 도시상업재생 프로젝트
 - ▶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며 주변지구(하라주쿠)와 어울리는 도시공간 재생을 목표로 한 재개발 사업
 - ▶ 재생(아파트와 도시의 기억을 재생)과 조화(주변환경과의 조화,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사업의 주요 컨셉

그림 3-27

오모테산도힐즈
전경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8)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도시 및 인프라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함.
 - 싱가포르는 한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계획의 일관성이 있으며,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의 없음.
 - 40-50년 단위의 Concept plan과 그에 맞는 10-15년 단위의 Master plan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글로벌 허브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을 위해 큰 규모의 인프라 사업 투자 진행 활발함.
 - 창이 국제공항(Changi Airport) 터미널 4&5 건설 : 공항의 현재 수용력(capacity)이 2배로 증가할 예정임.
 - 투아스 신항만(Tuas Port) 개발 : 싱가포르 서쪽 Tuas를 매립, 도심에 위치한 항만을 확장, 이전할 예정임
 - 투아스 신항만은 6500만TEU 처리가 가능한 대규모 항만임.
 - Singapore-Kuala Lumpur High-Speed Rail(HSR) 건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KL을 잇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현재 자동차로 약 6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함.
-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도심 과밀화 방지를 위한 교외화(decentralization):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혼잡비용 증가 등을 막기 위해 항만과 가까운 서쪽 지역인 Jurong Lake District(JLD)를 개발, 과학과 기술의 요충지로서 새로운 도심을 구축하고 있음.
 - 녹지공간을 위한 지하 공간 활용: 지하공간의 활용을 높임으로써 공원 등을 비롯한 녹지공간을 증가시키고자 함.
 - 차량이 적은 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개발: car-lite city를 만들기 위해 지하철(MRT)과 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등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13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도보 10분 이내에 역에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거리가 20km미만인 경우 85%가 60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며,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75%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표 3-16

싱가포르 건설산업 예측 (2017~22)

Table: Five-Year Forecast Scenario (Singapore 2017-2022)

	2017e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Construction industry value, SGDbn	19.94	20.61	21.60	22.75	23.95	25.29
Construction Industry Value, Real Growth, % y-o-y	2.28	2.09	2.80	2.86	2.77	3.09
Construction Industry Value, % of GDP	4.8	4.7	4.7	4.7	4.7	4.7

e/f = BMI estimate/forecast. Source: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BMI

- 데이터를 이용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및 인프라 계획함.
 - Urban Lab에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및 인프라 계획을 위한 대규모의 정보 수집,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 건설 산업
 - 싱가포르 건설 산업은 2018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18-22년 평균 성장률은 약 2.7%일 것으로 추정됨.
 - 싱가포르 건설 산업의 가치는 향후 약 10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 리스크 분석
 - 싱가포르는 성장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매우 낮은 매력적인 인프라·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법과 제도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형성되어 있음.
 - 싱가포르는 위험이 낮고, 위험에 따른 보상도 낮은 편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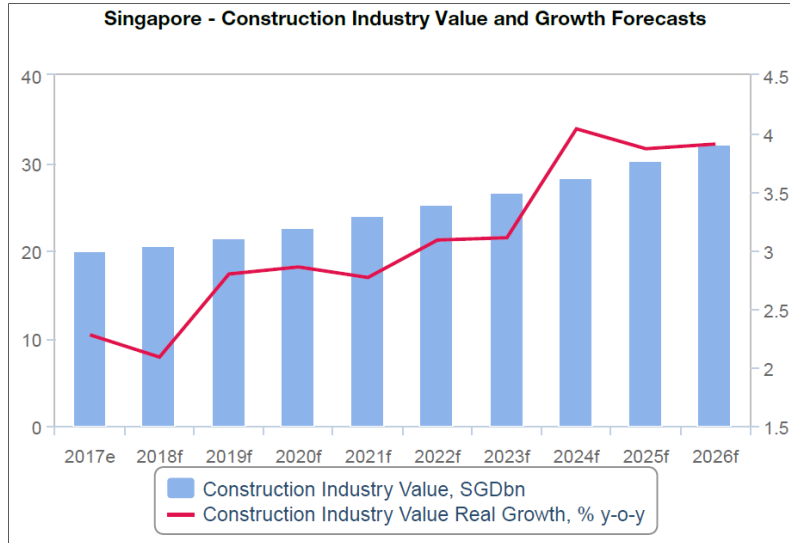


그림 3-28

싱가포르
건설산업 가치와
성장률 예측

-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BIM의 활용을 강제(연면적 5,000m²)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BIM의 활용이 제한적임.
 - 발주청 제출 서류는 BIM 결과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직 2D 도면의 활용이 보급화되어 있음.
 -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BIM을 잘 활용할 만큼 숙련되어 있지 못함.
 - 2D 도면과 BIM 도면의 불일치성이 존재하여 주요 공정 간의 간섭 현황 검토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창이공항 터미널5의 기초공사에 BIM이 활용됨.
 - BIM Doctor 기업은 BasisSoft와의 합작법인을 구성, 창이공항 터미널 5의 기초공사에서 BIM을 활용함.
 - 토목공사 중심으로 BIM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단위 패키지 규모도 상당함.
-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사업에 BIM 기술 가치 창출 제고
 - 현재 프로젝트 수행 인력 및 인프라 수준이 BIM 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음.
 - BIM 기술에 의한 결과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함.
 - 가령 BIM을 통한 도면에 부재 간 중첩 및 불일치성을 관련 실무자가의 검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3.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SOC 투자 추이를 살펴볼 때, 국가별 투자부문 및 우선순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투자 증가 추세를 보임.
 - 각 국가들은 기존 SOC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등 개선과 기존 인프라 대체,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비한 신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별 투자가 이루어짐.
- 미국은 주요 인프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2015년 기준 평균 27년)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부가세 및 교통 관련 세금을 인상하여 추가 재원으로 활용함.
 - 노퍽시와 포트머스시 터널 프로젝트 사례에서와 같이 대형 사업의 경우 재정부족의 문제는 PPP 활용을 통해 해결함.
-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를 차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주로 이루어짐.
 - 독일 슈투트가르트-울름 사업은 복잡한 도심지내에서 인프라의 재배치를 통해 시민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확보하고, 고속철도 운행으로 이동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음.
 - 벨기에 세렝시의 Remorban사업은 도시재생에 에너지, 교통, ICT를 접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진행함.
-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와 지역 계획을 연계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함.
 - 아베노믹스와 연계한 SOC 시설물의 정비 등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계획중에 있음.
 - 아베 정권의 도시관련 정책은 크게 금융강화, 도시재생, 규제완화로, 동경시에서는 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 이후 인프라의 신설, 개선사업에 PPP 방식에 대한 검토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정부차원에서 도시 및 인프라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수행중에 있음.
 -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과밀화에 대비한 교외화 사업과 인프라 시설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임.
 -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인프라 계획을 수립함.

(2) 시사점

-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의 비중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독일은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의 SOC 투자 증가세는 최근 SOC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해외 선진 국가 혹은 도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화된 인프라의 성능 개선 및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한 투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를 양적 측면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필요한 시점임.

3. 요약 및 시사점

3.

요약 및 시사점

- 도시쇠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이를 차단하고 지역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정책수단으로 지역의 현실 및 잠재력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투자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인프라 투자의 적절한 시기도 매우 중요함.
 - 도시쇠퇴가 지나치게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쇠퇴의 흐름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이미 지역 내의 잠재력이 대부분 소실된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지역별 인프라의 노후화와 인구변동 등에 대비한 필요 인프라 투자 부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제4장 충청북도 인프라 실태 분석

1. 일반 현황

① 충북 권역별 시·군별 현황

- 충북은 청주생활권, 중부생활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으로 구성됨. 각 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음.
 - 청주생활권 : 청주
 - 중부생활권 : 진천, 음성, 증평, 괴산
 - 남부생활권 : 옥천, 영동, 보은
 - 북부생활권 : 충주, 제천, 단양
- 청주생활권의 공간구조는 1개 도심, 4개 지구중심, 7개 지역 중심으로 구성됨.
 - (도심) 원도심/(지구중심) 청원구·상당구·흥덕구·서원구/(지역중심) 복대송정·오창·오송·내수·미원·현도·남일
 - 고속도로 4개노선, IC 6개소
 - 철도 4개 노선, 철도역사 4개소/유원지 1개소(명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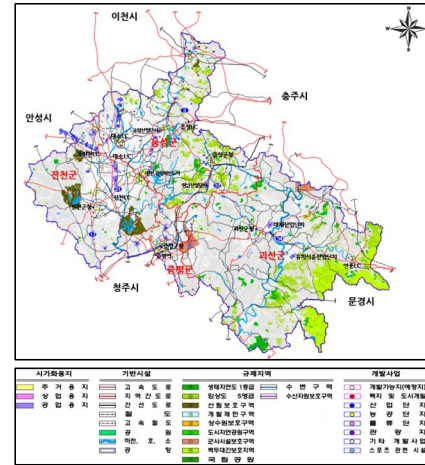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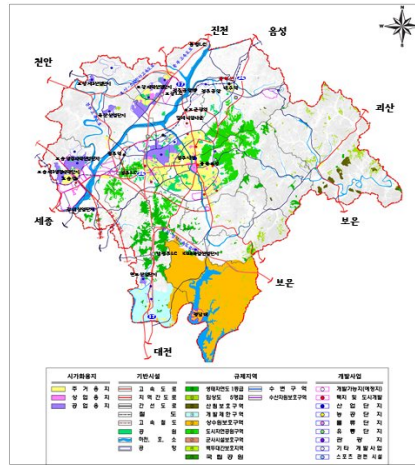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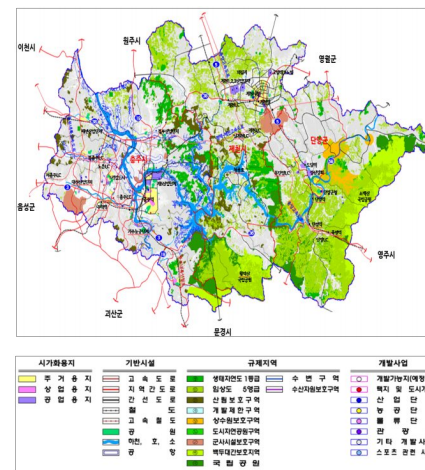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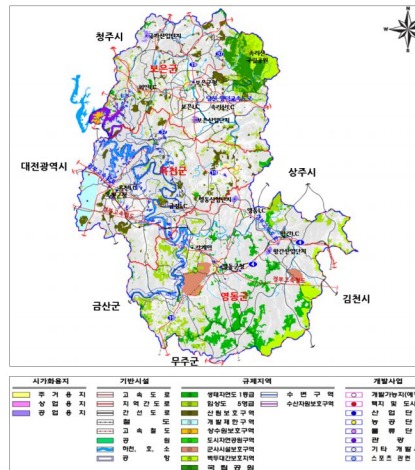
표 4-1

충북지역 권역별
시·군별 일반
현황



청주생활권

증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북부권

자료 : 충북연구원 (2018)

- 증부생활권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진천군 : 1개 도심, 2개 부도심, 4개 지역중심/고속도로 2개 노선, IC 2개소, 국도 3개 노선
 - 음성군 : 4개 도심, 2개 부도심, 3개 지구중심/고속도로 3개 노선, IC 4개소, 철도 2개 노선, 철도역사 4개소/유원지(무극)
 - 증평군 : 1개 도심, 1개 지역중심, 3개 특화구역/국도 2개 노선, 철도 1개 노선, 철도역사 2개소
 - 괴산군 : 3개 도심, 4개 생활권/고속도로 1개 노선, IC 2개소

- 남부생활권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옥천군 : 1개 중심, 3개 거점, 2개 생활권중심/고속도로 1개 노선, IC 2개소, 철도 2개 노선, 철도역사 3개소
 - 영동군 : 1개 대생활권, 4개 중생활권/고속도로 2개 노선, IC 2개소, 철도 2개 노선, 철도역사 5개소
 - 보은군 : 1개 대생활권, 5개 지역생활권/고속도로 1개 노선, IC 3개소/속리산국립공원
- 북부생활권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충주시 : 1개 도심, 1개 부도심, 3개 지역중심/고속도로 2개 노선, IC 4개소, 철도 2개 노선, 철도역사 5개소/유원지 1개소(칠금)
 - 제천시 : 1개 도심, 2개 지구중심, 6개 지역중심/고속도로 2개 노선, IC 2개소, 철도 2개 노선, 철도역사 7개소/유원지 1개소(익림지)
 - 단양군 : 3개 생활권(중심생활권,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고속도로 1개 노선, IC 2개소, 철도 1개 노선, 철도역사 5개소/국립공원(월악산, 소백산)/유원지 3개소(상진, 도담삼봉, 매폰하곡)

② 충북 정주환경 및 생활 인프라 현황

- 충북의 주택보급율은 2016년 기준 110.7%로 전국 평균인 102.6%을 상회함.
 -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은 총 116,847호로 약 20.5%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노후 주거시설 비율인 16.8%를 상회함.
 - 주거시설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노후 비율이 45.3%(93,797호), 아파트 4.2%(13,437호), 연립주택 40.7%(6,512호), 다세대주택 4.1%(788호),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24.6%(2,313호)로 나타남.
- 충북의 생활인프라 관련 스톡은 광역시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의료, 교육,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은 비교적 적음.
 - 삶의 질 관련 지표는 문화예술 향유율이 9개 도 중 5위, 생활체육 참여율 3위,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위로 보통 또는 높은 수준임.

1.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표 4-2

충북지역 생활
인프라 현황

구분	삶의 질			의료 ¹⁾	교육 ²⁾	복지 ²⁾
	문화예술 향유율(%)	생활체육 참여율(%)	인구 천명당 도시 공원 조성면적(m ²)	공공의료기관 병상수(개)	보육시설 (어린이집)(개소)	사회복지관 (개소)
서울	83.7	22.6	13.9	8,672	6,368	98
부산	84.4	27.9	17.8	4,078	1,937	53
대구	68.1	20.4	9.9	3,514	1,483	26
인천	90.3	24.2	17.1	1,286	2,231	20
대전	70.6	31.8	13.9	2,675	1,238	19
광주	85.0	25.5	18.1	3,180	1,584	21
울산	83.7	17.9	31.3	100	895	8
세종	86.5	21.3	134.3	0	250	2
경기	86.2	19.4	14.1	9,862	12,120	69
강원	70.7	21.0	26.5	4,044	1,180	18
충북	72.4	21.4	32.6	2,548	1,208	13
충남	75.4	15.8	21.3	2,362	1,974	17
전북	62.4	20.4	27.8	3,365	1,562	17
전남	52.7	30.6	39.0	5,060	1,251	16
경북	68.2	15.6	27.9	4,352	2,102	16
경남	74.7	19.2	27.7	5,955	3,158	30
제주	79.4	27.7	13.7	1,223	543	9

주1 : 문화예술 향유율은 연간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을 관람한 비율(2014년 기준)

주2 : 생활체육 참여율은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비율(2013년 기준)

주3 :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의료·교육·복지 현황자료는 2015년, 2016년 기준

자료 : 1)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13. 6), 2016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2) 보건복지부 (2016), 보
육통계,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2호

③ 충북 노후 인프라 및 안전 수준 현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별법) 대상 1종 시설물
은 389개, 2종 시설물은 1587개로 총 1976개 존재하며, D등급(미흡) 이하
1, 2종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음.

•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 A등급(우수), B등급
(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

- 충북 내 C등급(보통) 시설물은 1종 시설물 22개소, 2종 시설물이 168개소 존재함.

• 1종 시설물 : 대형건축물 1개, 도로교량 15개, 철도교량 2개, 철도터널 4개
• 2종 시설물 : 다중이용건축물 3개, 대형건축물 1개, 도로교량 59개, 철도교
량 13개, 용수전용댐 14개, 철도옹벽 2개, 도로절토사면 56개, 도로터널 2
개, 지하차도 1개, 수문 및 통문 16개, 제방 1개

구분		등급 및 합계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양호	보통	불량
1종 시설물										
대형건축물		2	-	1	1	-	-	-	-	-
교량	도로	239	20	173	15	-	-	30	1	-
	철도	52	1	48	2	-	-	1	-	-
	복개구조물	1	-	1	-	-	-	-	-	-
댐	발전용	1	-	1	-	-	-	-	-	-
	용수전용	3	-	3	-	-	-	-	-	-
상하수도	광역	3	-	3	-	-	-	-	-	-
	지방	3	-	2	-	-	-	1	-	-
	공업용	4	2	2	-	-	-	-	-	-
터널	도로	56	10	31	-	-	-	15	-	-
	철도	25	13	7	4	-	-	1	-	-
2종 시설물										
건축물	다중이용	36	-	18	3	-	-	14	1	-
	대형	14	-	11	1	-	-	2	-	-
교량	도로	571	52	421	59	-	-	32	1	-
	철도	42	3	26	13	-	-	-	-	-
	복개구조물	1	-	1	-	-	-	-	-	-
용수전용댐		31	1	15	14	-	-	1	-	-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43	11	32	-	-	-	-	-	-
	공공하수처리		8	27	-	-	-	-	1	
옹벽	건축물	4	2	1	-	-	-	1	-	-
	도로	61	44	6	-	-	-	9	2	-
	철도	21	11	8	2	-	-	-	-	-
	기타	5	4	-	-	-	-	1	-	-
절토사면	건축물	1	-	1	-	-	-	-	-	-
	도로	406	29	55	56	-	-	230	36	-
	철도	9	-	-	-	-	-	9	-	-
	기타	2	-	2	-	-	-	-	-	-
터널	도로	103	34	45	2	-	-	17	1	-
	지하차도	5	2	2	1	-	-	-	-	-
하천	배수펌프장	30	-	-	-	-	-	30	-	-
	수문 및 통문	113	13	82	16	-	-	2	-	-
	제방	48	9	36	1	-	-	2	-	-

주1 : 2종 시설물 도로교량 미점검 시설 6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점검 시설물 1개소, 건축물옹벽 미점검 시설물 2개소, 도로옹벽 미점검 시설물 1개소, 도로 절토사면 미점검 시설물 1개소, 도로 터널 미점검 시설물 4개소 존재

주2 : 준공 이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기점검 결과(양호/보통/불량)를 표기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현황(2017.10.19. 기준)

표 4-3

충북 시특법
1·2종 시설물
현황

1.

일반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 충북의 시설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상 특정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은 총 4,193개소(중점관리시설 4,180개, 재난위험시설 13개) 존재함.
 - 중점관리시설 : A등급(문제없는 상태), B등급(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조속한 보수 및 보강 필요)
 - 재난위험시설 : D등급(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에 대한 판단 필요), E등급(사용금지 또는 개축 필요)
- 중점관리시설 중 긴급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C등급 시설물은 338개소로 집계됨.
 - 시설물 중에서는 도로시설이 104개로 가장 많음.
 - 건축물 중에서는 공동주택이 113개로 가장 많으며, 건축공사장이 80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재난위험시설은 D등급 9개소(시설물 5개소, 건축물 4개소), E등급 4개소(시설물 1개소, 건축물 3개소)로 집계됨.
 -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도로교량 5개소, 공공업무시설 2개소, 공연장 1개소, 대형공사장 1개소가 존재함.
 -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은 도로교량 1개소, 건축물 중 연립주택 3개소가 존재함.

시설유형		관리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D등급	E등급	
시설물 현황										
합계		842	836	131	578	127	6	5	1	
도로 시설	계	777	771	116	551	104	6	5	1	
	교량	749	743	114	528	101	6	5	1	
	터널	10	10	1	8	1	0	0	0	
	육교	14	14	0	12	2	0	0	0	
	지하차도	4	4	1	3	0	0	0	0	
지하도상가		0	0	0	0	0	0	0	0	
스키장		1	1	1	0	0	0	0	0	
삭도.궤도		7	7	4	3	0	0	0	0	
유원시설		4	4	4	0	0	0	0	0	
토목 공사장		23	23	0	0	23	0	0	0	
수상안전시설		27	27	6	21	0	0	0	0	
기타		3	3	0	3	0	0	0	0	
건축물 현황										
합계		3,351	3,344	969	2,164	211	7	4	3	
공공업무시설		135	133	70	54	9	2	2	0	
공동 주택	계	2,489	2,486	547	1,826	113	3	0	3	
	아 파 트	1,965	1,965	457	1,431	77	0	0	0	
	연립주택	524	521	90	395	36	3	0	3	
중소형 건축물	계	483	482	248	226	8	1	1	0	
	판매시설		38	38	9	27	2	0	0	0
	숙박시설		84	84	48	36	0	0	0	0
	운수시설		3	3	1	2	0	0	0	0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10	9	3	6	0	1	1	0
		집회장	32	32	21	11	0	0	0	0
		관람장	8	8	3	4	1	0	0	0
		전시장	1	1	1	0	0	0	0	0
	의료시설		28	28	17	11	0	0	0	0
	장례식장		5	5	2	3	0	0	0	0
	종교시설		179	179	87	89	3	0	0	0
	위락시설		5	5	0	5	0	0	0	0
	관광휴게시설		1	1	1	0	0	0	0	0
	수련시설		21	21	18	3	0	0	0	0
	노유자시설		34	34	20	13	1	0	0	0
	운동시설		34	34	17	16	1	0	0	0
	대형건축물		91	91	57	34	0	0	0	0
대형광고물		68	68	45	22	1	0	0	0	
건축 공사장	계	81	80	0	0	80	1	1	0	
	대형공사장	66	65	0	0	65	1	1	0	
	중단된 공사장	15	15	0	0	15	0	0	0	
기 타		4	4	2	2	0	0	0	0	

자료 : 충청북도 재난관리과(2017),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현황

표 4-4

충북 재난안전법
시설물 현황

1.

일반 현황

2. 교통시설

(1) 도로

① 일반 현황

- 2016년 기준 전국의 총 도로연장(km)은 108,780km이며, 충북의 도로연장은 6,870km로 전국 도로연장의 약 6.32%를 차지함.
- 충북의 도로연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 도 단위에서는 여덟 번째로 타 도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연장을 지님.
- 충북의 국토면적당 도로연장(km/km²)은 0.93으로 전국 1.08보다 낮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열두 번째이며, 도 단위에서는 다섯 번째 수준임.
- 충북의 인구당 도로연장(km/천명)은 4.32로 전국 2.10보다 높은 수준임.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 도 단위에서도 여섯 번째를 나타냄.

표 4-5

전국 시·도별
도로현황

구 분	도로연장 (km)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 ²)	인구당 도로연장 (km/천명)	자동차당 도로연장 (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계	108,780	1.08	2.10	4.99	1.51
서울시	8,266	13.66	0.83	2.68	3.37
부산시	3,330	4.33	0.95	2.57	2.03
대구시	2,802	3.17	1.13	2.48	1.89
인천시	2,942	2.77	1.00	2.05	1.66
광주시	1,844	3.68	1.26	2.91	2.15
대전시	2,116	3.92	1.40	3.26	2.34
울산시	2,088	1.97	1.78	3.88	1.87
세종시	404	0.87	1.66	3.66	1.20
경기도	13,207	1.30	1.04	2.56	1.16
강원도	9,863	0.59	6.36	13.65	1.93
충청북도	6,870	0.93	4.32	9.03	2.00
충청남도	7,122	0.87	3.40	7.02	1.71
전라북도	8,402	1.04	4.51	9.67	2.17
전라남도	10,596	0.86	5.57	11.13	2.19
경상북도	13,185	0.69	4.88	9.74	1.84
경상남도	12,532	1.19	3.71	7.71	2.10
제주도	3,211	1.74	5.00	6.87	2.95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현황조사

- 충북의 자동차당 도로연장(km/천대)은 9.03이며, 전국 4.99보다 높은 수준임.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 도 단위에서도 다섯 번째로 나타남.
 - 인구수와 면적을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2.00으로 전국 1.51보다 높음.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 도 단위 중 다섯 번째로 나타남.
- 충북 내 총 도로연장(km) 중 포장도로 연장은 약 5,794km, 미포장도로 연장은 약 558km, 미개통도 연장은 약 519km로 나타남.
- 충청북도 포장률은 91.2%로 전국 평균 92.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충북 포장률은 17개 시·도 중 열한 번째, 도 단위 중에서는 세 번째 수준으로 파악됨.

구 분	개통도			미개통도(km)	총 계(km)
	포장도(km)	미포장도(km)	포장률(%)		
전국	92,826	15,954	92.4	7,602	108,780
서울	8,266	-	100.0	-	8,266
부산	3,272	59	98.2	-	3,330
대구	2,801	-	100.0	1	2,802
인천	2,826	112	96.2	4	2,942
광주	1,843	0	100.0	-	1,844
대전	2,116	-	100.0	-	2,116
울산	2,061	22	99.0	5	2,088
세종	352	-	100.0	51	404
경기	11,938	278	97.7	991	13,207
강원	7,447	1,193	86.2	1,224	9,863
충북	5,794	558	91.2	519	6,870
충남	6,059	646	90.4	417	7,122
전북	6,560	1,042	86.3	801	8,402
전남	8,420	995	89.4	1,181	10,596
경북	10,516	1,573	87.0	1,096	13,184
경남	9,717	1,097	89.9	1,719	12,532
제주	2,838	29	99.0	344	3,211

주 : 포장률=포장도/(포장도+미포장도)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현황조사서

표 4-6
 전국 시·도별
 도로포장 현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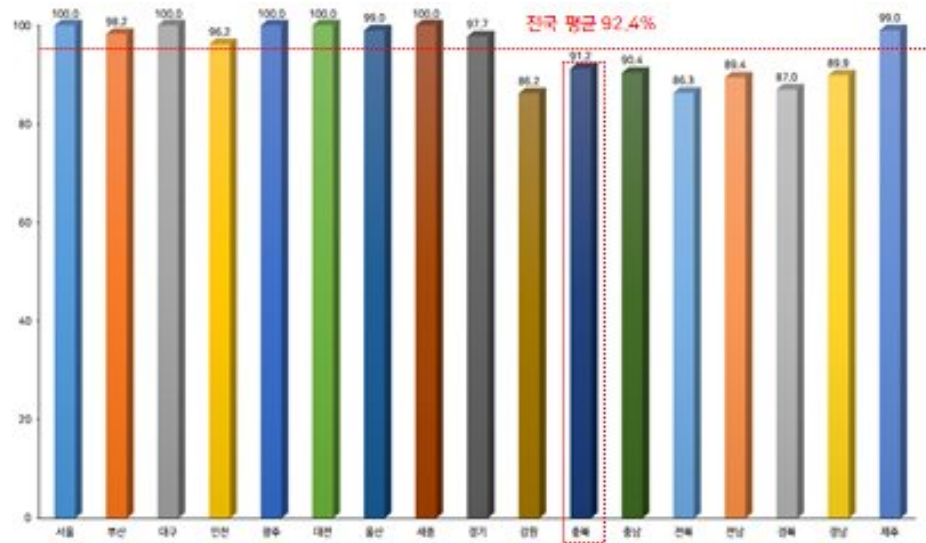
교통시설

2.

교통시설

그림 4-1

전국 시·도별
도로포장률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보수현황

- 충북 등급별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고속국도(도로) 약 376km, 일반국도 약 950km,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약 1,475km, 시·군도 약 4,068km로 구성되어 있음.
 - 충청북도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포장률은 100%임.
 - 지방도의 경우 총 연장 1,476km 중 포장률은 약 95.0%(1,403km)이며, 미포장률은 약 2.4%(35km), 미개통도로는 약 38km임.
 - 시도의 경우 총 연장 1,510km 중 포장률은 약 88.4%(1,334km), 미포장률은 약 0.1%(3km), 미개통도는 173km임.
 - 군도의 경우 총 연장 2,558km 중 포장률은 약 67.6%(1,730km), 미포장률은 약 20.4%(521km), 미개통도는 307km임.
- 충북 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와 비교하여 시도와 군도는 미포장도 및 미개통도 비율이 높아 확충 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충북 내 미포장 및 미개통 도로 변화를 살펴보면, 2015~16년 사이 포장률 약 0.3% 증가, 미개통도 약 0.1% 감소하였음.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내역(km)
			연장(km)	계(%)	연장(km)	계(%)	
합계	전체		6,858	100.0%	6,870	100.0%	13
	개통	소계	6,336	92.4%	6,352	92.5%	16
		포장	5,763	84.0%	5,794	84.3%	31
		미포장	573	8.4%	558	8.1%	-15
	미개통		522	7.6%	519	7.5%	-3
고속 국도	전체		384	100.0%	376	100.0%	-7
	개통	소계	384	100.0%	376	100.0%	-7
		포장	384	100.0%	376	100.0%	-7
		미포장	-	-	-	-	-
	미개통		-	-	-	-	-
일반국 도	전체		950	100.0%	950	100.0%	0
	개통	소계	950	100.0%	950	100.0%	0
		포장	950	100.0%	950	100.0%	0
		미포장	-	-	-	-	-
	미개통		-	-	-	-	-
지방도	전체		1,476	100.0%	1,476	100.0%	0
	개통	소계	1,437	97.4%	1,437	97.4%	0
		포장	1,396	94.6%	1,403	95.0%	7
		미포장	41	2.8%	35	2.4%	-7
	미개통		38	2.6%	38	2.6%	0
시도	전체		1,502	100.0%	1,510	100.0%	8
	개통	소계	1,329	88.5%	1,337	88.5%	8
		포장	1,326	88.3%	1,334	88.4%	8
		미포장	3	0.2%	3	0.1%	0
	미개통		173	11.5%	173	11.5%	0
군도	전체		2,546	100.0%	2,558	100.0%	12
	개통	소계	2,236	87.8%	2,251	88.0%	14
		포장	1,707	67.1%	1,730	67.6%	23
		미포장	529	20.8%	521	20.4%	-8
	미개통		310	12.2%	307	12.0%	-3

주 : 포장률=포장도/(포장도+미포장도+미개통도)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현황조사

표 4-7

충북 도로등급별
현황

② 지역별 도로 현황

- 충북 내 11개 시·군에 대한 도로 등급별 포장률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도, 시도, 군도의 포장률이 낮은 편이며, 미개통률이 높은 편임.

- 청주시의 경우 지방도 포장률 약 88.8%, 미개통률 약 9.8%, 군도 포장률

2.

교통시설

2.

교통시설

약 63.6%, 미개통률 11.5%로 나타남.

- 충주시의 경우 시도 포장률 약 73.4%, 미개통률 약 26%, 군도 포장률 약 62.7%, 미개통률 12.7%로 나타남.
- 제천시의 경우 지방도 포장률 약 87.2%, 시도 포장률 약 77.2%, 미개통률 약 22.8%, 군도 포장률 약 64.4%, 미개통률 약 34.5%로 나타남.
- 보은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59.8%, 미개통률 약 17.4%로 나타남.
- 옥천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52.4%, 미개통률 약 8.3%로 나타남.
- 영동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62.7%, 미개통률 약 14.6%로 나타남.
- 증평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7.5%, 미개통률 약 20.0%로 나타남.
- 진천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8.4%로 나타남.
- 괴산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0.6%, 미개통률 약 2.8%로 나타남.
- 음성군의 경우 군도 미개통률이 약 3.4%로 나타남.
- 단양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9.2%, 미개통률 약 1.0%로 나타남.

③ 노후도

- 충북에서 관리 중인 국도 중 10년을 초과한 도로는 630km로 약 63.8%를 차지함.
-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 내구연한이 각각 10년, 20년임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노후된 도로는 균열, 포트홀, 싱크홀 등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관리되어야 할 대상임.

표 4-8

전국 노후 국도
현황

구분	연장(km)	5년이하	6년 ~ 10년	11년 ~ 20년	20년 초과
전국 소계	11,636	2,240	2,308	3,987	3,101

자료 : 엔지니어링데일리(2017.10.10.) 기사에서 제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 발표 자료를 재인용

표 4-9

충북 노후 국도
현황

구분	연장(km)	5년이하	6년 ~ 10년	11년 ~ 20년	20년 초과
충주국토관리사무소	496	85	74	187	123
보은국토관리사무소	299	42	82	119	56
충북(위임국도)	220	24	51	80	65
소계	988	151	207	386	244

자료 : 엔지니어링데일리(2017.10.10.) 기사에서 제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 발표 자료를 재인용

구분	도로등급	전체 (km)	포장도 (km)	미포장도 (km)	미개통도 (km)	포장률 (%)	미개통률 (%)
청주시	고속국도	72	72	0	0	100.0%	0.0%
	일반국도	111	111	0	0	100.0%	0.0%
	지방도	250	222	4	24	88.8%	9.8%
	시도	805	805	0	0	100.0%	0.0%
	군도	304	193	76	35	63.6%	11.5%
충주시	고속국도	79	79	0	0	100.0%	0.0%
	일반국도	118	118	0	0	100.0%	0.0%
	지방도	225	208	9	7	92.8%	3.0%
	시도	387	284	3	101	73.4%	26.0%
	군도	345	216	85	44	62.7%	12.7%
제천시	고속국도	31	31	0	0	100.0%	0.0%
	일반국도	103	103	0	0	100.0%	0.0%
	지방도	122	106	16	0	87.2%	0.0%
	시도	319	246	0	73	77.2%	22.8%
	군도	289	186	3	100	64.4%	34.5%
보은군	고속국도	29	29	0	0	100.0%	0.0%
	일반국도	91	91	0	0	100.0%	0.0%
	지방도	113	107	6	0	94.8%	0.0%
	군도	225	134	51	39	59.8%	17.4%
옥천군	고속국도	24	24	0	0	100.0%	0.0%
	일반국도	69	69	0	0	100.0%	0.0%
	지방도	90	90	0.49	0	99.5%	0.0%
	군도	229	120	90	19	52.4%	8.3%
영동군	고속국도	28	28	0	0	100.0%	0.0%
	일반국도	77	77	0	0	100.0%	0.0%
	지방도	168	168	0	0	100.0%	0.0%
	군도	303	190	69	44	62.7%	14.6%
증평군	고속국도	0	0	0	0	0	0
	일반국도	13	13	0	0	100.0%	0.0%
	지방도	21	21	0	0	100.0%	0.0%
	군도	54	42	1	11	77.5%	20.0%
진천군	고속국도	26	26	0	0	100.0%	0.0%
	일반국도	83	83	0	0	100.0%	0.0%
	지방도	52	52	0	0	100.0%	0.0%
	군도	202	159	44	0	78.4%	0.0%
괴산군	고속국도	20	20	0	0	100.0%	0.0%
	일반국도	119	119	0	0	100.0%	0.0%
	지방도	178	172	0	6	96.6%	3.4%
	군도	225	159	60	6	70.6%	2.8%
음성군	고속국도	40	40	0	0	100.0%	0.0%
	일반국도	76	76	0	0	100.0%	0.0%
	지방도	139	138	0	1	99.2%	0.8%
	군도	221	204	10	8	92.2%	3.4%
단양군	고속국도	29	29	0	0	100.0%	0.0%
	일반국도	91	91	0	0	100.0%	0.0%
	지방도	118	118	0	0	100.0%	0.0%
	군도	161	127	32	2	79.2%	1.0%

주 : 포장률=포장도/(전체); 미개통률=미개통도/전체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현황조사

표 4-10

충북 11개 시·군
도로현황

2.

교통시설

2.

교통시설

(2) 도로교량

① 일반 현황

- 충북 내 총 교량 수는 2,567개소로 전국의 7.9%를 차지하며, 총 연장(km)은 240km로 전국의 약 7.4%를 포함하고 있음.
- 도 단위에서 충북 내 교량 수 및 연장은 제주도 다음으로 적은 수준임.

표 4-11

전국 시·도별
도로교량 현황

구분	교량 수(개소)		교량 연장(km)	
서울	629	1.9%	168	5.2%
부산	501	1.5%	109	3.4%
대구	573	1.8%	64	2.0%
인천	394	1.2%	98	3.0%
광주	379	1.2%	42	1.3%
대전	467	1.4%	52	1.6%
울산	550	1.7%	55	1.7%
세종	168	0.5%	18	0.6%
경기	5,309	16.4%	501	15.4%
강원	3,360	10.4%	338	10.4%
충북	2,567	7.9%	240	7.4%
충남	2,804	8.7%	262	8.1%
전북	2,895	9.0%	254	7.8%
전남	3,112	9.6%	294	9.1%
경북	4,430	13.7%	421	13.0%
경남	3,826	11.8%	315	9.7%
제주	361	1.1%	12	0.4%
합 계	32,325		3,243,800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 충북 내 도로 등급별 교량은 고속국도 도로교량 748개소(102km), 일반국도 도로교량 661개소(70km), 지방도 도로교량 428개소(28km), 시도 도로교량 376개소(19km), 군도 도로교량 354개소(21km)로 구성됨.
- 충북 내 지역별 도로교량은 청주시가 54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가 452개소로 높게 나타남.

구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충북	2,567	748	661	428	376	354
청주시	543	140	77	79	181	66
충주시	452	142	134	70	106	-
제천시	232	64	45	34	89	-
보은군	179	69	47	35	-	28
옥천군	159	39	46	27	-	47
영동군	195	51	52	37	-	55
증평군	27	-	12	2	-	13
진천군	148	37	58	19	-	34
괴산군	236	35	95	57	-	49
음성군	235	110	61	30	-	34
단양군	161	61	34	38	-	28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표 4-12

충북 시·도별
도로교량 현황

② 노후도

- 충북 내 도로교량의 노후도를 살펴보면, 사용년수 20년 이상 도로교량은 1,037개소로 충북 도로교량의 약 40.4%를 차지함.
- 10년 경과 시 충북 내 노후 도로교량은 2,068개소로 급증하며, 충북 전체 도로교량의 약 81%를 차지하게 됨.
- 40년 이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도로교량은 126개소로 충북 내 도로 교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준공년도 기준)	도로교량 수	비율(%)
5년 미만	136	5.3%
5년 이상~10년 미만	354	13.8%
10년 이상~15년 미만	448	17.5%
15년 이상~20년 미만	583	22.7%
20년 이상~25년 미만	350	13.6%
25년 이상~30년 미만	248	9.7%
30년 이상~35년 미만	218	8.5%
35년 이상~40년 미만	95	3.7%
40년 이상	126	4.9%
미상	9	0.4%
합계	2,567	100%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표 4-13

충북 도로교량
노후도 현황

2.

교통시설

2.

교통시설

- 충북 내 11개 시·군에 대한 20년 이상 도로교량 노후도는 도로교량 수가 많은 청주시와 충주시가 각각 301개소, 165개소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10년 경과 시 충북 내 사용연수 20년 이상 노후 도로교량 비율은 단양군(94.4%), 제천시(89.2%), 영동군(88.2%), 옥천군(86.8%), 보은군(84.9%), 청주시(85.1%) 등 음성군(63.4%)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약 80% 수준에 도달하게 됨.
- 40년 이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도로교량의 경우 충주시에 36개소, 청주시에 32개소, 영동군에 17개소 등이 분포하고 있음.

표 4-14

충북 지역별
도로교량 노후도
현황

구분	총계 (개소)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청주시	543	72	161	162	107	32
충주시	452	135	152	74	55	36
제천시	232	25	113	63	29	2
보은군	179	27	102	26	18	6
옥천군	159	21	78	34	13	13
영동군	195	23	84	56	15	17
증평군	27	6	10	9	2	-
진천군	148	34	55	29	27	3
괴산군	236	52	110	56	9	9
음성군	235	86	87	29	26	7
단양군	161	9	79	60	12	1

주 : 청주시 총계의 경우, 준공연도가 불명확한 교량 9개를 포함한 값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서

③ 안전 수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도로교량 현황

- 충북 내 시특법에 해당하는 1종 및 2종 도로교량은 총 810개소임.
- 충북 내 시특법 대상 도로교량 중 B등급 이하는 총 668개로 시특법 대상 도로교량의 약 82%를 차지함³⁶⁾.
- B등급 시설물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시설물의 경우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
- B, C등급 시설물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5년에 1회

36) B등급 이하 도로교량은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에 한함.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구분		1종(개소)	2종	합계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A등급	20	52	72
	B등급	173	421	594
	C등급	15	59	74
	D등급	-	-	-
	E등급	-	-	-
	소계	208	532	740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미 실시 시설물	양호	30	32	62
	보통	1	1	2
	불량	-	-	-
	소계	31	39 (6개 미 실시 도로교량 포함)	70
합계		239	571	810

주 : 준공 이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기점검 결과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표시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표 4-15

충북 내 시책법
1·2종 대상
도로교량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도로교량 현황

- 시책법 3종 시설물로 대규모 포함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충북 내 도로교량은 총 749개소로 집계됨.
- 충북 내 재난관리법에 해당하는 도로교량 중 중점관리대상시설물(A, B, C등급)은 743개소로 집계되며,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6개소로 파악됨.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도로교량을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도본청 1개소, 청주시 2개소, 보은군 2개소, 음성군 1개소로 파악됨.

구분	관리대상 시설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D등급	E등급
도로교량	749	743	114	528	101	6	5	1

자료 : 충청북도 재난관리과,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표 4-16

충북 내
재난관리법 대상
도로교량 현황

2.

교통시설

2.

교통시설

(3) 철도

- 충북 내 철도 노선은 경부고속선, 경부선,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이 지나며, 총 33개의 역사가 존재함.
- 수도권과 연결되는 철도는 경부선, 중앙선이 있으나, 경부선의 경우 옥천, 영동 등 남부 일부 지역을 지나고, 중앙선의 경우도 제천, 단양 등 북부 일부지역을 지나고 있음.
- 현재 충북 내륙지역을 경유하는 수도권 연계노선은 부족한 상태임

표 4-17

충북 내 고속 및
일반철도 현황

구분	노선	구간	역수 (개소)	영업キロ(km)		철도キロ(km)
				여객	화물	
고속철도	경부고속선	서울~부산	9	398.2	-	398.2
일반철도	경부선	서울~부산	87	441.7	439.9	441.7
	중앙선	청량리~경주	81	373.8	373.8	373.8
	충북선	조치원~봉양	16	115.0	115.0	115.0
	태백선	제천~백산	17	104.1	104.1	104.1

자료 : 한국철도공사(2017), 2016 철도통계연보

그림 4-2

충북 향후
주요 철도망 계획



- 충북 내 시트법에 해당하는 철도 교량은 총 94개소가 존재함.
- 30년 이상 된 철도교량은 총 27개소로 28.7%를 차지하며, 40년 이상 경과 된 교량은 13개소로 13.8%를 차지함.

구분 (준공년도 기준)	철도교량 수	비율(%)
5년 미만	3	3.2%
5년 이상~10년 미만	19	20.2%
10년 이상~15년 미만	5	5.3%
15년 이상~20년 미만	39	41.5%
20년 이상~25년 미만	0	0.0%
25년 이상~30년 미만	1	1.1%
30년 이상~35년 미만	2	2.1%
35년 이상~40년 미만	12	12.8%
40년 이상	13	13.8%
합계	94	100%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표 4-18

충북 내 철도교량
노후 현황

- 충북 시트법 해당 철도교량 중 B등급 이하 시설물의 개수는 89개소로 94.7%를 차지함.
- B등급 철도교량 : 74개소(1종 48개소, 2종 26개소)
- C등급 철도교량 : 15개소(1종 2개소, 2종 13개소)

구분		1종(개소)	2종	합계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A등급	1	3	4
	B등급	48	26	74
	C등급	2	13	15
	D등급	-	-	-
	E등급	-	-	-
	소계	51	42	93
정밀 점검 및 안전진단 미 실시 시설물	양호	1	-	1
	보통	-	-	-
	불량	-	-	-
	소계	1	-	1
합계		52	42	94

주 : 준공 이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기점검 결과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표시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표 4-19

충북 내 철도교량
안전진단 현황

2.

교통시설

2.

교통시설

(4) 공항

- 충북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청주공항 1개소이며,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수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아직 미약함.
- 청주국제공항 면적 91,173㎡의 계류장에는 A300-600R급 항공기 11기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음. 길이 2,744m×폭60m의 활주로 1본과 길이 2,743m×폭45m의 활주로 1본이 설치되어 있음.

표 4-20

청주국제공항
기본정보

구분		내용
시설 현황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산5-1
	부지(㎡)	6,739,778
	활주로(m)	2,743×60, 2,743×45
	계류장(㎡)	91,047
수송 능력	운항횟수(회/년)	140,000
	동시주차(대)	1,277
	운항항공기	B747 : 5대, A300 : 1대, B737 : 4대, Q400 : 1대

자료 : 충북연구원 (2018)

- 청주국제공항의 연간 항공기 처리능력은 19만 6천대이며, 여객터미널은 연간 315만 명(국내선 189만 명, 국제선 126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음.

표 4-21

청주국제공항
처리능력 및 현황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운항(편수)	9,185	9,082	9,159	9,579	11,633	14,153	17,418
여객(명)	1,296,842	1,337,791	1,308,994	1,378,604	1,702,538	2,118,492	2,732,755
추이 (여객/전년대비)	▲273,310	▲40,949	▼28,797	▲69,610	▲323,964	▲415,954	▲614,263

자료 : 충북연구원 (2018)

3. 물관리시설

(1) 상수도

① 일반 현황

- 충북 급수보급률은 97.9%로 전국 98.8%보다 낮은 수준임.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93.1%), 세종(95.4%), 강원(95.4%), 전남(95.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음.
- 충북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92.6%로 전국 평균 97.3%에 비해 약 4.7% 낮음.
- 충북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90.2%로 전국 평균 96.5%에 비해 약 6.3% 낮음.

구분	일반상수도 보급률(%)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	급수 보급률(%)	유수율(%)	누수율(%)
전국	97.3	96.5	98.8	84.3	10.9
서울	100.0	100.0	100.0	95.1	2.4
부산	100.0	100.0	100.0	91.7	4.4
대구	100.0	99.9	100.0	91.2	5.4
인천	98.6	98.6	100.0	89.1	6.4
광주	99.8	99.8	99.9	85.9	10.1
대전	99.9	99.9	100.0	92.3	4.6
울산	99.0	98.1	99.4	89.9	6.9
세종	93.2	87.7	95.4	80.1	19.9
경기	98.1	97.9	98.6	89.1	6.4
강원	92.0	89.6	95.4	70.5	20.0
충북	92.6	90.2	97.9	83.8	11.8
충남	90.1	84.4	93.1	79.9	15.2
전북	96.4	95.6	99.2	68.5	23.2
전남	91.6	86.6	95.4	68.5	27.0
경북	92.0	90.2	98.0	69.0	24.3
경남	93.5	93.1	99.5	73.6	19.9
제주	100.0	100.0	100.0	44.5	41.7

표 4-22

전국 상수도 현황

주 : 급수보급률의 경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인구를 포함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 충북 내 지자체별 상수도 관련 주요지표 비교 결과, 급수보급률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나 타 지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23

충북 지역별
상수도 현황

- 유수율은 보은군과 영동군이 각각 56.20%, 57.42%로 가장 낮았으며, 청주시가 89.62%로 가장 높았음. 누수율은 보은군과 영동군이 각각 39.1%, 38.1%로 높았고 청주시가 5.9%로 가장 낮게 조사됨.

구분	급수보급률 (%)	1인1일 급수량(L)	유수율 (%)	누수율 (%)	평균단가 (원/㎡)	현실화율 (%)
충북	97.9	434.8	83.8	11.8	707.5	72.8
청주시	99.8	445.1	89.62	5.9	627.2	95.3
충주시	96.3	386.1	80.49	19.5	851.3	87.5
제천시	97.1	335.2	81.85	9.5	863.9	70.0
보은군	95.1	462.9	56.20	39.1	560.7	44.3
옥천군	100.0	363.3	62.53	28.7	928.8	55.6
영동군	100.0	440.6	57.42	38.1	838.1	38.5
증평군	99.8	365.6	75.30	20.9	886.0	77.0
진천군	89.3	541.1	86.04	9.0	871.3	70.2
괴산군	92.1	476.2	58.01	39.2	993.9	37.1
음성군	92.5	547.5	74.92	19.6	688.8	46.7
단양군	99.6	486.8	80.41	15.0	932.8	40.2

자료 : 환경부, 2015, 상수도통계

- 충북 내 상수관로의 총 연장(km)은 총 약 8,766km이며, 도수관로 91km, 송수관로 422km, 배수관로 5,122km, 급수관로 3,131km로 구성됨.
- 상수관로의 종류별·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총 연장 2,628km로 약 30%를 차지하며 충주시(연장 1,474km, 약 16.8%), 제천시(연장 899km, 10.3%) 순으로 나타남.

표 4-24

충북 상수관로
관별·지역별 현황

	계(km)	비율(%)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충청북도	8,766	100%	91	422	5,122	3,131
청주시	2,628	30.0%	27	133	1,569	899
충주시	1,474	16.8%	1	84	715	674
제천시	899	10.3%	24	78	459	337
보은군	199	2.3%	5	14	130	50
옥천군	518	5.9%	0	3	319	195
영동군	462	5.3%	6	36	269	152
증평군	280	3.2%	-	2	181	97
진천군	679	7.7%	9	16	421	233
괴산군	405	4.6%	6	17	245	137
음성군	844	9.6%	-	13	569	262
단양군	379	4.3%	12	25	245	96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 상수관로로 사용되는 관의 재질은 에나멜코팅 도복장강관, 액상에폭시 도복장강관, 주철관, 덕타일주철관, PVC관, PE관, 아연도강관, 스테인레스관 등이 있음.
- 충북 상수관로 재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PVC관이 전체의 약 36.5%를 차지하며, 주철관(약 17%), 기타관(약 13.7%), 에나멜코팅도복장강관(약 12.3%) 순으로 나타남.

	계(km)	비율(%)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충북 계	8,766	100%	91	422	5,122	3,131
에나멜코팅 도복장강관	1,077	12.3%	22	57	472	526
액상에폭시 도복장강관	81	0.9%	6	12	14	49
주철관	1,494	17.0%	32	208	1,245	9
덕타일주철관	1,017	11.6%	16	114	848	39
PVC관	3,196	36.5%	5	2	1,962	1,227
PE관	604	6.9%	4	11	264	325
아연도강관	24	0.3%	0	0	0	24
스테인레스관	73	0.8%	0	0	0	73
기타	1,200	13.7%	6	18	317	859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표 4-25

충북 상수관로
재질별 현황

② 노후도

- 노후관 개량 기준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 훈령 제486호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금속관의 경우 매설 후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관선 및 부식이 심해 교체 또는 갱생이 필요한 수도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은 30년, PVC관 및 PE관은 20년, 아연도강관은 10년으로 경년관³⁷⁾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2010)’ 내 간접평가 III 또는 직접평가 III, IV, V에 해당하는 관로로 정의하고 있음.

- 충북 내 상수관로별 노후도를 살펴보면, 사용연수 20년 이상 관로는 약

3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수도관 내용년수를 초과한 관로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26

충북 상수관로
노후 현황

- 2,301km로 충북 내 상수관로 총 연장의 약 26.3%를 차지하고 있음.
- 관로별로는 배수관 및 급수관의 20년 이상 노후 연장이 2,135km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전체	비율(%)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5년 미만	1,495	17.1%	3	18	905	568
5년 이상~10년 미만	2,131	24.3%	0	115	1,427	588
10년 이상~15년 미만	1,870	21.3%	13	128	1,209	519
15년 이상~20년 미만	969	11.1%	19	50	615	286
20년 이상~25년 미만	728	8.3%	33	27	352	317
25년 이상	1,573	17.9%	23	84	613	853
계(km)	8,766	100%	91	422	5,122	3,131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 충북 내 11개 시·군별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는 청주시에 약 888km, 충주시 약 520km, 제천시에 약 208km, 단양군에 약 173km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노후관로 비율은 단양군 약 45.8%, 충주시 약 35.3%, 청주시 약 33.8%, 증평군 약 29.3%, 옥천군 29.2% 등으로 조사됨.

표 4-27

충북 지역별
상수관로 노후
현황

구분	5년 미만(km)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청주시	362	365	690	323	217	671
충주시	321	320	241	72	154	366
제천시	100	288	157	147	128	80
보은군	39	85	30	31	7	7
옥천군	103	144	47	72	74	77
영동군	61	125	61	103	51	61
증평군	25	57	70	46	21	61
진천군	138	230	222	51	33	6
괴산군	62	142	120	34	17	30
음성군	201	293	196	85	18	51
단양군	84	81	35	5	10	163
계	1495	2131	1870	969	728	1573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 관의 재질에 따른 충북 내 20년 이상 노후관로 연장은 PVC관이 약 745km, 주철관이 약 616km, 기타관이 약 427km 등으로 파악됨.

- 아연도강관 및 스테인레스관의 경우 설치연장은 짧으나 사용년수 20년 이상 비율이 각각 약 70.8%, 95.9%로 높게 나타남.
- 그 외 노후관로 비율은 주철관 약 41.2%, 기타관 약 35.7%, PVC관 약 23.3% 등으로 집계됨.

구분	5년 미만(km)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에나멜코팅 도복장강관	151	223	332	154	98	119
엑상에폭시 도복장강관	52	14	3	4	4	5
주철관	38	96	484	260	220	396
덕타일주철관	240	448	117	68	54	91
PVC관	660	869	646	276	153	592
PE관	227	226	73	22	15	41
아연도강관	-	7	-	-	-	17
스테인레스관	0	1	1	1	5	65
기타	126	248	215	183	180	248
계	1,495	2,131	1,870	969	728	1,573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표 4-28

충북 관 재질별
상수관로 노후
현황

- 충북 내 경년관 연장은 2015년 기준 총 1,546km로서 충북 상수관로 연장의 약 17.6%를 차지함.
- 관의 종류별 경년관 연장은 급수관 및 배수관이 각각 890km(약 57.6%), 584km(약 37.8%)로 충북 경년관 연장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충북 내 11개 시·군별 경년관은 청주시 약 562km, 충주시 약 341km, 단양군에 약 163km, 영동군 약 155km 등으로 나타남.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29

충북 지역별
경년관 현황

	계(km)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충청북도	1,546	15	57	584	890
청주시	562	7	29	303	223
충주시	341	1	16	61	263
제천시	21	0	0	0	21
보은군	10	0	0	5	5
옥천군	109	0	0	0	109
영동군	155	0	6	98	52
증평군	72	0	0	3	69
진천군	10	0	0	3	7
괴산군	38	0	0	2	37
음성군	63	0	0	7	56
단양군	163	7	6	102	48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 관의 재질별 경년관 현황은 PVC관이 690km로 충북 경년관 연장의 약 44.6%를 차지하고 있음. 기타관 356km(약 23%), 주철관 299km(약 19.3%)순으로 나타남.
- 배수관 및 급수관의 경우, 주철관과 PVC관의 경년관 연장이 각각 263km, 596km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30

충북 관 재질별
경년관 현황

	계(km)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충청북도	1546	15	57	584	890
에나멜코팅 도복장강관	33	1	13	9	10
엑상에폭시 도복장강관	5	2	1	2	-
주철관	299	5	31	263	0
덕타일주철관	77	7	12	58	0
PVC관	690	-	-	94	596
PE관	51	-	-	8	43
아연도강관	17	-	-	-	17
스테인레스관	17	-	-	-	17
기타	356	0	0	149	207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③ 안전 수준

- 2015년 기준 충북에서 발생한 누수건수는 3,515건³⁸⁾으로 파악되었으며, 누

38) 탐지(미신고) 누수건수를 포함한 건수임.

수 추정량은 1,072,001m³로 집계됨.

- 충북 누수건수는 전국 대비 약 2.5%를 차지하며, 세종시(약 0.1%) 및 대전 (약 1.3%)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누수추정량의 경우 전국 대비 0.8%를 차지하며, 세종, 부산, 서울, 제주도 다음 순으로 파악됨.

	누수건수	누수건수 비율	누수추정량(m ³)	누수추정량 비율
전국	139,692	100%	135,679,888	100%
서울	9,157	6.6%	660,741	0.5%
부산	9,477	6.8%	194,576	0.1%
대구	14,917	10.7%	4,476,217	3.3%
인천	3,767	2.7%	1,623,912	1.2%
광주	5,528	4.0%	1,715,148	1.3%
대전	1,776	1.3%	853,885	0.6%
울산	4,051	2.9%	2,433,688	1.8%
세종	190	0.1%	5,415	0.0%
경기도	12,935	9.3%	25,595,800	18.9%
강원도	7,373	5.3%	21,486,172	15.8%
충청북도	3,515	2.5%	1,072,001	0.8%
충청남도	7,367	5.3%	6,998,225	5.2%
전라북도	8,637	6.2%	6,187,783	4.6%
전라남도	11,721	8.4%	14,216,964	10.5%
경상북도	18,577	13.3%	41,499,770	30.6%
경상남도	14,257	10.2%	5,953,840	4.4%
제주도	6,447	4.6%	705,751	0.5%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표 4-31

전국 누수건수
및 누수추정비율
현황

- 충북 내 지역별 누수건수는 청주시가 1,008건으로 충북 누수건수의 약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성군(약 14.5%), 진천군(약 14.1%), 제천시(약 11.7%), 영동군(11.6%) 순으로 나타남.
- 관의 종류별 누수건수는 급수관이 1,676건, 옥내가 1,319건으로 충북 내 누수건수의 약 85.2%를 차지하고 있음.
- 청주시 급수관의 경우 897건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충북 전체 누수 건수의 약 25.5%로 파악됨.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32

충북 11개
시·군별 누수건수

	누수건수	비율(%)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옥내
충청북도	3,515	100%	3	517	1,676	1,319
청주시	1,003	28.5%	3	103	897	0
충주시	111	3.2%	0	10	78	23
제천시	412	11.7%	0	28	50	334
보은군	247	7.0%	0	27	130	90
옥천군	113	3.2%	0	42	71	0
영동군	406	11.6%	0	2	193	211
증평군	29	0.8%	0	12	17	0
진천군	494	14.1%	0	75	93	326
괴산군	109	3.1%	0	49	60	0
음성군	511	14.5%	0	127	49	335
단양군	80	2.3%	0	42	38	0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 충북 내 관의 재질별 누수건수는 PVC관이 1,67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의 재질별 누수추정량은 PE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덕타일주철관, PVC관 순으로 나타남.

표 4-33

충북 관 재질별
누수건수 및
추정량

구분	누수건수	누수건수 비율(%)	누수추정량(㎥)	누수추정량 비율
강관	229	7.2%	8,001	0.9%
주철관	22	0.7%	3,454	0.4%
덕타일주철관	73	2.3%	225,140	24.9%
PVC관	1,677	53.1%	122,339	13.5%
PE관	572	18.1%	529,882	58.6%
흙관	0	0.0%	0	0.0%
아연도강관	26	0.8%	10,829	1.2%
동관	0	0.0%	0	0.0%
스테인레스	23	0.7%	66	0.0%
기타	539	17.1%	5,121	0.6%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 2015년 기준 충북은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신설 367km, 교체 37km, 철거 13km를 수행함.
- 충북 상수관로 신설을 및 교체율은 각각 약 15%, 1% 수준으로 파악됨.
- 관의 종류별 신설연장은 배수관이 183km로 가장 길었고, 신설율은 급수관이 약 5.4%로 가장 높았음.

	관로신규연장(km)	교체연장(km)	철거연장(km)	신설율(%)	교체율(%)
계	367	37	13	15	1
도수관	3	0	1	3.4	0.0
송수관	11	0	0	2.7	0.0
배수관	183	25	7	3.6	0.5
급수관	170	11	5	5.4	0.4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표 4-34

충북 관별
유지관리 현황

- 충북 내 지역별 상수관로 유지관리 현황은 관로 신규연장의 경우 청주시와 진천군에 각각 83km씩 개설됨. 진천군의 신설율은 약 77%로 파악됨.
- 상수관로 교체는 청주시에 14km, 충주시에 5km 등 수행됨.

	관로신규연장(km)	교체연장(km)	철거연장(km)	신설율(%)	교체율(%)
충청북도	367	37	13	15	1
청주시	83	14	0	21	1
충주시	68	5	0	10	1
제천시	22	2	2	5	0
보은군	6	3	3	6	4
옥천군	18	2	2	7	0
영동군	15	5	0	6	2
증평군	4	1	1	3	1
진천군	83	3	0	77	1
괴산군	11	0	0	5	0
음성군	35	0	0	9	0
단양군	21	2	6	17	2

자료 : 환경부(2016), 2015 상수도 통계

표 4-35

충북 11개
시·군별 유지관리
현황

(2) 하수도

① 일반 현황

- 2015년 기준 충북 공공하수처리인구 보급률과 하수도 설치율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충북 총 인구 1,616,589명 중 하수처리인구는 1,393,315명으로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은 86.2% 수준임. 이는 전국 평균 92.9%보다 6.7% 낮은 수치임.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 하수관로 보급률 83.6%(충북 하수관로 총 계획연장은 7,022km, 총 시설연장은 5,868km)는 전국 평균 79.9%보다 3.7% 높으며, 하수도설치율³⁹⁾은 72.0%로 전국 평균 74.2%에 비해 2.2%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4-36

전국 하수관로
보급률 현황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 인구	총 계획 연장(km)	총시설 연장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	하수관로 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전국	52,672,425	48,925,049	171,803	137,193	92.9	79.9	74.2
서울	10,297,138	10,297,138	10,616	10,616	100.0	100.0	100.0
부산	3,553,768	3,525,027	14,006	8,516	99.2	60.8	60.3
대구	2,513,970	2,470,958	6,455	5,809	98.3	90.0	88.5
인천	2,983,484	2,911,470	5,561	4,928	97.6	88.6	86.5
광주	1,490,654	1,470,212	4,947	4,252	98.6	86.0	84.8
대전	1,535,191	1,495,734	3,646	3,501	97.4	96.0	93.5
울산	1,199,717	1,185,556	5,134	4,129	98.8	80.4	79.5
세종	214,365	191,866	960	900	89.5	93.7	83.9
경기	12,892,271	12,121,446	31,624	25,766	94.0	81.5	76.6
강원	1,564,615	1,346,174	10,375	7,724	86.0	74.4	64.1
충북	1,616,589	1,393,315	7,022	5,868	86.2	83.6	72.0
충남	2,134,232	1,586,723	10,339	7,564	74.3	73.2	54.4
전북	1,895,905	1,628,865	10,513	8,572	85.9	81.5	70.0
전남	1,939,562	1,476,200	13,849	9,786	76.1	70.7	53.8
경북	2,752,591	2,184,059	15,687	12,757	79.3	81.3	64.5
경남	3,447,018	3,054,017	15,329	12,551	88.6	81.9	72.5
제주	641,355	586,289	5,737	3,954	91.4	68.9	63.0

자료 : 환경부(2016), 2015 하수도 통계

- 충북 내 지역별 하수관로 보급률은 청주시의 보급률이 약 91.1%로 가장 높았으며, 옥천군(약 88.6%)과 영동군(약 84.8%) 등이 충북 하수관로 보급률을 상회하고 있었음.
- 하수관로 보급률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진천군의 보급률은 약 66.8%로 충청북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단양군 72.9%, 제천시 75.1%, 괴산군 77.2% 순으로 조사됨.

39) 하수도 설치율 =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 × 하수관로 보급률) ÷ 100

	총 계획 연장(km)	총 시설 연장	하수관로 보급률(%)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충청북도	7,022	5,868	83.6	86.2	72.0
청주시	1,927	1,755	91.1	92.2	78.3
충주시	1,131	933	82.5	92.3	84.0
제천시	823	619	75.1	94.8	89.9
보은군	528	444	84.1	70.9	36.2
옥천군	685	607	88.6	86.2	74.3
영동군	442	375	84.8	67.1	45.0
증평군	294	245	83.4	93.0	86.4
진천군	349	233	66.8	75.3	44.8
괴산군	316	244	77.2	47.9	21.8
음성군	292	242	82.7	51.9	26.9
단양군	237	173	72.9	73.2	51.0

자료 : 환경부(2016), 2015 하수도 통계

표 4-37

충북 11개 시·군
하수관로 보급률

- 충청북도 내 관종별 설치현황은 흙관이 약 22.3%로 가장 많으며, PVC관(약 22.5%), 기타 관종(약 23.1%)도 높은 비율을 차지함.

구분	시설연장(km)	시설연장 비율
총계	5,868	100%
흙관	1,308	22.3%
PC관	61	1.0%
VR관	228	3.9%
PVC관	1,320	22.5%
강화플라스틱복합관	29	0.5%
유리섬유복합관	49	0.8%
PE관	1,061	18.1%
덕타일주철관	135	2.3%
파형강관	64	1.1%
레진콘크리트관	4	0.1%
철근콘크리트관(BOX형)	192	3.3%
합성수지계 기타관종	61	1.0%
기타 관종	1,355	23.1%

자료 : 환경부(2016), 2015 하수도 통계

표 4-38

충북 하수관
재질별 현황

② 노후도

- 충북 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의 연장은 총 1,582km로, 충북 총 하수관로 시설연장의 약 27%를 차지함
- 충북 내 노후 하수관로의 연장은 전국 39.7%보다 약 13% 낮은 수준임.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39

충북 11개
시·군별 하수관로
노후 현황

구분	5년 미만(km)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철거
전국	17,302	32,236	19,237	14,177	54,602	586
충청북도	622	2,027	1,026	624	1,582	12
청주시	174	148	281	332	821	-
충주시	20	806	65	18	23	-
제천시	193	25	57	15	331	3
보은군	46	158	137	80	26	3
옥천군	50	155	226	61	114	-
영동군	15	137	40	-	183	-
증평군	26	177	42	-	-	-
진천군	31	114	37	52	-	-
괴산군	43	142	54	11	-	6
음성군	11	101	74	19	36	-
단양군	12	63	15	36	46	-

자료 : 환경부(2016), 2015 하수도 통계

- 충북 내 관의 재질별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흙관 1,010km, 기타 관종 235km 순으로 나타남.
- PVC관, PE관, 기타 관종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비율이 높음

구분	5년 미만(km)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철거
합계	622	2,027	1,026	624	1,582	12
흙관	11	34	84	169	1,010	-
PC관	0	4	22	29	7	-
VR관	2	22	79	106	20	-
PVC관	317	795	99	33	82	6
강화플라스틱복합관	-	12	14	2	0	-
유리섬유복합관	11	19	13	0	5	-
PE관	216	329	366	89	66	6
덕타일주철관	33	56	30	2	13	-
파형강관	1	14	29	17	2	-
레진콘크리트관	2	2	-	-	-	-
철근콘크리트관 (BOX형)	0	5	27	22	138	-
합성수지계 기타관종	-	26	19	14	3	-
기타 관종	28	709	243	141	235	0

자료 : 환경부(2016), 2015 하수도 통계

표 4-40

충북 관 재질별
하수관로 노후
현황

- 충북의 전체 하수도 시설 중 시트법 1·2종으로 분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37개소이며, 이 중 9개소(24.3%)가 20년 이상된 노후된 시설물임.

구분	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공공 하수처리시설	8	11	9	3	5	1	37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표 4-41

충북 1·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현황

- 충북 1·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C등급 이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⁴⁰⁾
 - 일부 유지보수가 필요한 등급인 B등급은 27개소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음.

구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미실시 시설물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보통	양호	
2종	8	27	-	1	-	36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표 4-42

충북 1·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40)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일운면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는 자료 수집 시점에서 안전진단 등급이 없었음.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3) 침수저감시설

① 일반 현황

- 2015년 기준 충북 우수관리시설은 우수관로 1,586km, 맨홀 83,676개소, 우·오수받이 129,329개소, 우수토실 590개소, 우수토구 66,054개소 등이 있음.
- 도 단위 중 우수관로와 맨홀, 우·오수받이 개소는 제주도 다음으로 환경이 열악함.
- 우수토실의 경우 도 단위 중 제주, 전북, 전남 다음으로 개소가 적음.
- 우수토구는 도 단위 중 개소가 가장 많음.

표 4-43

충북 우수관리
시설 현황

구 분	우수관로(km)	맨홀(개소)	우·오수받이(개소)	우수토실(개소)	우수토구(개소)
전국	38,245	2,508,185	3,810,978	12,349	102,801
서울	392	268,015	475,144	1,518	2,454
부산	2,743	75,507	248,460	662	1,249
대구	1,241	74,378	195,739	556	19
인천	1,428	78,558	167,640	187	0
광주	259	89,080	93,278	261	213
대전	1,068	58,584	43,912	574	243
울산	2,023	55,357	78,420	125	814
세종	392	10,987	8,367	6	289
경기	8,083	710,805	732,495	2,000	3,812
강원	1,966	127,507	207,212	1,180	1,995
충북	1,586	83,676	129,329	590	66,054
충남	2,006	130,146	305,733	1,003	1,010
전북	2,239	145,694	141,246	432	1,057
전남	2,665	139,407	226,475	549	974
경북	4,145	160,785	275,094	601	19,539
경남	3,934	233,445	377,536	2,089	700
제주	1,143	66,254	104,898	16	2,379

자료 : 환경부(2016), 2015 하수도 통계

- 충북 내 집중호우 대비 및 침수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한 우수지 및 배수펌프장은 총 13개소임.
- 배수장⁴¹⁾은 청주시 내 5개소 존재함.
- 배수펌프장⁴²⁾은 충주시 내 6개소, 제천시 1개소, 영동군 1개소 분포함.
- 총 13개의 배수장 및 배수펌프장 중 8개소가 20년 이상 경과됨.
- 20년이 경과된 배수장 및 배수펌프장의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역	시설명	우수지유무	가동개시년	경과연수
청주시	우암배수장	유	1992	26년
	쌍청배수장	유	1993	25년
	동림배수장	유	1998	20년
	장남배수장	유	1999	19년
	석성배수장	유	2001	17년
충주시	봉방배수펌프장	유	1992	26년
	칠금간이배수펌프장	유	1992	26년
	용두배수펌프장	유	1992	26년
	창동배수펌프장	유	2000	18년
	목계배수펌프장	유	2002	16년
	만정배수펌프장	유	2010	8년
제천시	모담배수펌프장	유	2008	10년
영동군	배수펌프장	유	2002	16년

자료 : 환경부(2016), 2015 하수도 통계

표 4-44

충북 우수지 및
배수펌프장 현황

② 노후도 및 안전 수준

- 충북은 지난해 2017년 7월 16일 청주지역 290.1mm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함(△증평 225mm △괴산(청천) 213mm △괴산 173mm △진천 149.5mm △보은(속리산) 127mm △충주(수안보) 109mm △음성 98.5mm △제천 80mm △단양 72mm △보은 62mm 등).
- 충북의 폭우로 인한 피해액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기준 공공시설 415억원, 사유시설 131억6천만 원 등 모두 546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됨⁴³⁾.

41) 배수가 불량하거나 홍수 시 물이 하천이나 강으로 빠지지 못하여 침수되는 지역에 물을 배수하는 시설임.

42)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함.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그림 4-3

충북 홍수 피해
및 복구 현장

- 도로 106개소, 하천 257개소, 상하수도 73개소, 철도 13개소 등 많은 공공 시설이 피해를 입고, 차량 1천 470여대, 공장 184개소, 농작물 3천490ha 등이 침수됨. 약 4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도 발생함.



- 충북 시·군별 복구액 현황은 청주 1천51억원(공공시설 957억·재난지원금 93억7천), 괴산 354억원(공공시설 324억5천·재난지원금 29억5천), 보은 118억원(공공시설 113억9천·재난지원금 4억) 등 1천754억4천만 원 수준으로 집계됨. 시설별 복구액은 2천4억9천여만 원에 달함⁴⁴⁾.
- 홍수로 인한 복구금액은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임.

43) 충북일보, 3주만에 응급복구...완전복구만 남았다, 2017.08.06

44) 충북일보, [창간특집]지난 여름 도내 핏덩이 수마(水魔)... 복구는 '현재 진행형', 2018.02.20

(4) 하천

① 일반 현황

- 충북 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충북 내 국가하천은 5개소로 총 연장은 309.6km 수준이며, 지방하천은 169개소로 총 연장 2,030km 수준임.
 - 충북 하천에 독이 필요한 길이(요개수)는 2053.8km이며, 개수율(%)은 60.3% 수준임.
 - 지역별로는 진천군의 개수율이 49.5%로 가장 낮았으며, 하천수가 적은 증평군의 개수율이 97%로 가장 높았음.

구분	하천등급	하천 개소수 (개)	하천 연장 (km)	하천개수			
				요개수 (km)	기개수 (km)	미개수 (km)	개수율 (%)
충청북도	계	174	2,339.8	2,053.8	1,239.4	814.4	60.3
	국가	5	309.6	124.6	83.7	40.9	67.2
	지방	169	2,030.2	1,929.2	1,155.7	773.5	59.9
청주시		197	662.2	662.20	435.90	226.30	65.8
충주시		351	746.20	1,147.60	674.70	472.90	58.8
제천시		23	280.7	235.1	174.8	60.3	74.4
괴산군		24	243	409.2	344.7	64.5	84.2
단양군		136	491	554	369	185	67
보은군		13	171.23	224.6	190.23	34.37	84.7
영동군		185	619.1	619.1	348.7	270.4	74.6
옥천군		13	194.300	116.500	100.903	15.597	86.6
음성군		18	154	287	230	57	80
증평군		4	26	40	39	1	97
진천군		186	417	596.7	295.4	301.3	49.5

표 4-45

충북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주1 : 요개수란 기개수와 미개수를 합친 길이, 기개수란 이미 개수를 한 길이

주2 : 미개수란 아직 개수를 하지 않은 곳으로 요개수에서 기개수를 제외한 길이

주3 : 개수율은 독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기개수)를 독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요개수)로 나눈 비율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하천현황

- 충북의 소하천은 2,032개소로 집계되며, 중심선 기준 약 3,717km의 연장을 가지고 있음.
 - 양안 기준 정비 완료 구간은 3,498km이며, 향후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1,670km로 집계됨.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46

충북 소하천 현황

- 양안 기준 제방의 신설이 필요한 구간은 1,579km로 집계됨.

구분		소하천수 (개소)	정비 현황(km)				
			합계	정비완료	정비필요	제방신설 필요	보존
충북	중심선 기준	2,032	3,717	1,295	1,654	-	253
	좌우안(양안)		7,307	3,498	1,670	1,579	561

자료 : 충북연구원(2018)

- 2016년 기준 충북 1·2종 하천시설은 1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었으며, 2종 시설이 총 188개소 존재함.
- 2종 시설물로는 국가하천 배수펌프장 25개소, 국가하천 수문 89개소, 제방 및 부속시설 46개소, 지방하천 수문 5개소, 방조제 23개소가 존재함.

표 4-47

충북 하천관련
2종 시설 현황

분류	종류	개소
2종	계	188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5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0
	국가하천의 수문	89
	제방 및 그 부속시설	46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0
	지방하천의 수문	5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23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시특법분류별현황 하천

② 노후도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안전관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충북 내 하천과 관련한 1·2종 시설물은 총 191개소이며, 배수펌프장, 제방, 수문 및 통문으로 구성됨.
- 충북 하천 1·2종 시설물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68개소로 191개 시설물 중 약 35.6%를 차지함.
- 배수펌프장이 15개소, 수문 및 통문이 46개소, 제방이 7개소 존재함.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배수펌프장	0	4	2	9	2	5	8	30
수문 및 통문	2	22	8	35	13	13	20	113
제방	2	27	6	6	4	2	1	48
합계	4	53	16	50	19	20	29	191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표 4-48

충북 하천시설
노후도 현황

③ 안전 수준

- 충북 1·2종 하천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는 A등급 22개소, B등급 118개소, C등급이 17개소, 안전진단 미 실시 시설물 중 34개소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일부 유지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B, C 등급은 전체 시설물의 약 70.7%를 차지함.

구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미 실시 시설물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불량	보통	양호	
2종	22	118	17	-	-	34	191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표 4-49

충북 하천시설
안전수준 현황

(5) 댐

① 일반 현황

- 충북 내 시책법에 해당하는 댐시설 현황은 2016년 기준 37개소로 전국 573개의 약 6.5%를 차지함.
- 1종 댐시설 6개소, 2종 댐시설 31개소가 있으며, 용도별로는 용수전용댐이 34개소 존재함.
- 충북은 2개의 대형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으며, 1개의 발전용댐인 괴산댐을 보유하고 있음.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50

충북 댐 현황

구분	합계	1종					2종		
		소계	다목적댐	발전용댐	용수 전용댐	홍수 전용댐	소계	지방상수도 전용댐	용수 전용댐
전국	573	77	19	21	33	4	496	18	478
충북	37	6	2	1	3	-	31	0	31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시특법분류별현황 댐

② 노후도 및 안전 수준

- 충북 내 다목적댐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으며, 각각 1985년, 1980년에 준공됨. 각각 준공된지 33년, 38년이 경과함. 발전용댐으로는 괴산댐이 있으며, 61년 경과함.
 - 충주댐은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일부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
 - 대청댐과 괴산댐은 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발전용댐인 괴산댐은 준공한지 61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높은 상태임.

표 4-51

충북 다목적댐 및 발전용댐 노후도 및 안전 수준

구분	댐	준공년도	시특법 분류	안전진단
다목적댐	충주댐	1985	1종	C
	대청댐	1980	1종	B
발전용댐	괴산댐	1957	1종	B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 충북 내 1·2종 용수전용댐은 총 34개소가 존재하며, 28개소(약 82.3%)가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임.
 - 34개소 중 40년 이상 된 댐시설은 12개소로 용수전용댐의 약 35.3%를 차지함.

표 4-52

충북 용수전용댐 노후도

구분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35년 미만	35~40년 미만	40년 이상
용수 전용댐 (34)	4	2	0	2	0	6	8	12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 충북 1·2종 댐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B등급 이하 시설물이 35개소로 약 94.6%를 차지함.
- 일부 유지보수가 필요한 등급인 B등급은 20개소로 약 54%를 차지함.
- 일부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15개소로 약 40.5%를 차지함.

구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미 실시 시설물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불량	보통	양호	
1종	-	5	1	-	-	-	6
2종	1	15	14	-	-	1	31
합계	1	20	15	-	-	1	37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표 4-53

충북 댐 시설
안전 수준

(6) 수리시설 (저수지 등)

① 일반 현황

- 충북 수리시설은 2015년 기준 저수지 771개소, 양배수장 454개소, 집수암거 154개소, 취입보 1,891개소로 조사됨.
- 저수지는 2008년 대비 18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양배수장은 6개소 증가함.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저수지	789	788	784	783	782	779	775	771
양배수장	448	448	454	452	448	449	452	454
집수암거	174	168	167	166	157	159	154	154
취입보	1,915	1,916	1,919	1,906	1,896	1,896	1,896	1,891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수리시설 및 방조제 현황

표 4-54

충북 수리시설
현황

② 노후도 및 안전 수준

- 충북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중 20년 이상 된 저수지는 167개소 (90.8%), 양배수장 153개소(63.8%), 집수암거 27개소(96.4%), 취입보 518개소(97.2%)로 노후화된 시설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40년 이상 된 수리시설도 저수지 129개소(70.1%), 양배수장 52개소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4-55

충북 수리시설
노후도

(21.7%), 집수암거 19개소(67.9%), 취입보 385개소(72.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구분 (총개소)	0~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35년 미만	35~40년 이상	40년 이상
저수지 (184)	10	2	5	5	0	17	16	129
양배수장 (240)	30	19	38	37	20	25	19	52
집수암거 (28)	0	0	1	2	0	4	2	19
취입보 (533)	4	3	8	10	11	31	81	385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관리

4. 주거 및 교육시설

(1) 주거시설

① 일반 현황

- 충북 내 주거시설은 568,567호로 전국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음. 단독주택 206,993호, 아파트 316,851호, 연립주택 16,004호, 다세대주택 19,329호,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9,390호로 구성됨.
- 충북 주거시설은 아파트(약 55.7%)와 단독주택(약 36.4%)이 전체의 약 9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다세대주택(약 3.4%), 연립주택(약 2.8%),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1.7%) 순으로 나타남.

구분	총계 (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전국	16,692,230	3,967,776	10,029,644	492,469	2,000,783	201,558
서울	2,830,857	345,269	1,641,383	116,106	699,446	28,653
부산	1,174,034	220,798	750,122	32,073	157,476	13,565
대구	761,054	155,568	532,090	9,433	53,440	10,523
인천	958,072	102,632	588,563	23,268	235,653	7,956
광주	494,547	87,351	384,750	8,353	8,502	5,591
대전	474,193	81,384	343,223	10,156	34,413	5,017
울산	361,273	66,653	256,003	7,575	24,838	6,204
세종	86,607	15,688	67,773	997	1,499	650
경기도	3,814,834	502,993	2,577,259	120,602	581,008	32,972
강원도	575,967	232,164	300,788	21,012	11,321	10,682
충청북도	568,567	206,993	316,851	16,004	19,329	9,390
충청남도	776,746	303,579	402,808	20,962	38,878	10,519
전라북도	692,563	282,433	370,071	15,393	14,321	10,345
전라남도	755,044	402,185	316,137	14,740	10,258	11,724
경상북도	1,009,941	456,724	461,577	29,091	45,793	16,756
경상남도	1,151,057	418,406	654,679	25,523	36,326	16,123
제주도	206,874	86,956	65,567	21,181	28,282	4,888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표 4-56

전국 주택보급
현황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 충북 내 지역별 주거시설 현황은 청주시가 267,024호로 가장 높으며, 충주시, 제천시 순으로 나타남.
 - 충북 내 시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주택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충북 내 군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가 다음 순으로 조사됨.

표 4-57

충북 11개 시·군
주택보급 현황

구분	총계 (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충청북도	568,567	206,993	316,851	16,004	19,329	9,390
청주시	267,024	62,806	189,092	5,265	5,878	3,983
충주시	80,301	29,688	41,652	2,772	4,682	1,507
제천시	52,316	20,464	27,778	1,865	978	1,231
보은군	14,771	11,658	2,271	305	285	252
옥천군	20,738	13,988	4,760	516	1,079	395
영동군	21,088	15,091	4,101	910	677	309
진천군	29,146	10,634	13,747	1,601	2,784	380
괴산군	15,907	13,681	1,224	263	439	300
음성군	39,598	15,784	20,305	1,039	1,985	485
단양군	13,093	9,182	2,295	1,020	286	310
증평군	14,585	4,017	9,626	448	256	238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 충북 주택보급률은 약 110.7%,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인 102.6%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경상북도(약 113.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보급률을 나타냄.
 - 충북 내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진천군과 증평군이 약 118%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음성군, 청주시, 충주시 순으로 높은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구분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전국	19,367,696.0	19,877,092.0	102.6
수도권	9,331,957.0	9,161,393.0	98.2
지방	10,035,739.0	10,715,699.0	106.8
서울	3,784,705.0	3,644,101.0	96.3
부산	1,344,170.0	1,375,534.0	102.3
대구	935,753.0	966,218.0	103.3
인천	1,062,828.0	1,072,862.0	100.9
광주	569,372.0	594,992.0	104.5
대전	590,698.0	600,598.0	101.7
울산	426,027.0	457,026.0	107.3
세종	90,413.0	97,968.0	108.4
경기	4,484,424.0	4,444,430.0	99.1
강원	616,346.0	655,742.0	106.4
충북	617,914.0	684,250.0	110.7
충남	813,730.0	888,935.0	109.2
전북	724,678.0	777,803.0	107.3
전남	727,197.0	805,098.0	110.7
경북	1,076,581.0	1,216,661.0	113.0
경남	1,273,523.0	1,358,444.0	106.7
제주	229,337.0	236,430.0	103.1

표 4-58

전국 주택보급률
현황

주1 : 주택보급률은 국토부 발표, 국토부는 주택수 산정시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가구수를 기준으로 집계

주2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주택총조사의 경우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 내 주택수의 차이가 발생

주3 :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국토교통부 주택수 집계방법 기준)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보급률

구분	가구 수	주택 수	주택보급률(%)
충북	601,856	669,423	111.2
청주시	306,001	341,857	111.7
충주시	83,585	91,922	110
제천시	53,549	58,133	108.6
보은군	13,621	14,860	109.1
옥천군	19,783	20,986	106.1
영동군	20,816	22,006	105.7
증평군	14,040	16,595	118.2
진천군	25,816	30,611	118.6
괴산군	15,611	15,869	101.7
음성군	36,826	43,203	117.3
단양군	12,208	13,381	109.6

표 4-59

충북 11개 시·군
주택보급률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택현황 및 보급률(2015년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수 집계방법 기준)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 충북의 주택소유 형태를 보면,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전국 평균 수준인 55.5%를 다소 상회하는 56.9% 수준임.
- 충북 내 가구 중 266,463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전·월세 임대 거주자임.
- 충북 내 11개 시·군 중 옥천군의 주택 소유율이 65.6%로 가장 높으며, 음성군은 49.0%로 가장 낮았음.

표 4-60

전국 및 충북
주택 소유 및
무주택가구 현황

구분		총 가구 (일반가구)	주택소유 가구	무주택 가구	주택 소유율
전국		19,367,696	10,743,492	8,624,204	55.5%
서울		3,784,705	1,864,059	1,920,646	49.3%
부산		1,344,170	783,542	560,628	58.3%
대구		935,753	537,709	398,044	57.5%
인천		1,062,828	617,040	445,788	58.1%
광주		569,372	324,437	244,935	57.0%
대전		590,698	320,525	270,173	54.3%
울산		426,027	266,518	159,509	62.6%
세종		90,413	47,215	43,198	52.2%
경기		4,484,424	2,466,749	2,017,675	55.0%
강원		616,346	338,824	277,522	55.0%
충북	소계	617,914	351,451	266,463	56.9%
	청주시	314,331	178,937	135,394	56.9%
	충주시	85,152	49,268	35,884	57.9%
	제천시	55,381	31,489	23,892	56.9%
	보은군	13,780	8,421	5,359	61.1%
	옥천군	19,864	13,034	6,830	65.6%
	영동군	20,873	12,398	8,475	59.4%
	진천군	26,817	14,358	12,459	53.5%
	괴산군	16,214	9,551	6,663	58.9%
	음성군	38,634	18,921	19,713	49.0%
	단양군	12,311	7,760	4,551	63.0%
증평군	14,557	7,314	7,243	50.2%	
충남		813,730	456,199	357,531	56.1%
전북		724,678	415,291	309,387	57.3%
전남		727,197	421,262	305,935	57.9%
경북		1,076,581	632,790	443,791	58.8%
경남		1,273,523	773,636	499,887	60.7%
제주		229,337	126,245	103,092	55.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소유통계

② 노후도

- 충북 내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은 총 116,847호로 약 20.5%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노후주거시설 비율(약 16.8%)을 상회함.
- 주거시설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93,797호, 아파트 13,437호, 연립주택 6,512호, 다세대주택 788호,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2,313호가 노후화됨.
- 노후 주택시설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으로 노후 주거시설 중 약 80.3%를 차지함. 아파트의 경우 약 11.5%, 연립주택의 경우 약 5.6%를 차지함.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주택	합계(호)
5년 미만	20,270	39,342	1,417	8,005	1,031	70,065
5년~10년 미만	16,036	49,617	600	1,534	724	68,511
10년~15년 미만	16,664	45,112	685	1,229	986	64,676
15년~20년 미만	18,476	55,826	1,319	511	1,073	77,205
20년~30년 미만	41,750	113,517	5,471	7,262	3,263	171,263
30년~40년 미만	35,312	13,437	6,469	788	1,617	57,623
40년~50년 미만	21,567	-	43	-	417	22,027
50년 이상	36,918	-	-	-	279	37,197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표 4-61

충북 주거시설별
노후 현황

- 충북 내 지역별 노후주거시설 현황은 보은군이 약 48%로 노후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옥천군(약 39.4%), 단양군(약 38.8%), 괴산군(38.3%)순으로 나타남.

	총 주거시설 (호)	주거시설 (30년 이상, 호)	비율 (30년 이상, %)
충청북도	568,567	116,847	20.5%
청주시	267,024	39,191	14.7%
충주시	80,301	17,105	21.3%
제천시	52,316	12,120	23.2%
보은군	14,771	7,096	48.0%
옥천군	20,738	8,175	39.4%
영동군	21,088	7,726	36.6%
진천군	29,146	4,742	16.3%
괴산군	15,907	6,085	38.3%
음성군	39,598	6,981	17.6%
단양군	13,093	5,075	38.8%
증평군	14,585	2,551	17.5%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표 4-62

충북 11개 시·군별
노후 현황

4. 주거 및 교육시설

(2) 도시재생

① 도시재생 개념

- 도시재생 등장 배경은 쇠퇴도시 및 다양한 쇠퇴양상의 등장과 함께 도시계획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쇠퇴도시의 증가 및 다양한 쇠퇴양상 등장 :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 약 67%에 쇠퇴징후가 시작되었고, 도시지역 내 부분적 쇠퇴심화 및 도시 내 지역 간 격차가 심화(구도심, 구시가지 등)됨.
 - 도시계획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변화와 현행제도의 한계,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14년 선도지역 사업, 2015년 일반지역 공모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함.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선도지역 사업 및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지원함.

② 충북 도시재생 선도 및 일반지역 현황

-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전국에 13곳이 지정되었으며, 충북에는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1곳이 선정됨.
 - 경제기반형 사업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시·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임.
 - 근린재생형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목적임.
- 도시재생 일반지역은 선도지역 사업의 초기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2016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33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충북 내 2개 지역이 선정됨.
 - 사업기간은 경제기반형은 2016~21년, 근린재생형은 2016~20년까지이며, 국비보조율은 50%임

[illegible]

충북 도새재생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 현황

Left Legend:

경계기반	서울 노원·도봉구
근린일반	서울 용산구
근린일반	서울 구로구
근린일반	인천 강화군
경계기반	인천 중·동구
경계기반	경기 부천
근린일반	경기 부천
근린일반	경기 성남
근린일반	경기 수원
근린일반	충남 아산
경계기반	대전 중·동구
근린중심	전북 전주
근린일반	전북 남원
근린일반	광주 서구
근린일반	광주 광산구
근린일반	전남 나주
근린일반	전남 고흥

Right Legend:

근린일반	강원 춘천
근린중심	충북 제천
근린중심	충북 충주
근린중심	경북 김천
근린중심	경북 안동
경계기반	대구 서·북구
근린일반	대구 서구
근린중심	울산 중구
근린일반	울산 북구
근린일반	울산 동구
근린중심	경남 김해
근린중심	부산 영도구
근린일반	부산 중구
근린일반	부산 강서구
근린일반	부산 서구
근린중심	제주 제주시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표 4-64

충북 도새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③ 충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 도시재생 뉴딜은 지자체와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을 목표로 함.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함.
- 충북 내에는 4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됨.

구분	사업 유형	대상지	사업명
중앙	중심시가지형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시·도	대상지역
부 산 (1)	● 북 구
인 천 (2)	● 부평구 ▲ 동 구
대 전 (1)	● 대덕구
세 종 (1)	● 조치원읍
경 기 (5)	● 수원시 ▲ 시흥시 ▲ 남양주시 ▲ 광명시 ▲ 안양시
강 원 (1)	● 강릉시
충 북 (1)	● 청주시
충 남 (1)	● 천안시
전 북 (3)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전 남 (2)	● 목포시 ● 순천시
경 북 (3)	● 영천시 ● 포항시 ● 영양군
경 남 (3)	● 사천시 ● 김해시 ▲ 통영시

광역	우리동네 살리기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주거지 지원형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일반 근린형	청주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시·도	대상지역
부 산 (3)	● 동 구 ▲ 사하구 ▲ 영도구
대 구 (3)	● 동 구 ▲ 북 구 ▲ 서 구
인 천 (3)	● 동 구 ▲ 서 구 ▲ 남동구
광 주 (3)	● 남 구 ▲ 광산구 ▲ 서 구
대 전 (3)	● 중 구 ▲ 동 구 ▲ 유성구
울 산 (3)	● 중 구 ▲ 남 구 ▲ 북 구
경 기 (3)	● 고양시 ▲ 안양시 ▲ 고양시
강 원 (3)	● 춘천시 ▲ 태백시 ▲ 동해시
충 북 (3)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충 남 (3)	● 천안시 ▲ 공주시 ▲ 보령시
전 북 (3)	● 전주시 ▲ 완주군 ▲ 군산시
전 남 (3)	● 순천시 ▲ 목포시 ▲ 나주시
경 북 (3)	● 상주시 ▲ 경산시 ▲ 영주시
경 남 (3)	● 밀양시 ▲ 거제시 ▲ 하동군
제 주 (2)	▲ 서귀포시 ▲ 제주 시

(범례1) 선정방식별
 ■ 중앙 선정 ■ 공공기관 재인 ■ 광역지자체 선정
 (범례2) 사업유형별
 □ 경제기반형 ▲ 중심시가지형
 ● 일반근린형 ★ 주거지지원형 ▲ 우리동네살리기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2017.12.14

(3) 교육시설

① 일반 현황

- 충북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총 837개소로 집계됨.
 - 유치원 345개소(41.2%), 초등학교 272개소(32.5%), 중학교 127개소(15.2%), 고등학교 84개소(10%), 특수학교 9개소(1.1%)로 구성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총계	관리주체
개수	345	272	127	84	9	837	충청북도교육청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내부자료(2017.04.01.기준)

표 4-65

충북 교육시설
현황

- 충북 내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322개소로 가장 높았으며, 충주시 115개소, 제천시 80개소 순으로 나타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총계
청주시	141	94	46	37	4	322
충주시	45	39	17	11	3	115
제천시	35	24	13	7	1	80
보은군	16	16	5	4	-	41
옥천군	17	14	5	3	-	39
영동군	16	15	9	5	-	45
증평군	5	4	3	3	-	15
진천군	16	15	6	6	-	43
괴산군	15	14	8	2	-	39
음성군	25	22	10	4	1	62
단양군	14	15	5	2	-	36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내부자료(2017.04.01.기준)

표 4-66

충북 11개 시·군별
교육시설 현황

② 노후도

- 충북 내 20년 이상된 노후화 학교는 674개소로 약 81%를 차지함. 특히, 40년 이상된 노후 교육시설이 390개소로 전체 교육시설의 약 46.6%를 차지함.
 - 교육시설 개수가 많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순으로 노후화 비중이 높았으며, 4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의 경우 청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음.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표 4-67

충북 교육시설 노후 현황

행정 구역명	계	10년 미만 (2009~)	10~20년 미만 (1999~08)	20~30년 미만 (1989~98)	30~40년 미만 (1979~88)	40년 이상 (~1978)
청주시	318	40	62	56	58	102
충주시	112	3	13	11	31	54
제천시	79	3	9	14	19	34
보은군	41	-	-	-	15	26
옥천군	39	2	2	2	11	22
영동군	45	1	-	2	11	31
증평군	15	1	-	-	4	10
진천군	43	5	1	-	10	27
괴산군	39	1	-	-	13	25
음성군	61	6	3	1	14	37
단양군	36	1	1	1	11	22
합계	828	63	91	87	197	390

주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조사 결과, 특수학교는 제외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내부자료(2017.04.01.기준)

- 충북 내 폐교는 총 238개로 자체활용 중인 폐교 16개, 대부 중인 폐교 73개, 미 활용 상태로서 향후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 37개 존재함.

- 매각한 폐교는 총 112개 임.

표 4-68

충북 폐교 현황

지역 교육청	폐교수 (‘82이후~)	현 보 존 폐 교				매 각
		자체활용	대 부	활용추진	계	
청주교육지원청	27	7	6	4	17	10
충주교육지원청	27	2	9	6	17	10
제천교육지원청	38	1	9	3	13	25
보은교육지원청	24	1	13	3	17	7
옥천교육지원청	17	1	4	4	9	8
영동교육지원청	31	1	9	3	13	18
진천교육지원청	10	2	2	3	7	3
괴산증평교육지원청	32	1	9	5	15	17
음성교육지원청	9	0	3	2	5	4
단양교육지원청	23	0	9	4	13	10
합 계	238	16	73	37	126	112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폐교자산 현황 및 활용실태

5. 산업 및 경제시설

(1) 산업단지

① 일반 현황

- 충북 내 산업단지는 총 122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75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 농공산업단지 43개소로 구성됨.
- 충북 내 산업단지 중 87개 산업단지는 완료상태, 23개 산업단지는 조성중, 12개 산업단지는 미개발(보상중 또는 준비중) 상태임.

구분	유형	계		완료	조성중	미개발
		단지 수	지정면적(k㎡)			
충북	국가	2	8,806	1	1	-
	일반	75	68,746	42	21	12
	도시첨단	2	263	1	1	-
	농공	43	6,204	43	-	-
합계		122	81,813	87	23	12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분석 (2018.01기준)

표 4-69

충북 산업단지
현황

- 충북 내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은 음성 및 진천지역이 22개소, 20개소로 가장 많으며, 청주시와 충주시가 각각 18개소로 나타남.

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합계
청주시	1	14	1	2	18
충주시	-	14	-	4	18
제천시	-	3	-	6	9
보은군	1	2	-	3	6
옥천군	-	2	-	6	8
영동군	-	2	-	3	5
증평군	-	3	-	2	5
진천군	-	12	-	8	20
괴산군	-	4	-	3	7
음성군	-	18	1	3	22
단양군	-	1	-	3	4
합계	2	75	2	43	122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분석 (2018.01기준)

표 4-70

충북 11개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

5.

산업 및
경제시설

5.

산업 및 경제시설

② 노후도

- 충북 내 20년 이상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가 4개소, 농공산업단지 33개소로 총 37개소가 존재함.
-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는 완료상태 산업단지 중 약 42.5%를 차지함.
- 10년 후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수는 50개소로 증가하며, 완료된 산업단지의 약 57.5%를 차지할 예정임.

표 4-71

충북 산업단지
노후 현황

구분 (준공인가일 기준)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계
5년 미만 (2014~)	-	17	1	4	22
5~10년 미만 (2009~13)	-	12	-	3	15
10~15년 미만 (2004~08)	1	5	-	1	7
15~20년 미만 (1999~03)	-	4	-	2	6
20~25년 미만 (1994~98)	-	2	-	5	7
25~30년 미만 (1989~93)	-	2	-	13	15
30~35년 미만 (1984~88)	-	-	-	15	15
합계	1	42	1	43	87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분석 (2018.01기준)

- 지역별로는 제천시 5개소, 청주시 및 충주시 각각 4개소, 진천군 5개소 등으로 나타남.

행정 구역명	분류	10년 미만 (2009~)	10~20년 미만 (1999~08)	20~30년 미만 (1989~98)	30~40년 미만 (1979~88)	계
청주시	국가	-	1	-	-	1
	일반	2	3	2	-	7
	농공	-	-	1	1	2
	소계	2	4	3	1	10
충주시	일반	9	-	1	-	10
	농공	1	-	1	2	4
	소계	10	-	2	2	14
제천시	일반	1	1	-	-	2
	농공	1	-	4	1	6
	소계	2	1	4	1	8
보은군	일반	1	-	-	-	1
	농공	-	-	3	-	3
	소계	1	-	3	-	4
옥천군	일반	1	-	-	-	1
	농공	1	1	3	1	6
	소계	2	1	3	1	7
영동군	농공	-	-	1	2	3
증평군	일반	1	-	-	-	1
	농공	2	-	-	1	3
	소계	3	-	-	1	4
진천군	일반	7	1	-	-	8
	농공	1	2	1	4	8
	소계	8	3	1	4	16
괴산군	일반	1	-	-	-	1
	농공	1	-	1	1	3
	소계	2	-	1	1	4
음성군	일반	4	4	1	-	9
	도시 첨단	1	-	-	-	1
	농공	-	-	1	2	3
	소계	5	4	2	2	13
단양군	일반	1	-	-	-	1
	농공	1	-	2	-	3
	소계	2	-	2	-	4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분석 (2018.01기준)

표 4-72

충북 11개 시·군별
노후 산업단지
현황

5. 산업 및 경제시설

5.

산업 및 경제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① 일반 현황

-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총 78개소로 구성됨. 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62개소, 미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16개소로 집계됨.
- 청주시와 충주시가 각각 19개,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증평군이 1개로 가장 적었음.

표 4-73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구분	유형	계	인정여부		개설주기		
			인정	미인정	상설	정기	병행
충북	청주시	19	16	3	13	-	6
	충주시	16	13	3	9	3	4
	제천시	9	7	2	5	-	4
	보은군	5	5	-	0	-	5
	옥천군	3	2	1	1	1	1
	영동군	6	2	4	-	4	2
	증평군	1	1	0	-	-	1
	진천군	5	2	3	-	3	2
	괴산군	4	4	-	-	1	3
	음성군	5	5	-	-	3	2
	단양군	5	5	-	2	-	3
	합계	78	62	16	30	15	33

자료 : 충청북도청 경제정책과 (2018.01.01. 기준)

- 2012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수행한 충북 내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은 평균 56.3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A, B, C 등급(경쟁력이 보통 이상)은 55개소로 약 84.6%를 차지하였고, D 등급(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수준)은 10개소로 약 15.4%를 차지함,

구분	시장수	A수준	B수준	C수준	D수준	E수준	평균 점수
전국	1,511	89	340	563	415	104	49.3
서울	217	17	42	71	75	12	48.9
부산	154	4	31	68	45	6	48.5
대구	107	7	26	51	23	-	51.3
인천	51	4	18	16	11	2	51.9
광주	21	1	6	9	5	-	52.3
대전	30	4	12	12	1	1	55.3
울산	40	-	10	17	9	4	48.1
경기	144	14	40	59	24	7	52.1
강원	73	4	21	21	18	9	49.0
충북	65	14	23	18	10	-	56.3
충남	73	4	19	27	18	5	50.1
전북	67	2	15	25	23	2	49.1
전남	116	1	15	34	37	29	43.6
경북	171	6	29	56	62	18	46.7
경남	157	4	25	71	48	9	47.8
제주	25	3	8	8	6	-	53.5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2012)

표 4-74

충북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② 노후도

-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20년 이상 노후 현황은 총 74개소로 전체의 약 94.9%를 차지함. 청주시가 1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에 15개소, 제천시
에 7개소 순으로 나타남.

행정 구역명	계	10년 미만 (2009~)	10~20년 미만 (1999~08)	20~30년 미만 (1989~98)	30~40년 미만 (1979~88)	40년 이상 (~1978)
청주시	19	-	-	6	5	8
충주시	16	-	1	5	4	6
제천시	9	1	1	1	3	3
보은군	5	-	-	-	1	4
옥천군	3	-	-	-	-	3
영동군	6	-	-	-	-	6
증평군	1	-	-	-	-	1
진천군	5	1	-	-	-	4
괴산군	4	-	-	-	-	4
음성군	5	-	-	-	-	5
단양군	5	-	-	2	2	1
합계	78	2(2.6%)	2(2.6%)	14(17.9%)	15(2.6%)	45(57.7%)

자료 : 충청북도청 경제정책과 (2018.01.01. 기준)

표 4-75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 현황

5.

산업 및
경제시설

6.

기타시설

6. 기타시설

(1) 문화시설

① 일반 현황

- 문화시설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의미함. 충북 내 문화시설 총 수는 126개로 제주도(125개소)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공공도서관 44개소, 박물관 44개소, 미술관 8개소, 문예회관 12개소, 지방문화원 11개소, 문화의 집 7개소가 존재함.

표 4-76

충북 문화시설
현황

시군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전국	2,657	1	1,010	853	229	236	228	100
서울	365	1	147	128	39	20	25	5
부산	97	0	40	26	6	11	14	0
대구	73	0	35	15	4	11	8	0
인천	96	0	47	27	4	9	8	1
광주	57	0	22	10	9	7	5	4
대전	57	0	24	16	5	4	5	3
울산	40	0	17	9	0	5	5	4
세종	13	0	5	6	0	1	1	0
경기	504	0	244	133	52	35	31	9
강원	211	0	54	102	11	20	18	6
충북	126	0	44	44	8	12	11	7
충남	158	0	59	50	9	18	16	6
전북	156	0	58	42	15	15	14	12
전남	191	0	64	55	27	19	22	4
경북	195	0	64	66	11	25	23	6
경남	193	0	65	63	9	21	20	15
제주	125	0	21	61	20	3	2	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충북 인구를 고려한 문화시설 공급수준은 백만 명당 78.58개소로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나, 도 단위에서는 제주, 강원, 전남, 전북보다 낮음.

구분	인구수	문화 시설 계 (백만명당)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총계	51,269,554	51.82	19.70	16.64	4.47	4.60	4.45	1.95
서울	9,805,506	37.22	14.99	13.05	3.98	2.04	2.55	0.51
부산	3,440,484	28.19	11.63	7.56	1.74	3.20	4.07	-
대구	2,461,002	29.66	14.22	6.10	1.63	4.47	3.25	-
인천	2,913,024	32.96	16.13	9.27	1.37	3.09	2.75	0.34
광주	1,501,557	37.96	14.65	6.66	5.99	4.66	3.33	2.66
대전	1,535,445	37.12	15.63	10.42	3.26	2.61	3.26	1.95
울산	1,166,033	34.30	14.58	7.72	-	4.29	4.29	3.43
세종	242,507	53.61	20.62	24.74	-	4.12	4.12	-
경기	12,671,956	39.77	19.26	10.50	4.10	2.76	2.45	0.71
강원	1,521,751	138.66	35.49	67.03	7.23	13.14	11.83	3.94
충북	1,603,404	78.58	27.44	27.44	4.99	7.48	6.86	4.37
충남	2,132,566	74.09	27.67	23.45	4.22	8.44	7.50	2.81
전북	1,833,168	85.10	31.64	22.91	8.18	8.18	7.64	6.55
전남	1,796,017	106.35	35.63	30.62	15.03	10.58	12.25	2.23
경북	2,682,169	72.70	23.86	24.61	4.10	9.32	8.58	2.24
경남	3,339,633	57.79	19.46	18.86	2.69	6.29	5.99	4.49
제주	623,332	200.54	33.69	97.86	32.09	4.81	3.21	28.8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충북 내 지역별 문화시설 현황은 청주시가 44개소로 가장 많으며, 충주시(15개소)와 제천시(13개소) 순으로 나타남. 미술관의 경우 충청북도 내 총 8개소 중 청주시에 7개소가 위치하여, 나머지 시·군에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시군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립	사립	대학	계	국립	사립	대학			
충북	126	44	29	15	0	44	27	11	6	8	3	5	0	12	11	7
청주시	41	15	12	3	0	14	7	3	4	7	2	5	0	2	1	2
충주시	15	5	3	2	0	8	6	1	1	0	0	0	0	1	1	0
제천시	13	6	5	1	0	4	3	1	0	0	0	0	0	1	1	1
보은군	5	1	0	1	0	2	2	0	0	0	0	0	0	1	1	0
옥천군	6	2	1	1	0	2	1	1	0	0	0	0	0	1	1	0
영동군	9	2	1	1	0	4	2	2	0	0	0	0	0	1	1	1
증평군	6	2	1	1	0	1	1	0	0	0	0	0	0	1	1	1
진천군	8	3	2	1	0	1	1	0	0	1	1	0	0	1	1	1
괴산군	6	1	0	1	0	3	2	0	1	0	0	0	0	1	1	0
음성군	9	4	2	2	0	3	1	2	0	0	0	0	0	1	1	0
단양군	8	3	2	1	0	2	1	1	0	0	0	0	0	1	1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표 4-77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현황

표 4-78

충북 11개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6.

기타시설

6.

기타시설

② 노후도

- 충북 내 126개의 문화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문화시설 수는 56개소로 약 44.4%로 집계됨.
- 10년 경과 시 충북 내 노후 문화시설 비율은 약 77.8%로 급증 예정임.

표 4-79

충북 문화시설
노후 현황

구분		10년 미만 (2009~)	10~20년 미만 (1999~08)	20~30년 미만 (1989~98)	30~40년 미만 (1979~88)	40년 이상 (~1978)
문화 시설	도서관	17	7	9	7	4
	박물관	8	21	6	5	4
	미술관	3	5	-	-	-
	문예회관	-	3	4	5	-
	지방문화원	-	-	1	-	10
	문화의집	-	6	1	-	-
합계		28	42	21	17	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현재 40년 이상 노후 문화시설 수는 18개소(지방문화원 10개소, 도서관 4개소, 박물관 4개)로 약 14%를 차지함.

표 4-80

충북 주요 노후
문화시설

구분	지역	시설명	준공년도
도서관	충주시	충주시립도서관	1954
	괴산군	괴산도서관	1971
	영동군	영동도서관	1972
	보은군	보은도서관	1973
박물관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	1964
	청주시	청주대학교 박물관	1967
	청주시	충북대학교 박물관	1970
	충주시	충렬사 유물전시관	1978
지방문화원	진천군	진천문화원	1956
	청주시	청주문화원	1957
	제천시	제천문화원	1958
	음성군	음성문화원	1958
	괴산군	괴산문화원	1962
	보은군	보은문화원	1964
	충주시	충주문화원	1965
	영동군	영동문화원	1965
	옥천군	옥천문화원	1967
	단양군	단양문화원	1971

주1 : 미술관의 경우 개관연월일 기준

주2 : 지방문화원의 경우 설립일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 체육시설

① 일반 현황

-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마을체육시설 등 22가지 항목으로 분류됨. 전국에는 총 24,30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존재하며, 충북 내 1,684개소(전국 대비 약 6.9%)가 존재함.
- 충북 내 간이체육시설(마을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288개소 존재함.
- 광역시·도 중 일곱 번째, 도 단위에서는 여섯 번째로 비교적 공급이 적은 수준임.

구분	개소	체육시설 (백만명당)	면적(m ²)
총계	24,303	474.0	163,932,737
서울	2,859	291.6	13,055,604
부산	1,250	363.3	5,086,278
대구	782	317.8	3,914,351
인천	1,020	350.2	7,688,518
광주	751	500.1	2,199,285
대전	488	317.8	2,187,372
울산	278	238.4	2,900,496
세종	98	404.1	434,978
경기	3,941	311.0	42,550,722
강원	2,158	1418.1	12,087,538
충북	1,684	1050.3	7,433,470
충남	1,142	535.5	7,633,484
전북	1,138	620.8	11,160,269
전남	1,813	1009.5	16,665,794
경북	2,402	895.5	9,814,394
경남	2,170	649.8	16,227,342
제주	329	527.8	2,892,84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표 4-81

충북 공공체육시설
현황

- 충북 내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한 11개 시·군별 체육시설 현황은 청주시 40개소(약 13.9%), 충주시 및 제천시 각각 33개소(약 11.5%), 옥천군 30개소 순이며, 인구수를 고려하여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음.

6.

기타시설

6.

기타시설

표 4-82

충북 11개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및
노후 현황

	계	5년 미만(km)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충청북도	288	30	110	86	24	14	24
청주시	40	1	14	11	1	4	9
충주시	33	3	14	11	2	1	2
제천시	33	2	12	13	1	2	3
보은군	20	-	9	11	-	-	-
옥천군	30	7	14	6	1	1	1
영동군	25	5	10	6	2	2	-
증평군	13	2	4	1	1	1	4
진천군	27	3	13	7	3	-	1
괴산군	16	1	7	5	2	1	-
음성군	25	4	8	6	3	1	3
단양군	26	2	5	9	8	1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② 노후도

- 충북 내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체육시설은 총 38개소로 약 13.2%가 존재함.
- 노후 체육시설의 경우 청주시가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제천시 및 증평군 각각 5개소, 음성군 4개소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30년 이상 노후화된 체육시설도 8개소 존재함.
- 20년 이상 주요 노후 체육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시군구	시설명	소유기관	관리주체	준공연도
충주시	충주종합운동장	충주시	충주시	1968
청주시	청주체육관	청주시	체육시설관리과	1974
청주시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시	체육시설관리과	1979
청주시	청주야구장	청주시	체육시설관리과	1979
청주시	남궁유도회관	청주시	충청북도유도회	1979
단양군	단양공설운동장	단양군	단양군	1988
제천시	제천종합운동장	제천시	제천시	1988
증평군	증평 체육관	증평군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1988
옥천군	옥천공설운동장	옥천군	옥천군	1990
음성군	음성종합운동장	음성군	음성군	1990
음성군	음성 수영장	음성군	음성군	1990
음성군	음성 사이클경기장	음성군	음성군	1990
청주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청주시	청주시설관리공단	1990
청주시	청주 실내수영장	청주시	청주시설관리공단	1990
청주시	청주 롤러스케이트장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1990
청주시	청주종합사격장	청주시	청주시설관리공단	1990
청주시	우암정	청주시	청주시궁도협회	1990
진천군	도산정	진천군	궁도협회	1991
제천시	제천정구장	제천시	정구연맹	1992
증평군	증평 테니스장	증평군	증평군	1992
증평군	롤러스케이트장	증평군	증평군	1992
증평군	삼보정	증평군	증평군	1992
충주시	충주 체육관	충주시	충주시	1992
제천시	청풍공설운동장	제천시	제천시	1993
청주시	김수녕양궁장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1994
제천시	제천 체육관	제천시	제천시	1995
청주시	충북체육회관 체육관	충청북도	충청북도체육회	1995
충주시	탄금사정	충주시	궁도협회	1995
괴산군	사호정	괴산군	괴산군	1996
단양군	농민문화체육센터	단양군	단양군	1996
음성군	가섭정	음성군	음성군	1996
제천시	의림정	제천시	궁도협회	1997
청주시	내수공설운동장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1997
영동군	영동군민운동장	영동군	영동군	1998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영동군	영동군	1998
옥천군	옥천읍 테니스장	옥천군	옥천군	1998
증평군	증평시민공원 잔디구장	증평군	증평군	1998
청주시	내수국궁장 (약수정)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199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표 4-83

충북 주요 노후
체육시설

6.

기타시설

6.

기타시설

③ 안전 수준

- 충북 내 시특법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총 17개소이며, 대부분 2종 시설물에 속함.
- 17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B등급 7개소, C등급 2개소, 양호 7개소, 보통 1개소로 진단·평가됨.

표 4-84

충북 시특법
해당 체육시설
안전진단 결과

시설물명	준공연도	종별	등급
호암제2체육관	2012	2종	양호
호암체육관	2005	2종	B등급
충주체육관	1992	2종	C등급
청주야구장	1979	2종	B등급
청주체육관	1974	2종	B등급
종합경기장	1979	2종	C등급
청주정구장	2012	2종	양호
청주수영장	1990	2종	B등급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90	2종	B등급
충북스포츠센터	2004	2종	양호
대한체육회 실내테니스장 및 정구장	2011	2종	양호
대한체육회 수영센터	2011	2종	양호
대한체육회 다목적체육관, 선수교육회관	2011	2종	양호
대한체육회 실내사격장	2011	2종	보통
제천체육관	1995	2종	B등급
옥천체육센터	2004	2종	B등급
보은군국민체육센터	2006	2종	양호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 현황(2017년 10월 19일 기준)

7. 시사점

(1) 교통시설

① 도로

- 충북의 국토면적당 도로연장(km/km²)은 0.93으로 전국 1.08보다 낮으며, 도 단위 비교에서는 다섯 번 째 수준임.
- 충북의 포장률은 91.2%로 전국 평균 92.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충북 내 미포장도로 연장은 약 558km, 미개통도 연장은 약 519km로 집계됨.
 - 지방도, 시도, 군도의 미포장 및 미개통도 중 시·군도의 미포장도 및 미개통도 비율이 높은 실정임.
- 지역별 주요 현황은 옥천군 군도의 포장률(52.4%)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미개통률은 충주시(26%)가 가장 높음.
 - 청주시의 경우 지방도 포장률 약 88.8%, 미개통률 약 9.8%, 군도 포장률 약 63.6%, 미개통률 11.5%로 나타남.
 - 충주시의 경우 시도 포장률 약 73.4%, 미개통률 약 26%, 군도 포장률 약 62.7%, 미개통률 12.7%로 나타남.
 - 제천시의 경우 지방도 포장률 약 87.2%, 시도 포장률 약 77.2%, 미개통률 약 22.8%, 군도 포장률 약 64.4%, 미개통률 약 34.5%로 나타남.
 - 보은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59.8%, 미개통률 약 17.4%로 나타남.
 - 옥천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52.4%, 미개통률 약 8.3%로 나타남.
 - 영동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62.7%, 미개통률 약 14.6%로 나타남.
 - 증평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7.5%, 미개통률 약 20.0%로 나타남.
 - 진천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8.4%로 나타남.
 - 괴산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0.6%, 미개통률 약 2.8%로 나타남.
 - 음성군의 경우 군도 미개통률이 약 3.4%로 나타남.
 - 단양군의 경우 군도 포장률 약 79.2%, 미개통률 약 1.0%로 나타남.
- 충북에서 관리 중인 국도 중 10년을 초과한 도로는 630km로 약 63.8%를 차지하고 있음.

7. 시사점

② 도로 교량

- 충북 내 사용년수 20년 이상 도로교량은 1,037개소로 약 40.4%를 차지함.
 - 10년 경과 시 충북 내 노후 도로교량은 2,068개소로 급증하며, 약 81%를 차지하게 됨.
 - 40년 이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도로교량은 총 126개소가 존재함.
- 충북 내 ‘시특법’ 상 B등급 이하 교량은 총 668개소(B등급 594개소, C등급 74개소) 존재함.
- 충북 내 재난관리법 상의 D등급 이하 교량은 6개소로 파악됨.
 - 충북 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B, C등급에 해당하는 도로교량은 629개소(B등급 528개소, C등급 101개소)임.

③ 철도 및 공항

- 충북 내 철도 노선은 경부고속선, 경부선,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이 지남.
 - 충북 내륙지역을 경유하는 수도권 연계노선이 부족한 실정임.
- 충북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청주공항 1개소이며,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수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아직 미약함.
 -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도로 및 철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2) 물관리시설

① 상수도

- 충북 급수보급률은 97.9%로 전국 98.8%보다 낮은 수준임.
 - 충북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92.6%로 전국 평균 97.3%에 비해 약 4.7% 낮으며,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90.2%로 전국 평균 96.5%에 비해 약 6.3% 낮음.

- 충북 내 상수관로별 노후도를 살펴보면, 사용년수 20년 이상 관로는 약 2,301km로 충북 내 상수관로 총 연장의 약 26.3%를 차지하고 있음.
 - 관로별로는 배수관 및 급수관의 20년 이상 노후 연장이 2,135km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충북 내 11개 시·군별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로는 청주시에 약 888km, 충주시 약 520km, 제천시에 약 208km, 단양군에 약 173km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노후관로 비율은 단양군 약 45.6%, 충주시 약 35.3%, 청주시 약 33.8%, 증평군 약 29.3%, 옥천군 29.2% 등으로 조사됨.
- 충북 내 경년관 연장은 2015년 기준 총 1,546km로서 충북 상수관로 연장의 약 17.6%를 차지함.
 - 관의 종류별 경년관 연장은 급수관 및 배수관이 각각 800km(약 57.6%), 584km(약 37.8%)로 충북 경년관 연장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충북 내 11개 시·군별 경년관은 청주시 약 562km, 충주시 약 341km, 단양군에 약 163km, 영동군 약 155km 등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충북에서 발생한 누수건수는 3,51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누수 추정량은 1,072,001m³로 집계됨.
 - 충북 내 지역별 누수건수는 청주시가 1,008건으로 약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성군(약 14.5%), 영동군(약 14.1%), 제천시(약 11.1%) 순으로 나타남.
 - 청주시 급수관의 경우 897건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충북 전체 누수 건수의 약 25.5%로 파악됨.

② 하수도

- 충북 하수관로 총 계획연장은 7,022km, 총 시설연장은 5,868km로 하수관로 보급률은 약 83.6%를 나타냄.
 - 진천군의 하수관로 보급률은 약 66.8%로 충청북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충북 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의 연장은 총 1,582km로, 충북 총 하수관

7.

시사점

로 시설연장의 약 26.9%를 차지함.

-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매설 수준은 청주시(821km), 제천시(331km) 순으로 파악됨.

③ 침수저감시설

- 도 단위 중 우수관로와 맨홀, 우·오수받이 개소는 제주도 다음으로 환경이 열악함. 우수토실의 경우 도 단위 중 제주, 전북, 전남 다음으로 개소가 적으며, 우수토구는 도 단위 중 개소가 가장 많음.
- 충북 내 집중호우 대비 및 침수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한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은 총 13개소임.
 - 충북 내 총 13개의 배수장 및 배수펌프장 중 8개소가 20년 이상 경과됨.

④ 하천

- 충북 국가 및 지방 하천의 독이 필요한 길이(요개수)는 2053.8km이며, 개수율(%)은 60.3% 수준임.
 - 지역별로는 진천군의 개수율이 49.5%로 가장 낮았으며, 하천수가 적은 증평군의 개수율이 97%로 가장 높았음.
- 충북 하천 1·2종 시설물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68개소로 191개 시설물 중 약 35.6%를 차지함.
 - 배수펌프장이 15개소, 수문 및 통문이 46개소, 제방이 7개소 존재함.
- 충북 1·2종 하천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일부 유지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B, C 등급은 전체 시설물의 약 70.7%(135개소)를 차지함.

⑤ 댐

- 충북 내 다목적댐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으며, 각각 1985년, 1980년에 준공됨. 각각 준공된지 33년, 38년이 경과함. 발전용댐으로는 괴산댐이 있으

며, 61년이 경과함.

- 충주댐은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일부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대청댐과 괴산댐은 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 충북 내 1·2종 용수전용댐은 총 34개소가 존재하며, 28개소(약 82.3%)가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임.

- 34개소 중 40년 이상 된 주요 노후 댐시설은 12개소로 용수전용댐의 약 35.3%를 차지함.

- 충북 1·2종 댐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일부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B등급 이하 시설물이 35개소로 약 94.5%를 차지함.

- 일부 유지보수가 필요한 등급인 B등급은 20개소로 약 54%를 차지하며, 일부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15개소로 약 40.5%를 차지함.

⑥ 수리시설

- 충북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중 20년 이상 된 저수지는 167개소(90.8%), 양배수장 153개소(63.8%), 집수암거 27개소(96.4%), 취입보 518개소(97.2%)로 노후화된 시설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40년 이상 된 수리시설도 저수지 129개소(70.1%), 양배수장 52개소(21.7%), 집수암거 19개소(67.9%), 취입보 385개소(72.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3) 주거 및 교육시설

① 주거시설

- 충북 내 주거시설은 568,567호로 전국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음. 단독주택 206,993호, 아파트 316,851호, 연립주택 16,004호, 다세대주택 19,329호,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9,390호로 구성됨.

- 충북 내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은 총 116,847호로 약 20.5%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노후 주거시설 비율(약 16.8%)을 상회함.

7.

시사점

② 도새재생

- 충북 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선도지역 1곳, 2016년 일반지역 2곳,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4곳이 선정됨.
- 선도지역 사업은 201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일반지역 사업의 경우 근린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될 예정임.
-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4개 지역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0~22년 사이 수행을 완료할 계획임.

③ 교육시설

- 충북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총 837개소이며, 20년 이상된 노후화 학교는 674개소로 약 81%를 차지함.
- 교육시설 개수가 많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순으로 노후화 비중이 높았으며, 40년 이상 노후 교육시설의 경우 청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음.
- 충북 내 폐교는 총 238개로 자체활용 중인 폐교 16개, 대부 중인 폐교 73개, 미 활용 상태로서 향후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 37개 존재함.
- 매각한 폐교는 총 112개소 임.

(4) 산업 및 경제시설

① 산업단지

- 충북 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75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 농공산업단지 43개소로 총 122개가 있음.
- 충북 내 23개 산업단지는 조성중(국가사업단지 1개소, 일반사업단지 21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12개 산업단지는 미개발(보상중 또는 준비중, 일반산업단지 12개소) 상태임.
- 지역별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 각각 22개소, 20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청주시와 충주시에 각 18개소가 존재함.
- 완료된 산업단지 87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수는 총 37개소(43%)

로, 일반산업단지가 4개소, 농공산업단지 33개소 존재함.

② 전통시장

-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총 78개소가 존재함.
 - 2012년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에서 충북은 평균 56.3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D등급(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수준) 이하 전통시장이 10개 존재함.
 - D등급 이하 시장에 대해서는 특성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충북 내 20년 이상된 노후 전통시장은 74개소(94.9%)로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해당되며, 지역적으로는 청주시와 충주시에 각각 19개, 15개소 존재함.
 - 40년 이상 지나 노후도가 심각한 전통시장 수는 45개소로 충북 전체 전통시장의 57.7%에 육박함.
 - 전통시장 현대화 및 노후도 개선사업이 필요함.

(5) 기타시설

① 문화시설

- 충북 인구를 고려한 문화시설 공급수준은 백만 명당 78.58개소로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나, 도 단위에서는 제주, 강원, 전남, 전북보다 낮음.
- 충북 내 문화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문화시설 수는 56개소(44.4%) 존재함.
 - 10년 경과 시 노후 문화시설 비율은 약 77.8%로 급증함.

② 체육시설

- 충북 내 공공체육시설은 1,684개소로 전국 대비 약 6.9%를 차지함.
 - 도 단위 중 여섯 번째로 비교적 공급이 적은 수준임.
 - 충북 내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 288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체육시설은 총 38개소로 약 13.2%를 차지함.

제5장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일반 현황

① 충북 도정 운영 방향

-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충북의 2017년도 주요 도정 운영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⁴⁵⁾.
 - 중부고속도로 확장(서청주~증평간)을 통한 숙원 SOC 사업 수행
 - 충북 인구 163만명 달성('17.10.)
 - 사상 최대 투자 유치(40조원) 및 전국대비 충북 경제 비중 3.54%(2016년) 달성
 - 2018년 정부예산 5조 1,434억원(전년대비 6% 증가), 도예산 4조원 1,810억원(전년대비 8.1% 증가)
 - 2017.7.16. 집중호우 개선복구비(2,005억원) 투입 등 총력 복구
- 충북의 향후 주요 업무 계획 중 인프라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현 정부의 공약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함.
 - (경제) 전국대비 충북경제 비중 3.77%, 경제성장률 6.27% 달성
 - 도로, 철도, 물관리, 공항 등의 시설물에 대한 주요 계획은 아래와 같음.

1.

일반 현황

45) 충청북도청, 2018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2018

1.

일반 현황

표 5-1

충북 주요
도정운영계획 및
방향

구분	세부 내용
신성장	교통축 도로망 확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4축(세종~청주), 동서5축 (옥산~오창), 동서6축(제천~영월),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경부(동이~옥천) 확장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 및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내수~미원~보은~옥천·영동) 추진 * 미계획구간 미원우회도로(미원리~쌍이리) 본격 추진 • 세종시 연결도로 건설 :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오송~조치원, 오송역~청주공항 BRT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중북부 수계 광역화 사업(청주,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충주, 영동, 단양)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반영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 및 중앙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 - 충북선 고속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대전~옥천간 광역철도연장
고부가가치	충북 힐링 관광 조성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부권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경제권 선도공항 지정, 글로벌 항공전문인력양성센터 설립(국토부 협의) - 주기장 확장(14개소), 계류장 신설(1개소), 청주공항~세종간 간선도로망 확충
스포츠	기반 조성 및 체육행사 성공개최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센터 건립(3개소), 청주 실내빙상장 및 인공암벽장 •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 조성(청주, 증평, 진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난 예방
재난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6재해복구사업 추진(1,306개소) • 라이프라인(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최우선 응급복구 •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15지구,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② 충북 인프라 투자 현황 및 계획

- 충북의 2008~17년 사이 세출을 살펴보면, 전국 지방재정 대비 약 3.9~4.1% 수준으로 파악됨⁴⁶⁾.
- 지난 10년간 세출의 전국 지방재정 평균 증가율은 약 5.5% 수준이며, 충북은 5.6%로 비슷한 수준임.
- 2016~17년 충북의 증가율은 전국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함.

46) 지방재정 365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국 세출	전국 증가율	충북세출	충북 비율	충북 증가율
2017	259,432,432	3.8%	10,030,985	3.9%	2.3%
2016	250,014,905	6.9%	9,808,174	3.9%	3.3%
2015	233,951,652	6.2%	9,496,813	4.1%	4.9%
2014	220,335,925	5.5%	9,051,661	4.1%	8.0%
2013	208,888,572	5.0%	8,383,027	4.0%	6.9%
2012	198,911,842	7.2%	7,840,029	3.9%	3.1%
2011	185,466,977	1.2%	7,604,636	4.1%	4.8%
2010	183,226,045	2.9%	7,254,585	4.0%	7.8%
2009	178,102,665	10.5%	6,726,664	3.8%	9.5%
2008	161,202,128		6,141,093	3.8%	

표 5-2

지방자치단체 및
충북지역 세출
예산 현황

- 2017년 충북의 1인당 SOC예산은 71.8만원으로 16개 시·도 평균 72.5만원을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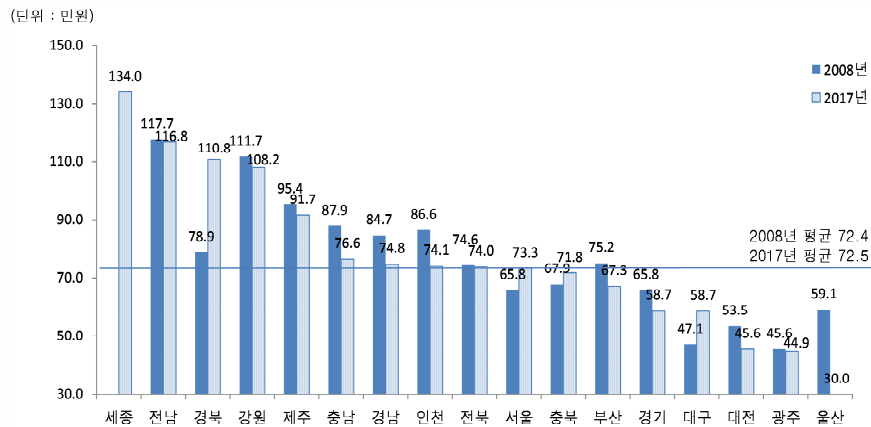


그림 5-1

전국 1인당
SOC 예산 현황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세출예산 중 SOC 분야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으로 볼 수 있음
- 수송 및 교통 예산은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5개의 세부항목,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1.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 충북 세출 및 SOC 관련 세출 현황(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을 살펴보면, 2008년 약 1조 239억원에서 2017년 1조 1,518억원으로 다소 증가함.
 - 충북 SOC 관련 세출은 2008~17년 동안 금액적 측면에서 연평균 약 3.6% 증가함.
 - 그러나 충북 SOC 관련 세출 비율((충북 세출 총액 대비, %)은 2008년 충북 전체 세출의 약 16.7%에서 2017년 11.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함.
 - 수송 및 교통 : 2008년 5,386억원(8.8%)→2017년 5,043억원(5.0%)
 - 국토 및 지역개발 : 2008년 4,853억원(7.9%)→2017년 6,475억원(6.5%)
- 한편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세출 금액은 2008년 1조 2,930억원에서 2017년 2조 8,797억원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냄.
 - 충북 사회복지 세출은 2008~17년 동안 금액적 측면에서 연평균 약 9.5% 증가함.
 - 충북 사회복지 세출 비율(충북 세출 총액 대비, %)을 살펴보면, 2008년 약 21.1%에서 2017년 약 28.7%로 증가함.

(단위 : 백만원, %)

표 5-3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현황

구분	충북 합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SOC	SOC 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비율
2017	10,030,985	504,284	647,515	1,151,799	11.5%	2,879,698	28.7%
2016	9,808,174	505,920	614,650	1,120,570	11.4%	2,690,141	27.4%
2015	9,496,813	520,745	587,985	1,108,730	11.7%	2,635,635	27.8%
2014	9,051,661	539,399	513,740	1,053,139	11.6%	2,449,680	27.1%
2013	8,383,027	618,687	545,060	1,163,747	13.9%	2,075,943	24.8%
2012	7,840,029	639,207	587,666	1,226,873	15.6%	1,874,760	23.9%
2011	7,604,636	618,472	519,488	1,137,960	15.0%	1,713,386	22.5%
2010	7,254,585	596,931	572,175	1,169,106	16.1%	1,621,718	22.4%
2009	6,726,664	608,670	519,356	1,128,026	16.8%	1,496,944	22.3%
2008	6,141,093	538,584	485,311	1,023,895	16.7%	1,292,994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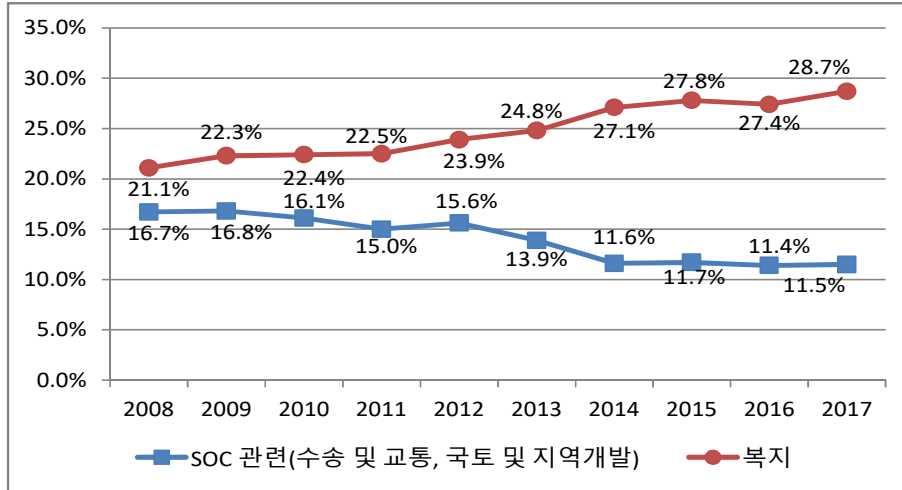


그림 5-2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증감 추이

- 충북의 2013~16년 사이 SOC 관련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결산) 현황을 보면, 2013~15년 SOC 집행률은 연평균 약 9.2% 감소함⁴⁷⁾.
-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률은 2013~15년 연평균 약 7.4% 증가함.
- 2016년의 경우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최근 SOC 감소 기조를 고려할 때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계획	사회복지		1,030,717	1,081,030	1,122,452	1,153,667
	SOC	합계	347,616	337,262	342,308	355,005
		수송 및 교통	238,148	229,726	231,528	240,637
		국토 및 지역개발	109,468	107,536	110,780	114,368
결산	사회복지		852,916	964,472	1,095,746	1,156,619
	SOC	합계	343,863	290,636	275,640	355,133
		수송 및 교통	234,657	209,341	175,476	208,368
		국토 및 지역개발	109,206	81,295	100,164	146,765
집행율	사회복지		82.7%	89.2%	97.6%	100.3%
	SOC		98.9%	86.2%	80.5%	100.0%

표 5-4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및
결산 비교

1.

일반 현황

47) 충청북도청, 2016~17회계연도 결산서

- 충북 본청은 향후 5년간 25조 6,288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을 8조 7,839억원 (34.3%) 계획하고 있으며, SOC 예산을 1조 9,711억원(7.7%) 계획함⁴⁸⁾.

③ 충북 지역 인프라 관련 주요 정부 공약

-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는 도시혁신사업을 공약으로 함.
 -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 특성이 1) 중앙 주도의 2) 대규모 계획, 3) 미흡한 지원이었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특성은 1) 지역주도, 2) 소규모 사업, 3) 전폭적 지원이 그 특성임.
 - 충북 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1곳, 일반 지역 2곳(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원 대상 지역 4곳이 선정됨.
- 현 정부의 공약 중 충북 인프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 활주로 길이를 현재 2744m에서 3200m로 증진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 : 4차선 미확장으로 지정체가 상존하고 있는 호법~남이 구간을 확장
 - 충주호, 대청호, 미호천 연계 국가 생태 휴양벨트 조성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충청권 광역 철도망 2단계 조기 추진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연계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48) 충청북도청, 2018~2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 교통시설

(1) 도로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포장도로 관리와 관련한 법은 「도로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있음.
 - 도로법(시행 2018.05.29.)(법률 제15115호, 2017. 11.28. 일부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1.18.)(법률 제14545호, 2017.1.17. 전부개정)
- 도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음.
 -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⁴⁹⁾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도로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도로설계에 대한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로 등급별로 명시되어 있음.
 - 도로신설에 대한 기준은 20년 이내로 설계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도로등급별 구분	고속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지역	15~20년	10~20년	10~15년	5~10년
지방지역	20년	15~20년	10~15년	10~15년

자료: 국토교통부 (20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표 5-5

도로 등급별
설계기준

2.

교통시설

49)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함.

2.

교통시설

표 5-6

도로등급별
계획 및 관리
주체와 재원

구분	계획주체	관리주체	유지관리재원
고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시외)국토교통부장관	(시외)국토교통부장관	(시외)국고/
	(시내)시장	(시내)시장	(시내)지방비
국가지원 지방도/지방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시장)	지방비
시·군·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지자체장	지방비
기타도로			

주 : 기타도로는 농어촌도로와 비법정도로를 의미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도로 분야의 예산정책은 안전성을 고려한 사전예방보다는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도로파손의 사후처리 방식이며, 1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음.
 - 현장점검은 주로 육안확인을 통해 도로파손이나 결함을 파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현 사후보수 형태의 예산수립은 도로안전성을 미연에 확보할 수 있는 사전 보수 방식을 병행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편성될 필요가 있음.
- 충북 도로시설(포장도로, 교량, 터널 등)에 투입된 보수비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약 358억원의 도로 보수비용은 2014년 519억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2016년 785억원이 투입됨.
 - 2016년 도로별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총 785억원 중 일반국도에 93억원 (11.9%), 지방도 310억원(39.6%), 시도 229억원(28.9%), 군도 152억원 (19.3%)이 투입됨.

(단위 : 백만원)

표 5-7

충북 도로보수
예산투입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계	35,824	55,475	69,970	72,218	64,739	79,082	51,945	74,545	78,520
	국비	3,588	5,174	12,586	23,694	13,142	15,346	10,672	20,682	14,419
	지방비	32,236	50,301	57,384	48,524	51,597	63,736	41,273	53,863	64,101
일반국도	계	1,305	1,537	6,293	6,200	6,160	5,455	4,935	10,450	9,311
	국비	-	-	4,063	5,847	5,978	5,455	4,417	9,389	7,797
	지방비	1,305	1,537	2,230	353	182	-	518	1,061	1,514
지방도	계	9,171	18,554	23,113	24,527	20,861	18,394	22,273	28,138	31,088
	국비	1,450	2,726	6,005	5,118	3,299	4,649	4,228	6,380	4,743
	지방비	7,721	15,828	17,108	19,409	17,562	13,745	18,045	21,758	26,345
시도	계	9,419	11,121	16,487	8,431	9,866	36,527	10,913	20,316	22,936
	국비	182	276	260	260	1,000	3,874	382	3,614	275
	지방비	9,237	10,845	16,227	8,171	8,866	32,653	10,531	16,702	22,661
군도	계	15,929	24,263	24,077	33,060	27,852	18,706	13,824	15,641	15,185
	국비	1,956	2,172	2,258	12,469	2,865	1,368	1,645	1,299	1,604
	지방비	13,973	22,091	21,819	20,591	24,987	17,338	12,179	14,342	13,581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도로보수현황⁵⁰⁾

- 재원별 예산투입은 2016년 기준 지방비가 약 81.6%를 차지하여, 도로 보수 시 지방비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함.
 - 조사된 9년 간 총 도로보수 비용 대비 지방비 평균 투입 비중은 약 80.4%이며, 최저 67.2%(2011년)와 최고 90.7%(2009년)를 기록함.
 - 높은 도로보수 지방비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 보수를 적기에 시행함에 있어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2018년 이후 충북은 관리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및 지방도, 시·군도, 가타도로(농어촌도로 등)에 대해 건설사업, 확보장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임.
 - 국지도 사업 계획은 도본청(4건)과 충주시(1건)에서 총 5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072억원 중 178억원을 이미 투자함. 사업 내용은 국지도 건설 사업과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다수 계획되어 있음..

2.

교통시설

50) 보수의 범위 : 도로포장, 구조물(교량, 터널, 소구조물, 안전진단, 내진보강 등 등), 안전시설, 위험도로개선, 병목지점 개량, 접도구역 관리, 기타 부대시설 등

2.

교통시설

표 5-8

충북 국지도 사업 및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역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 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07,215	17,774	175,541	29,157	26,050	27,050	47,784	45,500	13,900
도본청 (4건)	203,315	16,274	173,141	26,757	26,050	27,050	47,784	45,500	13,900
충주시 (1건)	3900	1500	2400	2400	0	0	0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도 사업 계획은 충북 도청에서 총 23건의 확포장 사업 및 개량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9,143억원 중 998억원은 이미 투자함. 충북 도청은 사업 수행을 위해 2022년 이후에도 약 5,347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표 5-9

충북 지방도 사업 및 투자 계획

지역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 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도본청 (23건)	914,344	99,760	279,830	35,780	33,350	48,300	81,900	80,500	534,754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시·군도의 경우 시·군청에서 관리하며, 제천시와 괴산군, 음성군을 제외한 8개 시·군 지역에서 확포장 사업, 개설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음. 관련 총 사업비는 2,249억원 수준이며, 이미 599억원을 투입함.
- 지역별로는 청주시와 충주시의 투자 계획이 높은 비율을 가지며, 청주시의 경우 2022년 이후에도 10억원의 투입 계획이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 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24,903	59,884	164,019	31,110	43,287	40,683	33,151	15,789	1,000
청주시 (9건)	57,452	8,290	48,162	5,992	11,671	13,150	11,810	5,539	1,000
충주시 (10건)	51,904	19,254	32,650	10,835	8,680	9,200	3,935	0	0
보은군 (3건)	19,450	8,288	11,162	3,941	3,321	2,000	1,900	0	0
옥천군 (5건)	20,400	4,080	16,320	2,570	3,650	4,300	4,300	1,500	0
영동군 (1건)	9,000	0	9,000	1,600	1,700	1,800	1,900	2,000	0
진천군 (4건)	11,650	2,080	9,570	3,000	2,920	2,250	1,000	400	0
증평군 (4건)	32,273	17,892	14,381	1,872	6,456	2,775	2,778	500	0
단양군 (4건)	22,774	0	22,774	1,300	4,889	5,208	5,528	5,85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은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및 개설, 정비를 위해 약 40여 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약 1,882억원 중 436억원을 이미 투자함.
-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약 21건의 사업에 대해 향후 938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고, 충주시는 9건의 사업에 대해 향후 87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지역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 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88,166	43,680	140,604	24,795	37,462	32,397	27,831	18,119	3,882
청주시 (21건)	108,295	10,590	93,823	13,234	26,884	23,337	20,400	9,968	3,882
충주시 (9건)	31,986	23,240	8,746	5,100	2,892	754	0	0	0
보은군 (1건)	2,400	600	1,800	1,500	300	0	0	0	0
옥천군 (2건)	8,200	250	7,950	850	1,400	2,050	1,650	2,000	0
영동군 (2건)	12,215	0	12,215	2,201	2,361	2,421	2,581	2,651	0
괴산군 (1건)	4,000	4,000	0	0	0	0	0	0	0
증평군 (2건)	3,960	1,700	2,260	200	725	935	200	200	0
단양군 (2건)	17,110	3,300	13,810	1,710	2,900	2,900	3,000	3,30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10

충북 시·군도 사업
및 투자 계획

표 5-11

충북 농어촌도로
사업 및 투자 계획

2.

교통시설

③ 현안 및 대응 방향

- (주요이슈 1) 포장도로 연장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장래 도로 유지·보수예산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비 예산 투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됨.
 - 도로 연장은 2016.12. 기준 6,870km 수준으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고려할 때 보수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도로 보수예산은 2016년 기준 785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 보수예산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보수 예산이 약 5,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도로 보수 예산은 도로안전성을 고려한 사전보수보다는 도로 파손 및 결함에 따른 사후보수가 대부분으로 현장점검을 통한 1년 단위의 예산이 수립됨.
- (대응방안 1) 장래 포장도로 유지·보수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사후보수 방식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포장도로 보수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 총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사전보수가 유지·보수비용 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이므로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건설 관리계획(5년 단위) 수립 시 이를 반영한 예산 수립이 필요함.
- (주요이슈 2)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과학적인 유지관리시스템이 부재함.
 - 도로파손이나 결함부위에 대한 육안확인을 통한 현장점검은 도로 상태 확인에 한계가 있음.
- (대응방안 2)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등의 과학적인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
 - 도로포장의 소성변형, 균열 등을 고려한 도로포장상태 성능평가 등급설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이 필요함.
 - 사례 : 국토부 고속도로 및 국도 포장관리시스템, 서울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2) 도로교량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도로교량 관리와 관련한 법은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있으며, 유지·보수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음.
 - 「시특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도로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충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체 및 안전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전관리 주체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구·군도(자치구·군)
 - 안전관리 계획 :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 강화, 운행제한 차량 단속강화로 과적운행 근절을 통해 도로교량 보호, 도로교량 내진성능평가 시행계획 수립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도로교량에 대해 재가설을 진행 중이며, 향후 D, E등급 교량을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임.
 - 총 5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또는 재가설공사가 진행 중임.

2.

교통시설

표 5-12

충북 재난안전법
해당 도로교량
현황

시설명	등급	관리 주체	지정 년월일	해소 계획	조치사항	완료 년도
박대소교	E등급	청주시	16.11.25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중 (17.12월 준공예정)	2019
명덕교	D등급	충북도청	16.9.23	재가설	-재가설 공사중 (18.12월 준공예정)	2018
양지교	D등급	청주시	16.4.1	재가설	-재가설 공사중 (18.6월 준공예정)	2018
강산교	D등급	보은군	16.12.6	재가설	-재가설 공사중 (18.11월 준공예정)	2018
중동교	D등급	보은군	16.12.6	재가설	-재가설 공사중 (17.12월 준공예정)	2018
병암교	D등급	음성군	17.7.10	재가설	-18년 예산확보 후 재가설 예정	2018

자료 : 충청북도 재난관리과 (2017)

- 2018년 이후 충북은 교량 가설공사 3건, 재가설 공사 2건, 교량관리사업 1건을 계획하고 있음.
- 교량 가설공사는 충주시, 단양군에서 각 1건, 2건을 진행 예정이며, 충주시는 이미 총 사업비 347억원의 가설공사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임.
- 교량 재가설공사는 청주시, 보은군에서 수행 예정이며, 총 사업비 52억원 중 2018년부터 42억원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함. 보은군은 이미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 영동군은 교량관리를 위한 2018년 이후 약 20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함.

(단위 : 백만원)

표 5-13

충북 교량 사업
및 투자 현황

지역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 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82,970	4,000	76,970	11,602	14,713	12,956	30,627	7,073	2,000
청주시 (1건)	3,200	0	3,200	200	3,000	0	0	0	0
충주시 (1건)	34,700	3,000	31,700	10,000	10,000	11,700	0	0	0
보은군 (1건)	2,000	1,000	1,000	1,000	0	0	0	0	0
영동군 (1건)	2,020	0	2,020	402	403	404	405	406	0
단양군 (2건)	41,050	0	39,050	0	1,310	852	30,222	6,667	2,00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도로교량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예산의 증가가 예상됨.
 - 충북 도로교량은 2016년 기준 2,567개소 중 20년 이상 경과한 교량은 1,037개소로 약 40.4%를 차지하고 있음. 40년 이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도로교량도 총 126개소로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충북 내 시특별시상 1·2종 도로교량은 총 810개소이며,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B등급 이하는 교량은 668개소로 약 82%를 차지함.
 - 10년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교량은 2,068개소(80.6%)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대응방안 1) 향후 도로교량 보수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해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고, 자산가치 재평가 및 보수·보강 효과분석 등을 통해 도로교량 보수비용 예측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주요이슈 2) 도로교량 유지·보수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시스템이 부재함.
 - 도로교량의 파손 및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기반의 사후보수가 대부분이며, 교량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유지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 (대응방안 2) 도로교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관리시스템(Bridge Management System: BMS)의 도입 검토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교량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분석을 통해 관리주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는 교량관리시스템 도입
(사례 : 국토부 교량통합관리시스템, 경기도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 교량을 포함한 도로 등의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사례 :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2017.5.18. 시행)

2.

교통시설

(3) 철도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철도건설과 관련한 법은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시특법」이 있음.
-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체 및 비용 부담을 네 가지 철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
 -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광역철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표 5-14

철도 건설 및
비용부담 방식

구분	철도건설주체	철도건설 비용부담	법적근거
고속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국비 지원(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부담비율을 위원회 결정하여 지원)	철도건설법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1조 (비용부담의 원칙)
일반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국비(100%)	철도건설법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지자체(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국비 (서울 40%, 지방 60%)	도시철도법 제22조 (정부지원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광역 철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행)	국비(7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부담)

- 정부는 ‘철도안전 종합계획(2016 ~ 2020)’(2016, 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노후 철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개량 및 유지·보수할 계획임.

- 내구연한이 경과한 교량(42%), 터널(44%), 신호설비(46%), 전기설비(34%)를 중심으로 시설개량에 국가예산을 4,694억원(2015년 기준)을 투입하고 매년 10%이상 증액할 계획임.
- 철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해 연 2회 이상의 시설물 점검을 수행하고, 철도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승강장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 추진 등 승강장 안전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임.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은 철도고속화 사업, 중앙선, 중부내륙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 철도 종합 시험선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중앙선 사업 내 2개 노선, 중부내륙선, 철도 종합 시험선 구축 사업은 공사 단계임.
-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임.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기본설계 중임.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계룡~신탄진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함.

사업명	구간 및 연장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현황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청주공항-주덕 (52.7km)	-	7,102	2017-24	•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선	제천~원주 (44.1km)	복선전철	1,895	2003-18	• 공사중
	도담~영천 (148.6km)	복선전철	37,114	2010-20	
중부내륙선	이천-충주-문경 (94.3km)	단선철도	21,745	2005-21	• (1단계) 공사중 • (2단계) 6.8 공구착공, 7.9 공구 실시계획중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천안~청주공항 (56.1km)	복선전철	8,216	2014-22	• 기본설계 (2018.1.~)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신탄진 (35.2km)	-	2,107	2016-21	• 기본계획 수립
	대전조차장~옥천	-	2,000	2025-35	• 추가 선정
철도 종합 시험선 구축	충북·오송 (12.99km)	12.99km	2,406	2011-18	• 공사 중

표 5-15

충북 철도 구축
현황

2.

교통시설

2.

교통시설

표 5-16

충북 향후 계획
중인 철도 사업
현황

- 충북은 향후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복선전철, 대전~옥천 복선전철, 영동 광역철도,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사업명	내용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현황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복선전철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	39,000	2019-2031	
대전-옥천	대전-옥천	복선전철 (20.2km)	227	2017-2021	사업 건의중
영동 광역철도	옥천-영동	30km	2,000	2025-2035	
중부선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단선철도	10,000	2019-2031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중부내륙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서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철도 인프라 제공이 필요함.
 -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은 서울, 부산, 목포 각 방향으로 연결되는 분기역으로서 연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충북선과의 지선연결을 통해 강원권과의 연계도 가능함.
 - 그러나 2010년 11월 고속철도 오송역을 개통하여 현재 경부선 40회, 호남선 8회 등 1일 총 48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오송역 접근교통체계 미비 및 충북선을 포함한 기존 철도와의 연계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 (대응방안 1) 철도 인프라를 확대하고 철도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확충이 필요함.
 - 국가 X축 고속철도망에 해당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거점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철도 확충 등을 통한 철도망을 형성하여야 함.
 - 향후 보령선이 충북선과 직접 연결되어 도민들의 서해안 접근의 편리함을 증대할 수 있음.
- (주요이슈 2) 수도권 외 지역은 저조한 경제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우며, 이로 인한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

- (대응방안 2) 국가적 차원의 추진 당위성 확보가 필요함.
-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정밀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로 국무회의 상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공항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공항 시설물 및 항공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법으로는 「공항시설법」이 있음.
- 공항시설법 :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 공항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있음.

②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청주공항은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수 측면에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아직 미약함.
- 청주국제공항의 연간 항공기 처리능력은 19만 6천대이며, 여객터미널은 연간 315만 명(국내선 189만 명, 국제선 126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음
- (대응방안) 청주공항 접근성(도로 및 철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노선 확장을 통해 공항 이용의 활성화 유도가 요구됨.
- 주변 도로, 철도 등을 증설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항 이용에 편의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여객 및 화물의 사용량 증가와 함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2.

교통시설

3. 물관리시설

(1) 상수도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상수와 관련한 주요 법은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가 있음.
 -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상수도 재원별 사용연수 : 상수도사업의 경우 스테인레스관·주철관·강관은 30년, PVC관·PE관은 20년, 아연도강관은 10년, 그 밖의 관은 재질에 따라 20-30년, 수도관 부속설비는 20-30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노후관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비내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을 의미함.
-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광역수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99,445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임.
 - 세부적으로는 시설확충에 23,470억원, 개량 및 안정화에 73,519억원, 유지관리에 2,456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비중이 가장 큰 개량 및 안정화사업은 사업비 기준으로 전체의 약 73.9%를 차지하며, 주요 사업은 취수장·정수장·관로·설비 등 수도시설 개량, 관로복선화, 비상연계, 고도처리, 예비능력도입 등이 있음.
- 국내 상수도 관리체계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로 구분됨.
 - 광역상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심이 되어 취수·통합정수장 운영 등으로 원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며, 지방상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및 위탁(26개)의 형태로 운영됨.
 - 지방상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를 제공받아 배수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규모 상수원 개발, 취수·정수·배수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 내 상수도시설과 관련한 2018년 이후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는 1조 3,181억원 수준이며, 음성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투자를 진행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충북은 2018년 이전까지 1,502억원을 투자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231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충북 도청의 총 사업비가 4,089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8년 이전에 109억원을 투자함. 충북 도청은 2022년 이후에도 1,448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그 외 지역은 2022년 이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은 없음.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318,075	150,200	1,023,063	195,062	225,304	226,986	191,343	184,371	144,812
도본청	403,907	10,952	248,143	44,855	45,422	52,622	52,622	52,622	144,812
청주시	31,694	1,597	30,097	2,014	6,604	6,657	7,462	7,360	0
충주시	131,061	35,723	95,338	31,522	25,626	20,417	8,845	8,930	0
제천시	114,361	9,879	104,482	17,435	20,295	22,907	22,978	20,866	0
보은군	101,343	5,707	95,636	16,341	34,124	34,201	8,263	2,708	0
옥천군	182,163	28,328	153,835	29,588	30,612	31,009	31,217	31,409	0
영동군	98,190	21,125	77,065	13,885	17,559	14,953	15,018	15,651	0
진천군	21,783	3,551	18,232	3,340	3,367	3,408	3,123	4,994	0
괴산군	76,053	8,784	67,269	8,158	16,096	15,100	15,247	12,665	0
음성군	21,066	0	21,066	4,015	4,110	4,209	4,313	4,420	0
증평군	4,000	3,000	1,000	1,000	0	0	0	0	0
단양군	132,454	21,554	110,900	22,909	21,489	21,503	22,255	22,746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충북 상수도시설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은 크게 2018년 이전에 이미 투자가 시작된 사업과 2018년 이후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1건으로 총 사업비 4,883억원 중 이미 1,50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381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임.

표 5-17

충북 상수도 사업
예산 계획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5-18

충북 수행 중
상수도 사업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1건	488,297	150,200	338,097	74,908	86,989	79,952	54,117	42,133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기존에 투자 중인 사업 외 2018년부터 투자 계획이 있는 주요 사업은 41건으로 파악되며, 상수도 현대화, 노후관 개량, 수도정비, 신규 급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충북은 41건의 사업에 대해 약 8,2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충북 도청에서 진행 계획인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옥내 노후급수관개량지원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1,44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 예정임.

(단위 : 백만원)

표 5-19

충북 신규 상수도
사업 예산 계획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41건	829,778	0	684,966	120,154	138,315	147,034	137,226	142,238	144,812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충북 급수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상수관로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경년관 증가 및 누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충북 내 20년 이상 상수관로는 총 2,301km(26.3%) 수준임.
 - 10년 이내 20년 이상 상수관로의 노후화는 약 2배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배수관과 급수관에 대부분의 노후관로가 존재함.
- (대응방안 1) 상수관로의 노후화와 경년 시기 도래를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배수관 및 송수관 등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투입이 필요함.

- 상수관로의 노후화와 경년시기가 도래함에 있어 누수사고 발생의 위험도와 상수도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사전 예측을 통한 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관의 재질별로는 PVC관 및 주철관에 대한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임.

(2) 하수도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하수도와 관련한 주요 법은 「하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있음.
 - 「수도법」 제12조(시설 기준 등)
 -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수도 재원별 내용연수 : 스텔레스관·주철관·강관은 30년, PVC관·PE관은 20년, 아연도강관은 10년, 그 밖의 관은 재질에 따라 20-30년, 수도관 부속설비는 20-30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시민에게는 안전을, 생활에는 쾌적함을, 지역에는 활력을 주는 하수도’를 목표로 6개 분야(하수도 안전관리, 국민편의 중심 서비스, 강우 시 하수관리,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경제적 기회 창출, 재정 및 자산관리)에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목표치로는 202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96.0%, 실질하수처리율(BOD) 90.0%,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80.0%를 달성하고자 함.
 - 침수피해 발생 또는 침수 우려 지역 107개소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2025년까지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30년 빈도 강우에 대비하고자 함.
 - 국가의 하수관로 예산 중 노후관로 진단·조사·정비 등 하수관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 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증진하고자 함.
 -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약 15조 원,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마련함.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 내 하수도시설과 관련한 2018년 이후 계획되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사업비는 3조 7,632억원 수준이며, 충북 내 11개 시·군 전체에서 이미 투자를 진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

- 충북은 총 2조 1,73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4,057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충북 도청의 총 사업비가 2조 5,47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이미 1조 8,481억원을 투자함.
- 충북 도청과 증평군은 2022년 이후에도 각각 1,238억원, 599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그 외 지역은 2022년 이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표 5-20

충북 하수도 사업
예산 계획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3,763,197	2,173,790	1,405,690	311,396	390,543	297,041	222,858	183,857	183,715
도봉청	2,547,043	1,848,120	575,095	107,514	114,020	114,421	117,819	121,321	123,827
청주시	551,541	124,116	427,425	78,372	136,422	113,404	67,388	31,841	0
충주시	169,892	74,166	95,726	38,219	39,163	11,364	5,800	1,180	0
제천시	51,448	15,885	35,563	15,437	9,026	3,700	3,700	3,700	0
보은군	17,118	5,634	11,484	6,524	2,497	795	821	847	0
옥천군	117,309	26,828	90,481	19,038	19,185	19,336	16,383	16,540	0
영동군	45,109	12,642	32,467	14,231	18,236	0	0	0	0
진천군	76,113	16,967	59,146	5,423	25,022	26,550	2,151	0	0
괴산군	44,659	29,376	15,282	9,291	3,947	682	682	682	0
음성군	26,198	2,889	23,309	5,472	17,837	0	0	0	0
증평군	91,009	15,987	15,134	800	710	4,509	4,510	4,605	59,888
단양군	25,758	1,180	24,578	11,075	4,478	2,280	3,604	3,141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충북 하수도시설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은 크게 2018년 이전에 이미 투자가 시작된 사업과 2018년 이후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은 65건으로 사업비 3조 3,457억원 중 이미 2조 1,73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9,882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65건	3,345,657	2,173,790	988,150	240,760	287,615	188,652	136,415	134,710	183,715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21

충북 수행 중
하수도 사업 예산
계획

- 기존에 투자 중인 사업 외 2018년부터 투자 계획이 있는 주요 사업은 38건이며, 하수도 긴급공사, 개선공사, 정비공사, 설치사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충북은 38건의 사업에 대해 약 4,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 이후 추가적 투입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38건	417,540	0	417,540	70,636	102,928	108,389	86,443	49,147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22

충북 신규 하수도
사업 예산 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하수관로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충북 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의 연장은 총 1,582km로, 충북 총 하수관로 시설연장의 약 27%를 차지함. 10년 후 노후 하수관로 연장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임.
 - 충북 내 노후 하수관로는 청주시(약 52%)와 제천시(약 21%)에 약 83%가 매설되어 있음.
 - 관의 재질별로는 흙관이 1,010km로 노후 하수관로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
- (대응방안 1) 노후 하수관로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 하수관로별, 재질별 경년관을 고려한 투자 계획 마련이 필요함.
 - 경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 계획이 요구됨.
 - 재투자 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함.

3.

물관리시설

- (주요이슈 2) 변화하는 환경(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하수도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함.
 - 강우시 월류 하수로 오염이 발생함.
 - 관료 용량을 확충하여 집중호우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대응방안 2)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관로 확충이 필요함.
 - 지속적인 준설 및 개보수 공사 등 하수관 정비가 필요함.

(3) 침수저감시설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도시 침수저감시설과 관련한 추진 중인 대책은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체계적 재난대비책 마련,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등이 있음.

표 5-23

침수저감시설
관련 주요 사업
내용

사업명	성과년도	주요내용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17	·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 경보발령시스템 현대화
체계적 재난 대비책 마련	2017	· 상황정보 전파체계 구축(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및 스마트 재난 사오항정보 전파시스템 구축 등) · 기금조성 및 운영 (재난관리기금 702억원/50억원, 대해구호기금 318억원/2.5억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및 '차바' 복구	2018	·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자연재해 대응계획 추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옥동 우수저류시설(12월 착공) · 차바 피해복구(896개소, 1,274억원, 공정률99.2%)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2018년 이후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총 6,160억원 수준이며, 다수의 사업에 대해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약 1,212억원 수준이며, 2018~22년 동안 약 4,94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 지자체별로는 충북 도청의 총 사업비가 2,281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이미 482억원을 투자함. 2018년 이후 1,799억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16,064	121,248	494,816	118,905	156,524	121,824	69,257	28,306	0
도본청	228,112	48,204	179,908	52,187	58,596	34,125	28,500	6,500	0
청주시	32,913	5,410	27,503	6,710	17,541	1,042	1,083	1,127	0
충주시	78,043	26,800	51,243	5,334	20,927	21,282	3,700	0	0
제천시	48,794	2,750	46,044	7,639	12,695	13,310	6,200	6,200	0
보은군	42,962	2,400	40,562	9,000	11,162	14,950	5,450	0	0
옥천군	26,000	0	26,000	5,000	4,000	4,500	5,500	7,000	0
영동군	50,846	9,500	41,346	10,142	12,558	12,500	6,146	0	0
진천군	2,000	100	1,900	1,900	0	0	0	0	0
괴산군	63,662	20,084	43,578	14,068	12,500	12,510	4,500	0	0
음성군	30,953	6,000	24,953	4,010	6,000	5,443	6,000	3,500	0
단양군	11,779	0	11,779	2,915	545	2,162	2,178	3,979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 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은 2018년 이전에 이미 투자가 시작된 사업과 2018년부터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현재 수행중인 주요 사업은 26건으로 사업비 4,334억원 중 이미 1,212억원을 투입함. 2018년 이후 5년 동안 3,121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배수개선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배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배수지 신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위험시설 개선사업, 배수지 증설공사 등이 있음.

(단위 : 백만원)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6건	433,353	121,248	312,105	97,124	103,927	66,008	38,846	6,200	0

자료 : 충청북도 본청 및 11개 시·군,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24

충북
침수저감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표 5-25

충북 수행 중
침수저감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5-26

충북 신규
침수저감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충북은 2018년 이후 침수저감 및 재해위험 방지를 위해 1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약 1,8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배수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배수지 신설, 재해지구 및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음.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5건	182,711	0	182,711	21,781	52,597	55,816	30,411	22,106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침수 등의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는 증가한 반면 하수도의 빗물배수 기능 부족으로 도심 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도시 침수 및 재해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가 요구됨.
- **(대응방안)** 침수저감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스마트 재난대응관리체계 등에 대한 구축이 필요함.
 - 지속적인 준설, 개보수, 유지관리, 위험재해지구 정비를 통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및 체계 구축이 요구됨.

(4) 하천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하천과 관련한 주요 법은 「하천법」이 있으며, 「하천법」상 국내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됨.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 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함.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함.

-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함(하폭 2m, 길이 500m 이상).
-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며,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 지사가 관리함.

② 투자 방향

- 충북은 하천의 이용, 보전, 정비 및 치수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작성하는 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 수계 상·하류의 일관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포함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단위 : km, %)

구분	하천현황		하천기본계획수립				수립률
			실적		향후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174	2,349.88	168	1,971.58	6	378.3	83.9
국가하천	5	313.45	5	313.45	-	-	100
지방하천	169	2,036.43	163	1,658.13	6	378.3	81.42

자료 : 충청북도(2016), 도정백서

표 5-27

충북
하천기본계획
주요 내용

- 하천기본정비계획을 토대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수립 및 시행함.
 - 계획된 총 사업비는 약 1조 3백억원이며, 2015년까지 약 5,500억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5년 이후 약 7,6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함.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음.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5-28

충북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

(단위 : km, 백만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향후	
	지구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		47.5%		50.7%		100%	
사업량	120	607.5	67	288.6	20	19.5	33	299.4
사업비	1,309,722		491,203		58,462		760,057	

자료 : 충청북도(2016), 도정백서

- 충북은 치수 안전제고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충북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도내 지방하천 169지구 2,036.4km에 대하여 2014년 10억원, 2015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재해위험성 및 수해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적용함.
-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내 소하천 2,076지구 3,450km를 대상으로 2014년 말 1,321지구 1,785.4km를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41지구 21.8km를 완료함. 향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단위 : km, 백만원)

표 5-29

충북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현황

구분	하천연장	'14년	'15년	구분	하천연장	'14년	'15년
합계	2036.4	1,000	1,300	영동군	256.7	98	158
청주시	270.8	135	163	증평군	26	45	65
충주시	190.7	81	151	진천군	133.3	89	93
제천시	246.5	92	123	괴산군	248.6	125	145
보은군	171.2	99	79	음성군	147.6	79	117
옥천군	118.6	67	96	단양군	226.4	89	110

자료 : 충청북도(2016), 도정백서

(단위 : km, 백만원)

표 5-30

충북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현황

구분	계		2014년		2015년		향후	
	지구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		51.8%		52.4%		-	
사업량	2,076	3,450	67	1,785.4	20	21.8km	33	1,642.8
사업비	1,431,000		885,242		58,462		495,492	

자료 : 충청북도(2016), 도정백서

③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 내 하천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계획되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1조 7,516억원 수준이며, 제천시, 옥천군, 단양군을 제외한 충북 내 시·군에서는 이미 투자를 진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
- 충북은 총 2,98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1,826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충북 도청의 사업비가 1조 1,062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 1,37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충북 도청은 2022년 이후에도 2,708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751,580	298,173	1,182,627	183,260	253,343	255,131	252,924	237,974	270,781
도본청	1,106,217	137,813	697,624	76,463	120,646	149,588	176,575	174,352	270,781
청주시	123,177	8,060	115,117	26,680	38,316	32,125	8,887	9,110	0
충주시	29,214	20,676	8,538	3,120	3,602	604	605	607	0
제천시	46,200	0	46,200	8,600	8,920	9,240	9,560	9,880	0
보은군	95,759	24,010	71,749	8,990	14,565	15,563	16,263	16,368	0
옥천군	28,030	0	28,030	3,930	6,255	6,307	5,372	6,166	0
영동군	82,824	36,900	45,924	11,975	11,432	9,389	6,697	6,431	0
진천군	72,054	28,947	43,107	13,624	14,695	5,231	5,268	4,289	0
괴산군	43,085	21,995	21,090	8,073	6,678	2,113	2,113	2,113	0
음성군	92,101	15,786	76,315	15,548	22,178	18,478	16,459	3,654	0
증평군	18,187	3,986	14,201	4,827	3,097	3,370	2,093	813	0
단양군	14,732	0	14,732	1,430	2,959	3,123	3,032	4,191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충북 하천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은 크게 2018년 이전에 이미 투자가 시작된 사업과 2018년부터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나뉘 볼 수 있음.
-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은 23건으로 총 사업비 3,921억원 중 1,9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 중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743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2022

표 5-31

충북 하천 관련
사업 예산 계획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표 5-32

충북 수행 중 하천
관련 사업 예산
계획

년 이후에도 268억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3건	392,118	190,969	174,342	60,398	54,385	26,579	18,932	14,050	26,807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기존에 투자 중인 사업 외 2018년부터 투자 계획이 있는 주요 사업은 70건이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충북은 70건의 사업에 대해 약 8,7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 이후에도 2,04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단위 : 백만원)

표 5-33

충북 신규 하천
관련 사업 예산
계획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70건	877,548	0	672,743	76,604	116,958	143,619	154,991	180,574	204,806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④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충북은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유경험 지역임.
- (대응방안)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기초지자체의 지방하천 67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홍수대비능력을 파악하고 현재 수준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5) 댐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댐은 크게 다목적댐, 발전용댐, 용수전용댐으로 구분됨. 댐 건설과 관련해서

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댐의 유지관리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저수지댐법)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저수지댐법」외에 댐의 유지관리는 「시특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함.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은 댐 시설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약 3건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 중인 사업은 없음.
- 3건의 사업은 댐의 정비 및 주변지역 관리사업으로 청주시(1건)와 단양군(2건)에 계획되어 있음.
- 3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약 60억원 수준이며, 2018~22년 동안 수행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3건	5,967	0	5,967	1,722	1,058	1,079	1,102	1,006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34

충북 신규 댐 관련
사업 예산 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댐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 투자가 요구됨.
- 충북 내 2개의 다목적댐 모두 30년이 경과하였으며, 괴산댐의 경우 61년이 경과함.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
- 용수전용댐의 경우 40년 이상 댐 시설물이 12개소(35.3%) 존재함.

3.

물관리시설

- (대응방안) 댐과 같은 대형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함.
- 댐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 및 현황을 시스템화함으로써 노후 시설물에 대한 사전유지관리 대책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6) 수리시설(저수지 등)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고 있음.
-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후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능을 보전함.
- 추진근거로는 「시특법」,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이 있음. 대상시설 1종, 2종 시설 및 3종시설이 있음.
 - 1종 : 저수지 50만톤 이상, 양배수장 2,000마력 이상, 국가관리방조제(하구둑)
 - 2종 : 1종 이외의 저수지, 양배수장 1,000 마력 이상, 지방관리방조제
 - 3종 : 수로교(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개거(저폭 5m이상)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는 아래와 같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 방조 제개보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5-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절차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은 수리시설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에 총 11건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계획된 사업의 사업비는 약 923억원이며, 충북 도청은 이미 49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92,345	4,900	87,445	22,337	15,825	16,140	16,514	16,629	0
도본청	53,200	4,900	48,300	16,140	8,040	8,040	8,040	8,040	0
청주시	9,677	0	9,677	1,764	1,852	1,945	2,042	2,074	0
옥천군	14,651	0	14,651	2,000	3,000	3,105	3,215	3,331	0
영동군	10,650	0	10,650	1,900	2,000	2,100	2,250	2,400	0
증평군	1,835	0	1,835	333	350	367	384	401	0
단양군	2,332	0	2,332	200	583	583	583	383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35

충북 수리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3.

물관리시설

3.

물관리시설

- 충북에서 현재 수행중인 주요 사업은 1건으로 충북 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임.
- 총 사업비 130억원 중 49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8년에 81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표 5-36

충북 수행 중
수리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건	13,000	4,900	8,100	8,100	0	0	0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및 정비사업 등의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비 793억원을 투입하여 수행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표 5-37

충북 신규
수리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0건	79,345	0	79,345	14,237	15,825	16,140	16,514	16,629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노후도 관리를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개보수사업, 방조제 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을 시행함.
-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함께 적정시점에 적정량의 수리시설 공급이 필요함.
- **(대응방안)** 환경을 고려한 수리시설 요구량에 대한 기준 및 산정 방안 등을 개발함으로써 수리시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신규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내 부족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임.

4. 주거 및 교육시설

(1) 주거시설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주거시설과 관련한 법령은 토지구획 정리, 도시정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도시재생 등 각 사업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토지구획 정리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 「공동주택관리법」
 - 도시재생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주거시설 관련 사업 유형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목적
토지구획 정리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기여
도시개발사업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지 증진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정비사업	· 도시기능의 보존·회복 및 정비 차원에서 무질서한 사업을 방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 도모
도시재생사업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유도 ·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 안전에 취약한 15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부문 관리 ·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이 아닌 공동주택

표 5-38

주거시설
정비사업 유형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 내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계획되어 있는 주요 사업의 사업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비는 약 4,010억원 수준이며, 충북 도청,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음성군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

- 충북은 총 822억원을 기투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890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사업비가 884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이미 3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옥천군은 2022년 이후에도 198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그 외 지역은 2022년 이후 추가적인 투자 계획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표 5-39

충북 주거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401,043	92,208	289,036	90,094	66,759	88,112	32,884	11,188	19,800
도본청	53,831	10,937	42,894	7,301	7,668	8,292	9,156	10,477	0
청주시	88,363	3,651	84,712	22,424	21,473	40,815	0	0	0
충주시	0	0	0	0	0	0	0	0	0
제천시	94,158	65,602	28,557	23,257	5,300	0	0	0	0
보은군	31,870	7,642	24,228	15,278	8,950	0	0	0	0
옥천군	22,321	0	2,521	420	441	463	486	711	19,800
영동군	2,500	0	2,500	1,500	0	1,000	0	0	0
진천군	2,300	0	2,300	1,000	1,300	0	0	0	0
괴산군	0	0	0	0	0	0	0	0	0
음성군	101,074	4,376	96,698	18,914	20,085	36,000	21,700	0	0
증평군	0	0	0	0	0	0	0	0	0
단양군	4,626	0	4,626	0	1,542	1,542	1,542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에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주택 건설 및 지원 사업, 행복주택 사업, 마을 및 도시 개발사업, 타운 및 단지 조성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충북은 2018~22년 동안 총 5건의 주택 건설 및 지원 사업을 계획 중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72억원 중 7억원을 '영구임대사업 자금지원-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에 투입하였음.
- 향후 5년 간 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165억원을 투입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5건	17,240	700	16,540	6,484	5,512	2,005	2,028	511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은 총 6건의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계획 중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120억원 중 496억원을 이미 투입하였음. 향후 5년 간 추가적으로 1,624억원을 투입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6건	212,044	49,615	162,430	57,577	39,748	48,629	7,612	8,864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은 총 4건의 마을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044억원 중 34억원을 이미 투입하였음. 향후 5년 간 추가적으로 1,011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4건	104,439	3,379	101,060	20,267	18,459	37,478	23,244	1,613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은 총 4건의 단지조성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673억원 중 385억원을 이미 투입하였음. 향후 5년 간 추가적으로 90억원을 투입 예정이며, 2022년 이후 19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4건	67,320	38,514	9,006	5,766	3,040	0	0	200	19,80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40

충북 주택 건설
및 지원사업 예산
계획

표 5-41

충북 행복주택
건설사업 예산
계획

표 5-42

충북 마을 및
도시개발사업
예산 계획

표 5-43

충북 단지조성
사업 예산 계획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2) 도시재생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활성화 지역을 크게 선도지역, 일반지역, 뉴딜사업, 활력 증진 지역으로 분류 및 지정함.
-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전국에 13곳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기간은 2014~17년이며, 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율은 50%임(1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지구는 60%).
 -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2곳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을 지정함.

(단위 : 억원)

표 5-44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요
내용

구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특성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및 배후재생	쇠퇴 중심상가지역 및 근린주거지역 재생	
총사업비 (국비지원)	500 (250)	200 (100)	100 (60)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 일반지역은 일반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2016년 33곳이 지정됨. 사업기간은 경제기반반형 2021년, 근린재생형 2020년까지임.

(단위 : 억원)

표 5-45

도시재생
일반지역 주요
내용

구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특성	산단, 항만, 역세권 등 정비·개발 및 배후재생	중심상가 및 공공기관 이전 지역 재생	주거지 및 공목상권 지역 재생
총사업비 (국비지원)	500 (250)	200 (100)	100 (60)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혁신을 위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사업인만큼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진행상황 등이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함.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전국 68곳을 선정함.
-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 지역은 2018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재정 및 기금지원(국비지원) 후 사업 추진 예정임.
- ‘주거지 지원형 및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원을 지원 예정임.

(단위 : 억원)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지원 금액/년	집행 기간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50	3년
주거지 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100	4년
일반 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100	4년
중심 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150	5년
경제 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250	6년

자료 : 국토교통부(2017),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표 5-46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내용

-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조직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함(「도시재생법」 제10조, 제11조에 근거).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도 단위의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시·군·구 단위의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있음.
- 충북 내에는 총 3개의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음.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표 5-47

충북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센터유형	운영방식	지역유형	설립년도
청주시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	민간위탁	선도	2014.11
충주시	충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	행정직영	일반	2015.04
제천시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	행정직영	일반	2014.02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7)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비 1조 972억원 중 2022년까지 6,611억원을 투입 계획임.
-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사업비 9,74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 4,06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중에 있음. 2018년 이후 5,6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제천시는 사업비 182억원 중 약 2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주시와 괴산군은 2018년부터 각각 168억원, 26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표 5-48

충북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
계획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097,185	436,076	661,109	189,055	141,881	65,267	74,346	190,560	0
도본청	61,743	27,088	34,655	5,733	6,880	7,058	7,124	7,860	0
청주시	974,030	406,900	567,130	168,074	116,460	42,896	57,000	182,700	0
충주시	16,800	0	16,800	3,400	5,000	5,000	3,400	0	0
제천시	18,200	2,088	16,112	5,460	7,012	3,640	0	0	0
괴산군	26,412	0	26,412	6,388	6,529	6,673	6,822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 내 도시재생 사업은 투자를 시작하여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과 2018년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수행중인 사업은 도시재생 선도 및 일반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시작되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됨.
- 충북 내 수행 중인 사업은 6건으로 총 사업비 8,906억원 중 2018년 이전까지 4,36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4,545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6건	890,573	436,076	454,497	145,167	94,952	39,594	45,124	129,66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49

충북 수행 중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충북은 2018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관련해 7건의 주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총 사업비 2,066억원을 2022년까지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7건	206,612	0	206,612	43,888	46,929	25,673	29,222	60,90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50

충북 신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예산 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도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확립이 필요함.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시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응방안 1)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함.
 - 충북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구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위상을 정립하고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전문 인력 확보 및 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며, 향후 국가사업 지원을 위해서 구군별 지원센터 및 지자체와 연계와 협업이 필요함.

(3) 교육시설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교육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2016년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였음.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 근거법령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가 있으며, 시·도 교육청별로 시설(소방, 전기, 가스 포함), 교통, 유해물질, 기타(급식, 실험실 등) 관련한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점검단 구성하여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함.
- 점검결과는 교육청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우선지원을 통해 시설의 종합적 개선 추진함.

- 충북교육청은 지역중심학교, 안전사고 다발학교, 시설취약(C등급 등) 학교 중 원스톱 점검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 있음.
- 충북교육청은 충북 내 11개 학교시설에 대해 ‘원스톱 점검’을 실시 예정임.

표 5-51

충북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구분	대상학교		점검내용	
세부사항	초등학교(유)	4개소	시설(건축, 소방, 전기, 가스), 교통, 유해물질, 기타분야(실험실 등)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4개소		
	계	11개소		
향후 계획	점검결과를 교육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우선 지원을 통해 시설의 종합적 개선 추진			
예산 (천원)	계	2017	2018	2019
	64,000	28,000	18,000	18,000

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2018)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충북 도청은 2018년에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 1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총 사업비 18억원은 2018년 투자 계획임.

(단위 : 백만원)

표 5-52

충북 신규
교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건	1,810	0	1,810	1,810	0	0	0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충북교육청은 16건의 학교신증설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비 4,640억원을 투자 및 계획하고 있음.

- 충북교육청에서 수행 중인 학교신증설 주요 사업은 총 10건으로 사업비 2,120억원 중 2017년까지 1,16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20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투자 계획이 잡혀 있음.
- 2018년 이후 충북교육청은 6건 학교신증설 주요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5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수행 중인 사업 및 향후 투자 계획인 1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 상태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6건	464,036	116,130	347,906	170,995	91,121	57,180	23,490	5,120	0
수행중	10건	211,950	116,130	95,820	95,820	0	0	0	0	0
계획중	6건	252,086	0	252,086	75,175	91,121	57,180	23,490	5,12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53

충북 학교
신증설사업 예산
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자연재해로 인한 학교 시설물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비를 꾸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경주 지진 등 최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해 이를 예방 및 대비해야 함.
- (대응방안 1) 원스톱 점검의 주기적 활성화를 통해 학교 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학교 안전원스톱 점검의 활성화 및 정기적 점검시행과 결과에 따른 사전 시설 개·보수 추진이 필요함.
 - 점검결과열람과 데이터베이스(DB)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보호 및 사업 규모별 주기적 개·보수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주요이슈 2) 초·중·고등학교 신·이설과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4.

주거 및 교육시설

4.

주거 및 교육시설

- 현재 충북에는 총 126개의 폐교가 있으며, 활용을 추진 중인 미활용 상태의 폐교가 37개(29.4%) 존재함.
 - 충북 내 증가하고 있는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대응방안 2) 도시사업과 폐교를 연계한 개발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사업과 폐교를 연계한 부지확보 및 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기존 폐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및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보수 사업 로드맵 구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수행되어야 함.

5. 산업 및 경제시설

(1) 산업단지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부 사업은 노후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있음.
- 노후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은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함.
- 사업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 고도화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공시설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하며,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에 시행되는 경우 산업기반시설에 대해 일부 보조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후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개량과 확충, 업종 전환, 토지이용계획 개편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임.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 내 현재 준비중, 보상중,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총 35개소 존재함.
- 준비 중인 주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5건으로 파악됨.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주체	사업규모(㎡)	시행자
감곡상우일반산업단지	2008~20	공공(시군구)	75	(주)동인
신천보부산업단지(음성임대)	2009~20	공공(시군구)	145	-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충북경제자유구역)	2013~20	민간	321	충청북도
국사일반산업단지	2014~19	공공(시군구)	956	국가산업단지(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2017~20	공공(공사)	1,494	(주)청주오창 테크노폴리스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8 전국산업단지별 일반현황

표 5-54

충북 준비 중
산업단지 현황

5.

산업 및
경제시설

5.

산업 및 경제시설

표 5-55

충북 조성 중
산업단지 현황

- 조성 중인 주요 산업단지는 23건으로 모두 일반산업단지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주체	사업규모(㎡)	시행사
보은국가산업단지	1987~21	공공(공사)	4,178	(주)한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2007~20	공공(공사)	1,759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상우산업단지[구:감곡]	2005~20	공공(공사)	541	(주)동부하이텍
리노삼봉산업단지	2012~18	공공(공사)	165	리노삼봉산업단지 대표 조찬방
생극산업단지	2011~17	민간	457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충북경제자유구역)	2007~18	공공(시군구)	3,284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오창제3산업단지 [구:성재]	2012~18	민간	576	재민산업개발(주), 명문건설(주)
충주특화기술산업단지 [구:녹색패션]	2009~18	공공(시군구)	202	(주)어반비저스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2014~18	민간	296	충북_충주시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2009~19	공공(공사)	611	동신개발(주)
충주인프라시티산업단지	2016~19	민간	149	(주)충주산업
덕유산업단지	2012~18	민간	60	(주)덕유
유촌산업단지	2014~19	공공(시군구)	411	유촌산업단지(주)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2010~18	공공(공사)	409	서영정밀(주)
영동산업단지	2007~18	공공(시군구)	998	충북_영동군
청주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2002~20	공공(공사)	39	충북_청주시
보은산업단지	2007~18	공공(공사)	1,276	충북개발공사, 충북_보은군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2009~19	공공(시군구)	801	아이쿱소비자 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성안산업단지	2017~18	공공(시군구)	137	(주)성안
송두산업단지	2015~19	공공(시군구)	836	송두산업단지개발(주)
주곡산업단지	2009~16	민/관합작	149	성백건설(주)
화석산업단지	2017~18	공공(공사)	71	한흥건설(주)
충청북도수산식품 산업단지	2014~17	민/관합작	76	충청북도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8 전국산업단지별 일반현황

- 보상 중인 주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7건으로 파악됨.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주체	사업규모(㎡)	시행사
제천 제3산업단지	2012~19	민간	1,089	충북개발공사
강내산업단지	2013~18	공공(공사)	69	(주)동부익스프레스, 현대종합특수강(주)
괴산첨단산업단지	2006~22	공공(시군구)	459	충북_괴산군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2015~19	공공(시군구)	352	충북개발공사, 충북_옥천군
성본산업단지	2013~19	공공(시군구)	1,976	음성태생 일반산업단지(주)
에스폼산업단지	2015~18	민관합작	415	삼목에스폼(주), 에스폼, 동일제강(주)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2016~18	민간	1,044	(주)금왕테크노밸리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18 전국산업단지별 일반현황

표 5-56

충북 보상 중
산업단지 현황

- 충북 내 주요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계획된 사업비는 1조 2,832억원이며, 2017년까지 약 4,492억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7,627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18~22년 충북 산업단지에 대한 연도별 투자 계획은 비교적 균일함.
- 지역별로는 음성군이 2,838억원 규모로 최대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제천시는 125억원 규모로 가장 낮은 수준임.
- 현행 투자 계획과 연계된 사업은 2020~22년 사이 대부분 종료되며, 2023년 이후로는 충북 도청과 음성군에 한해 약 700억원을 투자 예정임.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283,241	449,190	762,718	195,562	212,762	177,738	112,617	64,038	71,333
도본청	204,725	14,890	121,835	13,656	11,919	26,000	30,085	40,174	68,000
청주시	118,839	43,487	75,352	26,124	15,686	17,105	16,438	0	0
충주시	109,200	2,100	107,100	22,200	45,300	39,600	0	0	0
제천시	12,530	1,000	11,530	8,350	3,150	10	10	10	0
보은군	134,696	119,507	15,189	13,394	580	598	618	0	0
옥천군	21,800	21,800	0	0	0	0	0	0	0
영동군	136,313	132,500	3,813	741	752	762	772	783	0
진천군	24,150	3,900	20,250	5,925	4,375	5,575	4,375	0	0
괴산군	177,574	109,336	68,238	30,212	30,526	2,800	2,500	2,200	0
음성군	283,899	570	279,996	69,884	96,951	71,681	33,046	8,434	3,333
증평군	45,452	100	45,352	315	1,000	11,221	22,516	10,301	0
단양군	14,063	0	14,063	4,761	2,523	2,386	2,257	2,136	0

자료 : 충청북도 본청 및 11개 시·군,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57

충북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5.

산업 및 경제시설

5.

산업 및 경제시설

표 5-58

충북 수행 중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충북 내 산업단지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은 크게 2018년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과 2018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2018년 기준 진행 중 사업은 이미 투자를 시작하여 기투자 금액이 존재함. 충북은 23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확장사업, 재상사업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4,49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22년 3,349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3건	787,414	449,190	334,891	111,813	95,761	66,738	43,681	16,899	3,333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2018년부터 시작하는 12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충북은 총 4,9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으며, 2022년 이후 68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사업의 종류로는 단지 조성, 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있음.

(단위 : 백만원)

표 5-59

충북 신규
산업단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2건	495,827	0	427,827	83,749	117,001	111,000	68,936	47,139	68,00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입주 기업이 이탈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 **(대응방안)**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등을 통한 노후 산업단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산업단지를 충청북도형 지역 창조기업의 모태로 재정비하고,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및 공장 등에 대해 노후도, 환경성, 안정성 등을 조사하여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① 제도 및 정책 현황

- 전통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시설 관리와 관련한 주요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등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를 촉진,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전통시장의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기·가스·소방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구분		주요내용
사업개요	점검기간	· 점검기관별 점검일정 추후 시장별 협의·안내
	점검대상	· 전체 전통시장 대상(2~3년 단위 지속적·주기적 점검실시)
	점검기관	· (소방)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서와 공동부분 합동점검 · (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 · (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내용	안전점검 (*전액 국비지원)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법정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 소방(소방서), 전기, 가스 법정점검 통합하여 점검
	안전교육	· 소화설비(소화기 등) 사용법,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 시설물 안전관리 등 상인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은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를 위해 19개 시장에 약 59억 원을 투입함.
- 시설현대화 사업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공급, 노후 부분 교체, 전기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함.

표 5-60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주요 내용

5.

산업 및
경제시설

5.

산업 및 경제시설

표 5-61

충북 전통시장
현대화 현황

- 비용 소요 항목은 신규 공급이 약 77%를 차지하였고, 노후 교체가 20%,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약 3%가 사용함.

(단위 : 천원)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 (비율)
신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케이드 설치 • CCTV설치 • 고객지원시설 설치 • 공연장 조성 • 태양광 사업 등 	4,534,655 (77.1%)
노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케이드 보수 • 전등 교체 • 주차장 공사 • 화장실 등 리모델링 • 바닥정비 	1,176,012 (20%)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시설 보수 • 분전동력반 교체 	172,000 (2.9%)
계		5,882,667

- 2018년 이후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는 1,165억원 수준이며, 청주시는 이미 약 26억원을 기투자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지역별로는 충북 본청의 투자 계획이 약 581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청주시 약 212억원, 제천시 139억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는 상태로 파악됨.
- 현행 투자 계획과 연계된 세부 사업은 20180~22년 동안 수행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 투자계획은 없음.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19,108	2,589	116,519	28,402	21,692	22,177	21,785	22,461	0
도본청	58,068	0	58,068	10,614	11,092	11,590	12,112	12,658	0
청주시	23,768	2,589	21,179	9,939	3,010	2,848	2,732	2,650	0
제천시	13,865	0	13,865	2,585	2,676	2,768	2,866	2,968	0
보은군	6,840	0	6,840	2,908	937	968	998	1,031	0
옥천군	9,528	0	9,528	55	2,300	2,321	2,390	2,462	0
영동군	4,000	0	4,000	2,000	1,000	1,000	0	0	0
증평군	451	0	451	301	30	35	40	45	0
단양군	2,588	0	2,588	0	647	647	647	647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62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충북 전통시장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은 크게 2018년 이전에 이미 투자가 시작된 사업과 2018년부터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은 ‘청주시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상권 활성화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음. 2건에 대한 기투자 금액을 포함한 사업비는 약 48억원 수준이며, 약 26억원을 투입함.
- 2건에 대한 투자계획은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2019년 이후 투자계획은 없음.

(단위 : 백만원)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건	4,789	2,589	2,200	2,200	0	0	0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63

충북 수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기존에 투자 중인 사업 외 2018년부터 투자 계획이 있는 주요 사업은 17건으로 파악되며,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됨. 충북은 17건의 사업 수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음.

5.

산업 및 경제시설

5.

산업 및 경제시설

표 5-64

충북 신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사업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7건	114,319	0	114,319	26,202	21,692	22,177	21,785	22,461	0

자료 : 충청북도 본청 및 11개 시·군,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화로 인해 화재위험에 취약함.

- 충북 내 전통시장은 총 78개소이며, 20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은 74개소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 40년 이상 노후도가 심각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45개소로 전체의 57.7%를 차지함.
- 전통시장은 개별점포로 구성되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고, 재산상 피해액이 과다함. 관리주체가 민간으로 안전점검 후 사후조치를 강제할 수 없어 화재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 (대응방안 1) 전통시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의 강화가 요구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함.
- 2017년 충북은 17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아케이드 등), 화재예방시설 보수,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을 수행함.

- (주요이슈 2) 화재관련 안전(전기·가스·소방)시설 예산이 미약함.

- 2017년도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하는 시장은 19개소이며, 총 투입금액은 약 59억원 수준임.
- 투입 금액 중 화재관련 안전시설(전기·가스·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은 총 2건(제천 중앙시장 화재예방시설 보수, 영동중앙시장 분전동력반 교체 사업)으로 약 1.7억원(약 2.9%)의 비용이 소요됨.

- **(대응방안 2)** 화재관련 안전시설 예산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상인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 화재관련 안전점검 후 전기·가스·소방시설 예산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시설 개선을 수행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 구성(국비 60%, 시·구·군비 30%, 민간 부담 10%)을 고려하여 예산 증가 방안을 고민하고, 증가된 예산을 통해 화재관련 안전시설(전기·가스·소방시설) 사업 확충 방안을 도출함.
 - 화재예방 차원에서 상인들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함.

5.

산업 및 경제시설

6. 기타시설

(1) 문화시설

①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문화시설과 관련한 주요 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세부 시설물별 관련법은 상이함.
- 「문화예술진흥법」,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문화시설의 결정 및 구조, 설치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시설물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세부 시설물별로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장은 「공연법」,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따름.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전시관, 기념관 등)과 관련한 주요 사업의 사업비는 6,091억원 수준이며,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438억원 수준임. 2018년 이후로는 약 5,216억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별로는 충북 본청의 향후 투자 계획이 약 2,623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주시 약 744억원, 진천군 411억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제천시, 영동군은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는 상태로 파악됨.
- 현행 투자 계획과 연계된 주요 사업은 2018~22년 동안 수행될 계획이며, 충북 도청 및 옥천군은 2022년 이후에도 각각 70억원, 368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09,137	43,762	521,573	101,751	128,115	135,431	112,722	43,558	43,802
도본청	262,276	12,151	243,125	29,389	44,511	79,890	70,735	18,602	7,000
청주시	72,826	14,232	58,594	33,837	12,408	9,000	3,350	0	0
충주시	79,005	4,625	74,380	11,478	23,840	18,118	17,604	3,340	0
제천시	0	0	0	0	0	0	0	0	0
보은군	35,818	4,566	31,252	12,466	15,786	3,000	0	0	0
옥천군	75,569	270	38,497	2,800	8,149	9,049	8,500	10,000	36,802
영동군	0	0	0	0	0	0	0	0	0
진천군	44,365	3,233	41,132	1,716	10,000	10,000	10,000	9,416	0
괴산군	7,999	0	7,999	400	2,533	2,533	2,533	0	0
음성군	14,579	1,685	12,894	1,825	7,228	3,841	0	0	0
증평군	6,300	3,000	3,300	3,300	0	0	0	0	0
단양군	10,400	0	10,400	4,540	3,660	0	0	2,20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65

충북 문화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충북 문화시설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은 크게 2018년 이전에 투자가 시작된 사업과 2018년부터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18년 이전 사업이 시작되어 수행 중인 주요 사업은 14건이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902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 충북 도청에서 수행 중인 'BTL전문과학관 지원(제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는 2022년 이후에도 약 307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4건	264,656	43,762	190,164	48,308	55,674	44,111	36,322	5,750	30,73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66

충북 수행 중
문화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2018년부터 투자 계획이 있는 주요 사업은 24건으로 도서관, 문화센터, 과학관, 기념관, 체험관, 복합센터 등을 조성 및 건립하는 사업들이 있음.
- 충북은 24건의 사업 수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3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 이후에도 약 131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임.

6.

기타시설

6.

기타시설

표 5-67

충북 신규
문화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4건	344,481	0	331,409	53,443	72,441	91,320	76,400	37,808	13,072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노후 문화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지관리시스템 부재로 체계적 유지관리가 어려움.
 - 노후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향후 사전대책 마련이 미흡할 수 있음.
- **(대응방안 1)**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기준 마련 및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시설물의 안정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주요이슈 2)**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미약함.
 -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 중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예산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보조율이 낮아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순위에서 밀려나 있음. 또한, 대부분의 문화시설 인프라 관련 예산이 건립이나 시설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리모델링이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 **(대응방안 2)**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시설 추진이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기존 노후화된 문화시설을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하여 문화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중심체로서의 역할 부여가 필요함.

사업명	사업내용	2017년 예산 (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 정부지원	국비 보조율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 · 생활문화공간 조성	6,630	8,040	3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490	500	50%
	·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및 활성화 지원	160	160	100%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매뉴얼(안) 재구성

표 5-68

도시재생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

(2) 체육시설

①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체육진흥재원은 국고(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체육단체⁵¹⁾로 구성됨.
- 정부의 체육부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0.03% 내외로 비중
에 매우 낮으며,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은 1조 3,190억원으로 국고의 약 9.9배 수
준이며,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예산(조)	349.0	355.8	384.7	386.7	400.7
체육예산(억원)	1,715	1,486	1,342	1,355	1,337
정부 예산 대비 비중(%)	0.05	0.04	0.03	0.04	0.03

자료 : 울산발전연구원 (2018) 재인용

표 5-69

정부예산 대비
체육예산(국고)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고(억원)	1,715	1,486	1,342	1,355	1,337
국민체육진흥기금(억원)	8,799	8,951	11,605	13,000	13,190
국고 대비 국민체육진흥기금 규모(%)	83.7	85.8	89.6	90.6	90.8

자료 : 울산발전연구원 (2018) 재인용

표 5-70

체육예산(국고,
체육기금) 현황

-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로 구분됨.
-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함.

51) 체육단체 : 대한체육회 및 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 자체 수입 예산, 국민생활체육회, 시군구 생활체육회, 자체수입 예산 등

6.

기타시설

6.

기타시설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이용하여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함. 준공 20년이 경과한 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나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추후 일정은 미정임.
- 공공체육시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5-71

공공체육시설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시설유형		목표	예산지원 기준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군기본 체육시설	운동장	지자체의 사업 요청 시 검토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체육관	지자체의 사업 요청 시 검토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지역발전 특별회계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자체의 사업 요청 시 검토지원	국고 30%, 지방비 70%
체육기금	국민 체육 센터	일반	인구 50만 이상 사·군·구 단위 1개소 확충	개소당 27~33억원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장애인	시도단위에 1개소 확충	개소당 50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

② 사업 및 투자 현황

- 충북 체육시설(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등)과 관련한 주요 사업의 사업비는 8,812억원 수준이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기투자 금액은 약 477억원 수준임.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약 1,956억원의 투자 계획이 있음.
- 지역별로는 청주시의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이 약 1,07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증평군 300억원, 충주시 194억원의 투자 계획이 있음.
- 충북 도청,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은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는 상태로 파악됨.
- 현행 투자 계획과 연계된 주요 사업은 2018~22년 동안 수행될 계획이며, 청주시는 2022년 이후에도 약 6,379억원을 체육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지역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881,204	47,692	195,612	43,112	51,748	44,600	36,152	20,000	637,900
도본청	0	0	0	0	0	0	0	0	0
청주시	764,810	19,867	107,043	20,543	18,500	26,000	22,000	20,000	637,900
충주시	34,520	15,085	19,435	3,735	10,900	4,800	0	0	0
제천시	0	0	0	0	0	0	0	0	0
보은군	5,334	0	5,334	4,334	1,000	0	0	0	0
옥천군	0	0	0	0	0	0	0	0	0
영동군	0	0	0	0	0	0	0	0	0
진천군	0	0	0	0	0	0	0	0	0
괴산군	3,000	3,000	0	0	0	0	0	0	0
음성군	15,000	0	15,000	600	4,400	5,000	5,000	0	0
증평군	30,000	0	30,000	3,600	8,448	8,800	9,152	0	0
단양군	28,540	9,740	18,800	10,300	8,500	0	0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72

충북 체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공공 재원을 활용한 충북 체육시설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은 2018년 이전 투자가 시작된 사업과 2018년부터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2018년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수행 중인 주요 사업은 10건이 있으며, 관련 사업비 약 7,606억원 중 약 477억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2018년 이후에도 2022년까지 약 751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 청주시는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2022년 이후에도 6,379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0건	760,690	47,692	75,098	16,598	8,500	10,000	20,000	20,000	637,90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73

충북 수행 중
체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 기존에 투자 중인 사업 외 2018년부터 투자 계획이 있는 주요 사업은 12건임.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종합운동장 조성 및 건립을 목적으로 함.
- 충북은 12건의 사업 수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 이후 투자 계획은 없는 상태임.

6.

기타시설

6.

기타시설

표 5-74

충북 신규
체육시설 관련
사업 예산 계획

(단위 : 백만원)

건수	총 사업비	기투자	투자 계획					향후	
			소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12건	120,514	0	120,514	26,514	43,248	34,600	16,152	0	0

자료 :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③ 현안 및 대응방향

- (주요이슈 1) 체육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점검 체계 수립이 필요함.
 - 체육시설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한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진설계 및 구조 보강 등의 사전 안전 점검이 필요함.
- (대응방안 1) 체육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유지 및 관리 시스템 수립이 필요함.
 - 기존의 노후화 여부만 판단하는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 유지 및 관리를 통해 부족한 재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
- (주요이슈 2)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이 미약함.
 -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응방안 2) 체육시설 관련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대규모 체육시설의 경우 지방비만으로 시설확충이 어려우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검토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제6장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설문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본 설문조사는 충북 도민이 체감하는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인프라 시설물의 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에 대한 평가 외에 충북 지역 내 인프라 정책 평가, 재원 확보 방안,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함께 수행함.
 -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은 인프라 시설 전체에 대한 평가와 세부시설물 별로 조사함.
 - 인프라 정책 평가, 재원 확보 방안,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설문은 충북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전체 평가를 진행함.
- 충북 도민 중 총 50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비, 연령, 지역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음.
 - 본 설문조사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 동안 온·오프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함.
 - 표본추출은 2017년 12월 총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를 모집단으로 시·군·구별 층화추출을 통해 표본(약 500개)을 설정함. 연령별 분포는 2차 층화추출의 어려움으로 보조적 비율로서 활용함.
 - 설문 응답자 구성은 남성 패널 268명(약 52.7%), 여자 패널 241명(47.3%)으로 구성됨.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연령별로는 20대 72명(약 14.1%), 30대 175명(약 34.4%), 40대 174명(약 34.2%), 50대 66명(약 13.0%), 60대 22명(약 4.3%)으로 분포됨.
- 지역별 분포는 청주시가 290명(약 57.0%)으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였으며, 충주시 72명(약 14.1%), 제천시 47명(약 9.2%) 순으로 나타남.

표 6-1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정보

구분		사례수	비율(%)
계		509	100.0
성별 분포	남자	268	52.7
	여자	241	47.3
연령별 분포	20대	72	14.1
	30대	175	34.4
	40대	174	34.2
	50대	66	13.0
	60대	22	4.3
거주지역 분포	청주시	290	57.0
	충주시	72	14.1
	제천시	47	9.2
	보은군	6	1.2
	옥천군	18	3.5
	영동군	7	1.4
	증평군	13	2.6
	진천군	25	4.9
	괴산군	9	1.8
	음성군	21	4.1
	단양군	1	0.2

- 충북 내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Likeret Scales)를 활용함.
- 설문 항목별(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 등)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리커트 척도를 적용함.

표 6-2

설문항목
평가기준

구분	1	2	3	4	5
성능수준	전혀 우수하지 않다	우수하지 않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중요도	전혀 밀접하지 않다	밀접하지 않다	보통이다	밀접하다	매우 밀접하다
노후도 및 안전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투자수준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2. 설문 결과 분석

(1) 교통시설

① 성능수준 평가

-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4개 세부 시설물의 성능수준에 대한 인식은 철도가 평균 2.79로 가장 낮았으며, 공항 및 교량(3.06), 도로(3.12) 순으로 조사됨.
- 충북 도민은 도내 철도시설에 대해 보통(3.00)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량, 공항, 도로시설의 경우 보통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함.

구분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평균	3.12	3.06	2.79	3.06

- 시설물별 성능수준에 대해 보통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교량이 69.8%로 가장 높았으며, 도로 64%, 철도 60.5%, 공항 45.6%로 조사됨.
- 공항 및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각각 31.8%와 19.4%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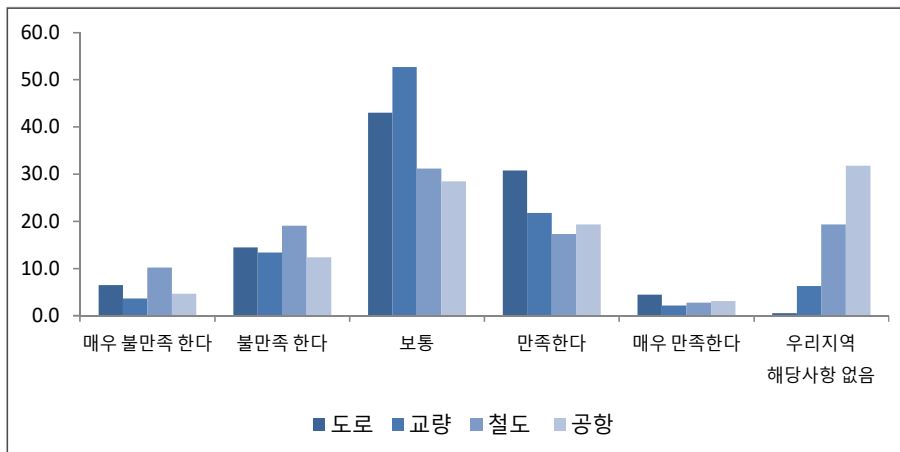


표 6-3

교통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그림 6-1

교통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2.
설문 결과
분석

2.

설문 결과 분석

② 중요도 평가

- 인프라 시설물 중요도 평가는 시설물이 지역 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교통시설 중에서는 도로시설의 중요도가 3.94로 가장 높았으며, 공항 3.74, 철도 3.72, 교량 3.42로 보통(3.00)보다 높게 파악됨.
- 도로의 지역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도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교량의 경우 지역 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3.40,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3.4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표 6-4

교통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구분	도로	교량	철도	공항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3.95	3.40	3.74	3.79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3.92	3.43	3.70	3.68
중요도(평균)	3.94	3.42	3.72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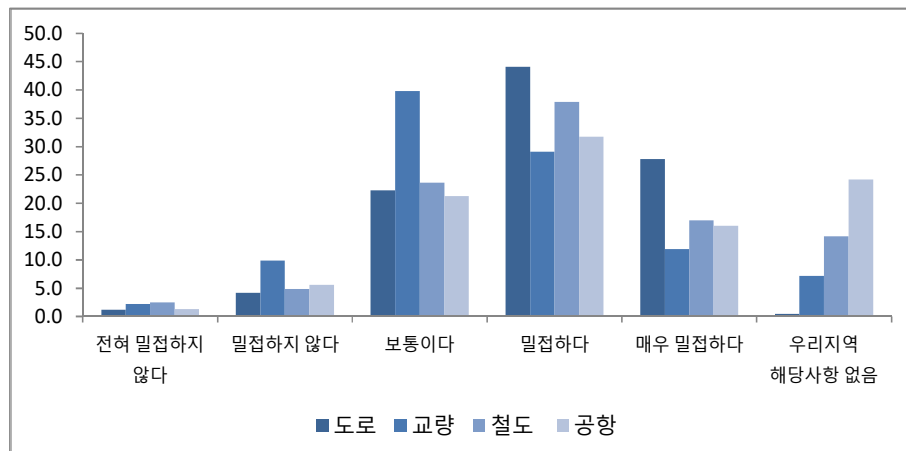
주 : 중요도는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도의 평균값

- 시설물별 중요도에 대해 ‘밀접하다’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은 도로 71.9%, 철도 54.9%, 공항 47.8%, 교량 41% 순으로 나타남. 충북 도민은 도로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공항과 철도의 경우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각각 24.2%와 14.2%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6-2

교통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③ 노후도 및 안전도 평가

- 교통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공항 3.26, 철도 3.20, 도로 3.16, 교량 3.12로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평균	3.16	3.12	3.20	3.26

표 6-5

교통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 시설물별 노후도 및 안전도가 ‘보통이다’ 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도로 68.7%, 교량 68.4%, 철도 57.2%, 공항 45%로 나타남.
- 공항과 철도의 경우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각각 31%와 17.5%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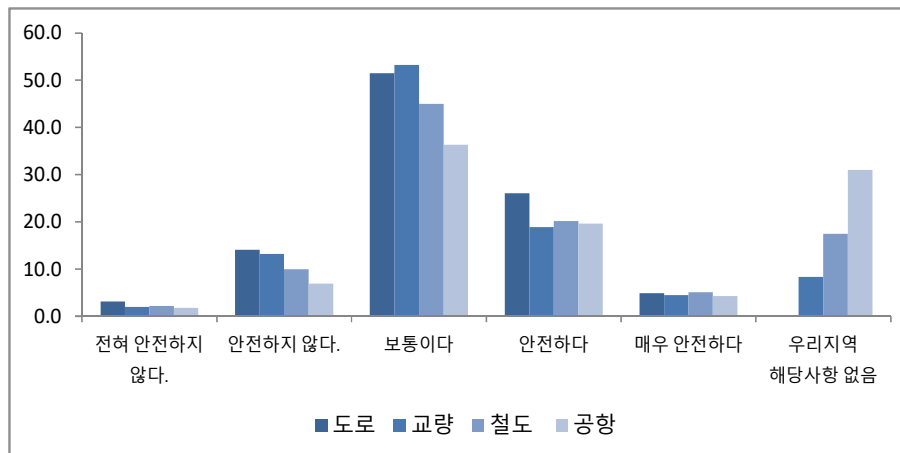


그림 6-3

교통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④ 투자수준에 대한 평가

- 정부의 교통시설 투자 수준에 대한 인식은 세부 시설물별로 도로 3.72, 철도 3.64, 교량 3.44, 공항 3.43으로 파악됨. 교통시설 전반에 대해 정부의 투자 필요성은 ‘보통이다(3.00)’ 이상으로 집계됨.

2.

설문 결과
분석

2.

설문 결과 분석

표 6-6

교통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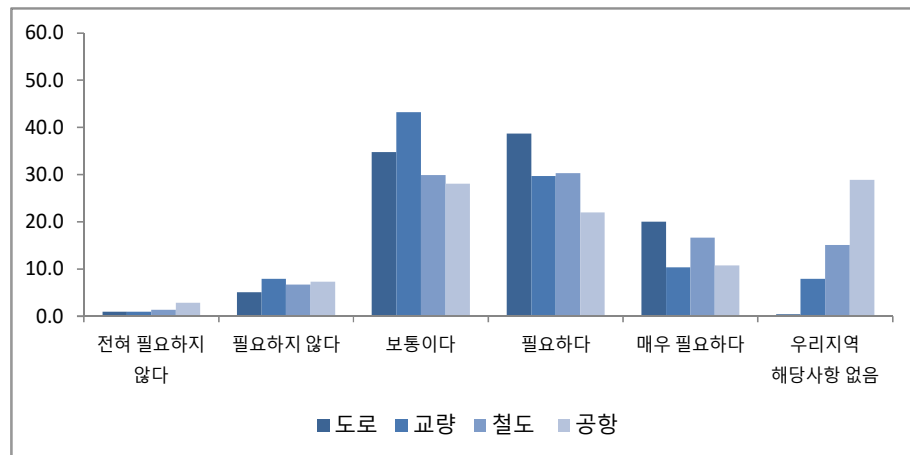
구분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평균	3.69	3.37	3.20	3.50

- 시설 투자 필요성을 ‘필요하다’ 이상으로 답변한 비율을 살펴보면 도로 58.7%, 철도 47% 교량 40.1%, 공항 32.8% 순으로 조사됨.
- 공항과 철도의 경우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각각 28.9%와 15.1%로 높게 집계됨.

(단위 : %)

그림 6-4

교통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2)물관리시설

① 성능수준 평가

- 물관리시설에 해당하는 4개 세부 시설물의 성능수준에 대한 인식은 재해방지시설이 2.68로 가장 낮았으며, 댐 및 저수지 3.16, 하수도 3.25, 상수도 3.31 순으로 조사됨.

- 재해방지시설의 경우 보통 수준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수도, 하수도, 댐 및 저수지는 보통(3.00)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6-7

물관리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구분	상수도	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댐 및 저수지
평균	3.31	3.25	2.68	3.16

- 시설물별 성능수준에 대해 ‘보통이다’ 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재해방지 시설 83%, 하수도 62.5%, 상수도 59.3%, 댐 및 저수지 59.3%로 조사됨. 재해방지시설 성능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됨.
- 댐 및 저수지의 경우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13.6%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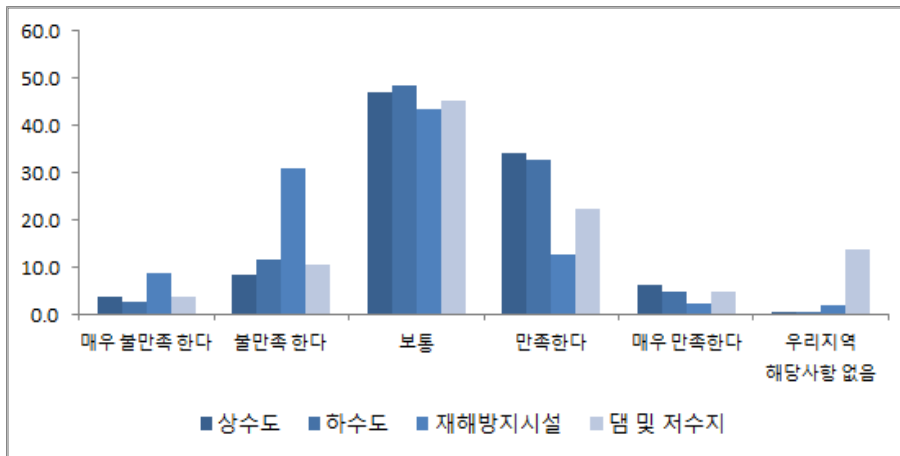


그림 6-5

물관리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② 중요도 평가

- 물관리시설은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댐 및 저수지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재해방지시설의 중요도는 3.70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재해방지시설의 중요도가 3.8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상수도 3.81, 하수도 3.78, 댐 및 저수지 3.33 순으로 파악됨.

구분	상수도	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댐 및 저수지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3.78	3.72	3.80	3.32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3.84	3.83	3.83	3.33
중요도(평균)	3.81	3.78	3.82	3.33

표 6-8

물관리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 시설물별 중요도가 ‘밀집하다’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은 상수도 64.5%, 재해방지시설 64.4%, 하수도 62.5%, 댐 및 저수지 36.7% 순으로 나타남.

2.

설문 결과
분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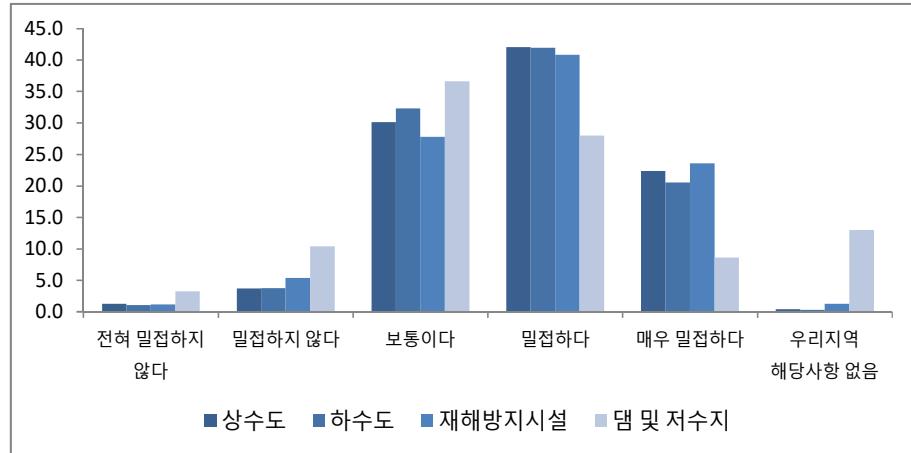
설문 결과 분석

그림 6-6

물관리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 댐 및 저수지의 경우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13%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③ 노후도 및 안전도 평가

- 물관리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상수도 3.26, 하수도 3.21, 댐 및 저수지 3.08, 재해방지시설 2.96 순으로 집계됨.
- 상수도, 하수도, 댐 및 저수지는 보통(3.00) 수준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해방지시설물의 경우 보통 수준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음.

표 6-9

물관리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구분	상수도	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댐 및 저수지
평균	3.26	3.21	2.96	3.08

- 시설물별 노후도 및 안전도가 보통 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재해방지시설 75.2%, 하수도 68%, 상수도 64.9%, 댐 및 저수지 61.5%로 나타남. 대부분의 물관리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도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댐 및 저수지의 경우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16.1%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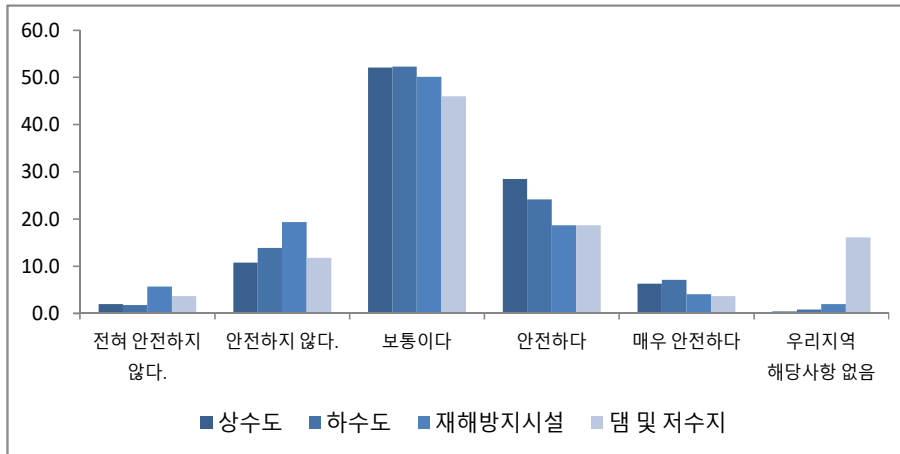


그림 6-7

물관리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④ 투자수준 평가

- 정부의 물관리시설 투자수준에 대한 인식은 재해방지시설 3.88, 상수도 3.67, 하수도 3.64, 댐 및 저수지 3.29로 파악됨.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인식은 ‘필요하다(4.00)’ 수준에 근접하게 나타남.

구분	상수도	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댐 및 저수지
평균	3.63	3.61	3.87	3.24

표 6-10

물관리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 시설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재해방지시설 68%, 상수도 56%, 하수도, 55%, 댐 및 저수지 31.9% 순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투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방지 및 침수저감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댐 및 저수지 경우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도가 14.7%로 높게 나타남.

2.

설문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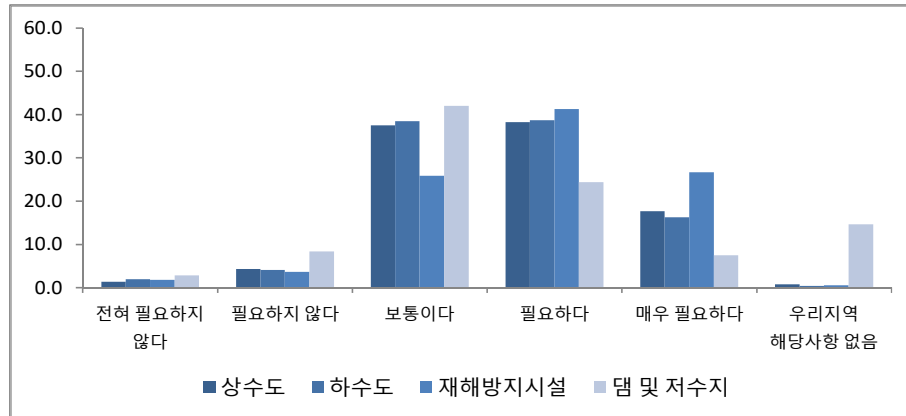
2.

설문 결과 분석

그림 6-8

물관리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단위 : %)



(3) 주거 및 교육시설

① 성능수준 평가

- 주거 및 교육시설의 성능수준에 대한 인식은 교육시설 3.28, 주거시설 3.23으로 조사됨.

• 주거 및 교육시설은 보통(3.00)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6-11

주거 및 교육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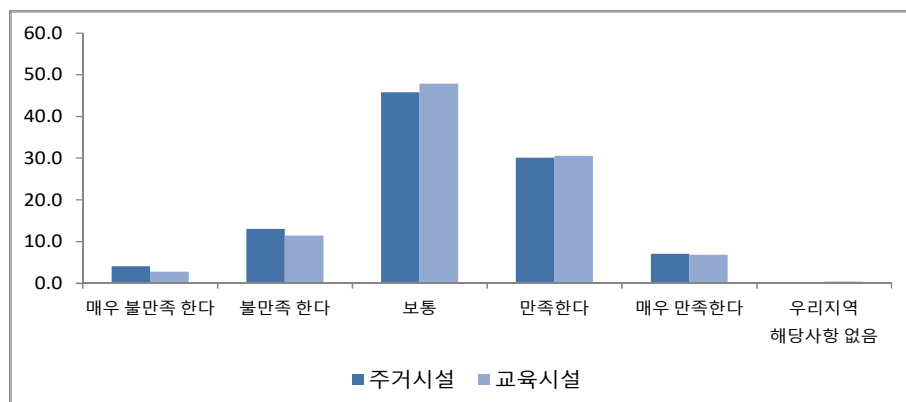
구분	주거시설	교육시설
평균	3.23	3.28

• 성능수준에 대해 보통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주거시설 62.9%, 교육시설 62.1%로 조사됨.

(단위 : %)

그림 6-9

주거 및 교육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② 중요도 평가

- 주거 및 교육시설은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주거시설의 중요도는 3.91, 교육시설의 중요도는 4.02로 타 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시설물별 중요도가 ‘밀접하다’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은 교육시설 75.7%, 주거시설 70.9%로 매우 높게 나타남.

구분	주거시설	교육시설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3.88	3.98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3.94	4.06
중요도(평균)	3.91	4.02

표 6-12

주거 및 교육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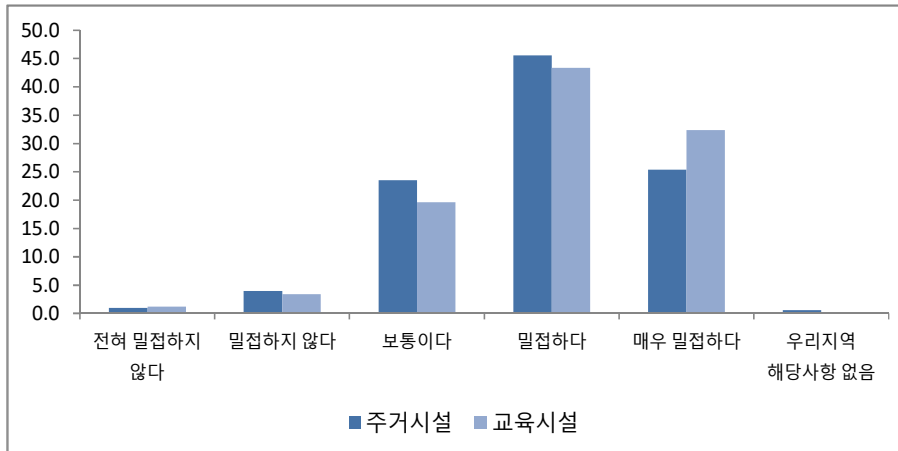


그림 6-10

주거 및 교육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③ 노후도 및 안전도 평가

- 주거 및 교육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교육시설 3.29, 주거시설 3.20로 집계됨. 두 시설물 유형 모두 보통(3.00)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노후도 및 안전도가 ‘보통이다’ 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주거시설 68.4%, 교육시설 62.5%로 나타남.

2.

설문 결과
분석

2.

설문 결과 분석

표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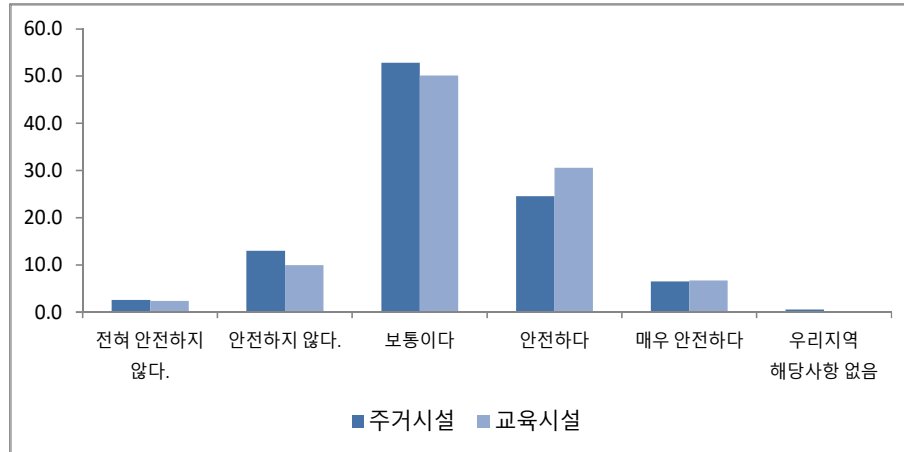
주거 및 교육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그림 6-11

주거 및 교육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구분	주거시설	교육시설
평균	3.20	3.29

(단위 : %)



④ 투자수준 평가

- 주거 및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수준 인식은 교육시설 3.75, 주거시설 3.65로 ‘보통이다(3.00)’와 ‘필요하다(4.00)’ 사이로 파악됨.

표 6-14

주거 및 교육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구분	주거시설	교육시설
평균	3.65	3.75

-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교육시설이 60.3%, 주거시설이 53.9%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높은 수준이었음.
- 특히 ‘매우 필요하다(5.00)’라고 응답한 의견도 교육시설 21.6%, 주거시설 18.9%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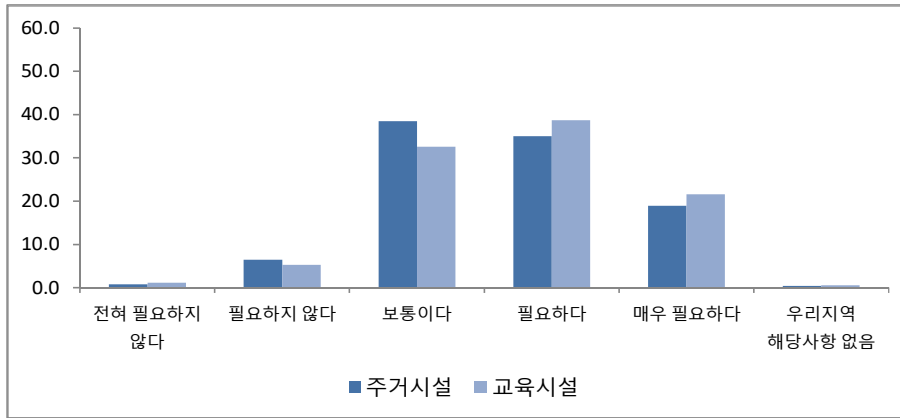


그림 6-12

주거 및 교육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4) 산업 및 경제시설

① 성능수준 평가

- 산업 및 경제시설의 성능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통시장 3.09, 산업 및 물류시설 2.96로 평가됨.
- 성능수준에 대해 보통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산업 및 물류시설 70.2%, 전통시장 66.2%로 조사됨.

구분	산업 및 물류시설	전통시장
평균	2.96	3.09

표 6-15

산업 및 경제시설
성능수준 설문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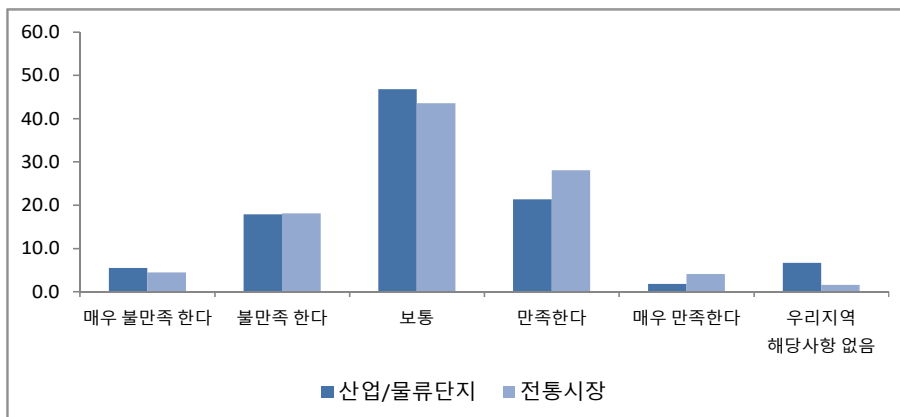


그림 6-13

산업 및 경제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2.

설문 결과
분석

2.

설문 결과 분석

② 중요도 평가

- 산업 및 경제시설의 중요도는 산업 및 물류시설 3.55, 전통시장 3.50으로 평가됨.
- 산업 및 물류시설의 지역경쟁력에 미치는 중요도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은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
- 시설물별 중요도가 ‘밀접하다’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은 산업 및 물류시설 51.2%, 전통시장 48.3%로 나타남.

표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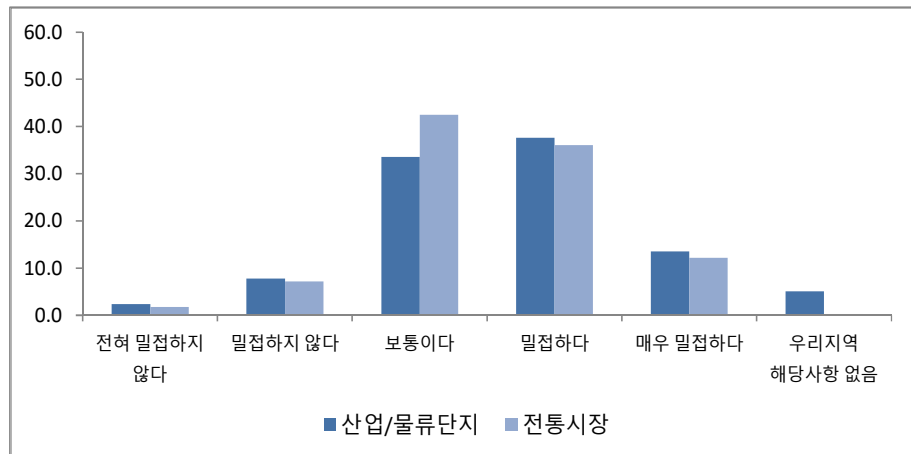
산업 및 경제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구분	산업 및 물류시설	전통시장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3.62	3.50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3.48	3.50
중요도(평균)	3.55	3.50

그림 6-14

산업 및 경제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단위 : %)



③ 노후도 및 안전도 평가

- 산업 및 경제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산업 및 물류시설 3.11, 전통시장 3.10으로 집계됨. 두 시설물 유형 모두 보통(3.00)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 노후도 및 안전도가 보통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전통시장 70.8%, 산업 및 물류시설 67.9%로 높게 나타남.

구분	산업 및 물류시설	전통시장
평균	3.11	3.10

표 6-17

산업 및 경제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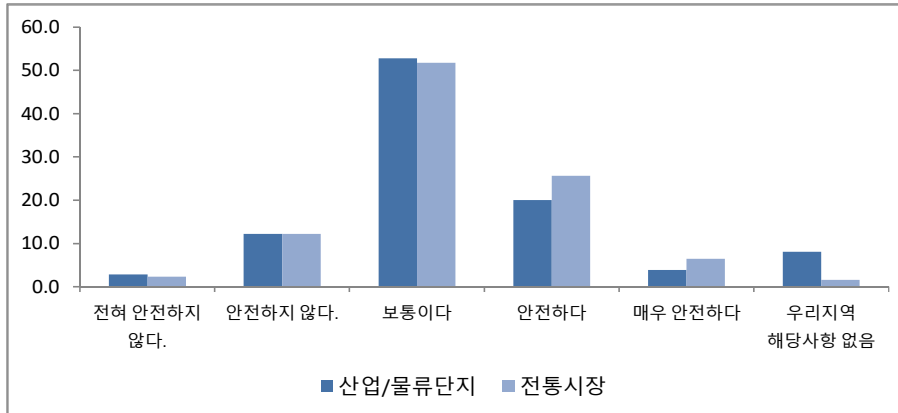


그림 6-15

산업 및 경제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④ 투자수준 평가

- 산업 및 경제시설 투자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통시장 3.50, 산업 및 물류시설 3.46으로 파악됨.
- 시설물에 대한 투자 수준이 '필요하다(4.00)'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은 전통시장 47.6%, 산업 및 물류시설 43.2%로 집계됨.

구분	산업 및 물류시설	전통시장
평균	3.46	3.50

표 6-18

산업 및 경제시설
투자수준
설문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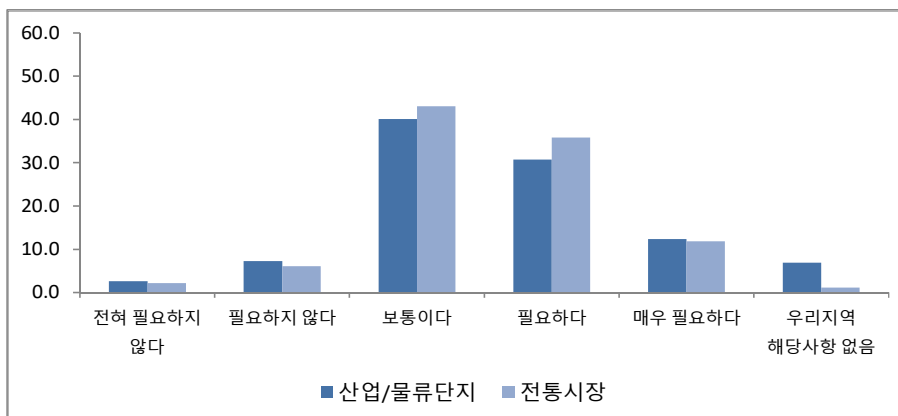


그림 6-16

산업 및 경제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2. 설문 결과 분석

2.

설문 결과 분석

(5) 기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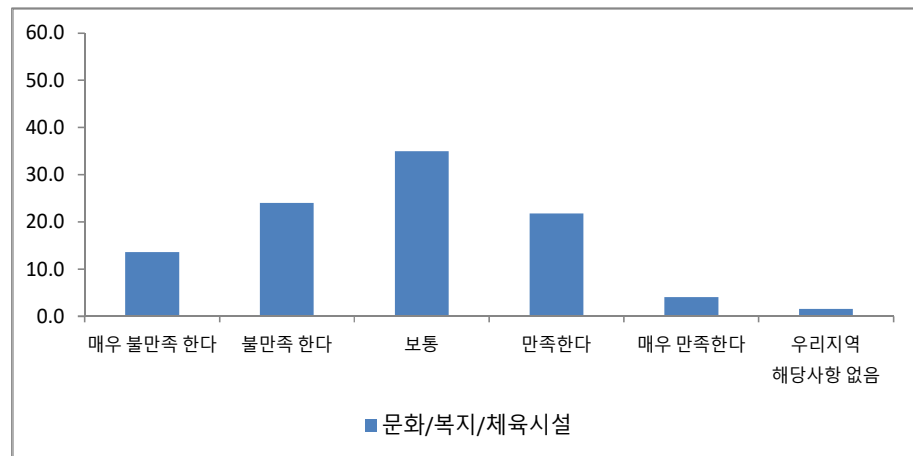
① 성능수준 평가

- 충북 내 설문을 수행한 기타시설은 문화/복지/체육시설이 해당하며, 성능수준에 대한 인식은 2.79로 보통(3.00) 수준 이하로 조사됨. 성능수준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72.6%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그림 6-17

문화/복지/체육
시설 성능수준
설문 응답 비율



② 중요도 평가

- 문화/복지/체육시설의 중요도는 3.98로 타 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와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중요도가 '밀접하다'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은 75.2%로 높게 나타남.

표 6-19

문화/복지/체육
시설 중요도
설문 결과

구분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중요도(평균)
평균	3.97	3.99	3.9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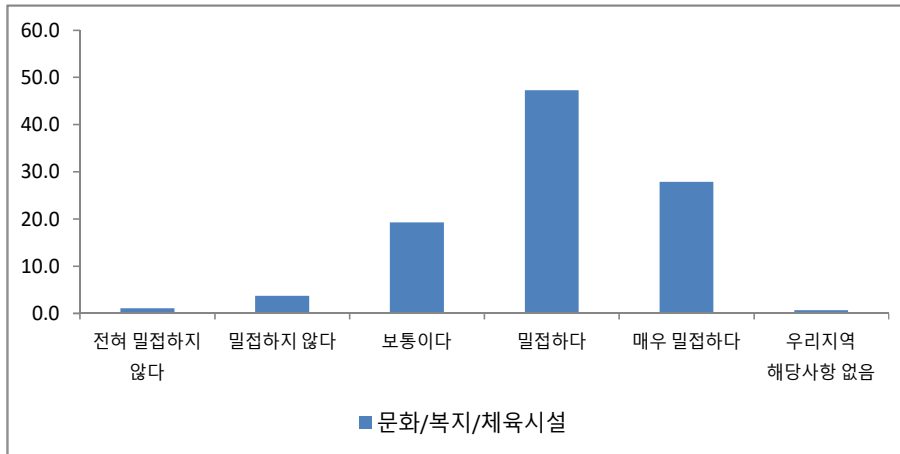


그림 6-18

문화/복지/체육
시설 중요도
설문 응답 비율

③ 노후도 및 안전도 평가

- 문화/복지/체육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3.22로 보통(3.00)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노후도 및 안전도가 보통이하로 평가된 비율(%)은 66.3%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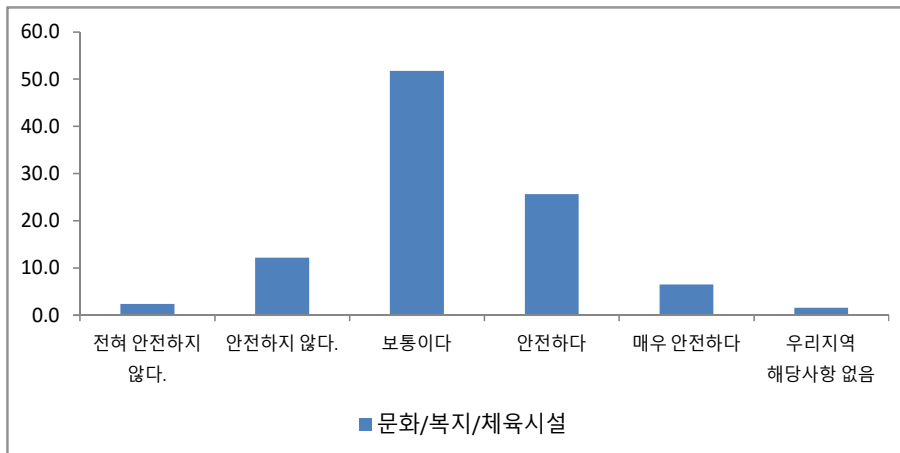


그림 6-19

문화/복지/체육
시설 노후도 및
안전도
설문 응답 비율

④ 투자수준 평가

- 문화/복지/체육시설 투자수준에 대한 인식은 3.90으로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됨.

2.

설문 결과
분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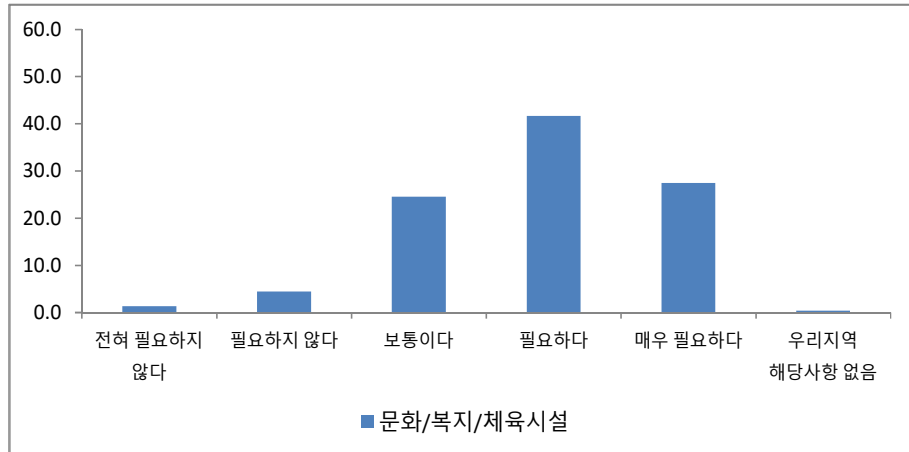
설문 결과 분석

그림 6-20

문화/복지/체육
시설 투자수준
설문 응답 비율

- 시설물에 대한 투자수준이 ‘필요하다(4.00)’ 이상으로 평가된 비율(%)은 69.2%로 조사되어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단위 : %)



(6) 기타설문 결과

① 인프라 정책 평가

- 충북의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정책과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통(3.00)보다 낮은 평균 2.87로 조사됨.
- 정책 및 제반 활동에 대해 ‘보통이다’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85.3%(보통 58.5%)로 매우 높게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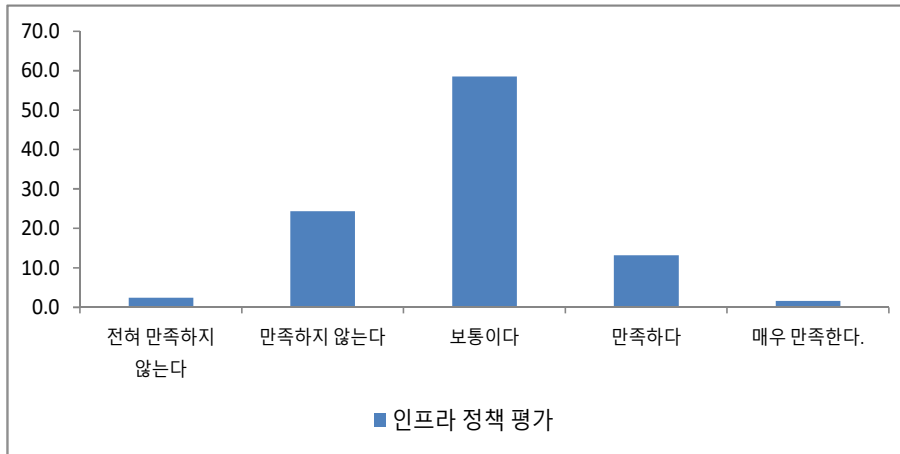


그림 6-21

인프라 정책 및
제반 활동
설문 응답 비율

② 재원확보 방안 평가

- 충북의 주요 인프라 시설물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재원 확보 방안
에 대한 의견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민간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는 18.7%, '지방세수 증가를 통한 지자체의 자
체 재원 확보'는 13.0%, '기존 예산 내 인프라 투자의 비중 확대'는 12.8%
로 집계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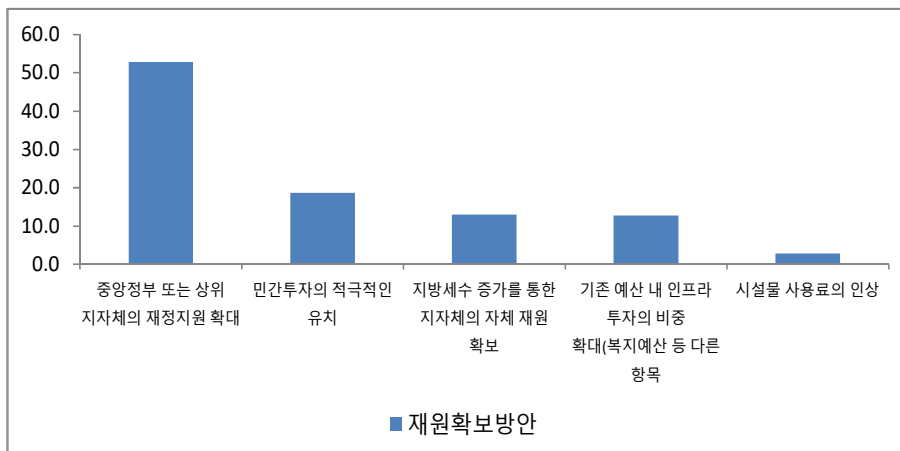


그림 6-22

재원확보방안
설문 응답 비율

2.

설문 결과
분석

2.

설문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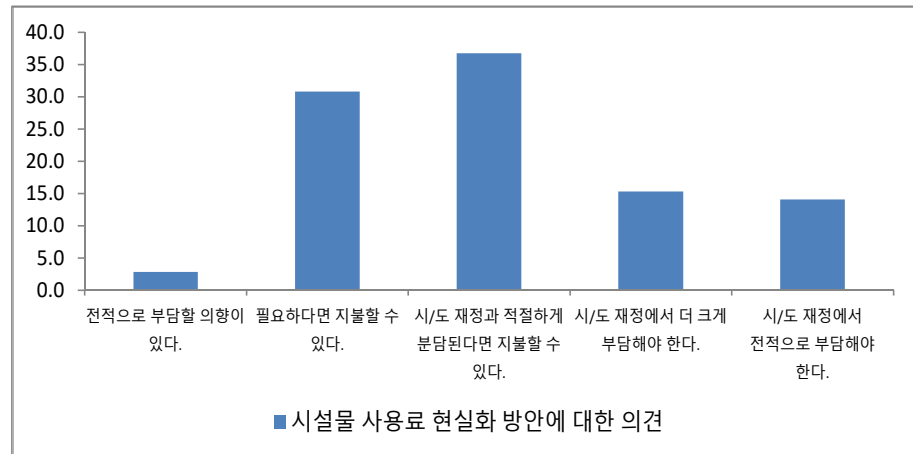
③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 평가

- 충북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고속도로 톨비 등)에 대한 의견은 '시/도 재정과 적절하게 분담된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의견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필요하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의견이 30.8%, '시/도 재정에서 더 크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15.3%, '시/도 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 순으로 집계됨.

(단위 : %)

그림 6-23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
설문 응답 비율



3. 시사점

① 설문 결과 요약

- 설문조사를 수행한 13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중요도,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을 비교해보면, 성능수준은 중요도와 비교하여 낮게 평가되었으며, 안전도 및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됨.

구분	중요도	성능수준	노후도	투자수준
도로	3.94	3.12	3.16	3.72
교량	3.42	3.06	3.12	3.44
철도	3.72	2.79	3.20	3.64
공항	3.74	3.06	3.26	3.43
상수도	3.81	3.31	3.26	3.67
하수도	3.78	3.25	3.21	3.64
재해방지시설	3.82	2.68	2.96	3.88
댐 및 저수지	3.33	3.16	3.08	3.29
주거시설	3.91	3.23	3.20	3.65
교육시설	4.02	3.28	3.29	3.75
산업 및 물류시설	3.55	2.96	3.11	3.46
전통시장	3.50	3.09	3.10	3.50
문화/복지/체육시설	3.98	2.79	3.22	3.90

표 6-20

충북 주요 시설물
설문결과 비교

- 중요도 : 13개 주요 시설물 중 교육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복지/체육시설(3.98), 도로(3.94), 주거시설(3.91), 재해방지시설(3.82), 상수도(3.81), 하수도(3.78) 시설 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됨. 댐 및 저수지에 대한 중요도는 3.33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성능수준 : 상수도 성능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3.31로 가장 높았으며, 재해방지시설이 2.68로 가장 낮게 평가됨. 철도(2.79), 문화/복지/체육시설(2.79), 산업 및 물류시설(2.96)은 성능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됨.
- 노후도 및 안전도 : 교육시설(3.29), 공항(3.26), 상수도(3.26) 등에 대한 노후도 및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재해방지시설의 경우 2.96으로 주요 시설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3.

시사점

- 투자수준 : 시설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문화/복지/체육시설이 3.90으로 가장 높았으며, 댐 및 저수지에 대한 투자(3.29)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②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는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중요도에 대한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를 비교하여 도출함.
 - 중요도와 현 성능수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신규 인프라 투자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 중요도와 노후도 및 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노후 인프라 투자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인프라 시설의 중요도 대비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는 낮게 나타남.
 - 13개 주요 시설물 전체에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투자 우선순위 파악은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수요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었음.
- 충북 13개 주요 시설물의 ‘중요도-성능수준’ 분석 결과는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신규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함.
 - 4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현 성능수준이 낮은 시설물로 신규 인프라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문화/복지/체육시설, 재해방지시설이 해당됨.
 - 1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중요도와 현 성능수준이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그룹으로 투자 우선 순위가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판단함. 상수도, 하수도, 교육시설, 주거시설, 도로가 해당됨.
 - 3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중요도와 현 성능수준이 모두 평균값보다 낮은 그룹으로 3순위 시설물 유형으로 볼 수 있음. 산업 및 물류단지, 철도가 해당함.
 - 2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현 성능수준이 중요도보다 높은 그룹으로 가장 투자 우선순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댐 및 저수지, 교량, 전통시장, 공항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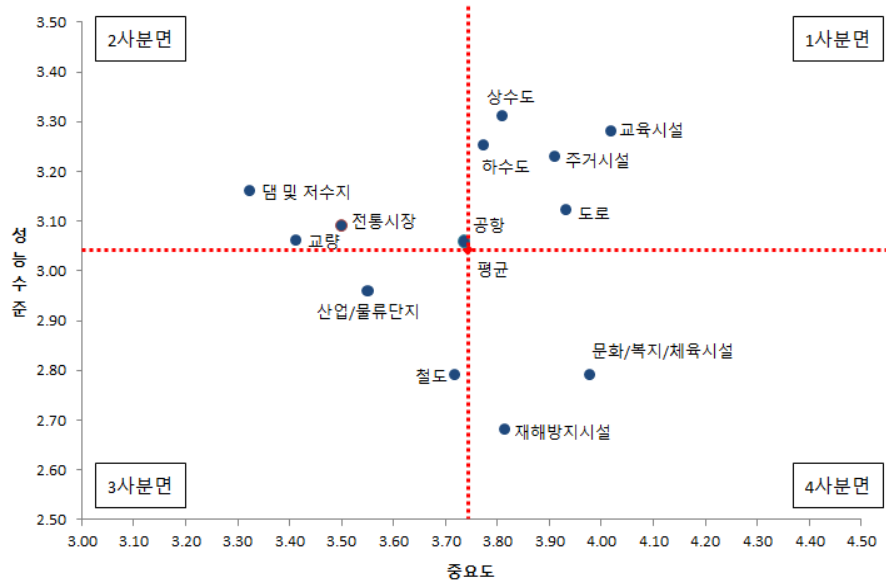


그림 6-24

주요 시설물
'중요도-성능수준'
분석 결과

- 충북 13개 주요 시설물의 '중요도-노후도 및 안전도' 분석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이 노후 투자 우선 순위를 제시함.
 - 4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요도는 높으나 노후도 및 안전도가 취약한 시설물로 노후 인프라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재해방지시설, 도로가 해당함.
 - 1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중요도와 노후도 및 안전도가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그룹으로 2순위 시설물 유형으로 볼 수 있음. 상수도, 하수도, 교육시설, 주거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이 해당됨.
 - 3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중요도와 노후도 및 안전도가 모두 평균값보다 낮은 그룹으로 3순위 시설물 유형으로 볼 수 있음. 댐 및 저수지, 교량, 전통시장, 산업 및 물류단지가 해당됨.
 - 2사분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노후도 및 안전도 수준이 중요도보다 높은 그룹으로 가장 후순위 시설물 유형으로 볼 수 있음. 공항 및 철도가 해당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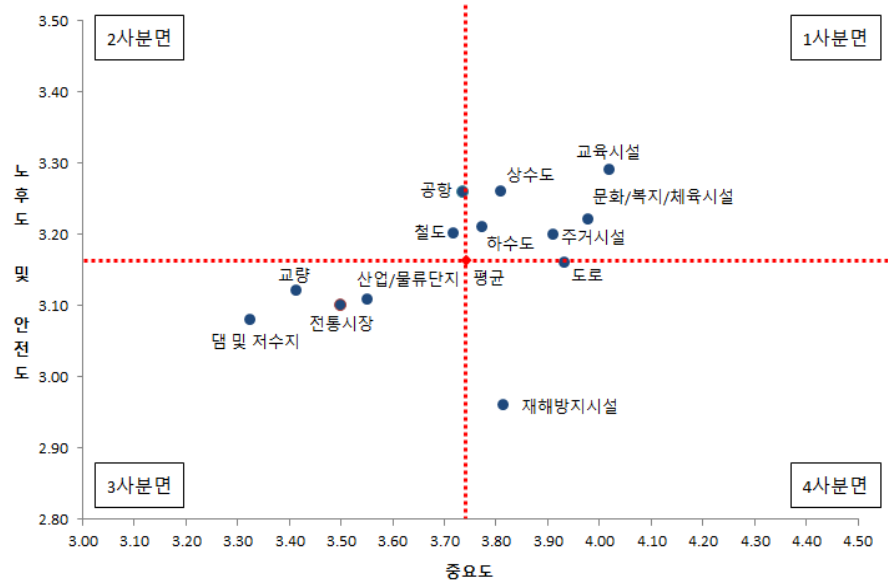
시사점

3.

시사점

그림 6-25

주요 시설물
'중요도-노후도
및 안전도' 분석
결과



제7장 충청북도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와 정책과제

1. 충북 인프라 투자방향

- 충북 인프라 투자는 지역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의 삶에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과거 인프라 투자방향은 지역 경쟁력 강화가 지역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여 수립됨.
 -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정비례하여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 방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충북 도민은 설문조사 결과 인프라 투자가 지역 경쟁력보다 개인 삶의 질에 보다 밀접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향후 충북 인프라 투자는 이러한 니즈를 고려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509명의 설문 대상자 중 63.3%가 인프라 투자는 삶의 질 제고와 연관성이 높다고 응답함.
 -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설물 유형으로는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침수저감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도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관심이 높음을 나타냄.
- 인프라 시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1.

충북 인프라 투자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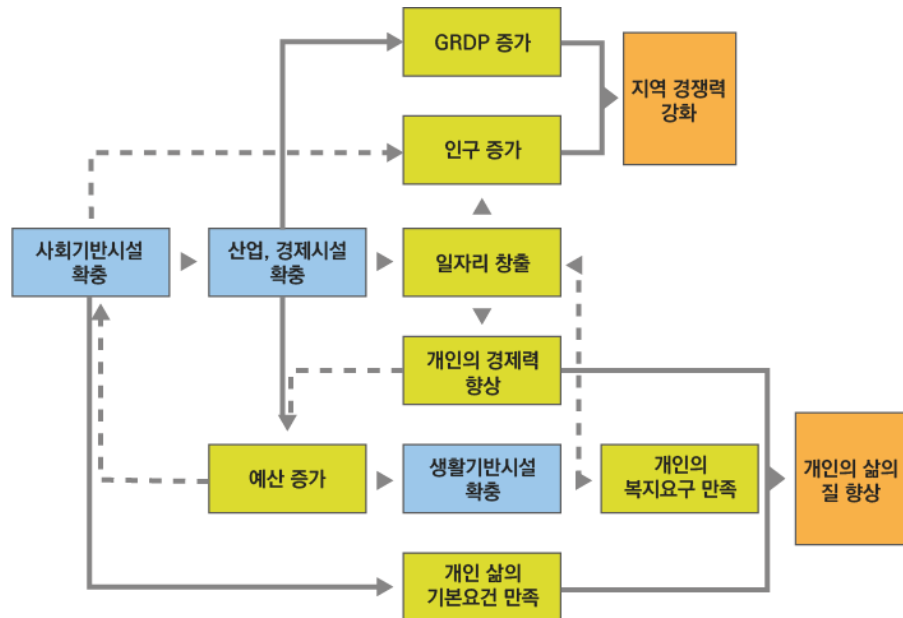
1.

충북 인프라 투자방향

-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지역의 산업 및 경제시설 유치에 초석이 되어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개인 삶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산업 및 경제시설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은 개인의 복지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개인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높은 수준의 생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은 인구 증가 등을 유인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그림 7-1

인프라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개인 삶의 질 향상
간의 관계



- 한편 제한된 예산 내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전략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인프라 현황 및 실태 조사, 충북 도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연구를 통해 주요 신규 인프라 사업과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충북 인프라 투자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함.
- 신규 인프라 사업은 인프라 과부족에 대한 실태조사, 중앙 정부 및 충북의 주요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하였으며, 지역민의 설문 결과를 함께 반영함.

-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인프라 노후화 및 안전도 조사, 관련 정책 방향, 전문가 의견, 지역민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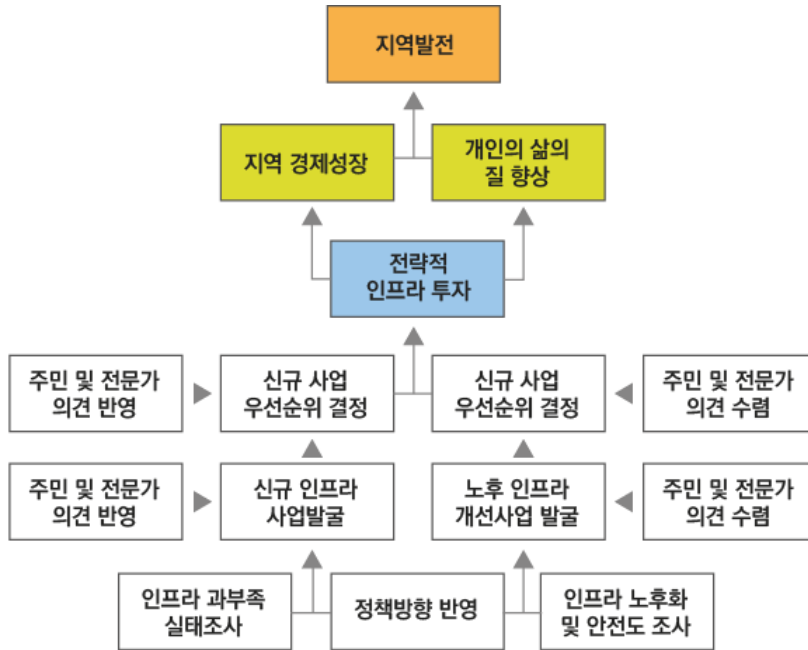


그림 7-2

충북 인프라 투자
방향 도출 과정

1.

충북 인프라 투자방향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 충북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프라 실태 분석 및 투자정책 진단을 토대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과 신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구분하였음.
- 주요 프로젝트 대상 사업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업무계획, 국가 상위 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충북 지자체 내부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 자료 입수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기재하였음.
- 본 장에서 제시한 각 사업의 계획된 소요 예산은 충북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및 정책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신규 인프라 투자 사업

1) 교통시설

① 도로

- 충북은 도로 노선 및 지역 간 연결성, 포장률, 미개통률, 지역 특색(공항 등) 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및 지방도, 시도 및 군도에 대한 사업을 계획함.
- 국지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의 경우 다수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2018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을 위주로 정리함(기투자 여부를 통해 수행 중인 사업 제외).
- 고속도로 등의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사업, 공구, 구간은 제외함(구체적 내용이 파악되는 경우에 한함).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년)과 관련하여 4개 사업(고속도로 확장 1, 신설 3)을 추진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약 3조 3,847억원으로 예상됨.

유형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확장	중부(남이~호법) 확장	10,002 (사업비 1구간 6,456, 2구간 3,5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78.5km 대통령 공약사업('17.05) 4->6차로 확장 기재부 타재 중
신설	동서 4축(공주~청주)	8,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20.1km 예타반영 협의 중
신설	동서 5축(오창~증평)	3,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8.5km 예타반영 요청 계획
신설	동서 6축(제천~영월)	11,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30.8km 예타반영 요청 계획
계		33,847	-

표 7-1

충북 고속도로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 충북은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3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단기 및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약 2조 1,641억원으로 예상됨.

유형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확장	중부내륙 고속도로 확장 (여주~충주)	2,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26.6km 국가계획 반영 추진
신설	괴산~제천 고속도로 신설	15,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39.2km 국가계획 반영 추진
건설	세종~청주권 BRT 도로건설	4,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28.8km(4->6차로) 국가계획 반영 추진
계		21,641	-

표 7-2

충북 고속도로
사업 발굴(안)

- 충북 내 국도는 제1,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추진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약 1조 5,892억원이며, 총 11개 공구 중 여덟 공구가 공사 중 또는 2018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임.
- 실시설계 및 설계 보완 중 공구는 세 공구이며, 사업비는 1,337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됨.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3

충북 국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유형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신설	제1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1공구	2,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총 연장 57.6km1공구 공사중2, 3공구 총 사업비 협의 중4공구 실시설계 중
		2공구	2,006	
		3공구	1,616	
		4공구	633	
신설	제2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1공구	2,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총 연장 69.7km1~5공구 공사 중 또는 완료6, 7공구 보완설계 중
		2공구	490	
		3공구	1,168	
		4공구	526	
		5공구	3,250	
		6공구	424	
		7공구	280	
계			총 사업비 15,892 (1,33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설계 중 공구 사업비(제1사업 4공구, 2사업 6, 7공구) 1,337억원

- 국지도와 관련하여 충북은 2018년 이후 3건의 확포장 사업을 수행중이며, 2건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 충북이 계획하고 있는 2건의 국지도 확포장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1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됨.

표 7-4

충북 국지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본청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706	-
도본청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	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이후 139억원 투자 계획
계		1,125	-

- 충북은 11건의 주요 지방도 사업을 수행 중이며, 2018년 이후 12건의 주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계획 중인 12건의 지방도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4,974억원이 소요될 계획임.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2022년 이후 투자)
도본청	가금-가흥 지방도확포장공사	760	• 670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소매-길선 지방도확포장공사	360	• 300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무성-이목 지방도확포장공사	490	• 400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음성-신내IC 지방도확포장공사	840	• 750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맹동-대소 지방도확포장공사	620	• 530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내송-내곡 지방도확포장공사	181	• 116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대사-내송 지방도확포장공사	994	• 678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하시-상괴간 지방도확포장공사	177	• 59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평산-세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	115	• 74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지동-부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	197	• 65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초정-증평 지방도확포장공사	190	• 60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공사	50	-
계		4,974	-

표 7-5

충북 지방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 충북 내 시도 및 군도의 경우 24건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15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2018년 이후 계획 중인 15건의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955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파악됨.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단양군	군도건설사업	163	-
충주시	하이패스IC~갈동교차로간 도로개설	80	-
증평군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	25	-
청주시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148	• 2022년 이후 10억원 투자 계획
청주시	삼산-덕암간 도로확포장공사	97	-
청주시	석화-대길간 도로확포장공사	62	-
청주시	시목-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	54	-
충주시	중앙탑가흥(군도11호선) 도로확포장	23	-
충주시	살미향산(군도5호선) 도로확포장	30	-
보은군	수정-금굴간 군도확포장사업	60	-
옥천군	월전리 군도확포장공사	40	-
영동군	영동군 군도확포장	90	-
진천군	궁골~논실간 군도확포장	35	-
단양군	영춘면의풍리 군도확포장사업	28	-
단양군	의풍리(군도14호선) 도로확포장사업	20	-
계		955	-

표 7-6

충북 시·군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7

충북 교량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② 교량

- 충북 단양군은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신규 교량 가설사업(하현천대교)을 계획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약 2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단양군	하현천대교가설사업	257	-

③ 철도

- 충북 내 수행 중인 주요 철도 사업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중앙선(제천~원주, 도담~영천),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철도 종합 시험선 구축 사업이 있음.
- 중앙선 사업과 철도 종합 시험선 구축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계획 사업에서 제외함.
- 충북 내 철도 사업 중 착공 전 사업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있음.
-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조 9,4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1, 2단계 사업이며, 현재 1단계 사업 추진 중임.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업비만 반영함.

표 7-8

충북 철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사업명	내용	구간	사업비(억원)	비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준고속 철도사업	청주공항~주덕, 52.7km	7,102	• 예비타당성 조사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복선, 56.1km	천안~청주공항	8,216	• 기본설계 중
충청권 광역철도	35.2km	계룡~신탄진	2,107 (총 사업비 11,708 중 1단계 사업비)	• 기본계획 수립
	대전조차 장~옥천	-	2,000	• 철도망계획 추가선정
계			19,425	-

- 충북은 향후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복선전철, 대전~옥천 복선전철, 영동 광역철도,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사업을 건의하여 국가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명	내용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현황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	39,000	2019-2031	-
대전-옥천	대전-옥천	복선전철 (20.2km)	227	2017-2021	사업 건의중
영동 광역철도	옥천-영동	30km	2,000	2025-2035	-
중부선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단선철도	10,000	2019-2031	-
계			51,227	-	-

표 7-9

충북 철도 신규 사업 발굴(안)

④ 공항

- 공항의 경우, 청주국제공항 소형 계류장 신설 사업(90억원)이 국토부 별도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의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수행 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조기 완공된다면 화물 및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임.
- 중부권 중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계획이 필요함.

2) 물관리시설

① 상수도

- 충북은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총 12건의 주요 사업 계획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4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종류로는 용수개발사업, 상수도 공급 및 보급사업, 급수 신설공사 등이 있음.
- 충북 도청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1,615억원으로 가장 크나,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10

충북 상수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본청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15	2022년 이후 562억원 투자 계획
충주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공급사업	50	-
충주시	지방상수도(급배수관) 시설 확충	53	-
충주시	충주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66	-
제천시	급수 신설공사	77	-
보은군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3	-
옥천군	상수도보급	59	-
옥천군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보조)	142	-
옥천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134	-
음성군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51	-
단양군	마을상수도 시설확충	81	-
단양군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109	-
계		2,470	-

② 하수도

- 하수도 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총 13건의 향후 주요 사업 계획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6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종류로는 긴급공사,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사업 등이 있음.

표 7-11

충북 하수도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청주시	시내일원 하수도 긴급공사	22	-
청주시	산성동 성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5	-
청주시	하수처리장확충 (강내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64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중앙탐하가흥하수처리시설증설	6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가정하수처리장증설	2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별묘하수처리장증설	20	-
옥천군	(옥천군)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4	-
옥천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차)	71	-
옥천군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7	-
옥천군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2	-
옥천군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5	-
옥천군	음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	142	-
영동군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궁촌,매금)(보조)	60	-
계		632	-

③ 침수저감

- 충북 내 재해 및 침수저감과 관련한 주요 신규 인프라 사업은 총 2건이며, 총 사업비는 219억원이 계획되어 있음.
- 사업 종류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배수지 신설 사업이 있음.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본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0	-
청주시	울량배수지신설공사(2단계)	69	-
계		219	-

표 7-12

충북
침수저감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④ 댐 및 저수지

- 충북은 3개 저수지(독동·조동·가평저수지)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130억원을 계획하여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음.
- 2017년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의 시행계획수립을 위해 49억원을 소요함.
- 2018~19년 공사 추진 예정이며, 잔여 사업비 81억원을 소요 예정임.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본청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130 (기투자 제외 81억원)	• 2017년 설계 및 행정절차 수행 : 기 투자 49억원

표 7-13

충북 댐·저수지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3) 주거 및 교육시설

① 교육시설

- 충북 내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충북 도청은 2018년 이후 1건의 국공립어린이 집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업을 수행하고 충북 교육청은 2018년 이후 9건의 학교 신증설 계획이 있음.
- 충북 내 교육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2,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됨.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14

충북 교육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분청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22	-
교육청	두촌유치원 신설	76	-
교육청	동남1초등학교 신설	262	-
교육청	호암초등학교신설	272	-
교육청	대소원2초등학교신설	302	-
교육청	솔밭2초등학교신설	600	-
교육청	청원2초등학교신설	381	-
교육청	오송2초등학교신설	303	-
교육청	부윤2초등학교 신설	256	-
교육청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	407	-
계		2,881	-

4) 산업 단지

- 충북에서 추진 중 또는 계획 중인 주요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사업은 6개소이며, 6개 산업단지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조 7,372억원으로 집계됨.
- 본 사업들은 2013년 이후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착공 전으로 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등의 단계에 있음.
-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는 소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한계가 있어 총 사업비를 반영함.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본청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	1,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발주 상태 시행자1 : 충주시(50%) 시행자2 : 충북개발공사(50%) 사업기간 2014~21
도본청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통령 공약사업)	37,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공약사업 타당성검토 최종보고 상태 민자 사업 오송 3조 4,184억원 충주 3,520억원 사업기간 2017~26
도본청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	2,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예정 사업기간 2016~23
도본청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2,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사업기간 2017~21
도본청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수립 및 승인 신청 사업기간 2018~22
도본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상반기 개발계획 변경 (2차) 승인 고시 사업기간 2013~20
계		47,372	-

표 7-15

충북 산업단지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5) 기타시설

① 문화시설

- 충북은 도 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2018년 이후 약 17건의 문화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충북은 계획하고 있는 17건의 신규 문화시설 건립 및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약 5,318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16

충북 문화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본청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82	-
도본청	가경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	126	-
도본청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1,203	-
도본청 청주시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905	-
청주시	가경지구 도서관건립	133	-
도본청 충주시	서충주 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131	-
충주시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	450	-
충주시	충주 시립미술관 건립	20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 (보조)	56	-
보은군	법주사성보박물관 건립 사업	180	-
도본청 괴산군	군립공공도서관 건립	160	-
옥천군	어린이 생태문학체험관 조성사업(보조)	96	-
옥천군	생태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보조)	256	• 2022년 이후 131억원 투자 계획
진천군	문예회관 건립	400	-
증평군	복합문화시설 조성	18	-
단양군	우탁생가재현및우탁시조 문학관 건립	44	-
단양군	감성메모리얼 뮤지엄 조성사업	58	-
계		5,318	-

② 체육시설

- 충북은 도 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18년 이후 총 12건의 체육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1건의 대형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계획 중인 12건의 사업 및 추진 중인 1건에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8,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이미 1억원을 기 투자하여 사업을 수행 중임.
 -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6,900억원으로 체육시설의 투자 계획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청주시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6,900	2022년 이후 6379억원 투자 계획
청주시	영운정수장 내 수영장 건립	200	-
청주시	가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110	-
청주시	내수야구장 조성사업	91	-
청주시	오창야구장 조성사업	70	-
충주시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	55	-
보은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53	-
음성군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	150	-
증평군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300	-
단양군	단양골프연습장조성사업(이전)	40	-
단양군	단양국궁장조성사업(이전)	60	-
단양군	상진배드민턴장건립사업	19	-
단양군	단양 생태체육공원 내 축구장 건립사업	12	-
계		8,060	-

표 7-17

충북 체육시설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6) 신규 인프라 투자 사업 종합

- 상기 시설물별 신규 인프라 사업의 건수 및 투자 소요예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시설유형		사업 개수		총 소요예산 (억원)	
		시설별	소계	시설별	소계
교통 시설	도로	38	47	63,879	134,878
	교량	1		257	
	철도	7		70,652	
	공항	1		90	
물관리 시설	상수도	12	28	2,470	3,402
	하수도	13		632	
	침수저감	2		219	
	댐·수리시설	1		81	
주거 및 교육시설	교육시설	10	10	2,881	2,881
산업 및 경제시설	산업단지	6	6	47,372	47,372
기타 시설	문화시설	17	30	5,318	13,378
	체육시설	13		8,060	
소계		121		201,911	

표 7-18

충북
신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집계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노후 인프라 투자 사업

1) 교통시설

① 도로

- 충북 내 노후화된 국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노후 도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
- 충북 내 향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은 5개로 파악되며: 총 사업비 2,048억원이 예상됨.

표 7-19

충북 국도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번호	구간	공사비 (억원)	용지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계
511	신대리~진암리	587	42	71	700
599	탑평리~가흥리	134	27	15	176
329	대사리~내송리	534	412	49	995
532	하시리~상괴리	148	10	19	177
계		1,403	491	154	2,048

- 충북은 노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에 대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노후 포장도 보수’, ‘지방도 유지보수’, ‘비포장도 정비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충북은 계획 중인 노후 도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004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 7-20

충북 노후도로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도본청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45	-
도본청	노후 포장도 보수	1,327	-
도본청	지방도 유지보수	274	-
도본청	비포장도 정비사업	158	-
계		2,004	-

② 교량

- 충북 내 도로 교량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할 때, 현재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B, C 등급의 교량이 다수 존재함.

- 충북은 강산교 재가설 사업을 수행 중이고, 복현교 및 범암교 재가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복현교 및 범암교 재가설 공사에 계획되어 있는 총 사업비는 52억원임.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억원)	비고
청주시	복현교 재가설공사 (B등급, 2002 준공)	32	-
음성군	범암교 재가설공사	20	-

표 7-21

충북 교량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물관리시설

① 상수도

- 충북 내 상수도의 노후도 및 안전도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은 21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4,943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상수도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으로는 충북 도청에서 2018년 이후 수행 예정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04억원 규모임.
 - 지역별로는 노후급수관 개선, 수도시설 개량,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 개량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중 2022년 이후 85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2022년 이후 28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22

충북 상수도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도본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04	2022년 이후 857억원 투자 계획
도본청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49	2022년 이후 28억원 투자 계획
청주시	수도시설 정비사업	70	-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보조사업)	55	-
충주시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	42	-
제천시	상수도 시설공사 및 개량사업	462	-
제천시	마을상수도 개량	65	-
제천시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교체)(보조)	26	-
보은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보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	354	-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보조)	236	-
옥천군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86	-
옥천군	유수율 제고사업(보조)	24	-
영동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121	-
진천군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50	-
괴산군	마을상수도 정비	216	-
괴산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28	-
괴산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309	-
음성군	소규모시설 개선사업	28	-
음성군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27	-
단양군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	426	-
단양군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265	-
계		4,943	-

② 하수도

- 충북은 하수도 및 관로의 노후도 및 안전도 개선을 위해 17건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총 사업비는 3,1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하수도 노후 인프라 사업으로는 청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29억원 수준임.
 - 사업의 종류는 하수관로 개선 및 정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개량,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 계획임.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하수관로 개선공사	25	-
청주시	청주 구도심 도심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사업	260	-
청주시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575	-
청주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사업	329	-
청주시	하수관로 정비 (내수읍구성리 하수관로정비사업)	5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 (가덕면상대리 하수관로정비사업)	6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 (정봉동~평동 하수관로정비사업)	230	-
청주시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1029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금가하수관로정비	25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엄정하수관로정비	24	-
제천시	하수도 정비사업	185	-
보은군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31	-
보은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은하수관거정비)	40	-
보은군	하수관로 정비	9	-
옥천군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조)	76	-
옥천군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54	-
영동군	영동읍(오정,회동,양정,부용) 하수관로정비사업	34	-
계		3,148	-

표 7-23

충북 하수도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③ 침수저감

- 재해방지 및 침수저감과 관련하여 충북은 11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총 사업비는 1,2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됨.
- 사업의 종류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이 있음.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도본청	배수개선사업	325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7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5	-
충주시	양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2	-
옥천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조)	260	-
보은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오덕지구)	150	-
영동군	재해위험지역 정비(각계지구)(보조)	60	-
음성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신천)	160	-
단양군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	12	-
단양군	재해위험지구 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84	-
단양군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도비)	22	-
계		1,227	-

표 7-24

충북
침수저감시설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④ 하천

- 하천의 종류는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되며, 하천 관련 노후 인프라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충북 내 국가하천과 관련한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은 4건으로 총 사업비 2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청주시에서 수행 계획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9억원으로 충북 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7-25

충북 국가하천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청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09	
충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	30	
영동군	국가하천 유지보수(보조)	56	
단양군	국가하천 유지관리	8	
계		203	-

- 지방하천과 관련한 주요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으며, 계획된 총 사업비는 4,464억원으로 집계됨.
- 충북 본청은 25개 지방하천 및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25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3,965억원 수준임.
- 충북 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022년 이후 총 사업비 중 1,993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 2018년 이후 5년간 충북 도청에서 수행하는 정비사업 예산은 1,972억원 수준임.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도본청	지방하천정비사업 (25건)	3,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방천 문방지구 • 한포천 한포지구 • 미호천 선정지구 • 원박천 원박지구 • 대전천 괴산지구 • 거현천 거현지구 • 석화천 석화지구 • 중초천 중초지구 • 초강천 용암지구 • 보강천 증평지구 • 삼봉천 삼봉지구 • 장평천 두화지구 • 고명천 고명지구 • 달천 산외지구 • 오덕천 오덕지구 • 양정천 양정지구 • 달천 후평지구 • 향건천 향건지구 • 음성천 음성지구 • 구룡천 괴산지구 • 관평천 관평지구 • 병천천 환희지구 • 용두천 용두지구 • 덕암천 덕암지구 • 구룡천 청주지구 • 2002년 이후 25개 사업에 대해 1993억원 투입 계획
청주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77	-
증평군	지방하천 유지관리	4	-
제천시	지방하천유지관리	55	-
단양군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보조)	11	-
보은군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52	-
계		4,464	-

표 7-26

충북 지방하천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 충북 내 소하천과 관련한 주요 사업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으며, 총 24건을 계획하고 있음.
- 소하천 주요 사업의 총 사업비는 3,0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충북 도청에서 수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1,138억원으로 가장 높음.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27

충북 소하천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도본청	소하천 정비사업	1,138	-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	128	-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	64	-
제천시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320	-
보은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7	-
옥천군	소하천 자체정비사업	89	-
옥천군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191	-
영동군	소하천 정비(보조)	111	-
영동군	소하천 정비	60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오정천)(보조)	8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수리남이천)(보조)	30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어서실천)(보조)	24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소계천)(보조)	26	-
영동군	소하천 유지관리	25	-
제천시	소하천 유지관리	55	-
제천시	소하천 보수사업	32	-
음성군	소하천 정비사업	285	-
진천군	소하천 정비사업(자체)	92	-
단양군	소하천관리	17	-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보조)	35	-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	13	-
보은군	소하천 정비사업	131	-
괴산군	소하천 정비(자체)	106	-
괴산군	밀재 소하천 정비	68	-
계		3,075	-

⑤ 댐 및 수리시설

- 댐 및 수리시설과 관련하여 충북 내 계획되어 있는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은 11건으로 댐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정비 사업이 있음.
- 11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9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됨.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청주시	댐주변 정비사업	27	-
도봉청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86	-
도봉청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	192	-
청주시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7	-
청주시	소규모수리시설 정비	30	-
옥천군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1	-
옥천군	보양보 개보수사업	36	-
영동군	수리시설 정비사업	107	-
증평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	18	-
단양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	13	-
단양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	-
계		997	-

표 7-28

충북 댐·수리시설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3) 주거 및 교육시설

- 충북은 지난 2017년 12월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 4건에 대해 2020~22년까지 사업 수행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청주시에 2곳, 충주시 1곳, 제천시 1곳으로 분포되어 있음.
- 선정된 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청주시), 우리동네 살리기형(제천시), 주거지 지원형(충주시), 일반근린형(청주시)이 있음.
- 충북에서 향후 수행할 4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1,762억원으로 계획됨.

지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2018~22	8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보조 150 • 부처연계 109 • 지방비 381 • 공공기관 203 • 민간 6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2018~21	6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보조 50 • 지방비 34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2018~21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보조 100 • 지방비 67 • 민간 1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2018~20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보조 99.6 • 부처연계 308 • 지방비 253.4
합계		-	1,762	-

표 7-29

충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 계획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2.

지역 핵심 프로젝트

표 7-30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4) 산업 및 경제시설

- 산업 및 경제시설 중 주요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음.
- 충북은 10건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약 790억원으로 예상함.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도보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8	-
청주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23	-
제천시	전통시장시설현대화(보조)	54	-
보은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7	-
옥천군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	95	-
영동군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	40	-
단양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6	-
도보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269	-
제천시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보조)	28	-
보은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0	-
계		790	-

5) 노후 인프라 투자 사업 종합

- 상기 시설물별 노후인프라 투자 소요예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7-31

충북
노후 인프라 사업
투자 계획 집계

시설유형		사업 개수		총 소요예산 (억원)	
		시설별	소계	시설별	소계
교통 시설	도로	8	10	4,052	4,104
	교량	2		52	
물관리 시설	상수도	21	118	4,943	18,057
	하수도	17		3,148	
	침수저감	11		1,227	
	하천	58		7,742	
	댐·수리시설	11		997	
주거 및 교육시설	도시재생	4	4	1,762	1,762
산업 및 경제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	10	790	790
소계		142		24,713	

3. 총괄 집계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설물별 신규 및 노후 사업의 투자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규모는 22조 6,624억원임.
- 사업 특성별 : 신규사업 20조 1,911억원, 노후개선사업 2조 4,713억원
- 시설물별로는 교통시설이 61.3%(13조 8,982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산업 및 경제시설(21.2%),물관리시설(9.5%), 기타시설(5.9%), 주거 및 교육시설(2.1%) 순임.
- 도로 및 철도 관련 사업 발굴 (안)과 관련한 사업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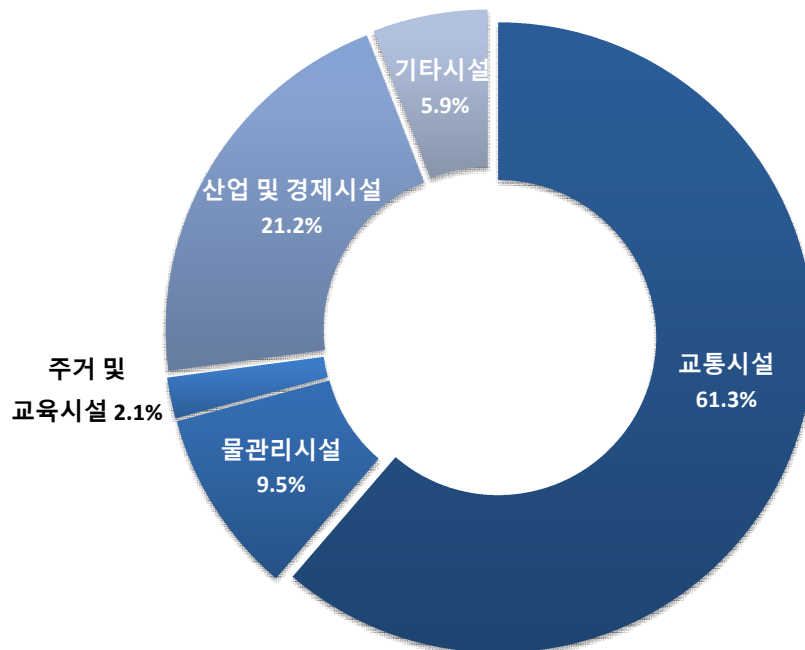


그림 7-3

충북 시설물별
투자규모 비율

3.

총괄 집계

3.

총괄 집계

표 7-32

충북 신규 및
노후 인프라 사업
총괄 집계

시설유형			사업 개수		총 소요예산 (억원) (비율%)	
			시설별	소계	시설별	소계
교통 시설	도로	신규	38	46	63,879	67,931
		노후	8		4,052	(30.0%)
	교량	신규	1	3	257	309
		노후	2		52	(0.1%)
	철도	신규	7	7	70,652	70,652(31.2%)
	공항	신규	1	1	90	90(0.04%)
	소계		57		138,982(61.3%)	
물관리 시설	상수도	신규	12	33	2,470	7,413
		노후	21		4,943	(3.3%)
	하수도	신규	13	30	632	3,780
		노후	17		3,148	(1.7%)
	침수저감	신규	2	13	219	1,446
		노후	11		1,227	(0.6%)
	하천	신규	-	58	-	7,742
		노후	58		7,742	(3.4%)
	댐·수리시설	신규	1	12	81	1,078
		노후	11		997	(0.5%)
소계		146		21,459(9.5%)		
주거 및 교육 시설	도시재생	신규	-	4	-	1,762
		노후	4		1,762	(0.8%)
	교육시설	신규	10	10	2,881	2,881
		노후	-		-	(1.3%)
	소계		14		4,643(2.1%)	
산업 및 경제 시설	산업단지	신규	6	6	47,372	47,372
		노후	-		-	(20.9%)
	전통시장	신규	-	10	-	790
		노후	10		790	(0.3%)
	소계		16		48,162(21.2%)	
기타 시설	문화시설	신규	17	17	5,318	5,318
		노후	-		-	(2.3%)
	체육시설	신규	13	13	8,060	8,060
		노후	-		-	(3.6%)
	소계		30		13,378(5.9%)	
합계			263		226,624(100%)	

주: 교통시설 내 도로 및 철도 등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이 불확실하여 재정여건 및 정책변동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동 가능

1. 재원조달

(1) 국가 재정 지원 확대

- SOC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자가 필수적임.
 - SOC 예산은 2004~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 후 다시 축소되었음. 2013년 이후에는 확대와 축소가 반복적인 상황임.
 - 2015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SOC 예산 규모를 약 4.6% 확대(23.7조 원 → 24.8조 원)한 바 있으나,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SOC 예산 축소 기조를 나타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속유지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대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SOC 재원 확보가 요구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2년 말 폐지 예정이었으나,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2015년 말 3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함⁵²⁾.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대와 함께 교통 SOC 시설 투자에 활용할 수

1.

재원 조달

52) 기획재정부(2012.8), 2012년 세법 개정안, p.123.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광역도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비율의 확대가 필요함.
- 실제 국가의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50%의 보조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2)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①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필요

-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보강·성능개선 등)를 위한 예산 배정 방식 개선이 시급함.
 - 노후인프라 투자를 위한 장기 비용 계획의 근거가 미흡하고, 소요 비용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⁵³⁾.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3조 및 동 시행령 25조 1항에 의하면,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이 운영 및 유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재투자 및 개량에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
 - 재투자 및 개량 투자는 신설 투자 수준에 준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신설 투자 수준에 준하는 국고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관리주체는 소수임.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⁵⁴⁾의 운영 및 유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 재정분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시설물별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종합투자계획이 부재함.
 -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기

53) 예를 들면 '제3차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관련된 투자계획이 없고, 각 공공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임.

54) 지방국도(교량포함), 도시철도 등이 그 사례임.

본계획이 미흡하고, 시설물별(철도, 도로 등)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종합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제탑(Control Tower)이 부재함.

- 영국과 일본 등은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제탑 기능 등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립하고 있음⁵⁵⁾.

②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음.

- 국토부의 도시재생지역 선정과 별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음.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2018~22년까지 1,759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은 과밀부담금 해당 시 귀속분 50%(주택사업특별회계 재충계정)를 통해 조성함.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거점공간 매

55) 영국의 Infrastructure UK 또는 일본의 국토교통성 관장 사회기반시설정비중점계획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입 및 활용, 주민협의회 추진 사업 등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사업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

- 2018년 339억원, 2019년 355억원, 2020년 355억원, 2021년 355억원, 2022년 355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경기도는 2018~22년까지 도시재생특별회계로 4,263.4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특별회계금액 중 사업을 위해서 2,525.2억원을 사용할 예정임.

-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역특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를 통해 조성됨.
-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예정임.
- 사업비로는 2018년 163.5억원, 2019년 451.2억원, 2020년 719.1억원, 2021년 566.0억원, 2022년 625.4억원을 사용할 예정임.

③ 시설물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현재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 안전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특별회계의 마련이 필요함.

- 1차적으로 노후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예산을 시설물안전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항목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 시급성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2차적으로는 노후시설물의 증가에 따라 시설물안전특별회계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및 부산시 등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추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법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2.

제도 개선

- 충북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 비율(40~49%) 이상의 공동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도급을 통한 자발적 기술이전 유도, 중소기업체 수주를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지역가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8-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주요 내용

구분	제도개요	적용대상
지역제한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 100억원 미만 • 국가 : 87억원 미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와 일정비율 이상 공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 15개 시·도 262억원 미만 (울산시, 세종시, 시·군·구 금액제한 없음) ※ 지방계약법 개정(2013.5.22.)으로 시행일(2013.11.23.) 이후 금액제한 없음(15개 시·도) • 국가 : 87억원 미만 - 지자체 : 40~49% - 국가 : 30%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시 취득 점수에 일정 비율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 40~45% 시 12% 가산 ※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된 공사는 적용 제외

자료 : 안전행정부(2013.7),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보도자료

- 건설공사 발주가 대형화됨에 따라 대·중소, 수도권·지방업체 간에 수주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수도권 등 대형업체의 수주 확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의 효율성과 하자책임 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인프라 관리체계 도입

① 서울 및 전남, 부산, 대구의 조례 비교

- 서울시 및 전라남도, 부산시, 대구시에서는 지자체 내 시설의 안전도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서울시는 2016년 7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전라남도에서도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2017년 11월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분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제정 시기	2016.7	2017.11	2017.11	2017.12
적용 대상	「시특법」 2조 1호 시설물 및 간선 이상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 경과 시설물		시특법 2조 1호에 따른 시설물 중 30년이 지난 시설물	시특법 2조 1항 시설물,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와 부속물, 교통안전시설 등, 무인교통 단속용장비 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과 하천복개구조물, 하수도법에 따른 공작물 등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규정	규정	실태조사는 규정, 보고서 작성 미규정	미규정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규정	규정	규정	'종합관리계획'과 유사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규정
성능개선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규정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규정	규정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조항의 목적이 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함임
의회보고	규정	규정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외 시설물에는 보고 규정이 별도로 없음

표 8-2

5개 지역
인프라 관리 관련
조례 비교

2.

제도 개선

- 부산시에서도 2017년 11월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세히 규율하고 있음.

②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제정과 후속 조치 이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실태 파악과 성능개선 연구’ 이후 서울시는 2016년 7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함.
- 서울시는 2017년 1월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등 작성지침서’ 마련 용역을 발주하여 노후기반시설 관리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 조례 5조 1항을 바탕으로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할 계획이며,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지침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14개 시설물별 관리부서 간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성능개선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의·자문을 실시하고 있음. 최종적으로 시설물 종류별 관리 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 등 노후시설물 종합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객관적 지표를 도출할 계획임.
- 서울시는 행정적 조치만으로 끝내지 않고 2017년 노후 인프라 정비 예산을 4,110억원 증액 편성하여 촉진 조례를 뒷받침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17년 6월,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1)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2) 선제적 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며, (3) 종합적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자원 마련 방안과 (4) 협업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함. 이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약 7조 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함.

(1)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30년이 넘는 시설물(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전체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업데이트 할 계획임.
- 보고서를 기반으로 서울시 14개 관리부서 간 협업을 통한 노후기반시설 대상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16. 7.)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음.

(2) 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시설물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활용 예정임.
-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측·분석해 최적의 보수·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 '미래예측모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 있음.
- 2015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동공탐사장비'와 같은 첨단기술을 교량, 터널 등 분야에도 추가로 발굴·활용할 예정임.

(3)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효과적 자원마련

- 서울시는 2017년 2월부터 재정 TFT를 가동하여 2017년 7월까지 중장기 투자계획(2018.~22.)을 마련하였음.
- 초기투입비용은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활용하고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서울시는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22년 동안 약 7조6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약 86%(6조6백9억원)는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상태임.

(4) 협업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시민·전문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효과를 극대화함.
-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유지관리에산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음. 시설물 노후화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

2.

제도 개선

③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라남도는 도 내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⁵⁶⁾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2017년 11월 2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착수함.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무협의회 운영 및 의회 보고 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준용하고 있음.
 -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구조와 내구 성능을 정비하는 것을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작성하고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임. 종합관리계획은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과 투자우선 순위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함.
 - 실태평가 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위원회'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를 추구함.
- 증가하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광역지자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④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제정

- 부산시는 지역 내 노후시설물⁵⁷⁾의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11월 1일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노후시설물에 관한 실태조사,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 수립,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와 유사하나 시장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 것이 특징임.
 - 부산시는 노후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1호 시설물 및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

5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시설물 중 30년이 지난 시설물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은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 및 중·장기 재원 확보방안, 노후시설물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함.

⑤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대구광역시는 2017년 12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 조례는 지역 내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조례는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세세히 규정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⑥ 시사점

- 서울을 비롯하여 전남, 부산, 대구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서울, 전남 및 부산의 조례는 인프라 장수명화를 목적으로 하며, 서울시의 경우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 대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충북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제도 개선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상혁, 이영환 (2013)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 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방향,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토교통부 (2018) 2017년 도로현황조서 (2016.12.31. 기준).
- 국토교통부 (2017)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조서 (2016.12.31. 기준).
- 국토교통부 (2017) 도로보수현황 (2016.12.31. 기준).
- 국토교통부 (20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국회입법조사처 (2017)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 기획재정부 (2012), 2012년 세법 개정안.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각 연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7.01.01.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5.12.31.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
- 박용석 외 (2017)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6) 보육통계, 보건복지통계연보 제62호.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2016) 2016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 시장경영진흥원 (2012), 2012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분석.
- 정영수 (2010) 지역 개발 사례와 경험.
- 조성호 외 (2009)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충청북도청 (2016), 2014~15년 도정백서.
- 최석인 외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 스마트 인프라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철도공사 (2017) 2016 철도통계연보.
- 환경부 (2017) 2015 상수도 통계.
- 환경부 (2016) 2015 하수도 통계.

외국 문헌

- American Road & Transportation Builders Association (2016) Analysi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Y2017 Budget Proposal for Transportation.

Australian Government (2016) Australian Infrastructure Plan.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2016) Key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2014) Trends: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2030.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6)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16-17 Budget related paper No.1.13: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Portfolio.
 Schwab, K. (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World Economic Forum.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 (2018) Silicon Valley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ject.
 UK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Major Infrastructure Tracking Unit,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Investing in American Infrastructure.
 US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6), 2016 Economic Report of President.

신문 기사

엔지니어링테일리, 도로노후화 심각, 일반도로 60% 내구연한 초과, 2017.10.10.
 충북일보, 3주만에 응급복구...완전복구만 남았다, 2017.08.06.
 충북일보, [창간특집] 지난 여름 도내 할퀴 수마(水魔)... 복구는 '현재 진행형', 2018.02.20.

보도자료 및 공공기관 공개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2017.12.14.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 철폐 보도자료, 2013.07.01.
 조정식 (2016)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충청북도 교육청 내부자료, 유초중고 학교별 개교일 (2017.04.01. 기준).
 충청북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 실태 (2018.01.01. 기준).
 충청북도 교육청, 2018.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 (2018.01. 기준).
 충청북도청 및 11개 시·군청,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충청북도청, 2018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청, 2018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청, 2013~17 중기지방재정계획.
 충청북도청, 2016회계연도 결산서.
 충청북도청, 2015회계연도 결산서.
 충청북도청, 충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018.01.01. 기준).
 충청북도청,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현황 (2017.10.31. 기준).
 충청북도청 내부자료, 철도 사업 현황.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관리현황 (2017.10.19. 기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 (<https://bti.kict.re.kr/bti/>).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http://www.rsis.re.kr>).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index.do>).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396/DTL.jsp).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http://innocity.molit.go.kr>).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통계분석 (<http://www.industryland.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아일랜드 개발청 (<https://www.idaireland.com/>).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한국공항공사 청주국제공항 (<https://www.airport.co.kr/cheongju/main.do>).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알리미 (<https://www.alimi.or.kr/home/a/selectOnestopHome.do>).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관리 (<http://rims.ekr.or.kr/index.aspx>).
 KOSIS 국가통계포털, 고용률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실업률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수리시설 및 방조제 현황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시특법분류별현황 하천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하천현황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시특법분류별현황 댐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보급률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소유통계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http://kosis.kr/index/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 현황 및 보급률 (<http://kosis.kr/index/index.do>).
 Chartier-Dalix 홈페이지 (<http://chartier-dalix.com>).

<http://www.bahnprojekt-stuttgart-ulm.de/>

<http://theplan.metro.net/#measurem>

부록 1. 설문지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인프라 시설(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학교, 체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및 투자 방향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개요 [설문 조사지에서는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조사 주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 방식
■ 조사 대행 기관 : ㈜리서치뱅크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유효 응답자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하여 표집] - 조사 기관 : 2018년 2월 22일 - 3월 7일 [2주간]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관련 인식 조사

작성자 개요

성별 ()	1. 남자 2. 여자	나이 ()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거주 지역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인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않다
- ⑤ 전혀 우수하지 않다

1-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성능 수준(품질, 용량, 편의성)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	④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 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지역 경쟁력 향상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밀접하다
- ② 밀접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밀접하지 않다
- ⑤ 전혀 밀접하지 않다

2-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수준이 지역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삶의 질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밀접하다
- ② 밀접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밀접하지 않다
- ⑤ 전혀 밀접하지 않다

3-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수준이 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노후도 및 안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⑥ 매우 안전하다
- ⑦ 안전하다
- ⑧ 보통이다
- ⑨ 안전하지 않다.
- ⑩ 전혀 안전하지 않다.

4-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안전 하지 않다	⑤ 매우 안전 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4-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이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안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전하지 않다
-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3 아래 사회적 재난 유형 중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서의 폭발이나 화재 | ② 교량, 터널의 붕괴 |
| ③ 대형 교통사고 | ④ 해양시설물 사고 |
| ⑤ 환경오염(폐수 유출, 화학물질 유출 등) | ⑥ 기타() |

4-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은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로부터의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안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전하지 않다
-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위협이 되는 자연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지진으로 인한 건물붕괴나 화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 | ② 태풍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
| ③ 홍수 또는 호우로 인한 피해 | ④ 폭설로 인한 피해 |
| ⑤ 가뭄으로 인한 피해 | ⑥ 기타 () |

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현행 투자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지 않다
-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5-1 그렇다면, 귀하는 아래 시설에 대한 향후 투자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등)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정책과 제반 활동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세수 증가를 통한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보
- ②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
- ③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 ④ 시설물 사용료의 인상
- ⑤ 기존 예산 내 인프라 투자의 비중 확대(복지예산 등 다른 항목 예산 비중 축소)

8.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
- ② 필요하다면 지불할 수 있다.
- ③ 시/도 재정과 적절하게 분담된다면 지불할 수 있다.
- ④ 시/도 재정에서 더 크게 부담해야 한다.
- ⑤ 시/도 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충청북도 주요 인프라 사업 요약[신규/노후]

신규 시설물별 주요사업 현황

□ 신규 주요 사업 : 121개 사업, 20조 1,911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교통시설 (47건, 134,878억원)			
	도로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남이~호법) 확장(10,002) • 동서 4축(공주~청주) 신설(8,262) • 동서 5축(오창~증평) 신설(3,934) • 동서 6축(제천~영월) 신설(11,649) • (추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여주~충주) 확장(2,335) • (추가) 괴산~제천 고속도로 신설(15,140) • (추가) 세종~청주권 BRT 도로건설(4,166)
		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충청내륙고속화도로(4공구 잔여 633) •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6, 7공구 잔여 704)
		국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706) •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419)
		지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가흥 지방도확포장공사(760) • 소매~길선 지방도확포장공사(360) • 무성~이목 지방도확포장공사(490) • 음성~신니IC 지방도확포장공사(840) • 맹동~대소 지방도확포장공사(620) • 내송~내곡 지방도확포장공사(181) • 대사~내송 지방도확포장공사(994) • 하시~상괴간 지방도확포장공사(177) • 평산~세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115) • 지동~부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197) • 초정~증평 지방도확포장공사(190) •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공사(50)
		시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군 군도건설사업(163) • 하이패스IC~갈동교차로간 도로개설(80) •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25) •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148) • 삼산~덕암간 도로확포장공사(97)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물관리시설 (28건, 3,40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화~대길간 도로확포장공사(62) • 시목~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54) • 중앙탑가흥(군도11호선) 도로확포장(23) • 살미향산(군도5호선) 도로확포장(30) • 수정~금굴간 군도확포장사업(60) • 월전리 군도확포장공사(40) • 영동군 군도확포장(90) • 궁골~논실간 군도확포장(35) • 영춘면의풍리 군도확포장사업(28) • 의풍리(군도14호선) 도로확포장사업(20)
	교량	가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현천대교가설사업(257)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7,102)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8,216) • 충청권 광역철도(4,107, 전체 13,708) • (추가)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39,000) • (추가) 대전~옥천 복선전철(227) • (추가) 옥천~영동 광역철도(2,000) • (추가)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10,000)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615) • 충주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공급사업(50) • 충주시 지방상수도(급배수관) 시설 확충(53) • 충주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66) • 제천시 급수 신설공사(77) • 보은군 지방상수도 공급사업(33) • 옥천군 상수도보급(59) • 옥천군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142) • 옥천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134) • 음성군 상수도 신규급수공사(51) • 단양군 마을상수도 시설확충(81) • 단양군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109)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시내일원 하수도 긴급공사(22) • 청주시 산성동 성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25) • 청주시 하수처리장확충 (강내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64)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중앙탑가흥하수처리시설증설(6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가정하수처리장증설(2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별묘하수처리장증설(20)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군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설치사업(54) • 옥천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차)(71) • 옥천군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7) • 옥천군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2) • 옥천군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45) • 옥천군 음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142) • 영동군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궁촌,매금)(60)
	침수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150) • 청주시 율량 배수지 신설공사(2단계)(69)
	댐 및 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잔여 130)
주거 및 교육시설 (10건, 2,881억원)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22) • 두촌유치원신설(76) • 동남1초등학교신설(262) • 호암초등학교신설(272) • 대소원2초등학교신설(302) • 솔밭2초등학교신설(600) • 청원2초등학교신설(381) • 오송2초등학교신설(303) •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407) • 부윤2초 학교신설(256)
산업 및 경제시설 (6건, 47,372억원)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1,840) •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대통령 공약사업)(37,704) • 청주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2,321) •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2,690) •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1,700)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1,117)
기타시설 (30건, 13,378억원)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82) • 가경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126) •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1,203) •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1,905) • 가경지구 도서관건립(133) • 서충주 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131) •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450) • 충주 시립미술관 건립(20) •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 (보조)(56)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주사성보박물관 건립 사업(180) • 군립공공도서관 건립(160) • 어린이 생태문학체험관 조성사업(96) • 생태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256) • 문예회관 건립(400) • 복합문화시설 조성(18) • 우탁생가재현및우탁시조 문학관 건립(44) • 감성메모리얼 뮤지엄 조성사업(58)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6,900) • 영운정수장 내 수영장 건립(200) • 가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110) • 내수야구장 조성사업(91) • 오창야구장 조성사업(70) •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55) •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53) •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150) • 증평종합운동장 건립(300) • 단양골프연습장조성사업(이전)(40) • 단양국궁장조성사업(이전)(60) • 상진배드민턴장건립사업(19) • 단양 생태체육공원 내 축구장 건립사업(12)

노후 시설물별 주요사업 현황

□ 노후 주요 사업 : 142개 사업, 2조 4,713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교통시설 (10건, 4,104억원)			
	도로	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1호선 신대리~진암리(700) • 509호선 탑평리~가흥리(176) • 329호선 대사리~내송리(995) • 532호선 하시리~상괴리(177)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45) • 노후 포장도 보수(1,327) • 지방도 유지보수(274) • 비포장도 정비사업(158)
	교량	가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현교 재가설공사(32) • 범암교 재가설공사(22)
물관리시설 (118건, 18,057억원)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004) • 도본청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49) • 청주시 수도시설 정비사업(70) •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보조사업)(55) • 충주시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42) • 제천시 상수도 시설공사 및 개량사업(462) • 제천시 마을상수도 개량(65) • 제천시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교체)(보조)(26) • 보은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보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354) •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보조)(236) • 옥천군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86) • 옥천군 유수율 제고사업(보조)(24) • 영동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121) • 진천군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50) • 괴산군 마을상수도 정비(216) • 괴산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28) • 괴산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309)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군 소규모시설 개선사업(28) • 음성군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27) • 단양군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426) • 단양군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265)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하수관로 개선공사(25) • 청주시 구도심 도심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사업(260) •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575) •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사업(329) • 청주시 하수관로 정비 (내수읍구성리 하수관로정비사업)(5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 (가덕면상대리 하수관로정비사업)(6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 (정봉동~평동 하수관로정비사업)(230) • 청주시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1,029)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금가하수관로정비(25)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엄정하수관로정비(24) • 제천시 하수도 정비사업(185) • 보은군 공공하수도 유지보수(31) • 보은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은하수관거정비)(40) • 보은군 하수관로 정비(9) • 옥천군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조)(76) • 옥천군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154) • 영동군 영동읍(오정,회동,양정,부용) 하수관로정비사업(34)
	침수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분청 배수개선사업(325)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27)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25) • 충주시 양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02) • 옥천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조)(260) • 보은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오덕지구)(150) • 영동군 재해위험지역 정비(각계지구)(보조)(60) • 음성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신천)(160) • 단양군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12) • 단양군 재해위험지구 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84) • 단양군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도비)(22)
	하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109) • 충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30) • 영동군 국가하천 유지보수(56) • 단양군 국가하천 유지관리(8)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정비사업(25건)(3,965)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77)• 증평군 지방하천 유지관리(4)• 제천시 지방하천유지관리(55)• 단양군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11)• 보은군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52)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본청 소하천 정비사업(1,138)•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128)•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64)• 제천시 소하천 정비사업(20)• 보은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27)• 옥천군 소하천 자체정비사업(89)• 옥천군 소하천 정비사업(191)• 영동군 소하천 정비(111)• 영동군 소하천 정비(60)•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오정천)(8)•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수리남이천)(30)•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어서실천)(24)•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 (소계천)(26)• 영동군 소하천 유지관리(25)• 제천시 소하천 유지관리(55)• 제천시 소하천 보수사업(32)• 음성군 소하천 정비사업(285)• 진천군 소하천 정비사업(자체)(92)• 단양군 소하천 관리(17)•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35)•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3)• 보은군 소하천 정비사업(131)• 괴산군 소하천 정비(자체)(106)• 괴산군 밀재 소하천 정비(68)
		댐 및 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댐주변 정비사업(27)• 도본청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386)• 도본청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192)• 청주시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67)• 청주시 소규모수리시설 정비(30)• 옥천군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보조)(111)• 옥천군 봉황보 개보수사업(보조)(36)• 영동군 수리시설 정비사업(107)• 증평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18)• 단양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도비)(13)• 단양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특)(10)
주거 및 교육시설 (4건, 1,762억원)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849)• 청주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661)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168) •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84)
산업 및 경제시설 (10건, 790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208) • 청주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23) • 제천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보조)(54) • 보은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27) • 옥천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95) • 영동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40) • 단양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6) • 도봉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269) • 제천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28) • 보은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20)

부록 3. 세미나 발표자료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충북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 및 정책적 제언

2018. 04. 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광표
(기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공학박사)

Contents

- I. SOC 투자 추이와 전망
- II. 글로벌 인프라 동향
- III.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수요 [설문 조사]
- IV. 충청북도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I. SOC 투자 추이와 전망

1. 국가 SOC 예산 추이
2. 충청북도 SOC 예산 추이
3. SOC 투자의 필요성

I. 충청북도 SOC 예산 변화

1. 국가 SOC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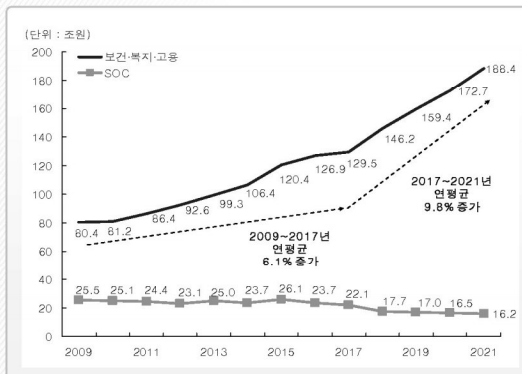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충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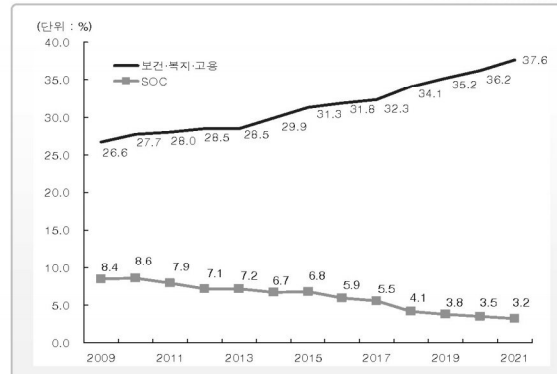
2018 정부예산은 428.8조원으로 전년대비 28.3조원(7.1%) ↑, SOC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 원(-14.2%) ↓

• 2017-21 SOC 예산의 금액과 비중은 감소 전망(2018년 신규사업 예산 383억 원으로 급감) ↔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증가 예상

정부 SOC와 보건·복지·고용 예산 추이 (금액)



정부 SOC와 보건·복지·고용 예산 추이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8.29), 박용석 외, SOC 예산감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10, p.9 재인용

지방자치단체 SOC 예산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5	2016	2017	2018
총계	181'5	138'1	189'5	182'2	188'8	508'8	550'3	534
사회복지	33'8	38	45'1	42'5	48	22'8	22'8	15'1
2009년도 예산	32'2	40'0	31	39'1	32'1	32'5	34'5	34'2

주: 명목, 추정 포함

자료: 지방재정365; 박철한 외, 지역 SOC 예산 분석 및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p.1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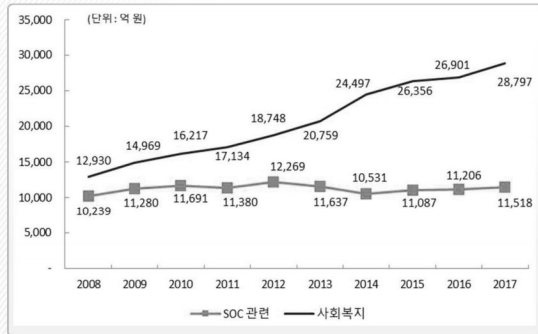
2. 충청북도 SOC예산 추이

2018-22 충북 SOC 관련 예산은 재정계획의 약 7.7%, 사회복지 예산은 34.3% 수준

※ 충북 본청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SOC 관련 예산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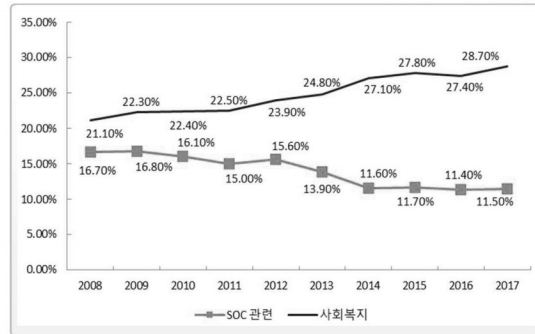
- SOC 관련 세출은 2008년 충북 전체 예산 대비 16.7%에서 2017년 11.5%로 감소세 (금액적으로는 연평균 1.5% 증가)
- 사회복지 세출은 2008년 충북 전체 예산 대비 21.1%에서 2017년 28.7%로 증가세 (금액적으로는 연평균 9.5% 증가)

충북 SOC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추이(금액)



자료: 지방재정365

충북 SOC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추이(비중)



충북 예산 계획대비 집행 • '13~'15 SOC 관련 예산의 계획대비 집행을 연평균 약 9.2% 감소 (사회복지 집행을 연평균 약 7.4% 증가)

연도	2013	2014	2015	2016
SOC 예산	88.8%	88.5%	89.2%	100%
사회복지	95.1%	88.5%	81.0%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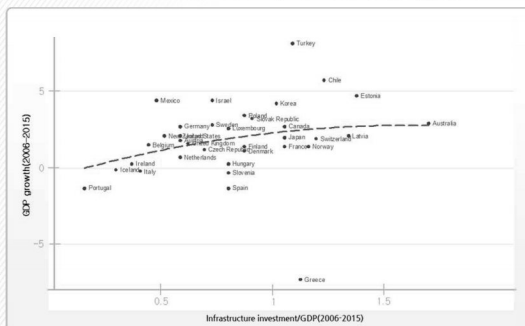
자료: 충청북도 본청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16 회계연도 결산서

3. SOC 투자의 필요성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영향력이 높은 분야

-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인프라 투자 ↑, 경제성장률 ↑ (+상관관계, 0.2)
- SOC 예산 축소 시 소득격차 더욱 벌어져 지역균형발전에 저해 (지역별 1인당 GRDP 표준편차로 추정)
- SOC 예산 1조원 감소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시 연평균 약 2만 여 개 일자리 감소 (건설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

SOC 투자와 경제 성장 : SOC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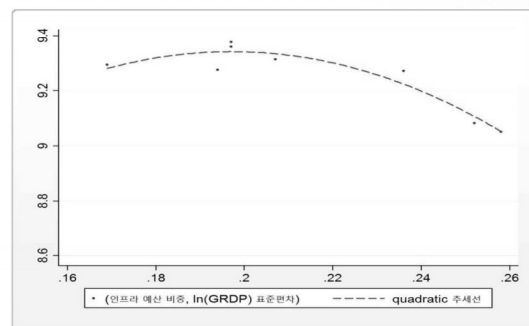


자료: statOECD database(2006~2015)

주1: 각 상관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주2: 경제성장률, GDP 대비 투자 비중은 OECD 35개국 2006~2015년 동안의 10년 평균치임

SOC 투자와 지역균형발전 : SOC 투자 비중과 지역격차(인당 GRDP)



주1: 2001~2015년 16개 지역별 패널 데이터(panel data) 자료를 이용한 결과임

주2: 가로축은 인프라 예산 비중이며, 세로축은 ln(1인당 GRDP)의 표준편차임

SOC 투자와 일자리 창출 : SOC 투자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

연도	2016	2017	2018	2019	하계연도	하계연도
인프라 투자(억)	50,200	49,104	48,500	48,150	48,085	50,850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II. 글로벌 인프라 동향

1.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2. 주요국 인프라 정책 동향

II.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

1. 글로벌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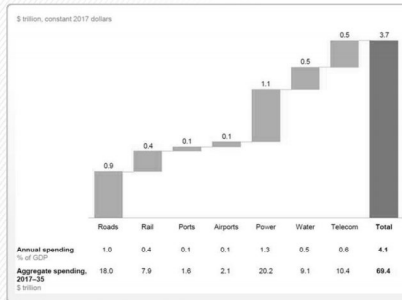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충북연구원

2035년까지 세계 목표성장률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7조 인프라 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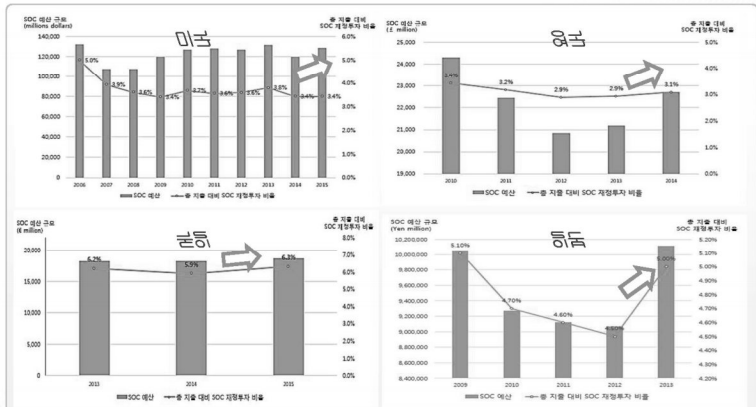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인프라 투자 확대

연평균 필요 인프라 투자 금액(2017-2035)



자료: MGI(2017), Bridging Global Infrastructure Gaps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투자 동향



아시아 국가 인프라 투자 성장률

구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프라 투자 성장률 (%)	15.0	11.0	10.3	8.1	8.0	4.3
GDP 성장률 (%)	7.0	7.0	5.4	5.1	5.3	5.0

자료: PwC(2017) "Understanding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in ASEAN", Oxford Economics, World Bank data

2. 주요국 인프라 정책 동향 [미국]

미국 뉴욕, 테러 등에 대한 대비 강화, 기반 시설 성능 개선 및 우선 순위별 투자 계획

- 자연재해에 취약, 안전 여유도 부족 → 성능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여유도 향상, 주기적인 실태 파악 및 프로젝트 발굴(보고서)

미국 뉴욕주 인프라 시설 실태

- 도로 불량(23%)
- 교량 구조적 결함 (2,078 개소, 11.9%)
- 자연재해/인재/시설노후화 등 문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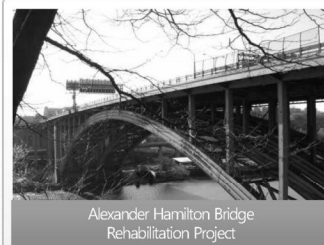


자료 : ASCE,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http://www.infrastructurereportcard.org/a/#/p/state-facts/new-york>

미국 뉴욕주 주요 사업 사례 (교량)

- 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
- 안전성 향상 및 성능 제고

자료 1 : Press Release, July 28, 2014, Governor Cuomo Announces Completion of Alexander Hamilton Bridge Rehabilitation
자료 2 : <http://ascelibrary.org/doi/abs/10.1061/40558%282001%2941> ; <http://www.nyroads.com/crossings/macombs-dam/> ; http://brennertc.com/wp-content/uploads/2010/09/0909001_NYC-OMB_AFS_Macombs-Bridge.pdf



- 노후화 교량 보수보강 : 안전 향상 및 성능 제고
- 노후화 교량의 구조적 결함문제 해결



- 노후 필수 교통망으로 분류된 교량 : 내진 성능 보강 사업 수행
- 미 북동부 최초, 지진재해도 기반 내진 설계

2. 주요국 인프라 정책 동향 [일본]

일본 동경, 국가와 도시가 연계된 정책과 제도 정비, 정량적 정책 목표 제시

- 국토강인화 기본계획(2013), 국가 차원의 인프라장수명 기본계획(2013),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03, 3차 계획시행) 등

일본 동경 도시 인프라 안전 위협 요소

- 도심 침수, 지진으로 인한 인프라 안전도 위협
- 50년 이상 노후 인프라 시설물 급증 시기 도래



자료 : 수관리 국토보전국 내부 자료

일본 동경 주요 정책 및 사업 사례 (물관리)

- 방수로 및 지하조절지 사업
- 침수 피해 저감



- 나카가와(中川)와 아사세가와(綾瀬川) 지역의 침수피해가 실제 크게 경감
- 가옥의 침수피해를 약 80% 경감



- 홍수 저류 효과로 침수 피해는 격감
→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35 차례에 걸쳐 조절지 가동

자료 : 빈발하는 홍수 및 토사 재해에 대한 대응 설명 자료, 일본 수관리 국토보전국

2. 주요국 인프라 정책 동향 [싱가포르]

싱가포르, 시설 안전 관리 체계 엄격,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성능 개선에 주요한 관심

- 도시 인프라 안전 제고, 인구 증가 대비 인프라 시설 공급량 확대 및 성능 개선, 인프라 고품질화(도로 확장 등) 추구

싱가포르의 도시 인프라 안전 위협 요소

- 국가 인프라 경쟁력 최상위 수준
- 증가될 인구 대비 인프라 시설 확충
- 홍수 피해가 빈발(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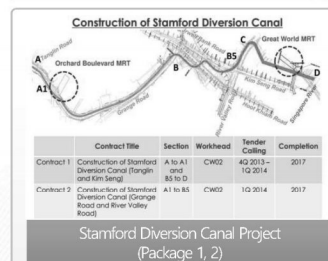
자료 : Public Utilities Board, "Managing Storm-water For Our Future", March 2014



싱가포르 주요 정책 및 사업 사례

- 우수처리시설 신설 사업
- 학교시설 성능 개선 사업
- 강우관리 및 교육시설 현대화

자료 : Public Utilities Board Tender Documents,
<http://www.pub.gov.sg/tenders/Documents/17th%20SWIN%20-%20on%2022%20Nov%2013%20%28Construction%20of%20Stamford%20Diverison%20Canal%20%29.pdf>



- 기존 Stamford Canal 우수 처리량의 3분의 1을 우회 처리
- 복잡한 도심지 공사인 관계로 터널 시공



- 싱가포르 학교시설 다수가 20-30년 경과한 상태
- 1997년 이전에 건설된 시설은 최신 기준에 따라 학교 시설의 개축 또는 개선 사업을 추진

10

III.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수요 [설문]

- | | |
|--------------|--------------|
| 1. 설문 개요 | 5. 산업 및 경제시설 |
| 2. 교통시설 | 6. 기타 시설 |
| 3. 물관리시설 | 7. 시사점 |
| 4. 주거 및 교육시설 | |

1. 설문 개요

충청북도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 대한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

설문조사 주요 개요

주요 주요 주요	• 충청북도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수준 조사	• 509명(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하여 표집)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2018년 02월 22일 ~ 2018년 03월 09일(2주간)	• 온·오프라인 패널 활용한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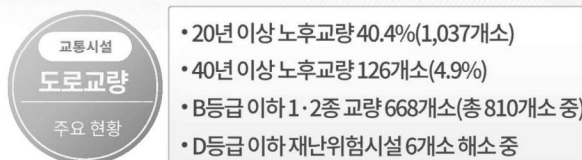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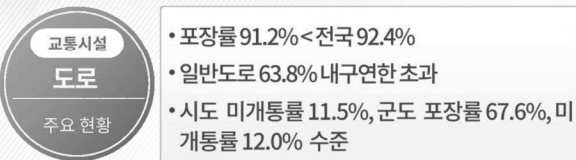
설문 대상물



응답자 개요



2. 교통시설 [도로 및 교량]



도로 설문 주요 내용



도로교량 설문 주요 내용



도로 이슈사항

노후 및 위험 도로 보수 및 정비
시도 및 군도 포장률, 미개통률 개선

도로교량 이슈사항

노후교량 성능 개선
B등급 이하, 재난위험시설 교량 보수 및 보강

2. 교통시설 [철도 및 공항]



- 총 5개 노선 통과로 지역간 연결 부족
- 20년 경과 노후교량 28개소(29.8%)
- 40년 경과 노후교량 13개소(13.8%)
- B등급 이하 1·2종 교량 89개소(94.7%)



-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위상을 갖기에는 다소 미약
- 공항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 교통망 부족
- 현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공약을 제시

철도 설문 주요 내용



공항 설문 주요 내용(우리지역 해당 없음 30% 수준)



철도 이슈사항

수도권 연계, 충남 지역 연계(천안 등), 철도 고속화, 공항연계 노선에 대한 요구

공항 이슈사항

연계교통망 확충 필요(천안-청주공항역 복선전철 사업 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활주로 확대, 계류장 건설

3. 물관리시설 [상·하수도]



- 충북 급수보급률 97.9% < 전국 98.8%
- 유수율 83.8% (전국 84.3%), 누수율 11.8%(전국 10.9%)
- 20년 이상 노후관로 2,301km(26.2%), 경년관 연장 1,546km (17.6%)
- B등급 이하 12종 시설물 39개소



- 충북 하수도 설치율은 72% < 전국 74.25%, 괴산군 21.8%, 음성군 26.9%, 보은군 36.2% 순
- 20년 이상 노후관로 1,582km(27%), 10년 후 3,232km (55.1%)로 급증 예정
- 20년 이상 하수처리시설 9개소, B등급 시설물 27개소

상수도 설문 주요 내용



하수도 설문 주요 내용



상수도 이슈사항

유수율 증진 및 누수율 감소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

하수도 이슈사항

하수도설치율 증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시설물 보수·보강

3. 물관리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댐/저수지]



- 국가 및 지방하천 미개수구간 814.1km(개수율 60.3%), 진천군 49.5%, 충주시 58.8% 순
- 20년 이상 하천 관련 노후 시설물 68개소(191개소, 35.6%)
- B등급 이하 시설물은 135개소



- 1·2종 댐 중 20년 이상 노후 댐 31개소(83.7%), 40년 이상 경과 댐 12개소(35.3%)
- B등급 이하 댐 35개소(94.6%)
- 20년 이상 저수지 167개소(90.8%), 40년 이상 저수지 129개소(70.1%)

재해방지시설 설문 주요 내용



하천 등 재해방지시설 이슈사항

하천 개수율 증진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

댐 및 저수지 설문 주요 내용



댐 및 저수지 이슈사항

댐 시설물 보수 및 보강
다목적 저수지 설치

16

4. 주거 및 교육시설



- 주택소유율은 56.9% 수준
-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 116,847호(20.5%), 2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 50.7%
- 단독주택 45.3%(93,797호), 연립주택 40.7%(6,512호) 순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총 837개
- 2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674개소(81%), 40년 이상 노후 시설 390개소(46.6%)
- 총 238개소 폐교 중 미활용 폐교 37개소

주거시설 설문 주요 내용



주거시설 이슈사항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활성화
임대주택 및 실버주택 등 공급

교육시설 설문 주요 내용



교육시설 이슈사항

폐교증가에 따른 신증설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

17

5. 산업 및 경제시설



- 산업단지 총 122개소(완료 87)
- 20년 이상 노후 단지는 37개소(완료 42.5%)
- 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산업단지 33개소



-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이 총 78개소
- 시장경영진흥원(2012), D등급(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수준) 시장 10개소
- 20년 이상 노후 전통시장 및 상점이 74개소 (94.9%)

산업단지 설문 주요 내용



전통시장 설문 주요 내용



산업단지 이슈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단지 재생

전통시장 이슈사항

주차장 환경 개선 등 노후 전통시장 현대화

18

6. 기타시설



- 충북 문화시설은 9개 도 중 제주, 강원, 전남, 전북 다음(총 126개소, 인구 백만 명당은 78.58개소)
- 충북 내 총 8개소 미술관 중 청주시 7개소가 위치, 타 시군은 이용에 어려움
- 20년 이상 노후 시설 56개소(44.4%), 10년 경과 시 노후 문화시설 98개소(77.8%)로 급증
- 충북 내 인구 백만 명당 체육시설 공급은 1050.3개소로 9개 도 중 강원 다음
- 간이체육시설 제외 공공체육시설 중 20년 이상 체육시설 총 38개소(13.2%)

산업단지 설문 주요 내용



문화/복지/체육시설 이슈사항

문화/복지/체육시설의 추가 공급(건립 등 신설)
노후 시설물 위험 개선(보수 및 보강), 성능 개선, 증설 등

19

7. 시사점

충북 내 인프라 시설물은 중요도에 비해 성능 수준 ↓, 노후도↑, 안전 수준 ↓

01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 교육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복지/체육시설(3.98), 도로(3.94), 주거시설(3.91), 재해방지시설(3.82), 상수도(3.81), 하수도(3.78) 시설 순
- 댐 및 저수지에 대한 중요도 3.33으로 낮게 평가됨.

02

시설물별 성능수준

- 상수도 성능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3.31로 가장 높았음.
- 재해방지시설(2.68), 철도(2.79), 문화/복지/체육시설(2.79), 산업시설(2.96)의 성능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조사됨.

03

노후도 및 안전도

- 교육시설(3.29), 공항(3.26), 상수도(3.26)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됨.
- 재해방지시설의 경우 2.96으로 주요 시설물 중 가장 낮게 평가됨.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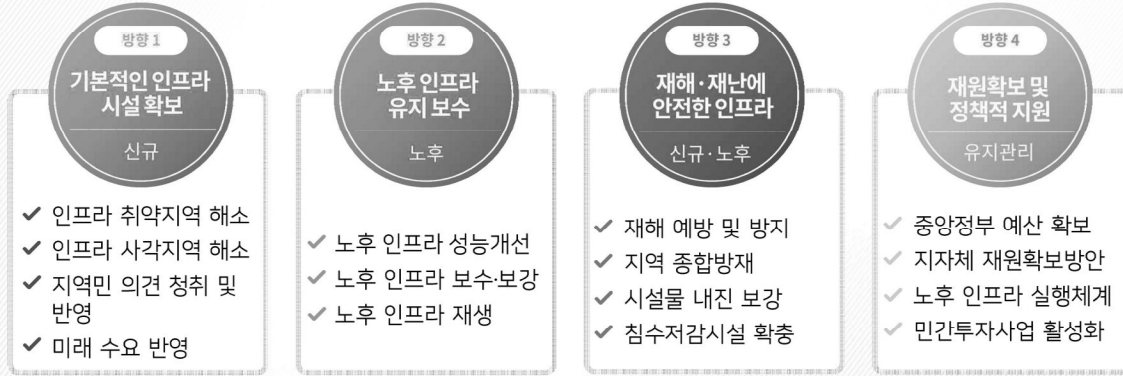
IV. 충청북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1. 충북 인프라 투자 방향
2. 충북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3. 총괄 집계

1. 충북 인프라 투자 방향

충청북도 인프라 경쟁력, 안전도, 지역 경제 등을 향상

충청북도 인프라 기본방향



충청북도 인프라 프로젝트 주요 방향

인프라 공급 사업

인프라 성능 개선 사업

노후 인프라 대비 사업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55

2. 충북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교통시설 - 도로]

충청북도 도로 관련 주요 사업 약 46건 수행 또는 계획 중, 사업비 약 6.8조 원 수준

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4→6차로 확장, 현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 기재부 타재 중
- 동서 4축 고속도로(공주~청주) 신설, 예비타당성 반영 협의 중
- 동서 5축 고속도로(오창~증평) 신설, 예비타당성 반영 요청 계획
- 동서 6축 고속도로(제천~영월) 신설, 예비타당성 반영 요청 계획
-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충주) 4→6차로 확장, 예비타당성 대상 제출
- 괴산~제천 고속도로 신설, 사전 타당성 검토 시행(2017.12.)
- 세종~청주권 BRT 도로 건설(확장), 중장기 사업으로 분류

국도 및 국지도



- 제1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간별 착공,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중
-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간별 공사 중/보완설계 중
- 삼촌~황간 국가지방지원도 건설
- 제천~평창 국가지방지원도 건설

지방도 및 시군도

- 주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 약 12건 신규 계획
- 지방도 정비 사업(신대리~진암리, 탑평리~가흥리, 대사리~내송리, 하사리~상괴리 등)
- 주요 시군도 확포장 사업, 약 15건 신규 계획
- 노후 포장도 보수, 비포장도 정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등

59

2. 충북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교통시설 - 철도 및 교량]

충청북도 철도 관련 주요 사업 약 7건 수행 또는 계획 중, 사업비 약 7.1조 원 수준

교량 관련 주요 사업 약 3건 309억 원 수준, 향후 노후 및 위험 교량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필요

철도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1·2단계(충주~제천)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계룡~신탄진), 대전~옥천 연장사업, 2단계 (신탄진~조치원)사업
-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 사업
-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사업

교량



충청북도 교량 관련 사업 주요 내용

- 단양 하현천대교 가설 사업
- 복현교 및 범암교 재가설 사업
- 노후 및 위험 교량 교체 사업
 - ✓ 위험 교량 개선
 - ✓ 침수 시 부유물 피해 감소

54

2. 충북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물관리시설]

충청북도 상수도 관련 주요 사업 약 33건 계획 중, 사업비 약 7,413억 원 수준

하수도 관련 주요 사업 약 30건 계획 중, 사업비 약 3,780억 원 수준

상수도



충청북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 상수도 신규급수 사업
- 취수장 및 정수장 증설 사업



충청북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정비 사업
-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 사업
- 마을 상수도 개량 및 정비 등

하수도



충청북도 공공하수처리시설

- 소규모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사업
 - ✓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등



충청북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 하수관로 정비 및 개선 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

55

2. 충북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물관리시설]

충청북도 침수저감 관련 주요 사업 약 13건 계획 중, 사업비 약 1,446억 원 수준
 댐 및 수리시설 관련 주요 사업 약 12건 계획 중, 사업비 약 1,078억 원 수준
 하천 관련 주요 사업 약 58건 계획 중, 사업비 약 7,742억 원 수준

침수저감



충청북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배수지 신설 사업



충청북도 배수시설 개선

-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 배수개선사업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개선 사업

댐 및 수리시설 (저수지포함)



충청북도 소규모 저수지

-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 ✓ 독동조동가평저수지
-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 보 개보수

하천



충청북도 하천 정비

-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58

2. 충북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주거·교육시설/산업·경제시설]

충청북도 교육시설 관련 주요 사업은 약 10건 계획 중, 사업비 약 2,881억 원 수준
 주거 및 도시재생 관련 뉴딜사업 4건 계획 중, 사업비 약 1,762억 원 수준
 산업단지 관련 주요 사업은 약 6건 수행 및 계획 중, 사업비 약 4.7조 원 수준
 전통시장 관련 주요 사업은 약 10건 계획 중, 사업비 약 790억 원 수준

교육시설(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시설 신증설

- 어린이집 건립
- 유치원 신설
- 초등학교 신설
- 고등학교 이전

주거 및 도시재생



충청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 청주시 2건
- ✓ 충주시 1건
- ✓ 제천시 1건

산업단지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 청주 북이산업단지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 충주 북부산업단지
-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전통시장



충청북도 전통시장 현대화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59

2. 충북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기타시설]

충청북도 문화시설 관련 주요 사업은 약 17건 계획 중, 사업비 약 5,318억 원 수준

체육시설 관련 주요 사업은 약 13건 수행 및 계획 중, 사업비 약 8,060억 원 수준

문화시설



충청북도 청주전시장 사업

- 청주전시장, 해양과학관 등 건립
-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 진천 문예회관 건립
- 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
- 박물관, 문화복합센터 등 건립

체육시설



충청북도 체육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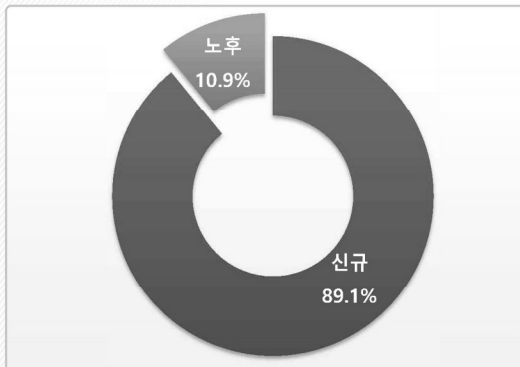
- 청주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실내 체육관 건립
- 야구장 조성
- 수영장 건립 등

59

3. 총괄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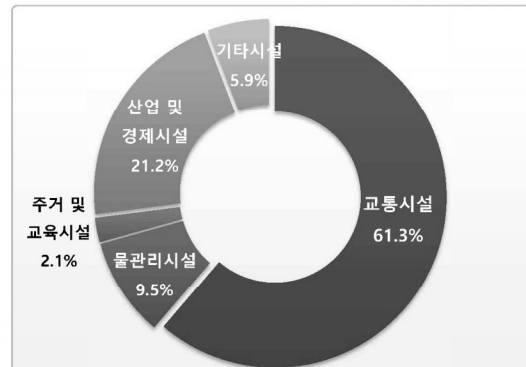
충청북도 주요 프로젝트는 총 263개 사업, 22조 6,624억 원 수준으로 집계

신규 사업과 노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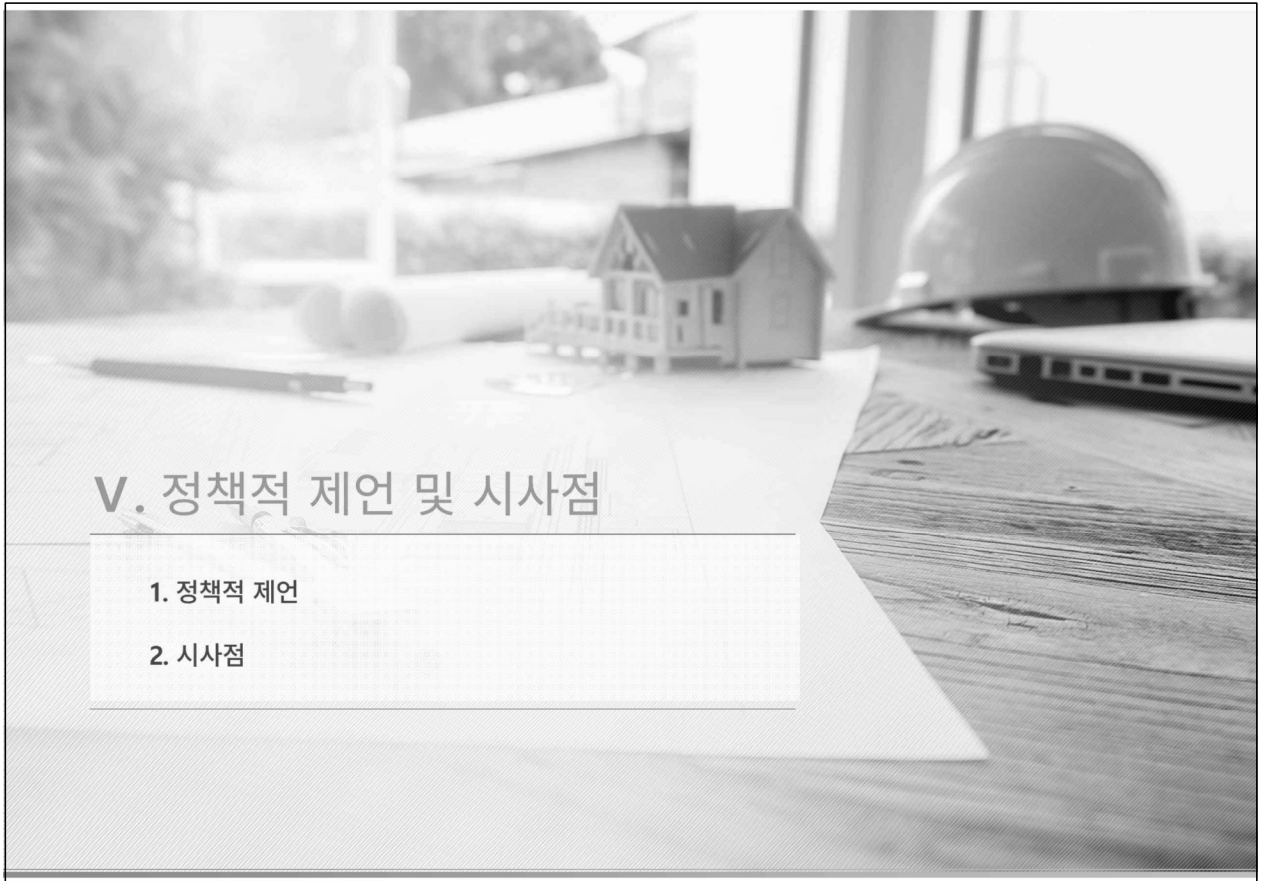
- 신규 사업 121개, 20조 1,911억 원
-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142개 사업, 2조 4,713억 원

시설군별 집계



- 교통시설 57개, 13조 8,982억 원(61.3%)
- 물관리시설 146개, 2조 1,459억 원(9.5%)
- 주거 및 교육시설 14개, 4,643억 원(2.1%)
- 산업 및 경제시설 16개, 4조 8,162억 원(21.2%)
- (문화 및 체육 관련)기타시설 30개, 1조 3,378억 원(5.9%)

59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1. 정책적 제언

2. 시사점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1. 정책적 제언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충북연구원

01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0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 노력 필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한 노력 지속 추진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 검토 필요

03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 필요

- 현행 특정 사업 기반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대단위 프로그램 사업 위주의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
- SOC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재개발(Rehabilitation)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

1. 정책적 제언

04

인프라 투자대상 발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리 조직 확보

- 충청북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인프라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 필요

05

노후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필요(서울, 부산, 대구, 전남 기 제정)

06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참여를 유도하는 보호 육성 정책 운영 필요
-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 필요 (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

35

2. 시사점

01

체계적 인프라 투자 정책의 수립과 시행

-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와 투자계획을 명확히 수립·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해 유지·보수 사업의 예산계획을 정확히 수립할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 확보 노력

02

충청북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 계획 상의 사업이 적정 시기에 수행될 수 있는 예산 계획 필요
-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 공급 우선시하고 인구 고령화 및 지역경제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도 반드시 고려

03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 지역내총생산(GRDP) 내 건설업의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
- 토목 및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건설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 노력 지속

39

감사합니다 !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pyright © 2017 by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CERI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 without the permiss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or CERIK.